

EBS*i*

이미 너는
최고야 😊

EBS*i*

수능완성
국어영역 국어

EB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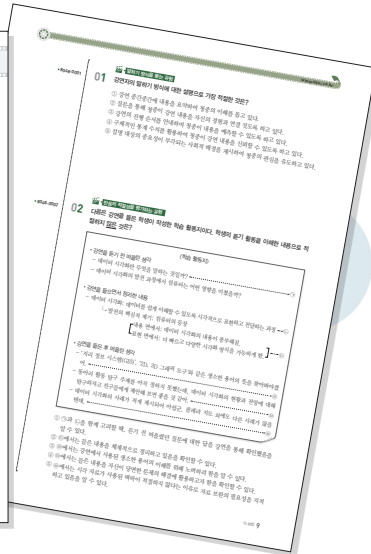
이 책의 구성과 특징 유형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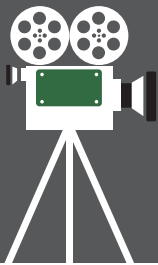
수능완성 <유형편>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을 대비하여 수험생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아 두어야 할 출제 유형을 화법, 작문, 문법, 독서, 문학 영역별로 구분하였습니다. 각 영역별로 정리된 유형별 문항을 풀어보는 과정에서 스스로 취약한 문제 유형이 무엇인지 쉽게 파악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자세한 유형 설명과 정답 해설로 보다 정확한 유형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유형 연습

유형 연습은 화법, 작문, 문법, 독서, 문학 영역을 독립된 장으로 구성한 코너입니다. 꼭 알아야 하는 영역별 필수 유형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실전과 유사한 문항 풀이를 통해 본인의 유형 이해 정도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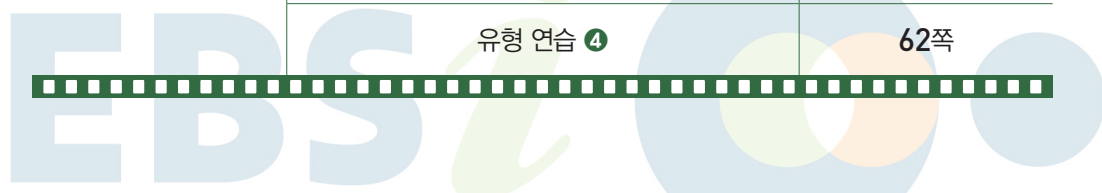




이 책의 차례
유형편



01 화법	유형 연습 ①	8쪽
	유형 연습 ②	12쪽
	유형 연습 ③	17쪽
	유형 연습 ④	22쪽
02 작문	유형 연습 ①	26쪽
	유형 연습 ②	32쪽
	유형 연습 ③	36쪽
	유형 연습 ④	42쪽
03 문법	유형 연습 ①	48쪽
	유형 연습 ②	53쪽
	유형 연습 ③	56쪽
	유형 연습 ④	62쪽





04 독서	유형 연습 ①	66쪽
	유형 연습 ②	74쪽
	유형 연습 ③	82쪽
	유형 연습 ④	90쪽
05 문학	유형 연습 ①	98쪽
	유형 연습 ②	105쪽
	유형 연습 ③	111쪽
	유형 연습 ④	116쪽
	유형 연습 ⑤	12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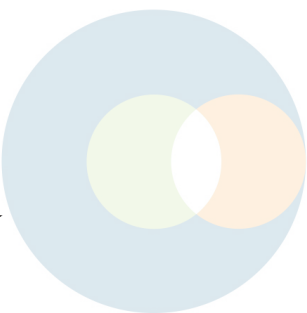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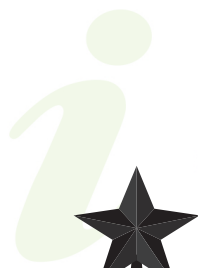




EBS*i* 



EBS



EBS 수능완성 국어영역 국어

유형편

EBS

01 화법

02 작문

03 문법

EBS

04 독서

05 문학



*** 유형 연습 ① ***

[01~02] 다음은 강연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매 순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이터의 양으로 인해, 현대 디지털 시대의 학습자들은 데이터 자체를 분석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우선 수많은 데이터의 개괄적 의미를 재빠르게 파악한 후 자신에게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판별해 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터를 생산하는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제공하는 데이터의 차별성을 강조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 바로 데이터 시각화입니다.

데이터 시각화란 데이터 분석 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전달하는 과정을 말하는데, 그 목적은 시각화된 자료를 통해 데이터, 즉 정보를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데이터 시각화의 특징은 ‘시각’을 이용하여 효율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같은 시간이 주어질 때 인간의 오감 중 가장 많은 정보를 흡수하는 것이 바로 시각입니다. 사람은 거의 반사적으로 시각화된 정보를 이해하므로, 탐구와 이해에 필요한 자료가 시각화되면 될수록 그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시각화된 데이터는 언어의 장벽을 극복하고 어디든 전달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반응도가 극대화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데이터가 드물고 컴퓨터도 없던 시절의 데이터 시각화는 주로 연필, 컴퍼스, 잉크 등을 사용하여 그림이나 지도와 같은 배경에 방향성 정보를 대입하는 방식으로 구현되었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화면을 잠깐 보시지요. 이것은 데이터 시각화의 고전으로 불리는 존 스노의 콜레라 지도입니다. 1854년 런던에서 대규모 콜레라가 발병했을 때 그는 지도 위에 콜레라가 발병한 집을 표시하고 이들 집의 위치와 특정 상수도 공급자의 펌프가 위치한 장소가 겹친다는 점을 발견함으로써 콜레라 전염의 원인이 물이라는 자신의 의견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통계학이 발전하면서 숫자 패턴의 이해를 돕는 꺾은선, 막대, 히스토그램과 같은 차트 표현 방식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시각화가 발전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계기는 컴퓨터의 등장이었습니다. 컴퓨터의 등장으로 데이터의 생성과 축적, 활용이 활발해지면서 데이터 시각화의 내용이 풍부해질 수 있었지요. 또한 표현 측면에서도 컴퓨터를 활용한 지리 정보 시스템(GIS), 2D, 3D 그래픽 도구를 통해 사람들이 더 빠르고 다양한 시각화 방식을 시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데이터 시각화 분야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보다 인간의 탐구 정신과 소통 의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콜레라 지도는 당시 시급하게 해결해야 했던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탄생했습니다. 또한 시각화 이전에는 정확히 파악하고 공감하기 어려웠던 내용을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훌륭한다고 손꼽히는 시각화 사례는 물가, 임금, 질병, 불평등, 범죄 등 세상이 반드시 정확히 알아야 하는 민감한 문제를 다룬 경우에서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데이터 시각화는 수많은 데이터가 난무하는 현실에서 우리가 자칫 간과할 수도 있는 문제에 집중하고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 주는 핵심적인 수단인 셈입니다.



▶ 8048-0001

말하기 방식을 묻는 유형

01 강연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강연 중간중간에 내용을 요약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② 질문을 통해 청중이 강연 내용을 자신의 경험과 연결 짓도록 하고 있다.
- ③ 강연의 진행 순서를 안내하여 청중이 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④ 구체적인 통계 수치를 활용하여 청중이 강연 내용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⑤ 설명 대상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사회적 배경을 제시하여 청중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 8048-0002

반응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유형

02 다음은 강연을 들은 학생이 작성한 학습 활동지이다. 학생의 듣기 활동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습 활동지〉

- 강연을 듣기 전 떠올린 생각
 - 데이터 시각화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
 - 데이터 시각화의 발전 과정에서 컴퓨터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 강연을 들으면서 정리한 내용
 - 데이터 시각화: 데이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전달하는 과정 ... ㉡
 - ↳ 발전의 핵심적 계기: 컴퓨터의 등장
 - ↳ 내용 면에서: 데이터 시각화의 내용이 풍부해짐.
 - ↳ 표현 면에서: 더 빠르고 다양한 시각화 방식을 가능하게 함. ㉢
- 강연을 들은 후 떠올린 생각
 - '지리 정보 시스템(GIS)', '2D, 3D 그래픽 도구'와 같은 생소한 용어의 뜻을 찾아봐야겠어. ㉣
 - 동아리 활동 탐구 주제를 아직 정하지 못했는데, 데이터 시각화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탐구하자고 친구들에게 제안해 보면 좋을 것 같아. ㉤
 - 데이터 시각화의 사례가 적게 제시되어 아쉽군. 콜레라 지도 외에도 다른 사례가 많을 텐데. ㉥

- ① ㉠과 ㉡을 함께 고려할 때, 듣기 전 떠올렸던 질문에 대한 답을 강연을 통해 확인했음을 알 수 있다.
- ② ㉢에서는 들은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에서는 강연에서 사용된 생소한 용어의 이해를 위해 노력하려 함을 알 수 있다.
- ④ ㉤에서는 들은 내용을 자신이 당면한 문제의 해결에 활용하고자 함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에서는 시각 자료가 사용된 맥락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자료 보완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답은꼐 발문 Tip

- [A]에 드러난 말하기 방식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문화재 해설사의 말하기 방식과 내용을 평가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A]~[E]에 나타난 교수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말하기 방식을 묻는 유형

01 강연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강연 중간중간에 내용을 요약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② 질문을 통해 청중이 강연 내용을 자신의 경험과 연결 짓도록 하고 있다.
- ③ 강연의 진행 순서를 안내하여 청중이 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④ 구체적인 통계 수치를 활용하여 청중이 강연 내용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⑤ 설명 대상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사회적 배경을 제시하여 청중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유형 이해

화법의 유형 중 강연에서 강연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이해를 평가하기 위한 문제이다. 강연자는 청중과의 상호 작용을 중시하므로, 청중을 분석하여 그에 맞게 강연을 구상한다.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며 그때그때 적절한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강연의 진행 순서를 안내하거나 내용을 요약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다양한 매체 자료를 활용하여 강연 내용에 신뢰성을 더하기도 한다. 따라서 강연자의 강연 내용에 나타난 다양한 요소를 확인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유형 공략

- ① 해당하는 화법 유형의 특징을 파악한다.
- ② 말하기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다.
- ③ 말하기 방식과 관련된 화법의 특징을 이해한다.

정답 풀이

⑤ 강연의 초반부(1문단)에서 증가하는 데이터의 양으로 인해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데이터 중요도를 판별하는 것이 필요해졌고, 전달하는 입장에서도 데이터의 차별성을 부각하는 것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데이터 시각화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했다. 이는 청중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강연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인 ‘데이터 시각화’의 중요성이 두드러지게 된 사회적 배경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이 강연은 ‘데이터 시각화의 중요성이 부각된 배경 - 데이터 시각화의 개념과 특징 - 데이터 시각화의 발전 과정 - 데이터 시각화의 발전 이유’의 순서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강연 중간중간에 내용을 따로 요약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지는 않다.
- ② 4문단에서 강연자가 질문을 하고 있지만, 이는 해당 부분의 화제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지 청중의 경험과의 관련성을 드러내고자 한 것은 아니다.
- ③ 강연자가 강연의 진행 순서를 안내하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 ④ 강연자는 시각 자료를 제시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지만, 이 시각 자료는 데이터 시각화의 고전적 사례일 뿐 통계 수치를 나타낸 것은 아니다.



답은곧 발문 Tip

- 다음은 발표를 들은 학생이 '정선의 산수화'에 대해 소개하는 글을 쓰기 위해 작성한 메모이다. 발표 내용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는 위 발표를 들으며 청중인 학생들이 떠올린 생각이다. ㉠~㉣에서 확인할 수 있는 듣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는 위 발표를 들으며 학생들이 한 생각이다. <보기>에 드러난 학생들의 듣기 전략을 파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반응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유형

02 다음은 강연을 들은 학생이 작성한 학습 활동지이다. 학생의 듣기 활동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습 활동지〉

- 강연을 듣기 전 떠올린 생각
 - 데이터 시각화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
 - 데이터 시각화의 발전 과정에서 컴퓨터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 강연을 들으면서 정리한 내용
 - 데이터 시각화: 데이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전달하는 과정 ... ㉡
 - ↳ 발전의 핵심적 계기: 컴퓨터의 등장
 - 〔내용 면에서: 데이터 시각화의 내용이 풍부해졌.〕..... ㉢
 - 〔표현 면에서: 더 빠르고 다양한 시각화 방식을 가능하게 함.〕..... ㉣
- 강연을 들은 후 떠올린 생각
 - '지리 정보 시스템(GIS)', '2D, 3D 그래픽 도구'와 같은 생소한 용어의 뜻을 찾아봐야겠어. ㉤
 - 동아리 활동 탐구 주제를 아직 정하지 못했는데, 데이터 시각화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탐구하자고 친구들에게 제안해 보면 좋을 것 같아. ㉥
 - 데이터 시각화의 사례가 적게 제시되어 아쉽군. 콜레라 지도 외에도 다른 사례가 많은 텐데. ㉦

- ① ㉠과 ㉡을 함께 고려할 때, 듣기 전 떠올렸던 질문에 대한 답을 강연을 통해 확인했음을 알 수 있다.
- ② ㉢에서는 들은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에서는 강연에서 사용된 생소한 용어의 이해를 위해 노력하려 함을 알 수 있다.
- ④ ㉤에서는 들은 내용을 자신이 당면한 문제의 해결에 활용하고자 함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에서는 시각 자료가 사용된 맥락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자료 보완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형 이해

강연과 같은 담화 상황에서 듣기 전후에 나타날 수 있는 청중 반응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문제이다. 청중은 강연을 듣기 전 궁금했던 점을 떠올리거나 강연의 내용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강연을 듣는 과정에서는 내용을 정리하면서 주요 개념을 파악하고 궁금했던 점을 확인하기도 한다. 또한 강연을 들은 후에는 새로이 습득한 정보를 자신의 실생활에 활용할 방안을 찾기도 하고 자신이 들은 내용을 보완하기도 한다. 이 문항에서는 이처럼 청중이 듣기 전, 중, 후에 보일 수 있는 반응이 적절한지를 강연의 내용과 비교, 대조해 보아야 한다.

유형 공략

- ① 강연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청중이 듣기 전, 중, 후에 보인 반응을 살핀다.
- ② 강연 내용과 청중의 반응을 꼼꼼하게 비교, 대조해 본다.

정답 풀이

⑤ 강연자는 데이터 시각화의 사례로 콜레라 지도 한 가지만을 제시했으며, 학생은 ㉥에서 이에 대한 아쉬움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에서 시각 자료가 사용된 맥락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자료 보완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학생은 '데이터 시각화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던진 후(㉠) 이에 대한 답인 데이터 시각화의 중심 개념을 강연을 통해 확인하여 정리하고 있다(㉡).
- ② 강연자는 데이터 시각화의 발전에 컴퓨터의 등장 미친 영향을 내용과 표현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설명했으며, 학생 역시 컴퓨터의 등장으로 인해 데이터 시각화의 발전이 이루어진 양상을 내용과 표현 면으로 나누어 정리하고 있다.
- ③ ㉣을 통해 강연에서 사용된 생소한 용어를 이해하기 위해 그 뜻을 찾아보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에서 강연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동아리 활동의 탐구 주제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형 연습 ②

[01~03] 다음은 토론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최근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께서는 마음이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지하철을 운영하는 측에서 수천억 원에 이르는 적자의 원인으로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를 지목하고 있는 데다가, 출퇴근길 지하철 혼잡과 요금 인상의 원인을 노인들에게 돌리는 사회 분위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40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는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심지어 폐지하자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라는 논제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 입론해 주십시오.

찬성 1: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서울 지하철의 경제적 손실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형별 무임승차 비율에서 장애인과 국가 유공자의 비율이 각각 20%, 1.5%인 데 비해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78.5%에 이른다는 최근 조사 결과를 보면, 지하철의 경제적 손실의 이유는 명확해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지 오래이고,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제도가 지속된다면 이는 결국 젊은 세대의 부담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사회자: 이번에는 반대 측에서 반대 신문 해 주십시오.

반대 2: 유형별 무임승차 비율에서 노인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지적하셨지만, 전체 유임 승차 인원과 비교해 볼 때 무임승차 인원은 10분의 1 수준입니다. 이들이 지하철을 이용한다고 해서 운영 비용이 그만큼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무임승차 인원으로 인해 운영 비용이 얼마 [A]나 더 들게 되는지를 제대로 가늠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적 손실의 원인을 노인 무임승차 제도에만 돌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찬성 1: 반대 측의 의견도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의 시행 초기에는 혜택을 받는 국민이 전체 인구 비율 중 4%에 불과했으나, 이제 2025년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무임승차로 인한 추가 운영 비용이 부담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사회자: 이번에는 반대 측에서 입론해 주십시오.

반대 1: 저는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합니다.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의 사회 경제적 편익이 한 해 2,270억 원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노인의 이동권 확대가 자살 및 우울증 예방과 의료비 절감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그 근거입니다. 또한 인터넷 등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에게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직접 이동을 통해 소일거리를 찾거나 경제 활동을 하게 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부근 지하철역의 경우 이용자의 30%가 65세 이상의 노인이었다는 통계 자료에서, 이 제도로 인한 관광 산업 활성화의 효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이번에는 찬성 측에서 반대 신문 해 주십시오.

찬성 1: 지하철역 이용자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과 관광 산업 활성화를 연결 짓는 것은 논리적 [B] 비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광 산업 활성화가 특정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으로 인해 가능해진 [B]다는 것도 바람직한 효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대 1: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제도가 폐지될 경우 예상되는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 및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는 특정인에게만 주어지는 공짜 혜택이 아니라, 일정 시기가 되면 누구나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교통 복지 제도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8048-0003

토론의 적절성과 전략을 평가하는 유형

01 위 토론의 입론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찬성 1’은 경제적 측면에 집중하여 현행 제도의 부정적 영향을 부각하고 있다.
- ② ‘찬성 1’은 현행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예상되는 기대 효과를 중심으로 주장하고 있다.
- ③ ‘반대 1’은 현행 제도의 장점을 부각하며 이를 확대 시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 ④ ‘찬성 1’과 ‘반대 1’은 모두 논제와 관련된 문제 해결의 시급함을 부각하고 있다.
- ⑤ ‘반대 1’은 ‘찬성 1’이 언급한 현행 제도의 한계를 일부 인정하고 있다.

▶ 8048-0004

토론의 적절성과 전략을 평가하는 유형

02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는 상대측의 전망을 반박하면서, 전문가의 주장을 근거로 들고 있다.
- ② [A]에서는 상대측이 인용한 조사 방식이 적절한지를 따지면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 ③ [B]에서는 상대측이 제시한 사례의 적합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추가 사례를 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
- ④ [B]에서는 상대측 발언 내용의 일부를 언급하면서, 통계 자료와 해석 결과 사이의 논리적 인과 관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⑤ [A]와 [B]에서는 모두 상대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통계 자료가 믿을 만한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출처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8048-0005

반응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유형

03 <보기>는 위 토론에 청중으로 참여했던 학생이 쓴 후기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노인 무임승차 제도와 관련된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하철 이용자로서 자연스럽게 이에 대해 호기심이 생겨 토론에도 청중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지하철 운영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도 일리는 있어 보인다. 하지만 제도의 폐지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피해도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주변의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는 제도가 폐지될 경우 지하철 이용이 부담스러워질 것 같다며 걱정하신다. 이런 분들의 부담을 덜어 드리는 것이 복지 아닐까? ㉣궁금해서 자료를 찾아보니, 무임승차 제도로 인한 손실을 국가에서 보전하는 방법도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국가 주도적인 복지 정책이므로 이로 인한 손실을 지하철 공사나 지방 자치 단체에서 떠안는 것보다는 국가에서 어느 정도 보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제도의 존폐 자체를 논하기에 앞서 다양한 측면에서 제3의 방안을 검토해 보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 ① ㉠: 개인적 경험과 관련지어 논제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 ② ㉡: ‘찬성 1’이 제시한 의견에 일부 공감하면서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 ③ ㉢: ‘반대 1’의 주장에 부합하는 주변의 반응을 소개하고 있다.
- ④ ㉣: 토론 이후 논제와 관련된 자료를 추가적으로 탐색하는 과정을 거쳤음을 알 수 있다.
- ⑤ ㉤: ‘찬성 1’과 ‘반대 1’이 공통으로 주장하는 내용으로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답은꼴 발문 Tip

- 위 토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위 토론의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토론의 적절성과 전략을 평가하는 유형

01 위 토론의 입론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찬성 1’은 경제적 측면에 집중하여 현행 제도의 부정적 영향을 부각하고 있다.
- ② ‘찬성 1’은 현행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예상되는 기대 효과를 중심으로 주장하고 있다.
- ③ ‘반대 1’은 현행 제도의 장점을 부각하며 이를 확대 시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 ④ ‘찬성 1’과 ‘반대 1’은 모두 논제와 관련된 문제 해결의 시급함을 부각하고 있다.
- ⑤ ‘반대 1’은 ‘찬성 1’이 언급한 현행 제도의 한계를 일부 인정하고 있다.

유형 이해

반대 신문식 토론에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각 입론을 적절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토론에서 토론자는 입론, 반대 신문, 반박 등 단계별 특성에 맞게 발언해야 한다. 입론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제시하고, 반대 신문에서는 상대의 논리적 오류를 지적하며, 반박에서는 상대의 주요 논리를 반박하며 자신의 우위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유형 공략

- ① 반대 신문식 토론의 단계별 특성을 이해한다.
- ② 제시된 토론의 내용 흐름을 파악한다.
- ③ 찬성 측과 반대 측 입론의 특징을 이해한다.

정답 풀이

① ‘찬성 1’은 입론을 통해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경제적 손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의 이유로 들고 이를 통계 자료로 뒷받침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② ‘찬성 1’은 입론에서 현행 제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언급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의 폐지로 예상되는 기대 효과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③ ‘반대 1’은 입론에서 현행 제도의 장점을 부각하고 있지만, 제도의 확대 시행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④ ‘찬성 1’은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지 오래이며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들어 문제 해결의 시급함을 부각하고 있지만, ‘반대 1’의 입론에서는 문제 해결의 시급함을 부각하는 내용을 찾을 수 없다.
- ⑤ ‘반대 1’은 현행 제도의 긍정적 영향을 들어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제도의 유지를 주장하고 있을 뿐, ‘찬성 1’이 말한 내용을 언급하거나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





답은곧 발문 Tip

- 토론 참여자들 중 '찬성 2'와 '반대 2'의 공통적인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 [A]에 나타난 '참민'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토론 참여자의 말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02 토론의 적절성과 전략을 평가하는 유형

02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는 상대측의 전망을 반박하면서, 전문가의 주장을 근거로 들고 있다.
- ② [A]에서는 상대측이 인용한 조사 방식이 적절한지를 따지면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 ③ [B]에서는 상대측이 제시한 사례의 적합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추가 사례를 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
- ④ [B]에서는 상대측 발언 내용의 일부를 언급하면서, 통계 자료와 해석 결과 사이의 논리적 인과 관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⑤ [A]와 [B]에서는 모두 상대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통계 자료가 믿을 만한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출처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유형 이해

토론 참여자의 말하기 방식과 관련하여 그 역할과 태도를 묻는 문제이다. 토론자의 역할은 자신의 주장을 조리 있고 분명하게 말하며, 상대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면서 자신의 주장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데 있다. 이와 더불어 토론 참여자가 이러한 역할 수행을 위해 동원하고 있는 말하기 방식의 특징을 토론의 특성과 관련지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유형 공략

- ① 토론자의 역할과 관련된 기본 지식을 숙지한다.
- ② 제시된 토론자의 역할을 파악한다.
- ③ 토론 참여자가 자신의 역할 수행을 위해 동원한 전략을 정확히 이해한다.

정답 풀이

④ [B]에서는 '반대 1'의 입론 내용 중 일부를 언급하면서, 이를 '논리적 비약'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A]에서는 지하철의 경제적 손실의 원인을 노인 무임승차 제도에만 돌릴 수는 없다고 하면서 상대측의 주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상대측의 전망을 반박하면서 그 근거로 전문가의 주장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 ② [A]에서는 상대측이 인용한 조사 결과를 상이한 시각에서 해석하면서 찬성 측 논리를 반박하고 있다. 조사 방식의 적절성에 대한 언급은 찾을 수 없다.
- ③ [B]에서는 상대측 주장의 논리적 비약을 언급하고 있을 뿐, 추가 사례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 ⑤ [A]와 [B]에서는 모두 상대측이 사용한 통계 자료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A]에서는 통계 자료의 결과를 다른 측면에서 해석하고 있고, [B]에서는 근거로서의 통계 자료와 주장 간의 관계가 비약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A]와 [B] 모두 통계 자료의 출처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짧은골 발문 Tip

- 다음은 어떤 학생이 토론 내용에 대해 평가한 것이다.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는 위에 제시된 대담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다. 이 대화를 고려할 때 ㉠과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는 발표를 들은 학생이 ㉣를 들으며 떠올린 생각이다. 이 학생이 ㉣를 이해하기 위해 사용한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반응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유형

03 <보기>는 위 토론에 청중으로 참여했던 학생이 쓴 후기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노인 무임승차 제도와 관련된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하철 이용자로서 자연스럽게 이에 대해 호기심이 생겨 토론에도 청중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 지하철 운영에 따른 경제적 손실의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도 일리는 있어 보인다. 하지만 제도의 폐지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피해도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 주변의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는 제도가 폐지될 경우 지하철 이용이 부담스러워질 것 같다며 걱정하신다. 이런 분들의 부담을 덜어 드리는 것이 복지 아닐까? ㉣ 궁금해서 자료를 찾아보니, 무임승차 제도로 인한 손실을 국가에서 보전하는 방법도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국가 주도적인 복지 정책이므로 이로 인한 손실을 지하철 공사나 지방 자치 단체에서 떠안는 것보다는 국가에서 어느 정도 보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 제도의 존폐 자체를 논하기에 앞서 다양한 측면에서 제3의 방안을 검토해 보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 ① ㉠: 개인적 경험과 관련지어 논제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 ② ㉡: '찬성 1'이 제시한 의견에 일부 공감하면서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 ③ ㉢: '반대 1'의 주장에 부합하는 주변의 반응을 소개하고 있다.
- ④ ㉣: 토론 이후 논제와 관련된 자료를 추가적으로 탐색하는 과정을 거쳤음을 알 수 있다.
- ⑤ ㉤: '찬성 1'과 '반대 1'이 공통으로 주장하는 내용으로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유형 이해

토론에서 청중 반응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문제이다. 토론이나 토의와 같이 문제 해결과 관련된 담화를 듣는 청중은 담화의 주제를 자신의 현실과 관련짓기도 하고, 동조하거나 그렇지 않은 이유를 나름의 근거와 함께 설명하기도 한다. 제시된 토론과 청중의 반응을 관련지어 청중의 반응과 그 이유 사이의 연결이 적절한 것을 고를 수 있어야 한다.

유형 공략

- ① 제시된 토론의 내용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한다.
- ② 청중의 반응과 그 이유를 이해한다.
- ③ 토론의 내용과 청중의 반응을 연결 지어 비교하고, 공통점 및 차이점, 이유를 이해한다.

정답 풀이

⑤ '찬성 1'은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할 것을, '반대 1'은 이 제도를 유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에서는 제도의 존폐를 논하기에 앞서 제3의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찬성 1'과 '반대 1'이 공통으로 주장하는 내용으로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 ① 자신도 지하철 이용자로서 논제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 ② '이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도 일리는 있어 보인다.'라며 '찬성 1'의 의견에 대한 공감을 표현하고 있다.
- ③ 노인 무임승차 제도 폐지를 걱정하는 주변의 반응을 소개하고 있다.
- ④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노인 무임승차 제도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는 제3의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 유형 연습 ③ ***

[01~03] 다음은 협상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주민 측 대표: 귀 업체의 골프장 확장 공사로 인한 우리 마을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민 측에서는 귀 업체와의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업체 측 대표: 공사로 인해 주민 여러분께서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를 미처 고려하지 못하고 공사를 진행하게 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협상을 통해 공사 과정에서 저희가 노력해야 할 점을 파악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주민 측 대표: 공사가 상당 기간 진행되면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와 탁류가 마을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위협하고 있고요, 공사 차량이 현장을 드나들면서 생기는 먼지로 인해 주민들이 호흡 곤란까지 호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마을 주민 대부분은 관광객을 상대로 장사를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공사 사실이 알려지면서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따라서 공사를 당장 중단하고 원상태로 복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업체 측 대표: 하지만 확장 공사 후 주민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사 후 골프장 이용객이 늘어나 이들이 마을 주변의 관광지를 돌아보게 되면 주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측면에서라도 저희는 공사를 계획대로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 측 대표: 공사를 당장 중단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공사로 인한 피해 감소를 위해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토사가 쌓여서 학생들의 통행을 어렵게 만들지 않도록 토사를 자주 치워 주십시오. 탁류로 인해 오염된 식수원을 대체할 방안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공사 차량은 마을을 가로지르지 않고 둘러서 공사 현장으로 드나들도록 해서 분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 주십시오. 또한 확장 공사로 인해 줄어든 관광객을 다시 유인할 만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확장 공사로 인해 축소되거나 사라지는 등산로 구간 대신 다른 등산로를 새로이 만드는 데 도움을 주십시오.

업체 측 대표: 공사로 인한 토사, 탁류, 분진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등산로 추가와 관련된 것은 저희 업체의 힘만으로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방 자치 단체와도 협의가 필요한 문제이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이번 협상에 앞서 알아본 바에 따르면, 확장 공사로 인해 주거지와 골프장과의 거리가 더욱 가까워지는 주민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예상되는 소음과 위험 때문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확장 공사를 하면서 마을 인접 구역에는 방음벽과 그물 설치를 강화해서 걱정하실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측 대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저희도 확장 공사를 무조건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된 사항에 대해 세부적으로 논의할 기회를 조만간에 가질 수 있으면 좋겠네요.

업체 측 대표: 동의합니다. 저희도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실질적인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 8048-0006

협상의 내용을 파악하는 유형

01 다음 설명 중, 위 협상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 ① 협상의 쟁점은 협상 과정에서 변경 혹은 재구성되기도 한다.
- ② 협상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③ 협상 타결을 위해서는 당사자들 간의 경쟁보다는 협력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 ④ 협상이 이루어지려면 협상을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갈등 상황이 존재해야 한다.
- ⑤ 협상 참여자는 상대방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중시하여 자신의 이익을 유보하기도 한다.

▶ 8048-0007

협상의 적절성과 전략을 평가하는 유형

02 주민 측 대표(A)와 업체 측 대표(B)의 협상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문제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상대방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 ② A는 상황 해결을 위한 대안을 항목별로 구체화하여 상대방에게 요구하고 있다.
- ③ B는 당면한 상황과 유사한 사례를 들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하고 있다.
- ④ B는 상대방의 입장에 공감을 표명하면서 문제 상황에 대해 A와는 다른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B는 상대방의 요구 수용에는 제3자와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특정 사안에 대한 확답을 보류하고 있다.

▶ 8048-0008

협상의 내용을 파악하는 유형

03 <보기>를 바탕으로 위 협상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협상의 단계

㉠ 시작 단계

기본 입장 확인
 - 문제 상황 공유
 - 협상의 목표 설정

㉡ 조정 단계

상호 간의 입장 차이를 좁힘.
 - 참여자들의 입장 표명
 - 구체적인 제안이나 제안 검토

㉢ 해결 단계

합의 도출
 - 제시된 대안들의 재구성
 - 합의 결과 수용

- ① ㉠에서 주민 측 대표와 업체 측 대표는 골프장 확장 공사로 인한 피해가 문제 상황임을 공유하고 있다.
- ② ㉡에서 업체 측 대표는 확장 공사가 마을 주민들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하며 자신의 기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③ ㉡에서 주민 측 대표는 업체 측에서 제시한 대안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다른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 ④ ㉡에서 업체 측 대표는 주민 측 대표가 요구한 내용의 일부만을 수용하면서 주민 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제시하고 있다.
- ⑤ ㉢에서 주민 측 대표는 합의 사항의 이행을 전제로 합의 결과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언급하고 있다.



답은꼐 발문 Tip

- <보기>를 참고할 때 위 협상에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 제시된 담화 상황에 대한 탐구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다음의 협상 절차에 따라 위 협상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협상의 내용을 파악하는 유형

01 다음 설명 중, 위 협상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 ① 협상의 쟁점은 협상 과정에서 변경 혹은 재구성되기도 한다.
- ② 협상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③ 협상 타결을 위해서는 당사자들 간의 경쟁보다는 협력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 ④ 협상이 이루어지려면 협상을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갈등 상황이 존재해야 한다.
- ⑤ 협상 참여자는 상대방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중시하여 자신의 이익을 유보하기도 한다.

유형 이해

협상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담화에 반영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협상의 성립을 위해서는 협상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갈등 상황과 이익을 추구하는 협상 참여자들이 있어야 한다. 또한 참여자 간의 입장 차 검토 및 상호 반박, 상대방의 이익과 공동의 이익 탐색 등과 같은 협상의 방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함을 알고 이와 같은 유형에 대비하도록 한다.

유형 공략

- ① 협상의 성립 요건과 유형, 단계 등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이해한다.
- ② 제시된 협상의 내용을 파악한다.
- ③ 협상에 대한 기본 지식과 제시된 협상을 비교하여 협상의 특징이 반영되었는지를 파악한다.

정답 풀이

① 이 협상의 쟁점은 ‘골프장 확장 공사의 지속 여부’로, 이러한 쟁점하에 협상이 진행되어 ‘피해 대책 마련을 전제로 하는 공사 진행’이라는 양측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 협상에서는 협상의 쟁점이 변경되거나 재구성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풀이

- ② 업체 측 대표의 세 번째 발언에서 ‘저희가 이번 협상에 앞서 알아본 바에 따르면’이라는 언급을 통해 업체 측이 협상에 대해 사전 준비를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협상 타결을 위해서는 협상 참여자들이 일시적 갈등 상황을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하는 협력자 관계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민 측 대표와 업체 측 대표 간의 협상 타결은 이러한 관계 인식을 전제로 한 결과로 볼 수 있다.
- ④ 주민 측 대표와 업체 측 대표는 ‘골프장 확장 공사의 지속 여부’를 놓고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 ⑤ 업체 측 대표의 최우선적 이익은 골프장 확장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며, 주민 측 대표의 최우선적 이익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공사를 중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민 측 대표는 공사를 당장 중단해 달라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조건부로 공사 진행을 허락했으며, 업체 측 대표 역시 주민 측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이들은 양보를 통해 서로의 이익을 조금씩 유보하면서 상대방과의 우호적 관계하에 협상을 타결하려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짧은골 발문 Tip

- [A]~[E]에 나타난 대담 참여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여학생이 활용한 협상 전략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협상 참여자들의 말하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협상의 적절성과 전략을 평가하는 유형

02 주민 측 대표(A)와 업체 측 대표(B)의 협상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문제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상대방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 ② A는 상황 해결을 위한 대안을 항목별로 구체화하여 상대방에게 요구하고 있다.
- ③ B는 당면한 상황과 유사한 사례를 들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하고 있다.
- ④ B는 상대방의 입장에 공감을 표명하면서 문제 상황에 대해 A와는 다른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B는 상대방의 요구 수용에는 제3자와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특정 사안에 대한 확답을 보류하고 있다.

유형 이해

협상에서 참여자들의 말하기 전략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 유형이다. 협상에서 참여자들은 각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다양한 말하기 전략을 활용한다.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에서는 협상 참여자들의 말하기 내용과 전략을 꼼꼼히 분석하고 이에 나타난 협상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유형 공략

- ① 협상의 유형상 특징과 단계별 목적을 이해한다.
- ② 협상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다.
- ③ 말하기 방식과 관련된 협상 화법의 특징을 이해한다.

정답 풀이

③ B는 공사를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제로 하면서 자신들이 노력할 점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해결 방안으로 가능한 대안을 탐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당면한 상황과 유사한 사례를 들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 ① A는 첫 번째 발언과 두 번째 발언에서 공사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수준임을 강조하면서 공사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 ② A는 세 번째 발언에서 상대방에게 요구할 ‘공사로 인한 피해 감소 대책’을 ‘토사’, ‘탁류’, ‘분진’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관광객을 다시 유인할 만한 대책’으로 등산로 추가를 요구하고 있다.
- ④ B는 첫 번째 발언을 통해 공사로 인한 피해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음을 표명한 후 두 번째 발언에서 확장 공사가 꼭 피해로만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B는 A가 요구한 ‘등산로 추가 대안’이 지방 자치 단체와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유로 확답을 보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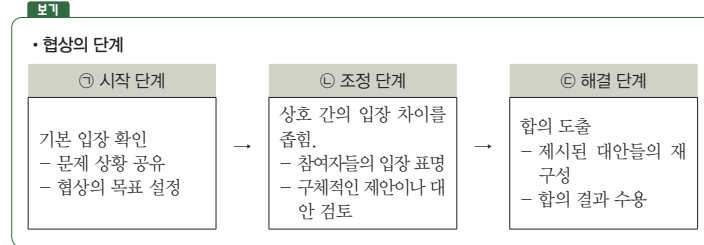


답은곧 발문 Tip

- 다음을 참고하여 위 협상에서 ㉠~㉢에 해당하는 것을 연결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협상의 절차에 따라 양측이 사용한 협상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위 협상의 각 단계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협상의 내용을 파악하는 유형

03 <보기>를 바탕으로 위 협상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 주민 측 대표와 업체 측 대표는 골프장 확장 공사로 인한 피해가 문제 상황임을 공유하고 있다.
- ② ㉡에서 업체 측 대표는 확장 공사가 마을 주민들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하며 자신의 기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③ ㉢에서 주민 측 대표는 업체 측에서 제시한 대안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다른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 ④ ㉡에서 업체 측 대표는 주민 측 대표가 요구한 내용의 일부만을 수용하면서 주민 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제시하고 있다.
- ⑤ ㉢에서 주민 측 대표는 합의 사항의 이행을 전제로 합의 결과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언급하고 있다.

유형 이해

협상의 절차를 이해하고 그 과정에 따른 참여자들의 발화 내용을 평가하는 문제 유형이다. 협상은 시작 단계, 조정 단계, 해결 단계로 구성되는데, 각 단계에서 나타난 협상 당사자들의 발화 내용을 바탕으로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시된 협상의 내용을 단계별로 구분하고 각각의 단계에서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양상을 파악해야 한다.

유형 공략

- ① 협상의 단계와 각 단계의 특징을 숙지한다.
- ② 협상의 내용을 파악한다.
- ③ 협상의 각 단계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내용들과 실제 협상 내용을 비교하여 평가한다.

정답 풀이

③ 이 협상은 주민 측 대표와 업체 측 대표의 첫 번째 발언들로 이루어진 시작 단계, 두 번째와 세 번째 발언들로 이루어진 조정 단계, 마지막 발언들로 이루어진 해결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조정 단계에서 주민 측 대표는 공사 중단이 불가능하다는 업체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요구 사항을 제시했으며, 업체 측 대표는 주민 측 대표의 요구 사항 중 등산로 추가는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실현이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주민 측 대표와 업체 측 대표의 각 첫 번째 발언에서 이들이 골프장 확장 공사로 인한 마을 주민들의 피해를 문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업체 측 대표는 두 번째 발언을 통해 확장 공사 후 골프장 이용객의 증가가 마을 주민들의 이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들어 공사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④ 업체 측 대표는 세 번째 발언을 통해 공사로 인한 토사, 탁류, 분진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등산로 추가와 관련된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면서, 대신 소음 문제 예방을 위한 방음벽과 그물 설치 강화와 같이 주민 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추가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 ⑤ 주민 측 대표는 마지막 발언을 통해 합의 사항이 이행된다면 확장 공사를 무조건 반대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유형 연습 4

[01~02] 다음은 학교 신문 기사 작성을 위한 인터뷰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학생: 안녕하세요. ㉠최근 우리 학교에 새로 생긴 학생자치법정 동아리에 대한 친구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동아리 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인터뷰 내용은 신설 동아리를 소개하는 학교 신문 특집 기사에 활용하려고 합니다.

부장: 안녕하세요. 우리 동아리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생: 아직 학생자치법정 활동을 생소해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이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장: 우리 학교에서는 상벌점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단 지각이나 교복 변형과 같은 경우 벌점이 부과되는데, 이렇게 받은 벌점이 20점을 초과하면 교내 봉사나 학생자치법정 회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요.

우리 동아리에서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학생자치법정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명단을 받습니다. 목요일에 검사부 학생들과 변호사부 학생들이 미리 접견하고, 금요일에 법정이 열립니다. 학생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판결을 내리는 배심원제로 진행되고 있고요.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호응이 대단합니다. 아직 초기라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 같은데도 지난달에는 벌점이 초과된 모든 학생이 교내 봉사 대신 학생자치법정을 선택했을 정도입니다.

학생: 그렇군요. 그런데 같은 학생의 입장에서 친구들의 벌점을 조정하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과의 공정함에 대한 이의 제기도 예상되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장: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학교의 학생자치법정은 배심원제로 진행됩니다. ㉢배심원제란, 간단히 설명하자면 임의로 선출된 배심원들이 사건을 심사·검토하여 평결을 내리는 재판 제도를 말하는데,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이 이런 형태의 제도라 할 수 있죠. 우리 법정에서는 앞선 재판에 회부되었던 학생들이 다음 법정의 배심원으로 참여합니다. 이는 두 가지 면에서 효과적입니다. 우선 피고인은 자신과 유사한 경험을 한 친구들로 구성된 배심원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또한 한번 재판에 회부되고 다음 법정에서 배심원 역할을 맡게 된 친구들은 다시 벌점을 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 학교생활을 돌아보고 개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생: 그렇군요. ㉣자치법정을 경험해 본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활동의 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는 말씀이지요? 동아리 활동의 보람과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부장: 친구들이 재판 이후에 마음을 바로잡고, 좀 더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뿌듯한 기분이 듭니다. 아직은 시행 초기라 어려움도 많고 착오도 많이 겪고 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학교의 학생자치법정 동아리끼리 모여서 연합 동아리를 만들고 활동의 폭을 넓혀 갈 생각입니다.

학생: 네 그렇군요. ㉤학생자치법정을 통해 많은 학생이 자발적으로 학교생활 태도의 개선에 힘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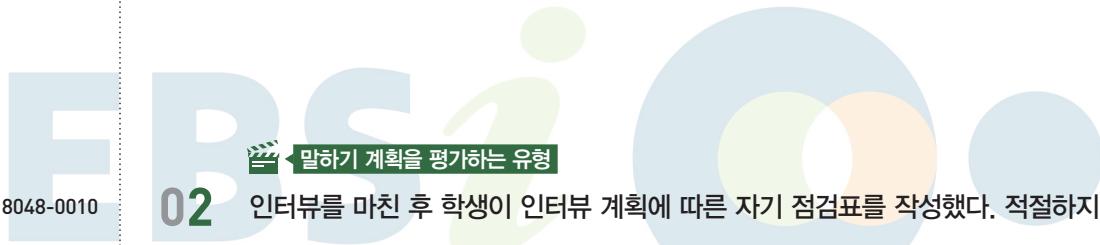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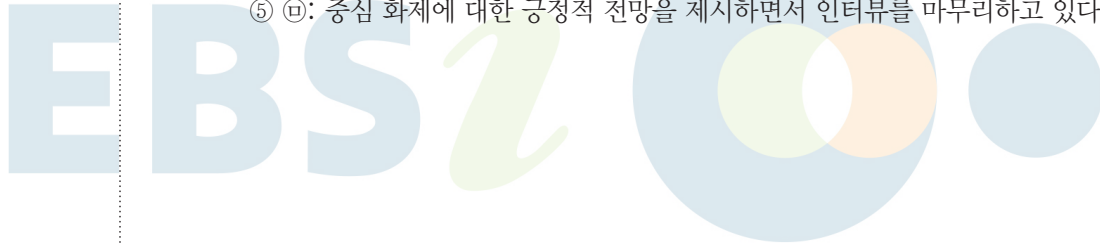


▶ 8048-0009

말하기 방식을 묻는 유형

0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인터뷰의 배경과 목적을 밝혀 상대방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 ② ㉡: 실제 사례를 언급하여 발언 내용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고 있다.
- ③ ㉢: 상대방의 경험을 환기하여 화제에 대한 상대방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④ ㉣: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설명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
- ⑤ ㉤: 중심 화제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제시하면서 인터뷰를 마무리하고 있다.



▶ 8048-0010

말하기 계획을 평가하는 유형

02 인터뷰를 마친 후 학생이 인터뷰 계획에 따른 자기 점검표를 작성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터뷰 계획	실행 여부		
	예	아니요	
우리 학교에서 학생자치법정 동아리를 시작한 계기를 물어본다.		✓	①
우리 학교 학생자치법정이 운영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다.	✓		②
학생자치법정 진행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시각 자료를 요청한다.		✓	③
학생자치법정 활동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해 질문한다.	✓		④
학생자치법정 동아리의 활동 계획에 대해 질문한다.		✓	⑤



짧은골 발문 Tip

- ㉠~㉢에 나타난 발화 특성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A]~[E]에 나타난 교수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강연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말하기 방식을 묻는 유형

0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인터뷰의 배경과 목적을 밝혀 상대방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 ② ㉡: 실제 사례를 언급하여 발문 내용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고 있다.
- ③ ㉢: 상대방의 경험을 환기하여 화제에 대한 상대방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④ ㉣: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설명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
- ⑤ ㉤: 중심 화제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제시하면서 인터뷰를 마무리하고 있다.

유형 이해

대화 상황에서 대화 참여자들의 발화에 나타난 특성을 평가하는 문제 유형이다. 대화는 상호 교섭적인 활동으로, 대화 상황과 대상, 대화의 목적 등과 같은 대화의 맥락에 따라 발화의 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유형에서는 담화 내용과 함께 그 발화에 나타난 특성이 무엇인지를 대화의 맥락에 비추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유형 공략

- ① 대화 상황 및 참여자, 대화의 목적 등과 같은 대화의 맥락을 파악한다.
- ② 대화의 내용을 파악한다.
- ③ 대화에 나타난 참여자들의 발화 특성을 꼼꼼하게 분석한다.

정답 풀이

③ ㉢에서는 배심원제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상대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와 유사한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함께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화제에 대한 상대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상대방의 경험을 환기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에서는 학생자치법정 동아리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관련 정보 전달이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 ② ㉡에서는 별점이 초과된 모든 학생이 교내 봉사 대신 학생자치법정을 선택했다는 ‘지난달’의 사례를 들어, 학생들의 호응이 대단하다는 발언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④ ㉣에서는 앞선 ‘부장’의 발화를 요약한 내용을 질문 형식으로 던지면서 자신의 이해가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
- ⑤ ㉤에서는 중심 화제인 ‘학생자치법정’을 통해 많은 학생이 학교생활 태도를 개선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긍정적 전망을 제시하면서 인터뷰를 마무리하고 있다.





답은꼐 발문 Tip

- 다음은 위 발표를 위한 사전 계획이다. 발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발표에 반영된 학생의 발표 계획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다음은 위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떠올린 생각이다. ㉠~㉣ 중 발표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말하기 계획을 평가하는 유형

02 인터뷰를 마친 후 학생이 인터뷰 계획에 따른 자기 점검표를 작성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터뷰 계획	실행 여부		
	예	아니요	
우리 학교에서 학생자치법정 동아리를 시작한 계기를 물어본다.		✓	㉠
우리 학교 학생자치법정이 운영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다.	✓		㉡
학생자치법정 진행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시각 자료를 요청한다.		✓	㉢
학생자치법정 활동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해 질문한다.	✓		㉣
학생자치법정 동아리의 활동 계획에 대해 질문한다.		✓	㉤

유형 이해

인터뷰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실제 인터뷰 후 계획 이행 여부 점검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인터뷰 계획은 인터뷰의 목적,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 등 다양한 차원에서 구성될 수 있다. 또한 내용 생성을 위해 다양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자료들이 실제 인터뷰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유형 공략

- 1 문항에 제시된 인터뷰 계획을 점검한다.
- 2 인터뷰에서 계획이 실제로 구현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 3 계획 실현 과정에서 예상했던 효과의 적절성 여부를 점검한다.

정답 풀이

㉤ 학생의 마지막 질문은 ‘동아리 활동의 보람과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요청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자치법정 동아리의 활동 계획에 대해 질문한다.’라는 계획이 실행되지 않았다는 점검표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1 학생자치법정 동아리를 시작한 계기에 대한 질문은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실행 여부를 ‘아니요’로 표시하는 것은 적절하다.
- 2 우리 학교 학생자치법정이 운영되는 방식에 대한 설명 요청은 학생의 두 번째 발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실행 여부를 ‘예’로 표시하는 것은 적절하다.
- 3 학생자치법정 진행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시각 자료를 요청하는 질문은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실행 여부를 ‘아니요’로 표시하는 것은 적절하다.
- 4 학생자치법정 활동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한 질문은 학생의 세 번째 발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실행 여부를 ‘예’로 표시하는 것은 적절하다.





유형 연습 1

[01~03]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계획]

- 글의 주제: 『조선왕조실록』의 가치를 알고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갖자.
- 예상 독자: 학교 학생들
- 기고 매체: 학교 누리집 게시판
- 글의 구성

- 1문단: 『조선왕조실록』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소개한다.㉠
- 2문단: 『조선왕조실록』의 기록 내용에 대한 보안이 얼마나 엄격했는지를 알린다.㉡
- 3문단: 『조선왕조실록』을 후대에까지 보존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소개한다.㉢
- 4문단: 『조선왕조실록』의 유실 위기와 일부 유실된 『조선왕조실록』의 재편찬 과정에 대해 설명한다.㉣
- 5문단: 『조선왕조실록』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최근에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소개한다. ...㉤
- 6문단: ㉦『조선왕조실록』의 가치를 다시 한번 언급한 후 우리 문화재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촉구한다.

[학생의 초고]

『조선왕조실록』이란 국보 제151호이자 유네스코 지정 세계 기록 유산으로, 조선 시대 역대 임금들의 실록을 합친 책을 말한다. 즉 태조부터 철종에 이르기까지 472년간에 걸친 25대 임금들의 실록 28종을 통틀어 지칭한다. 『조선왕조실록』은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기획하여 편찬한 역사서가 아니라, 역대 조정에서 국왕이 교체될 때마다 편찬한 것이 축적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듯 오랜 시간 동안 방대한 분량으로 제작된 역사서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다.

『조선왕조실록』은 당대 정치의 잘잘못과 왕과 신하들의 선악, 간위(奸僞) 등을 사실대로 기록한 것이므로, 그 편찬과 관리를 엄격하게 했다. 『조선왕조실록』의 기초 자료 작성에서 편술까지 담당했던 사관은 관직의 독립성과 기술(記述)에 대한 비밀성을 보장받던 전문 관료였다. 사관의 기록은 왕을 포함하여 그 누구도 열람하지 못하게 했으며, 사관 자신들도 그 내용을 누설할 경우 중죄로 다스려 엄벌에 처하도록 했다. 이렇듯 『조선왕조실록』의 기록 내용에 대한 보안은 철저히 지켜졌으며 그 기록 내용은 국정 운영의 참고 자료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조선왕조실록』을 후대에까지 보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우선 선왕의 실록 편찬 사업이 끝나면 최종 원고 네 부를, 서울의 춘추관은 물론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각지의 깊은 산중에 소재하던 사고(史庫)에 보관했다. 따라서 조선 시대의 실록은 춘추관, 충주, 전주, 성주 총 네 군데의 사고에 각기 한 부씩 봉안되었다.

그러나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 춘추관과 충주, 성주 사고의 실록은 모두 병화(兵火)에 소실되었다. 다행히 안의와 손흥록이 일본군이 금산에 침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재(私財)를 털어서 『조선왕조실록』과 기타 소장 도서들을 모두 정읍의 내장산으로 옮겨 놓아, 전주 사고의 실록만은 온전히 후세에 전해지게 되었다.

최근에는 『조선왕조실록』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존·관리를 위해 디지털 자료를 바탕으로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조선왕조실록』을 보급하고 일반인들의 민족 문화유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2008년부터는 『조선왕조실록』의 원문과 국역문, 그리고 원



본 이미지 모두를 제공하게 되었다. 또한 검색 기능을 향상하고 웹 페이지를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하여 2015년 12월 새롭게 개선된 『조선왕조실록』 웹 서비스가 문을 열었다.

(a)

작문 계획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유형

▶ 8048-0011

01 작문 계획의 ㉠~㉣ 중, 학생의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문단 작성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유형

▶ 8048-0012

02 ㉡를 바탕으로 초고의 마지막 문단을 완성하고자 한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조선왕조실록』은 우리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귀중한 유산이다. 『조선왕조실록』을 보존하기 위해 조선 시대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듯이, 우리의 고유한 문화유산인 『조선왕조실록』을 소중히 지켜 가자.
- ② 세계의 여러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호기심을 갖고 궁금해하면서도, 정작 우리나라의 문화재에 대해 무관심하지는 않았는가? 지금부터라도 우리 고유의 문화재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과 자긍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 ③ 『조선왕조실록』은 우리나라의 국보이면서 유네스코 지정 세계 기록 유산으로, 세계적으로도 가치 있는 인류의 문화유산이다. 이렇듯 뛰어난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그 가치와 소중함을 잊지 않도록 노력하자.
- ④ 『조선왕조실록』을 디지털 자료화하려는 노력 덕분에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조선왕조실록』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문화재의 보급화가 계속된다면 우리 문화재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과 자긍심은 보다 더 높아질 것이다.
- ⑤ 그동안 우리 학교 학생들 중에서도 『조선왕조실록』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던 친구들이 많았을 것이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다. 청소년들도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우리 문화재에 대해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료 활용 방안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유형

03 <보기>는 학생이 초고를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의 일부이다. 이를 활용하여 학생의 초고를 보완하려 할 때,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가) 『조선왕조실록』은 한문으로 기록되어 일반인들이 읽기 어려웠으나, 1968년부터 국역 사업을 시작하여 1993년에 413책으로 국역본이 간행되었다. 또한 이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1995년에는 『조선왕조실록』을 전산화하여 시디롬(CD-ROM)으로 제작 보급했다.

- ○○일보

(나)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초기부터 사관(史館)을 설치하고, 실록을 편찬했다. 태조부터 목종까지 7대에 걸쳐 차례로 편찬된 실록은 1011년 거란족의 침략으로 궁궐, 사관과 함께 소실되었다.

- △△연구소

(다) 『조선왕조실록』이 유네스코 지정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되었다. 세계적 기록 유산으로서의 가치로 제시한 일곱 가지 내용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왕조실록』은 25대 군주의 실록이며, 472년간의 역사를 수록한 것이기에 한 왕조의 역사적 기록으로 세계에서 가장 장구한 세월을 걸친 실록이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중국의 『대청역조실록(大清歷朝實錄)』도 296년간에 걸친 실록에 불과하다. 둘째, 『조선왕조실록』은 내용이 다양하여 가히 백과전서적 실록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은 동북아시아의 외교적 관계가 수록되어 있는 종합 사서요, 국왕에서 서민에 이르기까지의 생활 기록이 담겨 있는 민족 문화서인 것이다. 셋째, 『조선왕조실록』은 그 역사 기술에 있어 진실성과 신빙성이 매우 높은 역사 기록물이다. 넷째, 조선 말기까지 이들 실록이 완전하게 보존되어 온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 □□일보

- ① (가)를 활용하여, 『조선왕조실록』을 일반인에게 보급하기 위한 국역화의 노력이 디지털 자료화 이전에 이루어졌음을 5문단에 추가해야겠어.
- ② (나)를 활용하여, 고려 시대에도 실록을 편찬했으나 전란으로 소실되었음을 밝히면서, 『조선왕조실록』을 보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이유를 3문단에 추가해야겠어.
- ③ (다)를 활용하여, 『조선왕조실록』은 백과전서적 실록이라고 할 만큼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어 내용적으로도 가치가 매우 높다는 점을 1문단에 추가해야겠어.
- ④ (가)와 (다)를 활용하여, 『조선왕조실록』은 중국의 『대청역조실록』에 비해 짧은 기간의 역사를 수록하고 있지만, 기록 내용에 대한 보안과 국역 사업을 엄격히 실시하여 신빙성이 높은 역사 기록물로 인정받고 있음을 2문단에서 강조해야겠어.
- ⑤ (나)와 (다)를 활용하여, 역사서를 소실하지 않고 보관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보임으로써, 임진왜란과 같은 전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왕조실록』이 완전하게 보존되어 온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임을 4문단에서 부각해야겠어.



유형 연습 ① Zoom In

답은꿀 발문 Tip

- 다음은 학생이 글을 쓰기 전에 떠올린 생각이다. 학생의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가 (가)에 반영된 순서로 적절한 것은?
- 개요의 ㉠~㉣ 중, 〈본문〉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작문 계획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유형

01 작문 계획의 ㉠~㉣ 중, 학생의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유형 이해

작문 상황으로 제시된 구체적 정보들이 초고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 유형이다. 작문 상황으로 예상 독자, 글의 주제, 목적, 개요 등이 〈보기〉나 글의 형태로 제시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초고에 반영되었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이와 유사하게 학생이 떠올린 생각이 한 문단에 어떤 순서로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유형도 있다.

유형 공략

- ① 제시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한다.
- ② 제시된 정보가 학생의 초고에 제대로 구현되었는지를 판단한다.

정답 풀이

④ 4문단을 보면, 『조선왕조실록』이 유실될 뻔한 위기의 상황은 나타나 있지만, 일부 유실된 『조선왕조실록』이 어떤 과정을 거쳐 재편찬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1문단의 ‘조선 시대 역대 임금들의 실록을 합친 책을 말한다.’와 ‘이렇듯 오랜 시간 동안 방대한 분량으로 제작된 역사서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다.’에서 『조선왕조실록』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 ② 2문단의 ‘사관의 기록은 왕을 포함하여 그 누구도 열람하지 못하게 했으며, 사관 자신들도 그 내용을 누설할 경우 중죄로 다스려 엄벌에 처하도록 했다.’에서 『조선왕조실록』의 기록 내용에 대한 보안이 얼마나 엄격했는지를 알리고 있다.
- ③ 3문단의 ‘선왕의 실록 편찬 사업이 끝나면 최종 원고 네 부를, 서울의 춘추관은 물론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각지의 깊은 산중에 소재하던 사고에 보관했다.’에서 『조선왕조실록』을 후대에 까지 보존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소개하고 있다.
- ⑤ 5문단의 ‘최근에는 『조선왕조실록』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존·관리를 위해 디지털 자료를 바탕으로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에서 『조선왕조실록』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최근에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소개하고 있다.

답은꿀 발문 Tip

- ‘작문 계획’의 [가]에 따라 작성한 [A]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을 바탕으로 초고의 마지막 문단을 완성하고자 한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선생님의 조언을 고려할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단 작성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유형

02 ㉡를 바탕으로 초고의 마지막 문단을 완성하고자 한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조선왕조실록』은 우리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귀중한 유산이다. 『조선왕조실록』을 보존하기 위해 조선 시대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듯이, 우리의 고유한 문화유산인 『조선왕조실록』을 소중히 지켜 가자.
- ② 세계의 여러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호기심을 갖고 궁금해하면서도, 정작 우리나라의 문화재에 대해 무관심하지는 않았는가? 지금부터라도 우리 고유의 문화재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과 자긍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 ③ 『조선왕조실록』은 우리나라의 국보이면서 유네스코 지정 세계 기록 유산으로, 세계적으로도 가치 있는 인류의 문화유산이다. 이렇듯 뛰어난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그 가치와 소중함을 잊지 않도록 노력하자.
- ④ 『조선왕조실록』을 디지털 자료화하려는 노력 덕분에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조선왕조실록』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문화재의 보급화가 계속된다면 우리 문화재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과 자긍심은 보다 더 높아질 것이다.
- ⑤ 그동안 우리 학교 학생들 중에서도 『조선왕조실록』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던 친구들이 많았을 것이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다. 청소년들도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우리 문화재에 대해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유형 이해

제시된 글에서 생략되어 있는 부분을 주어진 조건에 맞게 작성하고, 그 내용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문제 유형이다. 조건은 주로 내용 조건과 형식 조건으로 제시되는데, 조건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유형 공략

- ① 제시된 글을 읽으며 글의 흐름과 생략된 부분의 전후 맥락을 파악한다.
- ② 충족되어야 할 조건의 요소를 파악한다.
- ③ 파악한 조건의 요소가 선지와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정답 풀이

③ ‘작문 계획’을 보면, 6문단에서는 『조선왕조실록』의 가치를 언급하고 우리 문화재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촉구해야 한다. 따라서 『조선왕조실록』은 우리나라의 국보이면서 유네스코 지정 세계 기록 유산으로, 세계적으로도 가치 있는 인류의 문화유산이며 이렇듯 뛰어난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그 가치와 소중함을 잊지 않도록 노력하지는 진술은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① 『조선왕조실록』의 가치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만, 우리 문화재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촉구하는 대신에 『조선왕조실록』의 보존을 촉구하고 있다.
- ②, ④ 우리 문화재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촉구하고 있지만, 『조선왕조실록』의 가치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 ⑤ 『조선왕조실록』의 가치를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우리 문화재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촉구하는 대신에 우리 문화재에 대해 배우려는 자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답은 풀 발문 Tip

-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의 초고’를 보완하려 한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를 활용하여 〈조건〉에 따라 ㉠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는 (나)를 작성할 때 활용한 자료이다. 〈보기〉에 맞추어 [A]를 수정하고자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료 활용 방안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유형

03 〈보기〉는 학생이 초고를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의 일부이다. 이를 활용하여 학생의 초고를 보완하려 할 때,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가) 『조선왕조실록』은 한문으로 기록되어 일반인들이 읽기 어려웠으나, 1968년부터 국역 사업을 시작하여 1993년에 413책으로 국역본이 간행되었다. 또한 이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1995년에는 『조선왕조실록』을 전산화하여 시디롬(CD-ROM)으로 제작 보급했다.

- ○○일보

(나)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초기부터 사관(史館)을 설치하고, 실록을 편찬했다. 태조부터 목종까지 7대에 걸쳐 차례로 편찬된 실록은 1011년 거란족의 침략으로 궁궐, 사관과 함께 소실되었다.

- △△연구소

(다) 『조선왕조실록』이 유네스코 지정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되었다. 세계적 기록 유산으로서의 가치로 제시한 일곱 가지 내용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왕조실록』은 25대 군주의 실록이며, 472년간의 역사를 수록한 것이기에 한 왕조의 역사적 기록으로 세계에서 가장 장구한 세월을 걸친 실록이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중국의 『대청역조실록(大淸歷朝實錄)』도 296년간에 걸친 실록에 불과하다. 둘째, 『조선왕조실록』은 내용이 다양하여 가히 백과사전적 실록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은 동북아시아의 외교적 관계가 수록되어 있는 종합 사서요, 국왕에서 서민에 이르기까지의 생활 기록이 담겨 있는 민족 문화서인 것이다. 셋째, 『조선왕조실록』은 그 역사 기술에 있어 진실성과 신빙성이 매우 높은 역사 기록물이다. 넷째, 조선 말기까지 이들 실록이 완전하게 보존되어 온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 □□일보



- ① (가)를 활용하여, 『조선왕조실록』을 일반인에게 보급하기 위한 국역화의 노력이 디지털 자료화 이전에 이루어졌음을 5문단에 추가해야겠어.
- ② (나)를 활용하여, 고려 시대에도 실록을 편찬했으나 전란으로 소실되었음을 밝히면서, 『조선왕조실록』을 보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이유를 3문단에 추가해야겠어.
- ③ (다)를 활용하여, 『조선왕조실록』은 백과전서적 실록이라고 할 만큼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어 내용적으로도 가치가 매우 높다는 점을 1문단에 추가해야겠어.
- ④ (가)와 (다)를 활용하여, 『조선왕조실록』은 중국의 『대청역조실록』에 비해 짧은 기간의 역사를 수록하고 있지만, 기록 내용에 대한 보안과 국역 사업을 엄격히 실시하여 신빙성이 높은 역사 기록물로 인정받고 있음을 2문단에서 강조해야겠어.
- ⑤ (나)와 (다)를 활용하여, 역사서를 소실하지 않고 보관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보임으로써, 임진왜란과 같은 전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왕조실록』이 완전하게 보존되어 온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임을 4문단에서 부각해야겠어.

유형 이해

제시된 자료의 내용을 파악한 후 글에서의 자료 활용 방안을 판단하는 문제 유형이다. 일반적으로 자료는 신문 기사, 연구 보고서, 전문가 의견, 각종 통계 자료나 그림 등 다양한 형태로 제시된다. 자료와 관련된 문항은 자료의 활용 방안을 묻는 문항뿐만 아니라 자료를 통해 이끌어 낸 내용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문항 형태로도 자주 출제된다.

유형 공략

- ① 자료의 핵심 내용을 분석한다.
- ② 자료와 작성한 글을 비교하며 자료의 활용 방안을 파악한다.

정답 풀이

④ (다)를 보면, 『조선왕조실록』은 472년간의 역사를 수록하고 있어 중국의 『대청역조실록』에 비해 긴 기간의 역사를 수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에는 『조선왕조실록』의 국역 사업에 대한 언급이, (다)에는 『조선왕조실록』이 신빙성이 높은 역사 기록물임이 드러나 있지만, 기록 내용에 대한 보안과 국역 사업을 엄격히 실시하여 『조선왕조실록』이 신빙성이 높은 역사 기록물로 인정받고 있다는 내용은 (가)와 (다)에서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풀이

- ① (가)는 디지털 자료화 이전에 실시한 『조선왕조실록』의 국역 사업에 대한 자료이므로, 『조선왕조실록』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최근의 노력을 소개하고 있는 5문단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 ② (나)는 고려 시대에도 실록을 편찬했지만 전란으로 인해 소실되었음을 밝히고 있는 자료이므로, 『조선왕조실록』의 보존을 위한 노력을 다룬 3문단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 ③ (다)는 세계적 기록 유산으로서의 『조선왕조실록』의 가치를 제시하고 있는 자료이므로, 『조선왕조실록』의 가치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1문단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 ⑤ (나)에서는 고려 왕조의 실록이 전란으로 인해 소실되었음을, (다)에서는 조선 말기까지 『조선왕조실록』이 완전하게 보존되어 온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임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나)와 (다)를 활용하여, 임진왜란과 같은 전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왕조실록』이 완전하게 보존되어 온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임을 4문단에서 부각하는 것은 적절하다.



유형 연습 ②

[01~02] '작문 과제'에 따라 작성한 '학생의 초고'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과제]

심리학이나 사회학과 관련된 내용에서 소재를 찾아 소개한 후, 이를 바탕으로 자기 성찰적 글을 써 보자. 글을 쓴 후에는 모둠별로 서로의 글에 대해 상호 평가해 보자.

[학생의 초고]

'거울 자아 이론'이란 사람들이 거울 속 자신을 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의 모습, 혹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한다고 생각되는 모습을 내 모습의 일부분으로 흡수하여 자아상을 형성해 간다는 이론을 말한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인정해 주면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되지만, 부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느껴지면 자신의 자아상도 부정적으로 된다. 즉 타인의 의견에 반응하면서 사회적 자아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사회학자 찰스 쿨리는, 자아가 개인적이었다가 나중에 사회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타인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성장한다고 보았다. 즉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지 그려 보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외모, 태도, 행위, 성격 등을 파악하게 된다는 것이다.

학교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의 모습, 혹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인식하며 생활한다. 수업 시간에 친구들과 모둠 활동을 할 때에도 친구들이 칭찬을 해 주면 자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나 자아상이 형성하기도 하고, 선생님께 야단을 맞게 되면 스스로 위축되기도 한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보자. 만원 버스에서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했을 때 칭찬을 받게 되면 앞으로는 더 좋은 일을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렇듯 주변의 의견에 반응하면서 자아가 형성되어 가는데, 이것이 사회적 자아인 것이다.

오늘 하루만 되돌아봐도, 나의 행동에 대한 주변의 여러 평가가 있었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일도 있지만 아침에 늦게 일어나 엄마께 혼난 일은 스스로도 부끄럽게 느껴진다. 결국 학교에 지각을 했는데, 이는 2학기 들어 벌써 다섯 번째 지각이다. 하지만 2학기의 학교생활은 1학기에 비해 많이 익숙해졌다. 친구들도 이제는 내가 학교에 늦는 것에 대해 별로 놀라지 않는다. 자주 늦는 아이니까 지각을 한 것에 대해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 나를 신뢰할 만한 친구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이제는 스스로 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이 부끄럽게 생각된 오늘부터, 좀 더 부지런해지기로 다짐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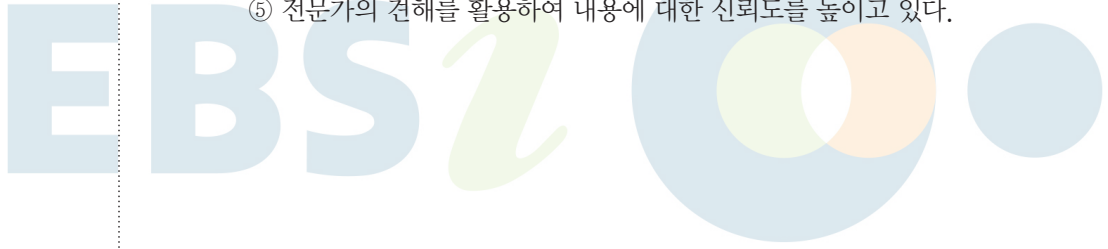


▶ 8048-0014

글쓰기 전략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유형

01 위글에 사용된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질문의 방식을 활용하여 글의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② 다양한 사례를 들어 특정 대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③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찰의 내용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개념을 정의하여 특정 이론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 ⑤ 전문가의 견해를 활용하여 내용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 8048-0015

글쓰기 상호 평가의 적절성을 묻는 유형

02 위글에 대해 학생들이 상호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생들의 상호 평가 내용

학생들의 상호 평가 내용	
잘한 점	[모둠원 1] 1문단에서 글의 중심 화제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자아의 형성에 대해 설명한 점은 좋았다고 생각해. ①
	[모둠원 2] 2문단에서 다른 대상에 빗대어 설명함으로써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한 점은 잘한 것 같아. ②
	[모둠원 3] 4문단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스스로에 대한 다짐을 드러낸 것은 인상 깊었어. ③
수정할 점	[모둠원 1] 3문단에서 문장 성분의 호응이 맞지 않는 문장을 사용한 것은 고칠 필요가 있어. ④
	[모둠원 2] 4문단에서 글의 통일성을 떨어뜨리는 문장을 사용한 점은 수정해야 할 것 같아. ⑤



답은꼴 발문 Tip

- 학생의 글에서 필자가 사용한 글쓰기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의 글쓰기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학생의 초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글쓰기 전략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유형

01 뒷글에 사용된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질문의 방식을 활용하여 글의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② 다양한 사례를 들어 특정 대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③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찰의 내용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개념을 정의하여 특정 이론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 ⑤ 전문가의 견해를 활용하여 내용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유형 이해

제시된 글에 사용된 글쓰기 방법이나 글쓰기 전략을 묻는 문제 유형이다. 정보를 전달하는 글, 설득하는 글, 자기표현이나 정서 표현의 글과 같은 글의 갈래나 목적에 따라 요구되는 글쓰기 방법이나 글쓰기 전략이 다를 수 있다. 글의 갈래나 목적을 고려하여 제시된 글에 사용된 글쓰기 전략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형 공략

- ① 선지에 언급된 글쓰기 전략을 파악한다.
- ② 파악한 글쓰기 전략이 제시된 글에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정답 풀이

① 이 글에는 질문의 방식이 드러나 있지 않다. 따라서 질문의 방식을 활용하여 글의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② 3문단을 보면,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들어 ‘사회적 자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4문단을 보면, 오늘 하루 동안에 있었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찰의 내용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1문단을 보면, ‘거울 자아 이론’의 개념을 정의하여 ‘거울 자아 이론’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2문단을 보면, 미국의 사회학자 찰스 쿨리의 견해를 활용하여 내용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짧은골 발문 Tip

- @~@를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기사 초고의 @~@에 대한 점검 결과와 수정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나)에 대한 '학생 2'의 상호 평가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짧게 글쓰기 상호 평가의 적절성을 묻는 유형

02 윗글에 대해 학생들이 상호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생들의 상호 평가 내용	
잘한 점	[모둠원 1] 1문단에서 글의 중심 화제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자아의 형성에 대해 설명한 점은 좋았다고 생각해.①
	[모둠원 2] 2문단에서 다른 대상에 빗대어 설명함으로써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한 점은 잘한 것 같아.②
	[모둠원 3] 4문단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스스로에 대한 다짐을 드러낸 것은 인상 깊었어.③
수정할 점	[모둠원 1] 3문단에서 문장 성분의 호응이 맞지 않는 문장을 사용한 것은 고칠 필요가 있어.④
	[모둠원 2] 4문단에서 글의 통일성을 떨어뜨리는 문장을 사용한 점은 수정해야 할 것 같아.⑤

유형 이해

제시된 글에서 잘된 부분과 수정해야 할 부분을 찾아, 수정해야 할 부분을 적절하게 고쳐 쓸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 유형이다. 일반적으로 고쳐쓰기 문제에서는 글 전체 수준, 문단 수준, 문장 수준, 단어 수준에서 고쳐 쓰는 형태의 선지가 골고루 구성되며, 내용적으로 글이 일관성 있게 전개되고 있는지, 형식적으로 표현이 정확한지 등을 묻는다. 최근에는 고쳐쓰기 문항이 자기 점검의 형태나 상호 평가의 형태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다.

유형 공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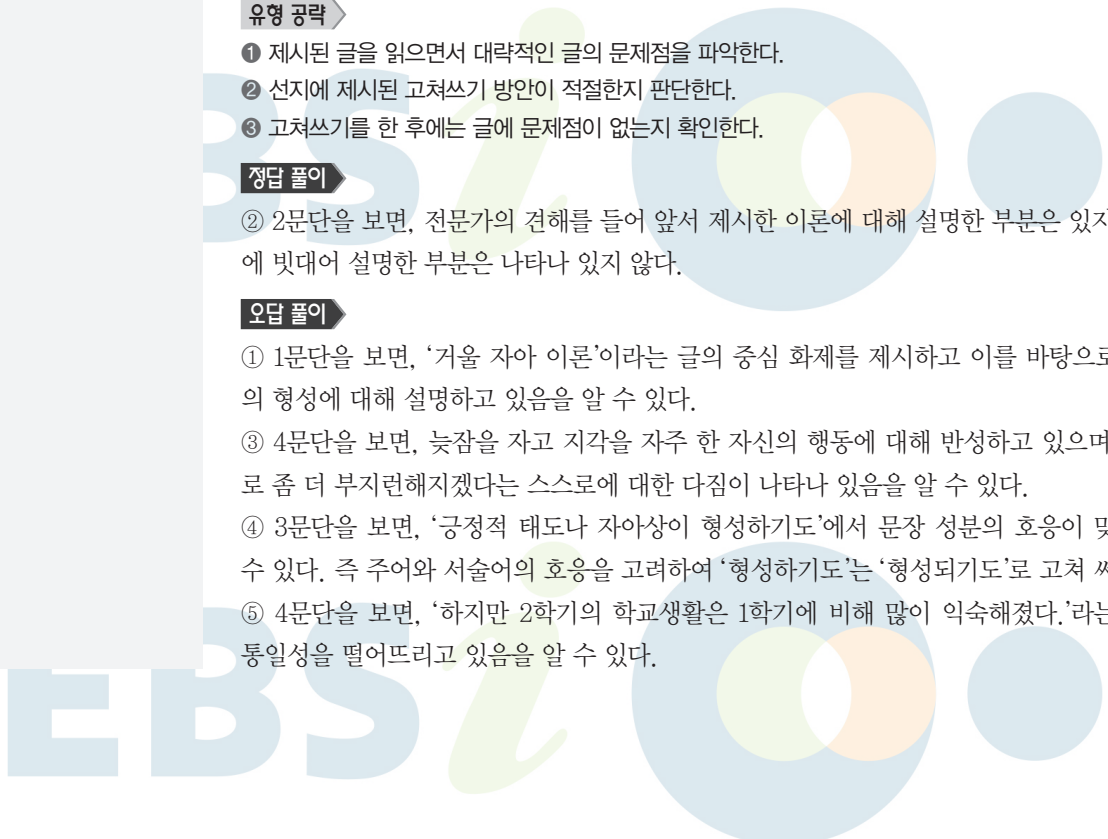
- ① 제시된 글을 읽으면서 대략적인 글의 문제점을 파악한다.
- ② 선지에 제시된 고쳐쓰기 방안이 적절한지 판단한다.
- ③ 고쳐쓰기를 한 후에는 글에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한다.

정답 풀이

② 2문단을 보면,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 앞서 제시한 이론에 대해 설명한 부분은 있지만, 다른 대상에 빗대어 설명한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1문단을 보면, '거울 자아 이론'이라는 글의 중심 화제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자아의 형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4문단을 보면, 늦잠을 자고 지각을 자주 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좀 더 부지런해지겠다는 스스로에 대한 다짐이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3문단을 보면, '긍정적 태도나 자아상이 형성하기도'에서 문장 성분의 호응이 맞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을 고려하여 '형성하기도'는 '형성되기도'로 고쳐 써야 한다.
- ⑤ 4문단을 보면, '하지만 2학기의 학교생활은 1학기에 비해 많이 익숙해졌다.'라는 문장이 글의 통일성을 떨어뜨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형 연습 ③

[01~03]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과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과학 기술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 설명하는 글 작성하기

[학생의 초고]

최근 보안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인간의 생체 정보를 활용한 ‘생체 인식 기술’이 각광받고 있다. 생체 인식 기술이란 개인마다 서로 다른 지문, 홍채, 음성 등 개인의 독특한 생체 정보를 추출하여 암호화하는 인증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개인의 생체 정보는 열쇠나 비밀번호처럼 타인이 도용하거나 복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변경되거나 분실할 위험성이 없어 보안 분야에서 활용도가 뛰어나다.

인간의 생체 정보가 보안 기술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보편성’이다. 특정한 개인만이 아닌 누구나 보유하고 있는 생체 정보여야 한다. 둘째, ‘유일성’이다. 개인마다 달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여야 한다. 셋째, ‘영속성’이다. 특정 개인에게 변하지 않고 일정한 정보여야 한다. 넷째, ‘획득성’이다. 추출하기 용이한 정보여야 한다. 다섯째, ‘친화성’이다. 추출하는데 거부감이 적은 정보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안성’이다. 위조가 어려운 정보여야 한다.

‘지문 인식’ 기술은 현재 가장 대중적인 생체 인식 방법이다. 피부의 표피 밑층인 진피에서 만들어진 지문은 진피 부분이 손상되지 않는 한 평생 변하지 않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형사 사건에서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활용되는 등 오래전부터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또한 지문은 쉽게 추출할 수 있고 추출하는 데 거부감이 적다. 하지만 인터넷에 실리콘이나 점토로 지문을 복사하는 방법이 올라와 있을 정도로 위조가 쉽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최근 3D 프린팅 기술이 발전하면서 일반인들도 지문을 쉽게 위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손금의 패턴과 손가락의 상대적 길이를 이용하는 ‘손바닥 인식’이나 얼굴의 윤곽과 눈·코·입의 위치를 이용하는 ‘안면 인식’에서도 발생한다.

‘홍채 인식’ 기술은 안구의 동공을 둘러싼 원 모양의 조직인 홍채를 이용하는데, 홍채는 쌍둥이들도 서로 다르며, 같은 사람이라도 양쪽 눈의 홍채가 서로 다르다는 특징이 있다. 홍채는 생후 1~2년 내에 고유한 패턴이 형성되어 평생 변하지 않으며, 홍채 인식은 홍채의 주름을 주파수로 바꾸는 과정을 통해 2초 내에 신분 판별이 가능하다. 또한 8~25cm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자동 초점 조절 카메라로 홍채 패턴을 인식하는 비접촉 방식이기 때문에 사용 시 거부감이 없다.

‘걸음걸이 인식’이나 ‘음성 인식’ 기술은 지문·홍채 같은 신체 특징이 아닌 행동 특성을 암호화한 생체 인식 기술이다. 걸음걸이 인식 기술은 사람마다 지니고 있는 독특한 걸음걸이를 암호화하는 방식으로 유명 액션 영화에서도 이를 활용한 장면이 나온다. 하지만 사람마다 걸음걸이가 매번 일정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인식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음성 인식 기술은 사람의 억양, 말하는 습관에 따른 음의 높낮이 정보를 활용하는데, 원격지에서도 전화를 이용하여 신분을 확인할 수 있고, 사용하기 위한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목이 쉬거나 주변에 큰 소음이 있을 경우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생체 인식 기술들은 일반적으로 높은 보안성을 지니고 있으나 원본 데이터가 해킹될 경우에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비밀번호가 해킹되어 노출된 경우, 이용자는 비밀번호를 교체할 수 있으나 홍채 인식 데이터가 해킹되어 노출된 경우 새로운 홍채를 만들 수는 없으므로 더 이상 홍채 인식 기술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인증 수단만이



아닌 원본 데이터가 노출된 경우까지 대비할 때 생체 인식 기술의 의의가 있게 된다. 이러한 취약성이 보완될 경우, 생체 인식 기술은 정보화 시대의 요구에 걸맞은 보안 기술로서 더 높은 활용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다.

내용 생성 전략의 적절성을 묻는 유형

▶ 8048-0016

01 다음은 학생의 작문 계획이다. ㉠~㉥ 중 학생의 초고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은?

- 글의 주제: 생체 인식 기술의 의의와 한계
- 글의 구성
 - 1문단: ㉠생체 인식 기술의 개념과 ㉡보안 기술로서의 의의를 설명해야겠어.
 - 2문단: ㉢보안 기술에 활용되기 위해 필요한 생체 정보의 요건을 설명해야겠어.
 - 3~5문단: 생체 인식 기술의 종류를 소개하고 ㉣각 생체 인식 기술의 장점과 단점을 소개해야겠어.
 - 6문단: ㉤생체 인식 기술의 보안상 취약성을 설명해야겠어.

- ① ㉠ ② ㉡ ③ ㉢ ④ ㉣ ⑤ ㉤

자료 활용의 적절성을 묻는 유형

▶ 8048-0017

02 다음의 신문 기사를 활용하여 초고를 보완하고자 할 때, 학생이 떠올린 생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6년 미국의 한 연구진은 50명을 대상으로 우산, 보트 등의 특정 사진들을 보여 주고 그때의 뇌파를 측정했다. 뇌파는 뇌세포 사이에 흐르는 전기 신호로, 감정 변화에 따라 파형이 변화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피실험자들은 일련의 사진들을 보면서 감정 변화를 보였고, 따라서 피실험자들의 뇌파는 사진마다 서로 다른 파형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실험을 다시 한번 반복했다. 실험 결과, 동일한 사진에 대한 뇌파는 피실험자들마다 서로 다른 특성을 보였다. 또한 동일한 사진에 대한 각 피실험자의 뇌파는 1차 실험에서 측정된 뇌파와 동일했다.

- ○○일보 기사의 일부

- ① 뇌파의 파형이 감정 변화에 따라 변화한다는 점을 근거로 영속성이 부족한 생체 정보의 예로 추가할 수 있겠군.
- ② 뇌파의 측정을 통해 피측정자의 감정 상태를 알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생체 인식 기술의 의의의 예로 추가할 수 있겠군.
- ③ 뇌파는 지문이나 음성에 비해 추출이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생체 인식 기술의 보안상 취약성을 설명하는 예로 추가할 수 있겠군.
- ④ 뇌파 인식 기술은 기존의 원본 데이터가 노출되더라도 원본 데이터를 교체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생체 인식 기술의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예로 추가할 수 있겠군.
- ⑤ 동일한 사진에 대해 피실험자들의 뇌파가 서로 다른 특성을 지녔다는 점에서 지문 인식 기술이나 홍채 인식 기술에 비해 유일성 면에서 우월한 기술의 예로 추가할 수 있겠군.

초고에 대한 평가 반영의 적절성을 묻는 유형

03 <보기 1>은 학생의 초고에 대한 다른 학생의 상호 평가 내용이고, <보기 2>는 이러한 평가를 고려하여 학생이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이다. 이 자료의 활용을 고민하면서 학생이 떠올렸을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생체 정보의 보안 기술상 요건들을 기준으로 초고에 언급된 생체 인식 기술들을 비교하는 도표와 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면, 보안 기술상 요건을 서술한 글의 앞부분과 생체 인식 기술의 종류를 서술한 뒷부분의 연결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 또 독자들이 각 생체 인식 기술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보기 2

생체 정보의 종류	보편성	유일성	영속성	획득성	친화성	보안성
지문	중	상	상	중	중	상
안면	상	하	중	상	상	하
홍채	상	상	상	중	하	상
걸음걸이	중	하	하	상	상	중
음성	중	하	하	상	상	하

<표> 생체 정보에 따른 보안 기술상의 요건 비교

- 출처: 과학 기술 관련 블로그

- ① 조사한 <표>에는 ‘지문’의 보안성이 ‘상’으로 되어 있지만, 3D 프린팅 기술이 보편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자료의 작성 시기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군.
- ② 조사한 <표>에 ‘안면’의 유일성이 ‘하’로 된 것은 얼굴의 윤곽이나 눈·코·입의 위치 정보를 통해 쌍둥이나 얼굴이 닮은 사람은 구별하기 어려운 특성을 고려한 것이겠군.
- ③ 조사한 <표>에 ‘홍채’의 친화성이 ‘하’로 된 것은 측정 기구와 홍채 사이에 일정 거리를 두는 비접촉 방식으로 생체 정보를 추출하기 때문이겠군.
- ④ 조사한 <표>에 ‘걸음걸이’의 영속성이 ‘하’로 된 것은 매번 일정한 걸음걸이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겠군.
- ⑤ 조사한 <표>에 ‘음성’의 보안성이 ‘하’로 된 것은 타인의 목소리를 흉내 내거나 목소리를 녹음하여 재생한 경우를 고려한 것이겠군.



답은꼐 발문 Tip

- 개요의 ㉠~㉣ 중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다음은 초고를 쓰기 위해 학생이 작성한 메모이다. 메모의 내용 중 글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다음은 <답사 보고서>의 일부이다. <보기>에서 계획한 내용 중 <답사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내용 생성 전략의 적절성을 묻는 유형

01 다음은 학생의 작문 계획이다. ㉠~㉣ 중 학생의 초고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은?

- 글의 주제: 생체 인식 기술의 의의와 한계
- 글의 구성
 - 1문단: ㉠생체 인식 기술의 개념과 ㉡보안 기술로서의 의의를 설명해야겠어.
 - 2문단: ㉢보안 기술에 활용되기 위해 필요한 생체 정보의 요건을 설명해야겠어.
 - 3~5문단: 생체 인식 기술의 종류를 소개하고 ㉣각 생체 인식 기술의 장점과 단점을 소개해야겠어.
 - 6문단: ㉤생체 인식 기술의 보안상 취약성을 설명해야겠어.

- ① ㉠ ② ㉡ ③ ㉢ ④ ㉣ ⑤ ㉤

유형 이해

작문 상황으로 제시된 구체적 정보들이 초고에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 유형이다. 작문 상황으로 예상 독자, 글의 주제, 목적, 개요 등이 <보기>나 글쓰기 계획의 형태로 제시되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이 초고에 반영되었는지 일일이 대조해 보아야 한다.

유형 공략

- 1 제시된 정보에 초점을 맞추어 초고를 꼼꼼히 읽는다.
- 2 제시된 정보가 초고에 제대로 구현되었는지 정확하게 확인한다.

정답 풀이

④ '지문 인식' 기술과 '음성 인식' 기술은 장점과 단점을 모두 소개하고 있지만, '홍채 인식' 기술은 장점만, '걸음걸이 인식' 기술은 단점만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각 생체 인식 기술의 장점과 단점을 소개하려는 학생의 작문 계획이 초고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 1문단의 '생체 인식 기술이란 개인마다 서로 다른 지문, 홍채, 음성 등 개인의 독특한 생체 정보를 추출하여 암호화하는 인증 방식을 말한다.'에서 생체 인식 기술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 1문단의 '생체 정보는 열쇠나 비밀번호처럼 타인이 도용하거나 복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변경되거나 분실할 위험성이 없어 보안 분야에서 활용도가 뛰어나다.'에서 생체 인식 기술의 보안 기술로서의 의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2문단에서 보안 기술에 활용되기 위해 필요한 생체 정보의 요건으로 '보편성, 유일성, 영속성, 획득성, 친화성, 보안성'을 들고 있다.
- 6문단에서 생체 인식 기술들은 '원본 데이터가 해킹될 경우에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답은꼴 발문 Tip

-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여 개요의 'II-3-다'에 해당하는 글을 작성했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1〉을 활용하여 〈보기 2〉를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나〉에서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자료를 제시한 후, ㉠을 바꾸어 쓰려고 한다. 가장 적절한 것은?

자료 활용의 적절성을 묻는 유형

02 다음의 신문 기사를 활용하여 초고를 보완하고자 할 때, 학생이 떠올린 생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6년 미국의 한 연구진은 50명을 대상으로 우산, 보트 등의 특정 사진들을 보여 주고 그때의 뇌파를 측정했다. 뇌파는 뇌세포 사이에 흐르는 전기 신호로, 감정 변화에 따라 파형이 변화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피실험자들은 일련의 사진들을 보면서 감정 변화를 보였고, 따라서 피실험자들의 뇌파는 사진마다 서로 다른 파형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실험을 다시 한번 반복했다. 실험 결과, 동일한 사진에 대한 뇌파는 피실험자들마다 서로 다른 특성을 보였다. 또한 동일한 사진에 대한 각 피실험자의 뇌파는 1차 실험에서 측정된 뇌파와 동일했다.

- ○○일보 기사의 일부

- ① 뇌파의 파형이 감정 변화에 따라 변화한다는 점을 근거로 영속성이 부족한 생체 정보의 예로 추가할 수 있겠군.
- ② 뇌파의 측정을 통해 피측정자의 감정 상태를 알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생체 인식 기술의 의의의 예로 추가할 수 있겠군.
- ③ 뇌파는 지문이나 음성에 비해 추출이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생체 인식 기술의 보안상 취약성을 설명하는 예로 추가할 수 있겠군.
- ④ 뇌파 인식 기술은 기존의 원본 데이터가 노출되더라도 원본 데이터를 교체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생체 인식 기술의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예로 추가할 수 있겠군.
- ⑤ 동일한 사진에 대해 피실험자들의 뇌파가 서로 다른 특성을 지녔다는 점에서 지문 인식 기술이나 홍채 인식 기술에 비해 유일성 면에서 우월한 기술의 예로 추가할 수 있겠군.

유형 이해

제시된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한 혹은 작성할 내용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문제 유형이다. 일반적으로 각종 통계, 신문 기사, 전문가 의견, 연구 보고서, 그림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가 제시된다. 자료와 관련된 문제는 자료를 통해 이끌어 낸 내용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자료의 활용 방안을 묻는 문제 형태로도 자주 출제된다.

유형 공략

- ① 자료를 해석하며 그 활용 방안을 생각해 본다.
- ② 자료와 작성한 글을 대조하여 자료를 통해 이끌어 낸 내용이 적절한지를 확인한다.

정답 풀이

④ 뇌파 인식 기술은 기존의 원본 데이터가 노출되더라도 사진을 바꿀 경우 새로운 뇌파를 얻어 이를 통해 생체 인식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생체 인식 기술의 취약점인 '원본 데이터가 해킹될 경우에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뇌파 인식 기술의 영속성은 동일한 사진에 대한 뇌파가 개인마다 동일하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 ② 생체 인식 기술은 인증 방식이므로 피측정자의 감정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것은 의의로 적절하지 않다.
- ③ 생체 인식 기술의 보안상 취약성은 '원본 데이터가 해킹될 경우에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므로 뇌파 측정의 어려움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지문이나 홍채는 개인마다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니므로 이 자료만 갖고는 어떤 기술이 유일성 면에서 우월한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답은꼐 발문 Tip

- <보기 1>은 학생의 초고에 대한 선생님의 조언이며, <보기 2>는 선생님의 조언을 고려하여 학생이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이다. 이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을 바탕으로 초고의 마지막 문단을 완성하고자 한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학생의 초고에 대한 선생님의 평가인 [가]를 고려하여 작성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03

초고에 대한 평가 반영의 적절성을 묻는 유형

<보기 1>은 학생의 초고에 대한 다른 학생의 상호 평가 내용이고, <보기 2>는 이러한 평가를 고려하여 학생이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이다. 이 자료의 활용을 고민하면서 학생이 떠올렸을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생체 정보의 보안 기술상 요건들을 기준으로 초고에 언급된 생체 인식 기술들을 비교하는 도표와 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면, 보안 기술상 요건을 서술한 글의 앞부분과 생체 인식 기술의 종류를 서술한 뒷부분의 연결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 또 독자들이 각 생체 인식 기술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보기 2

생체 정보의 종류	보편성	유일성	영속성	획득성	친화성	보안성
지문	중	상	상	중	중	상
안면	상	하	중	상	상	하
홍채	상	상	상	중	하	상
걸음걸이	중	하	하	상	상	중
음성	중	하	하	상	상	하

<표> 생체 정보에 따른 보안 기술상의 요건 비교

- 출처: 과학 기술 관련 블로그

- ① 조사한 <표>에는 '지문'의 보안성이 '상'으로 되어 있지만, 3D 프린팅 기술이 보편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자료의 작성 시기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군.
- ② 조사한 <표>에 '안면'의 유일성이 '하'로 된 것은 얼굴의 윤곽이나 눈·코·입의 위치 정보를 통해 쌍둥이나 얼굴이 닮은 사람은 구별하기 어려운 특성을 고려한 것이겠군.
- ③ 조사한 <표>에 '홍채'의 친화성이 '하'로 된 것은 측정 기구와 홍채 사이에 일정 거리를 두는 비접촉 방식으로 생체 정보를 추출하기 때문이겠군.
- ④ 조사한 <표>에 '걸음걸이'의 영속성이 '하'로 된 것은 매번 일정한 걸음걸이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겠군.
- ⑤ 조사한 <표>에 '음성'의 보안성이 '하'로 된 것은 타인의 목소리를 흉내 내거나 목소리를 녹음하여 재생한 경우를 고려한 것이겠군.

유형 이해

초고에 대한 평가를 판단하고 주어진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 내용을 반영하는 것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문제 유형이다. 상대방의 초고에 대한 평가가 적절한지와 자료를 활용하여 글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초고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는 유형과 자료를 활용하여 고쳐 쓰는 유형은 개별 문항으로 출제되기도 한다.

유형 공략

- ① 초고에 대한 평가 내용을 초고와 비교하며 면밀히 확인한다.
- ② 자료와 작성한 글을 대조하여 자료를 통해 이끌어 낸 내용이 적절한지를 확인한다.

정답 풀이

③ 생체 정보의 보안 기술상 요건 중 '친화성'은 추출하는 데 거부감이 적은 정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의 초고'에서 '홍채 인식' 기술은 비접촉 방식이기 때문에 거부감이 없다고 서술했으므로, 친화성이 '하'로 표시된 자료의 신뢰성을 검토하거나 초고의 내용을 다시 검토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적절한 반응이다.

오답 풀이

- ① '학생의 초고'에서 '지문 인식' 기술은 '최근 3D 프린팅 기술이 발전하면서 일반인들도 지문을 쉽게 위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했으므로 자료의 적절성을 비판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 ② '안면 인식' 기술은 얼굴의 윤곽과 눈·코·입의 위치를 이용하므로 쌍둥이나 얼굴이 닮은 사람의 경우에는 유일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 ④ '학생의 초고'에서 '걸음걸이 인식' 기술은 '사람마다 걸음걸이가 매번 일정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인식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고 했으므로 영속성이 낮은 이유로 판단할 수 있다.
- ⑤ '음성 인식' 기술은 사람의 억양, 말하는 습관에 따른 음의 높낮이 정보를 활용하므로 타인의 목소리를 흉내 내거나 목소리를 녹음하여 재생하면 쉽게 위조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 유형 연습 4 ***

[01~02]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최근 청소년들의 흉악 범죄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면서, 인터넷 게시판에 ‘소년법 개정’을 청원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이에 대해 나는 ‘소년법 개정’에 반대하는 글을 쓰기로 했다.

[학생의 초고]

최근 잇따라 발생한 청소년들의 흉악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러한 범죄를 일으킨 청소년에게는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최근 청소년이 저지른 흉악 범죄에 대한 보도 사례가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주장이 나온 이유가 충분히 이해된다.

형법은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형사 미성년자’로 규정하면서 이들에게는 어떠한 형벌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구속 영장 발부를 제한하거나 교도소 대신 소년원에 송치하는 등 형을 완화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그리고 사형 또는 무기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더라도 만 18세 미만이라면 최대 15년의 징역만을 부과할 수 있으며, 살인 등의 특정 강력 범죄라도 최대 20년까지 징역을 부과할 수 있다.

청소년의 흉악 범죄와 관련하여 최근 제기된 ‘소년법 개정’ 청원에는 형사 미성년의 연령을 낮추자는 의견, 소년법의 적용 연령을 낮추자는 의견, 사형이나 무기 징역에 해당하는 흉악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의 형벌을 감경하는 규정을 삭제하자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섞여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들은 기본적으로, 죄질이 나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해당 범법자가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외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공통된 취지이다. 따라서 나는 ‘소년법 개정’ 주장을, 흉악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의 형을 감경하는 규정을 폐지하자는 주장으로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에 나는 반대한다.

소년법 개정 주장은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흉악 범죄까지 용인해 주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점,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은 자신이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감경될 것을 알기 때문에 흉악 범죄마저도 쉽게 일으키게 된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 따라서 소년법 개정 주장은, 소년법의 감경 규정을 폐지하면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그에 응당한 벌을 주므로 정의를 실현할 수 있으며, 자신의 범죄 행위로 인해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될 것이므로 청소년의 범죄 행위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주장이 정당하려면 첫째, 청소년에게 성인과 동일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해야 하며, 둘째, 무거운 형벌이 청소년의 범죄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어야 한다.

형벌이란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인 범죄를 일으켜 국가의 법질서를 무너뜨린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제재 수단이다. 따라서 형벌이 정의에 부합하고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를 당시 자신의 행위가 법을 위반하는 행위이고 동시에 이러한 행위로 인해 어떤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형벌을 통한 제재가 적절해야 한다. 그래서 갓 태어난 아기에게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해서는 안 된다. 아기는 자신의 행위가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나쁜 행위라는 것과 그로 인해 자신이 어떤 벌을 받을지 인지할 수 없으며, 이는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인지 능력이 없는 아기에게 형벌을 가한다고 하더라도 아기는 그로 인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능력이 없으므로 형벌은 제재 수단으로서도 적절하지 않다.



결국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게 어떠한 형벌을 가할 것인가의 문제는 해당 청소년이 그 행위의 책임을 판단할 인지 능력과 사고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와 관련된다. 또한 청소년에게 가하는 형벌이 적절한지 역시 중요한 문제가 된다. 민법은 만 19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보고 성인에 비해 제한된 권리만을 인정한다. 공직 선거법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는 청소년은 아직 인지 능력과 사고 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상태이며, 성인이 아닌 교육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이다. 권리와 책임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따라서 18세 미만 청소년의 법정 최고형을 20년의 징역으로 규정한 것은 다른 법령들이 청소년에게 제한된 권리만을 인정하는 것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교화의 목적상 청소년이 아직 성장 중임을 고려하면 그 이상의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물론 최근 투표 연령을 낮추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듯이, 과거에 비해 오늘날 청소년들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형사 미성년의 연령이나 소년법의 적용 연령을 낮추는 문제는 우리 사회가 몇 세부터를 성인으로 볼 것인가와 함께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며, 처벌의 경우만 따로 생각하는 것은 단지 여론의 분노를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소년법 개정에 반대한다.

 **작문 전략의 적절성을 묻는 유형**

▶ 8048-0019

01 **윗글에 나타난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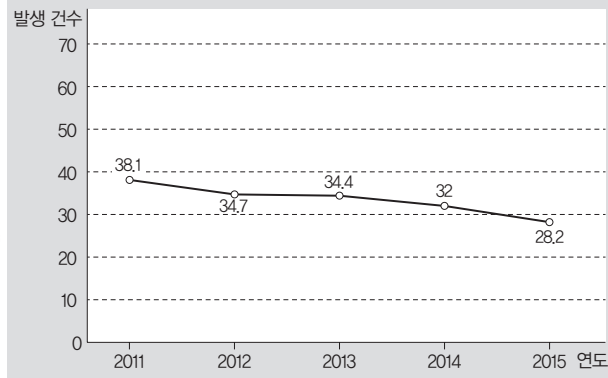
- ① 예상되는 반론을 고려하여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 ②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이 주장하려는 바를 제시하고 있다.
- ③ 자신이 반박하는 주장의 논리를 언급함으로써 자신이 비판하려는 지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자신이 반박하는 주장이 나오게 된 원인을 일부 수긍하고 나서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 ⑤ 청소년과 관련된 현행 법령들의 내용을 열거함으로써 법령들 간에 충돌이 나타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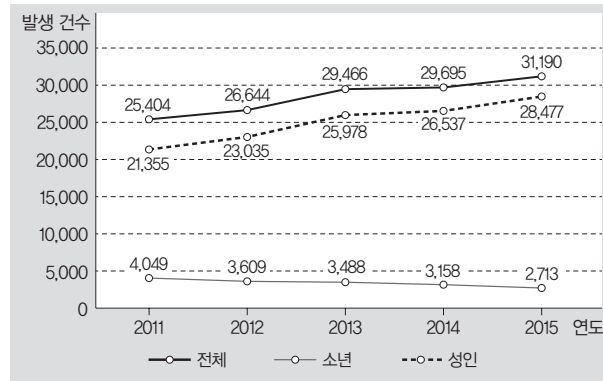
자료 활용 방안의 적절성을 묻는 유형

02 다음의 자료를 활용하여 윗글을 수정 및 보완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1 소년 인구 10만 명당 흉악 범죄 발생 건수 추이



(가)-2 연령별 흉악 범죄 발생 건수 추이



〈자료: 대검찰청 범죄 분석(2016)〉

(나) 전문가 인터뷰

“소년원에 가 보세요. 예전에는 초범인 아이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세 번째, 네 번째로 소년원에 오는 애들이 많아요. 전과가 올라갈수록 처벌이 가중되는데도 범죄의 강도는 오히려 높아지고 있고요. 소년범들은 범죄에 따른 형량과 가중 처벌을 고려하기보다는 앞뒤 재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요.”

- 청소년 범죄 예방 활동가 ○○○ 교수 인터뷰 중에서

- ① (가)-1: 청소년 흉악 범죄가 최근 급증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활용하여 청소년 흉악 범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과장되어 있다는 의견을 추가한다.
- ② (가)-2: 청소년의 흉악 범죄가 전체 흉악 범죄 발생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활용하여 소년법 개정 주장의 근거가 설득력이 부족함을 강조한다.
- ③ (나): 청소년에게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거나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 범죄 예방에 효과가 적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로 추가한다.
- ④ (가)-1과 (나): 청소년 흉악 범죄의 발생 비율은 줄고 있으나 재범률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 흉악 범죄를 일으킨 청소년을 소년원이 아닌 교도소에 송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추가한다.
- ⑤ (가)-2와 (나): 형벌을 강화하여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청소년 흉악 범죄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이 아님을 강조하는 사례로 추가한다.



답은꼴 발문 Tip

- 다음은 (가)를 쓰기 전에 학생이 떠올린 생각이다. (가)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학생이 초고를 쓰는 과정에서 소재로부터 떠올린 생각 중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학생의 초고에 나타난 작문 전략을 평가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작문 전략의 적절성을 묻는 유형

01 윗글에 나타난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예상되는 반론을 고려하여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 ②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이 주장하려는 바를 제시하고 있다.
- ③ 자신이 반박하는 주장의 논리를 언급함으로써 자신이 비판하려는 지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자신이 반박하는 주장이 나오게 된 원인을 일부 수긍하고 나서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 ⑤ 청소년과 관련된 현행 법령들의 내용을 열거함으로써 법령들 간에 충돌이 나타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유형 이해

주어진 글을 읽고 그 글에 적용된 작문 계획이나 전략, 내용 전개 방식 등을 확인하는 문제 유형이다. 이러한 유형의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글의 내용 전개를 살펴봄에 선지에 제시된 작문 계획이나 전략, 내용 전개 방식 등이 실현되었는지를 면밀히 따져 보아야 한다.

유형 공략

- ① 글을 읽으며 작문 계획이나 특징적인 전개 방식 등이 선지에 있는지 확인한다.
- ② 글을 다 읽은 후에는 읽기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선지들을 다시 글의 내용과 대조한다.
- ③ 선지에 제시된 작문 전략이 어떤 상황에서 활용되었는지를 확인하며 글을 읽는다.

정답 풀이

⑤ 이 글에서는 청소년과 관련된 형법, 소년법, 민법, 공직 선거법 등 여러 현행 법령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소년법을 개정하여 흉악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게 성인과 동일한 형벌을 부과한다면 청소년의 인지 능력과 사고 능력을 고려하여 제정된 다른 법들과 내용상 충돌이 일어날 것이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즉 법령들 간의 충돌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아니라 ‘소년법 개정’ 주장에 따라 발생될 문제이다.

오답 풀이

- ① 7문단의 ‘물론 최근 투표 연령을 낮추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듯이, 과거에 비해 오늘날 청소년들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했다고 볼 수도 있다.’에서 예상되는 반론을 고려하여 자신의 주장을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6문단의 ‘권리와 책임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에서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이 주장하려는 바를 제시하고 있다.
- ③ 4문단의 ‘소년법 개정 주장은, 소년법의 감경 규정을 폐지하면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그에 응당한 벌을 주므로 정의를 실현할 수 있으며, 자신의 범죄 행위로 인해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될 것이므로 청소년의 범죄 행위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주장이 정당하려면 첫째, 청소년에게 성인과 동일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해야 하며, 둘째, 무거운 형벌이 청소년의 범죄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어야 한다.’에서 소년법 개정 주장에 대한 비판 지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1문단의 ‘최근 청소년이 저지른 흉악 범죄에 대한 보도 사례가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주장이 나온 이유가 충분히 이해된다.’에서 소년법 개정 주장이 나오게 된 원인을 일부 수긍하고 뒤이어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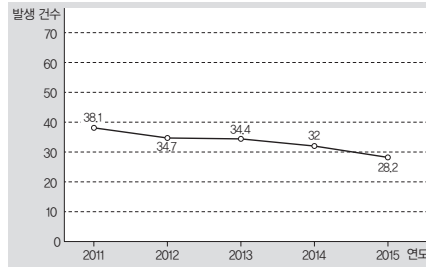
답은 꿀 발문 Tip

-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여 개요의 '11-3-다'에 해당하는 글을 작성했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1>을 활용하여 <보기 2>를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나>에서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자료를 제시한 후, ㉠을 바꾸어 쓰려고 한다.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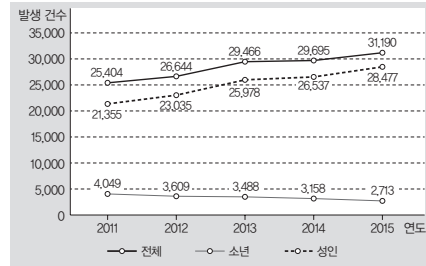
자료 활용 방안의 적절성을 묻는 유형

02 다음의 자료를 활용하여 윗글을 수정 및 보완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1 소년 인구 10만 명당 흉악 범죄 발생 건수 추이



(가)-2 연령별 흉악 범죄 발생 건수 추이



(자료: 대검찰청 범죄 분석(2016))

(나) 전문가 인터뷰

“소년원에 가 보세요. 예전에는 초범인 아이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세 번째, 네 번째로 소년원에 오는 애들이 많아요. 전과가 올라갈수록 처벌이 가중되는데도 범죄의 강도는 오히려 높아지고 있고요. 소년범들은 범죄에 따른 형량과 가중 처벌을 고려하기보다는 앞뒤 재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요.”

- 청소년 범죄 예방 활동가 ○○○ 교수 인터뷰 중에서

- ① (가)-1: 청소년 흉악 범죄가 최근 급증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활용하여 청소년 흉악 범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과장되어 있다는 의견을 추가한다.
- ② (가)-2: 청소년의 흉악 범죄가 전체 흉악 범죄 발생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활용하여 소년법 개정 주장의 근거가 설득력이 부족함을 강조한다.
- ③ (나): 청소년에게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거나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 범죄 예방에 효과가 적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로 추가한다.
- ④ (가)-1과 (나): 청소년 흉악 범죄의 발생 비율은 줄고 있으나 재범률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 흉악 범죄를 일으킨 청소년을 소년원이 아닌 교도소에 송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추가한다.
- ⑤ (가)-2와 (나): 형벌을 강화하여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청소년 흉악 범죄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이 아님을 강조하는 사례로 추가한다.

유형 이해

제시된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한 혹은 작성할 내용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문제 유형이다. 일반적으로 자료는 각종 통계, 신문 기사, 전문가 의견, 연구 보고서, 그림 등 다양한 형태로 제시된다. 자료와 관련된 문제는 자료를 통해 이끌어 낸 내용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자료의 활용 방안을 묻는 문제 형태로도 자주 출제된다.

유형 공략

- ① 자료를 해석하며 그 활용 방안을 생각해 본다.
- ② 자료와 작성한 글을 대조하여 자료를 통해 이끌어 낸 내용이 적절한지를 확인한다.

정답 풀이

④ (가)-1은 소년 인구 10만 명당 흉악 범죄 발생 건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청소년 흉악 범죄의 발생 비율이 줄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나)의 인터뷰를 통해 재범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나)에서 소년범들은 처벌이 가중되는데도 그로 인한



결과를 재지 않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했으므로, 소년원이 아닌 교도소 송치라는 처벌의 강화가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가)-1에서 소년 인구 10만 명당 흉악 범죄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최근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청소년 흉악 범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과장되어 있다는 의견을 추가할 수 있다.

② (가)-2에서 전체 흉악 범죄 발생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소년 흉악 범죄 발생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므로, 청소년 흉악 범죄가 전체 흉악 범죄 발생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은 자신이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감경될 것을 알기 때문에 흉악 범죄마저도 쉽게 일으키게 된다’는 소년법 개정 주장의 근거가 설득력이 부족함을 강조할 수 있다.

③ (나)의 ‘전과가 올라갈수록 처벌이 가중되는데도 범죄의 강도는 오히려 높아지고 있고요. 소년 범들은 범죄에 따른 형량과 가중 처벌을 고려하기보다는 앞뒤 재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요.’라는 전문가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 청소년에게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거나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 범죄 예방에 효과가 크지 않음을 지적할 수 있다.

⑤ (가)-2에서 형벌이 무겁고 재범 시 가중 처벌되는 성인 흉악범의 경우에도 범죄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나)에서 청소년들은 전과가 올라갈수록 처벌이 가중됨에도 재범률이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형벌을 강화하여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청소년 흉악 범죄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이 아님을 강조할 수 있다.



유형 연습 1

▶ 8048-0021

01 <보기>를 참고할 때, 적용된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음운 변동의 종류를 묻는 유형

보기

- 유음화: ‘ㄴ’이 ‘ㄹ’의 앞 또는 뒤에서 유음인 ‘ㄹ’로 바뀌는 현상
- 비음화: ‘ㄱ, ㄷ, ㅂ’이 비음 앞에서 각각 비음인 ‘ㅇ, ㄴ, ㅁ’으로 바뀌는 현상
- 거센소리되기: ‘ㄱ, ㄷ, ㅂ, ㅅ’이 인접한 ‘ㅎ’과 결합하여 ‘ㅋ, ㅌ, ㅍ, ㅊ’으로 바뀌는 현상
-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절의 끝에서 발음될 수 없는 자음이 ‘ㄱ, ㄷ, ㅂ’ 중 하나로 바뀌는 현상
- 구개음화: ‘ㄷ, ㅌ’이 ‘ㄷ’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날 때 ‘ㅈ, ㅊ’으로 바뀌는 현상

- ① ‘물난리[물랄리]’는 유음화가 두 번 적용되었다.
- ② ‘굳히다[구치다]’는 거센소리되기과 구개음화가 각각 한 번씩 적용되었다.
- ③ ‘밟는[밤:는]’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가 각각 한 번씩 적용되었다.
- ④ ‘밥맛만[밤만만]’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한 번, 비음화가 두 번 적용되었다.
- ⑤ ‘붓하고[부타고]’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거센소리되기가 각각 한 번씩 적용되었다.

▶ 8048-0022

02 국어의 단모음을 분류한 다음 표를 바탕으로 모음 변동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음 분류와 모음 변동의 관계를 묻는 유형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고모음	ㅣ	꺀	ㅡ	ㅓ
중모음	꺀	꺀	꺀	꺀
저모음	꺀		ㅏ	

- ① ‘물 > 물’에서의 모음 변동은 입술 모양만 달라지는 변동이군.
- ② ‘보선 > 버전’에서의 모음 변동은 입술 모양만 달라지는 변동이군.
- ③ ‘츄 > 줌’에서의 모음 변동은 혀의 전후 위치만 달라지는 변동이군.
- ④ ‘남비 > 냄비’에서의 모음 변동은 혀의 전후 위치만 달라지는 변동이군.
- ⑤ ‘호도 > 호두’에서의 모음 변동은 혀의 전후 위치만 달라지는 변동이군.



답은꼐 발문 Tip

-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음운 변동을 바르게 이해한 것은?
- 다음을 참고할 때, 음운 변동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다음 ㉠~㉣의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음운 변동의 종류를 묻는 유형

01 <보기>를 참고할 때, 적용된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유음화: '㉠'이 '㉡'의 앞 또는 뒤에서 유음인 '㉢'로 바뀌는 현상
- 비음화: '㉣, ㉤, ㉥'이 비음 앞에서 각각 비음인 '㉦, ㉧, ㉨'으로 바뀌는 현상
- 거센소리되기: '㉣, ㉤, ㉥, ㉦'이 인접한 'ㅎ'과 결합하여 'ㅋ, ㅌ, ㅍ, ㅊ'으로 바뀌는 현상
-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절의 끝에서 발음될 수 없는 자음이 '㉣, ㉤, ㉥' 중 하나로 바뀌는 현상
- 구개음화: '㉣, ㉤'이 '㉦'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날 때 '㉧, ㉨'으로 바뀌는 현상

- ① '물난리[물랄리]'는 유음화가 두 번 적용되었다.
- ② '굳히다[구치다]'는 거센소리되기과 구개음화가 각각 한 번씩 적용되었다.
- ③ '맑는[밤:는]'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가 각각 한 번씩 적용되었다.
- ④ '밥맛만[밤만만]'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한 번, 비음화가 두 번 적용되었다.
- ⑤ '붓하고[부타고]'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거센소리되기가 각각 한 번씩 적용되었다.

유형 이해

표기된 자음이 어떤 음운 변동의 적용을 받아 어떻게 발음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음운 변동에는 된소리되기, 유음화, 비음화 등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둘 이상의 음운 변동이 적용되기도 한다. 둘 이상의 음운 변동이 적용될 경우에는 그것들 간의 순서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유형 공략

- ① 구개음화가 적용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정확히 구분한다.
- ② 둘 이상의 음운 변동이 함께 일어나기도 함을 고려한다.

정답 풀이

③의 '맑는'은 자음군 단순화와 비음화가 한 번씩 적용되어 [밤:는]으로 발음된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맑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오답 풀이

- ① '물난리'는 두 번의 유음화에 의해 [물랄리]로 발음된다.
- ② '굳히다'는 거센소리되기에 의해 '구티다'가 된 뒤 구개음화에 의해 [구치다]로 발음된다.
- ④ '밥맛만'은 우선 '밥맛'이 비음화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밤만]이 된 뒤 이 [밤만]에 '만'이 결합하여 다시 비음화에 의해 [밤만만]으로 발음된다.
- ⑤ '붓하고'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붓하고'가 된 뒤 거센소리되기에 의해 [부타고]로 발음된다.





답은꿀 발문 Tip

-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다음을 읽고 활동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다음의 단모음 체계표를 참고할 때,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모음 분류와 모음 변동의 관계를 묻는 유형

02 국어의 단모음을 분류한 다음 표를 바탕으로 모음 변동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고모음	ㅣ	ㅊ	ㅡ	ㅜ
중모음	ㅓ	ㅛ	ㅓ	ㅜ
저모음	ㅐ		ㅑ	

- ① '물 > 물'에서의 모음 변동은 입술 모양만 달라지는 변동이군.
- ② '보선 > 버선'에서의 모음 변동은 입술 모양만 달라지는 변동이군.
- ③ '츄 > 칩'에서의 모음 변동은 혀의 전후 위치만 달라지는 변동이군.
- ④ '남비 > 냄비'에서의 모음 변동은 혀의 전후 위치만 달라지는 변동이군.
- ⑤ '호도 > 호두'에서의 모음 변동은 혀의 전후 위치만 달라지는 변동이군.

유형 이해

단모음을 적절하게 분류할 수 있고 분류된 모음의 특성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단모음은 혀의 전후 위치, 혀의 높이, 입술 모양으로 분류할 수 있고, 음운 변동은 이런 모음의 특성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음운의 특성과 함께 이해해야 한다. 이런 음운의 분류는 여러 교과서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형 공략

- ① 모음의 특성을 이해한다.
- ② 모음을 적절한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모음의 분류와 음운 변동을 관련지어 이해한다.

정답 풀이

⑤ '호도 > 호두'에서는 중모음 'ㅓ'가 고모음 'ㅜ'로 변했으므로 혀의 높이가 달라졌다.

오답 풀이

- ① '물 > 물'에서는 평순 모음 'ㅡ'가 원순 모음 'ㅜ'로 변했으므로 입술 모양이 달라졌다.
- ② '보선 > 버선'에서는 원순 모음 'ㅜ'가 평순 모음 'ㅓ'로 변했으므로 입술 모양이 달라졌다.
- ③ '츄 > 칩'에서는 후설 모음 'ㅡ'가 전설 모음 'ㅣ'로 변했으므로 혀의 전후 위치가 달라졌다.
- ④ '남비 > 냄비'에서는 후설 모음 'ㅑ'가 전설 모음 'ㅐ'로 변했으므로 혀의 전후 위치가 달라졌다.



유형 연습 2

▶ 8048-0024

관형어와 부사어의 종류를 묻는 유형

01 <보기>의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문장 성분은 주성분, 부속 성분, 독립 성분으로 나뉘고 부속 성분은 다시 관형어와 부사어로 나뉜다. 부속 성분 중 관형어는 체언을 꾸며 주는 문장 성분으로, 관형어에는 ㉠관형사가 체언을 수식하는 것, ㉡관형사절이 체언을 수식하는 것, ㉢체언 자체로 다른 체언을 수식하는 것, 체언과 관형격 조사의 결합형이 체언을 수식하는 것 등이 있다. 이에 비해 부사어는, 부사가 체언을 수식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부사나 용언 등을 꾸며 주는 문장 성분이다. 용언을 꾸며 주는 부사어에는 ㉣부사가 용언을 수식하는 것, 체언과 부사격 조사의 결합형이 용언을 수식하는 것, ㉤의존 명사가 그에 딸린 관형어와 함께 용언을 수식하는 것 등이 있다.

- ① ㉠: 그녀는 옛 물건을 꺼냈다.
- ② ㉡: 철수가 거짓말을 한 사실이 기어이 드러나고 말았다.
- ③ ㉢: 부산 날씨를 지금 바로 좀 알아봐 줄래?
- ④ ㉣: 겨우 둘이 그 일을 해낼 수 있겠니?
- ⑤ ㉤: 그는 신발을 신은 채 마루 위에 올라섰다.

반의어의 종류와 실례를 묻는 유형

▶ 8048-0025

02 <보기>의 ㉠, ㉡에 추가할 수 있는 예로 적절한 것끼리 묶은 것은?

보기

반의어는 다음과 같이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 ㉠ 상보 반의어: A와 B가 포함된 의미 영역에서, A가 아닌 것은 모두 B이고 B가 아닌 것은 모두 A이다. 예) (부모 중에서) 아버지 ↔ 어머니
- ㉡ 정도 반의어: A와 B가 포함된 의미 영역에서, A와 B는 극단적인 속성을 나타내고 중간적인 속성이 존재한다. 예) 부자(富者) ↔ 빈자(貧者), 높다 ↔ 낮다

상보 반의어는 한쪽의 부정이 곧 다른 쪽의 긍정이다. 부모 중에서 아버지가 아닌 쪽은 반드시 어머니이다. 정도 반의어는 정도의 차이를 표현할 수 있다. 더 부자인 사람과 덜 부자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더 높은 것과 덜 높은 것이 있을 수 있다.

	㉠	㉡
①	있다 ↔ 없다	왼손 ↔ 오른손
②	길다 ↔ 짧다	쉽다 ↔ 어렵다
③	작다 ↔ 크다	남자 ↔ 여자
④	죽다 ↔ 살다	덥다 ↔ 춥다
⑤	느리다 ↔ 빠르다	참 ↔ 거짓



답은꼴 발문 Tip

- (가)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예를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짝지은 것은?
- <보기 2>의 예문 중, <보기 1>의 밑줄 친 내용에 해당하는 것끼리 바르게 묶은 것은?

관형어와 부사어의 종류를 묻는 유형

01 <보기>의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문장 성분은 주성분, 부속 성분, 독립 성분으로 나뉘고 부속 성분은 다시 관형어와 부사어로 나뉜다. 부속 성분 중 관형어는 체언을 꾸며 주는 문장 성분으로, 관형어에는 ㉠관형사가 체언을 수식하는 것, ㉡관형사절이 체언을 수식하는 것, ㉢체언 자체로 다른 체언을 수식하는 것, 체언과 관형격 조사의 결합형이 체언을 수식하는 것 등이 있다. 이에 비해 부사어는, 부사가 체언을 수식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부사나 용언 등을 꾸며 주는 문장 성분이다. 용언을 꾸며 주는 부사어에는 ㉣부사가 용언을 수식하는 것, 체언과 부사격 조사의 결합형이 용언을 수식하는 것, ㉤의존 명사가 그에 딸린 관형어와 함께 용언을 수식하는 것 등이 있다.

- ① ㉠: 그녀는 옛 물건을 꺼냈다.
- ② ㉡: 철수가 거짓말을 한 사실이 기어이 드러나고 말았다.
- ③ ㉢: 부산 날씨를 지금 바로 좀 알아봐 줄래?
- ④ ㉣: 겨우 둘이 그 일을 해낼 수 있겠니?
- ⑤ ㉤: 그는 신발을 신은 채 마루 위에 올라섰다.

유형 이해

문장 성분은 다양한 방법으로 형성되는데, 특히 관형어와 부사어는 그 형성 방법이 다양하다. 이런 형성 방법을 잘 이해하고 실례를 들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꼭 이 두 문장 성분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다른 문장 성분의 형성 방법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유형 공략

- ① 문장 성분에 대해 이해한다.
- ② 문장 성분과 품사의 차이를 파악한다.
- ③ 특정 문장 성분의 형성 과정에 대해 이해한다.

정답 풀이

④ 부사 '겨우'가 부사어인 것은 맞지만 체언 '둘'을 수식하고 있어 <보기> ㉣의 설명과는 합치하지 않는다. 참고로, 부사가 체언을 수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④의 예나 '바로 이웃이 철수네 집이다. / 그가 꼭 너만 좋다고 하는구나. / 옛날에 아주 부자가 있었는데 무척 구두쇠였다.'의 예에서와 같이, 부사가 체언의 수량이나 정도, 위치를 한정하는 경우에는 체언을 수식하는 것이 가능하다.

오답 풀이

- ① '옛'은 관형사로서 그대로 관형어가 되었다.
- ② '철수가 거짓말을 한'은 '사실'을 수식하는 관형사절이다. 이 관형사절이 관형어가 되었다.
- ③ '부산'은 체언 자체로 '날씨'를 수식하는 관형어이다.
- ⑤ 의존 명사인 '채'와 그것을 수식하는 '신발을 신은'이 결합한 '신발을 신은 채' 전체가 부사어로 기능하고 있다.



답은꼴 발문 Tip

- 다음 밑줄 친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다음 중 <보기>에서 설명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의 ㉠의 예로만 짝지은 것은?

반의어의 종류와 실례를 묻는 유형

02 <보기>의 ㉠, ㉡에 추가할 수 있는 예로 적절한 것끼리 묶은 것은?

보기

반의어는 다음과 같이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 ㉠ 상보 반의어: A와 B가 포함된 의미 영역에서, A가 아닌 것은 모두 B이고 B가 아닌 것은 모두 A이다. ㉡ (부모 중에서) 아버지 ↔ 어머니
- ㉡ 정도 반의어: A와 B가 포함된 의미 영역에서, A와 B는 극단적인 속성을 나타내고 중간적인 속성이 존재한다. ㉢ 부자(富者) ↔ 빈자(貧者), 높다 ↔ 낮다

상보 반의어는 한쪽의 부정이 곧 다른 쪽의 긍정이다. 부모 중에서 아버지가 아닌 쪽은 반드시 어머니이다. 정도 반의어는 정도의 차이를 표현할 수 있다. 더 부자인 사람과 덜 부자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더 높은 것과 덜 높은 것이 있을 수 있다.

	㉠	㉡
①	있다 ↔ 없다	왼손 ↔ 오른손
②	길다 ↔ 짧다	쉽다 ↔ 어렵다
③	작다 ↔ 크다	남자 ↔ 여자
④	죽다 ↔ 살다	덥다 ↔ 춥다
⑤	느리다 ↔ 빠르다	참 ↔ 거짓

유형 이해

단어의 의미는 그 자체로만 이해되기보다는 관련 단어와의 비교를 통해 더 잘 이해될 수 있다. 이에 반의어, 유의어, 상의어, 하의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 문제에서는 특히 반의어의 종류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제시된 설명과 예를 통해 예를 추가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유형 공략

- ① 단어의 의미를 이해한다.
- ② 단어들 간의 관계에 어떤 것이 있는지 학습한다.
- ③ 반의어의 종류에 대해 파악한다.

정답 풀이

④ ‘죽다 ↔ 살다’는 죽지도 살지도 않은 중간적인 경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죽다’가 아닌 것은 ‘살다’이고 ‘살다’가 아닌 것은 ‘죽다’이기 때문에 상보 반의어이고, ‘덥다 ↔ 춥다’는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중간적인 경우가 가능하므로 정도 반의어이다.

오답 풀이

- ① 모두 상보 반의어이다.
- ② 모두 정도 반의어이다.
- ③ ‘작다 ↔ 크다’는 정도 반의어이고, ‘남자 ↔ 여자’는 상보 반의어이다.
- ⑤ ‘느리다 ↔ 빠르다’는 정도 반의어이고, ‘참 ↔ 거짓’은 상보 반의어이다.



유형 연습 ③

▶ 8048-0026

중세 국어의 특징을 묻는 유형

01 현대어 풀이를 참고할 때, ㉠~㉤에 나타난 15세기 국어의 특징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ㄱ르미 푸르니 새 더욱 희오
- 꺾히 꺾러흐니 곳 비치 ㉡ 불붙는 듯도다
- ㉢ 올 보미 본딘 쫓 디나가느니
- 어느 ㉣ 나리 이 ㉤ 도라갈 희오

- 두보, 「절구(絶句)」, 『분류두공부시언해』

[현대어 풀이]

강이 푸르니 새가 더욱 희고
 산이 꺾러니 꽃 빛이 불붙는 듯하구나
 올해의 봄이 보건대 또 지나가니
 어느 날이 돌아갈 해인가

- ① ㉠을 통해 15세기에는 한자어 ‘강’의 고유어로 ‘ㄱ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② ㉡을 통해 15세기에도 비음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③ ㉢을 통해 15세기에는 관형격 조사로 ‘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④ ㉣을 통해 15세기에는 이어 적기(연철)를 했음을 알 수 있다.
- ⑤ ㉤을 통해 15세기에도 합성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8048-0027

어문 규정의 이해도를 묻는 유형

02 <보기>의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학습 목표: 파생어와 그 표기에 대한 ‘한글 맞춤법’의 규정을 이해한다.
- 학습 자료: ‘한글 맞춤법’ 규정

제19항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1. ‘-이’가 붙어서 명사로 된 것: 깊이, 높이, 다듬이
2.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 얇, 묽음, 믿음
3. ‘-이’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 같이, 굳이, 길이
4.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 밝히, 익히, 작히

다만,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이라도 그 어간의 뜻과 멀어진 것은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붙임]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 학생들 의견

(가)

- ① 제19항 1의 예로 용언 ‘길다’에 ‘-이’가 붙은 ‘길이’를 추가할 수 있겠군.
- ② 제19항 1의 예로 용언 ‘떡다’에 ‘-이’가 붙은 ‘떡이’를 추가할 수 있겠군.
- ③ 제19항 2의 예로 용언 ‘묻다’에 ‘-음/-ㅁ’이 붙은 ‘묻음’을 추가할 수 있겠군.
- ④ 제19항 2의 예로 용언 ‘죽다’에 ‘-음/-ㅁ’이 붙은 ‘죽음’을 추가할 수 있겠군.
- ⑤ 제19항 3의 예로 용언 ‘높다’에 ‘-이’가 붙은 ‘높이’를 추가할 수 있겠군.



음운 변화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유형

03 15세기와 현대의 단어 형태를 비교할 때, 그 사이에 적용된 음운 변화를 <보기>에서 모두 찾은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5세기에 존재하던 음운 중 현대로 오는 과정에서 사라진 대표적인 것으로 ‘·’와 ‘△’이 있다. 이 두 음운의 소멸 과정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가) 모음 ‘·’는 단어의 첫째 음절에서 ‘ㅏ’로 변했다.
- (나) 모음 ‘·’는 단어의 둘째 음절 이하에서 ‘ㅡ’로 변했다.
- (다) 자음 ‘△’은 음가가 없는 ‘ㅇ’으로 변하여 사라졌다.

	15세기	현대	적용된 음운 변화
①	들	달	(가)
②	미릅	매듭	(나)
③	두셔	두어	(다)
④	스시	사이	(가), (다)
⑤	믹슴	마음	(가), (나), (다)



답은꼐 발문 Tip

- <보기>를 바탕으로 중세 국어의 음운 'ㅁ', 'ㅅ', 'ㅇ'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다음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밑줄 친 말이 <보기>의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중세 국어의 특징을 묻는 유형

01 현대어 풀이를 참고할 때, ㉠~㉤에 나타난 15세기 국어의 특징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ㄱ르미 꼭르니 새 더욱 희오
- ㅍ히 퍼러히니 곳 비치 ㉡ 불븐논 듯도다
- ㉢ 읍 보미 본딘 쯔 디나가느니
- 어느 ㉣ 나리 이 ㉤ 도라갈 희오

- 두보, 「절구(絶句)」, 「분류두공부시언해」

[현대어 풀이]
 강이 푸르니 새가 더욱 희고
 산이 퍼러니 꽃 빛이 불븐는 듯하구나
 읍해의 봄이 보건대 또 지나가니
 어느 날이 돌아갈 해인가

- ① ㉠을 통해 15세기에는 한자어 '강'의 고유어로 'ㄱ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② ㉡을 통해 15세기에도 비음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③ ㉢을 통해 15세기에는 관형격 조사로 'ㅅ'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④ ㉣을 통해 15세기에는 이어 적기(연철)를 했음을 알 수 있다.
- ⑤ ㉤을 통해 15세기에도 합성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유형 이해

중세 국어의 특징과 표기법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중세 국어에는 'ㅁ', 'ㅅ', 'ㅇ' 등 오늘날에는 쓰이지 않는 문자와 음소가 존재했고 현대 국어와는 달리 'ㅎ'으로 끝나는 명사도 있었다. 한편 중세 국어의 특징적인 표기법으로 팔종성법과 연철 등도 있었다. 이러한 중세 국어의 특징적인 면모를 예를 통해 기억해 두도록 한다.

유형 공략

- ① 중세 국어의 특징을 이해한다.
- ② 중세 국어의 표기법을 이해한다.
- ③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차이점을 이해한다.

정답 풀이

② '불븐논'에 비음화가 적용되면 '불븐논'이 되어야 하므로, 지금의 '불븐논'에서 비음화를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풀이

- ① 'ㄱ르미'는 명사 'ㄱ름'에 주격 조사 '이'가 결합된 것으로, 'ㄱ름'은 한자어 '강(江)'의 고유어이다.
- ③ '읍'은 명사 '읍'에 관형격 조사 'ㅅ'이 결합한 것으로, 이 '읍'에서 15세기의 관형격 조사 'ㅅ'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 ④ '나리'는 '날+이'를 연철(이어 적기)한 것이다.
- ⑤ '도라가다'는 '돌다'와 '가다'가 결합한 합성어이다. 참고로, '(사과를) 깎아 먹다'와 같이 '용언의 연결형+용언 어간'은 국어 문장에서 흔히 나타나는 단어 배열법이므로 '도라가다'는 통사적 합성어이다.



답은꼴 발문 Tip

- 다음의 탐구 과정에서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의 설명을 바탕으로 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의 자료를 읽고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02 **어문 규정의 이해도를 묻는 유형**
〈보기>의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학습 목표: 파생어와 그 표기에 대한 ‘한글 맞춤법’의 규정을 이해한다.
- 학습 자료: ‘한글 맞춤법’ 규정

제19항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1. ‘-이’가 붙어서 명사로 된 것: 깊이, 높이, 다듬이
2.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 얇, 묽음, 믿음
3. ‘-이’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 같이, 굳이, 길이
4.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 밝히, 익히, 작히

다만,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이라도 그 어간의 뜻과 멀어진 것은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붙임]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 학생들 의견

(가)

- ① 제19항 1의 예로 용언 ‘깊다’에 ‘-이’가 붙은 ‘깊이’를 추가할 수 있겠군.
- ② 제19항 1의 예로 용언 ‘떡다’에 ‘-이’가 붙은 ‘떡이’를 추가할 수 있겠군.
- ③ 제19항 2의 예로 용언 ‘묻다’에 ‘-음/-ㅁ’이 붙은 ‘묻음’을 추가할 수 있겠군.
- ④ 제19항 2의 예로 용언 ‘죽다’에 ‘-음/-ㅁ’이 붙은 ‘죽음’을 추가할 수 있겠군.
- ⑤ 제19항 3의 예로 용언 ‘높다’에 ‘-이’가 붙은 ‘높이’를 추가할 수 있겠군.

유형 이해

‘한글 맞춤법’은 어법에 맞게 적는 것, 즉 그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이 원칙이어서 그렇지 않은 경우는 관련 부분에서 규정을 제시해 두고 있다. 제19항 역시 원형을 밝혀 적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아울러 보여 주고 있다. 이 문제는 ‘한글 맞춤법’ 규정 및 그 예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 익숙해지도록, 규정을 읽고 이해하는 훈련을 어느 정도 해 둘 필요가 있다.

유형 공략

- ① ‘한글 맞춤법’ 규정에 대해 이해한다.
- ② 원형을 밝혀 적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한다.
- ③ 단어의 구조, 특히 파생어의 특성에 대해 학습한다.

정답 풀이

③ ‘묻음’은 동사 ‘(손에 기름이) 묻다’나 ‘(땅에) 묻다’의 명사형으로 접미사 ‘-음/-ㅁ’과 관련된 규정인 제19항 2와는 관련이 없다. 참고로, ‘(땅에) 묻다’의 파생 명사 ‘무덤’은 ‘묻다’에 ‘-ㅁ’이 붙어서 파생된 명사로서 이 역시 제19항 2와는 관련이 없다.

오답 풀이

- ① ‘깊이’는 ‘깊다’에 ‘-이’가 붙어서 파생된 명사로서 제19항 1의 예로 추가될 수 있다.
- ② ‘떡이’는 ‘떡다’에 ‘-이’가 붙어서 파생된 명사로서 제19항 1의 예로 추가될 수 있다.
- ④ ‘죽음’은 ‘죽다’에 ‘-음/-ㅁ’이 붙어서 파생된 명사로서 제19항 2의 예로 추가될 수 있다.
- ⑤ ‘높이’는 ‘높다’에 ‘-이’가 붙어서 파생된 부사로서 제19항 3의 예로 추가될 수 있다.



답은 꿀 발문 Tip

- <보기>를 읽고,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의미 변화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 <보기>를 참고할 때, 음운 변동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음운 변화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유형

03 15세기와 현대의 단어 형태를 비교할 때, 그 사이에 적용된 음운 변화를 <보기>에서 모두 찾은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5세기에 존재하던 음운 중 현대로 오는 과정에서 사라진 대표적인 것으로 ‘·’와 ‘△’이 있다. 이 두 음운의 소멸 과정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가) 모음 ‘·’는 단어의 첫째 음절에서 ‘ㅏ’로 변했다.
- (나) 모음 ‘·’는 단어의 둘째 음절 이하에서 ‘ㅡ’로 변했다.
- (다) 자음 ‘△’은 음가가 없는 ‘ㅇ’으로 변하여 사라졌다.

	15세기	현대	적용된 음운 변화
①	들	달	(가)
②	딛딛	매딛	(나)
③	두셔	두어	(다)
④	스시	사이	(가), (다)
⑤	딛슴	마음	(가), (나), (다)

유형 이해

국어의 변화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음운의 변화, 문법의 변화, 어휘의 변화를 섞어 물을 수도 있고 개별적으로 물을 수도 있는데, 이 문제는 음운의 변화를 알고 있는지를 묻고 있다. 15세기 국어의 어형과 현대 국어의 어형이 어떻게 다른지, 또 그 달라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15세기 국어와 현대 국어를 비교할 수 있는 관찰력을 키워야 한다.

유형 공략

- ① 근대 이전 국어의 특징적인 사항을 학습한다.
- ② 현대 국어에서 쓰이지 않는 문자(‘·’, ‘△’, ‘뽕’)에 대해 이해한다.
- ③ 구개음화, 원순 모음화 등의 음운 변화에 대해 이해한다.

정답 풀이

② ‘딛딛’은 단어의 첫째 음절에서의 ‘· > ㅏ’ 변화, 둘째 음절 이하에서의 ‘· > ㅡ’ 변화에 의해 ‘매딛’이 되었다. 따라서 ‘딛딛 > 매딛’에는 (가), (나)의 변화가 적용되었다. 참고로, ‘개’는 근대 국어 시기에 ‘ay > ε’의 변화를 겪어 오늘의 음가를 가지게 되었다.

오답 풀이

- ① ‘들’은 단어의 첫째 음절에서의 ‘· > ㅏ’ 변화에 의해 ‘달’이 되었다.
- ③ ‘두셔’는 ‘△’의 소멸에 의해 ‘두어’가 되었다.
- ④ ‘스시’는 단어의 첫째 음절에서의 ‘· > ㅏ’ 변화와 ‘△’의 소멸에 의해 ‘사이’가 되었다.
- ⑤ ‘딛슴’은 단어의 첫째 음절에서의 ‘· > ㅏ’ 변화와 둘째 음절 이하에서의 ‘· > ㅡ’ 변화와 ‘△’의 소멸에 의해 ‘마음’이 되었다.



*** 유형 연습 4 ***

[01~02] 국어사전의 다음 부분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르다01 「동사」

활용 정보: {이르러, 이르니}

【…에】

「1」 어떤 장소나 시간에 닿다. ¶ 자정에 이르러서야 집에 돌아왔다.

「2」 어떤 정도나 범위에 미치다. ¶ 그는 열다섯에 이미 키가 육 척에 이르렀다.

[<니르다(『석보상절』)]

이르다02 「동사」

활용 정보: {일러, 이르니}

「1」 【…에게 -고】 무엇이라고 말하다. ¶ 그가 주모에게 술을 더 가져오라고 이른다.

「2」 【…에게 …을】 = 타이르다. ¶ 그는 동생에게 다시는 늦지 말 것을 단단히 일렀다.

「3」 【…에게 …을】 미리 알려 주다. ¶ 친구에게 약속 시간을 일러 주었다.

「4」 【…에게 -고】 어떤 사람의 잘못을 윗사람에게 말하여 알게 하다. ¶ 형은 엄마에게 내가 벽에 낙서했다고 일렀다.

[<니르다(『석보상절』)]

이르다03 「형용사」

활용 정보: {일러, 이르니}

【…보다】 【-기에】 대중이나 기준을 잡은 때보다 앞서거나 빠르다. ¶ 그는 어느 때보다 이르게 학교에 도착했다. ¶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다.

[이르다(『법화경언해』)]



▶ 8048-0029

국어사전의 문법 정보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유형

01 위 국어사전을 참고하여 ‘이르다01’, ‘이르다02’, ‘이르다03’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르다01’은 두 자리 서술어이고 ‘이르다03’은 세 자리 서술어이다.
- ② ‘이르다01’과 ‘이르다02’는 둘 다 다의어인 데 반해, ‘이르다03’은 다의어가 아니다.
- ③ ‘이르다01’과 ‘이르다02’의 현재 시제 관형사형은 ‘이르는’인 데 반해, ‘이르다03’의 현재 시제 관형사형은 ‘이른’이다.
- ④ 어미 ‘-었다’가 결합한 활용형은 ‘이르다01’의 경우에는 ‘이르렀다’이고, ‘이르다02’와 ‘이르다03’의 경우에는 ‘일렀다’이다.
- ⑤ ‘이르다01’과 ‘이르다02’는 과거에 ‘니르다’였으므로 ‘니 > 이’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이르다03’은 과거에도 ‘이르다’였으므로 현대 국어와 그 형태가 같았음을 알 수 있다.



▶ 8048-0030

단어의 뜻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를 묻는 유형

02 위 국어사전에 용례를 추가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르다01 「1」: 하늘에서부터 인공위성에 이르기까지 철이 들어가지 않는 산업은 없다.
- ② 이르다01 「2」: 전쟁이 끝난 뒤 이들은 서로 소식도 모른 채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 ③ 이르다02 「1」: 그렇게 서두를 것이 없지 않느냐고 스스로에게 일렀다.
- ④ 이르다02 「3」: 친구의 잘못을 선생님께 다 이르다가는 친구를 잃을지도 모른다.
- ⑤ 이르다03: 오빠한테 손님이 한 시간 후에 도착한다고 일러라.



답은꼴 발문 Tip

- <보기 1>과 <보기 2>의 설명의 비교로 적절한 것은?
-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다음 국어사전을 참고하여 '뜨다01'과 '뜨다04'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국어사전의 문법 정보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유형

01 위 국어사전을 참고하여 '이르다01', '이르다02', '이르다03'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르다01'은 두 자리 서술어이고 '이르다03'은 세 자리 서술어이다.
- ② '이르다01'과 '이르다02'는 둘 다 다의어인 데 반해, '이르다03'은 다의어가 아니다.
- ③ '이르다01'과 '이르다02'의 현재 시제 관형사형은 '이르는'인 데 반해, '이르다03'의 현재 시제 관형사형은 '이른'이다.
- ④ 어미 '-었다'가 결합한 활용형은 '이르다01'의 경우에는 '이르렀다'이고, '이르다02'와 '이르다03'의 경우에는 '일렀다'이다.
- ⑤ '이르다01'과 '이르다02'는 과거에 '니르다'였으므로 '니 > 이'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이르다03'은 과거에도 '이르다'였으므로 현대 국어와 그 형태가 같았음을 알 수 있다.

유형 이해

국어사전의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 바른 국어 생활을 위해 필요하다. 이 문제는 국어사전의 정보를 통해 '이르다01', '이르다02', '이르다03'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국어사전에 제시되어 있는 항목의 구조에 대해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유형 공략

- ① 국어사전에 제시된 항목의 구조에 대해 이해한다.
- ② 국어사전에 제시되어 있는 활용 정보와 뜻풀이, 기본 문형 등에 대해 파악한다.
- ③ 같은 형태의 단어, 즉 동음어에 대해 특히 주목한다.

정답 풀이

① '이르다01'과 '이르다03'은 주어와 부사어를 각각 필요로 하므로 두 자리 서술어이다.

오답 풀이

② '이르다01'과 '이르다02'는 둘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둘 다 다의어라 할 수 있는 데 반해, '이르다03'은 하나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의어라 하기 어렵다.

③ '이르다01'과 '이르다02'는 동사이고 '이르다03'은 형용사이므로 현재 시제 관형사형은 각각 '이르는'과 '이른'이다.

④ 활용형 '이르러'와 '일러'를 고려하면 '이르다01'은 '러 불규칙 용언'이고 '이르다02'와 '이르다03'은 '르 불규칙 용언'으로, '-었다'가 결합한 '이르다01'과 '이르다02, 03'의 적절한 활용형은 각각 '이르렀다'와 '일렀다'이다.

⑤ 국어사전의 정보에 따르면 '이르다01'과 '이르다02'는 과거에 '니르다'였으므로 '니 > 이'의 변화에 의해 '이르다'가 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고, '이르다03'은 과거에도 '이르다'였으므로 현대 국어의 어형과 다름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답은꼴 발문 Tip

- <보기> ㉠, ㉡의 의미로 적절한 것은?
- <보기>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예문을 제시해 본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어의 뜻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를 묻는 유형

02 위 국어사전에 용례를 추가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르다01 「1」: 바늘에서부터 인공위성에 이르기까지 철이 들어가지 않는 산업은 없다.
- ② 이르다01 「2」: 전쟁이 끝난 뒤 이들은 서로 소식도 모른 채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 ③ 이르다02 「1」: 그렇게 서두를 것이 없지 않느냐고 스스로에게 일렀다.
- ④ 이르다02 「3」: 친구의 잘못을 선생님께 다 이르다가는 친구를 잃을지도 모른다.
- ⑤ 이르다03: 오빠한테 손님이 한 시간 후에 도착한다고 일러라.

유형 이해

이 문제는 국어사전의 구조와 정보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국어사전의 구조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필수적이다. 적절한 용례를 찾는 문제도 출제될 수 있는데, 다의어의 경우 의미의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의미를 세밀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문제에서는 제시문에서 용례를 제시했기 때문에 다소 쉬울 수도 있지만, 아예 용례 없이 바로 적절한 용례를 찾게 할 수도 있다.

유형 공략

- ① 동음어에 대해 이해한다.
- ② 다의어의 여러 의미와 그것들 간의 차이를 파악한다.
- ③ 의미나 용법이 동일한 예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

정답 풀이

③의 '이르다'는 '무엇이라고 말하다.'의 의미이므로 ③은 '이르다02 「1」'의 용례로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①의 '이르다'는 '어떤 정도나 범위에 미치다.'의 의미이므로 ①은 '이르다01 「2」'의 용례이다.
- ②의 '이르다'는 '어떤 장소나 시간에 닿다.'의 의미이므로 ②는 '이르다01 「1」'의 용례이다.
- ④의 '이르다'는 '어떤 사람의 잘못을 헛사람에게 말하여 알게 하다.'의 의미이므로 ④는 '이르다02 「4」'의 용례이다.
- ⑤의 '이르다'는 '미리 알려 주다.'의 의미이므로 ⑤는 '이르다02 「3」'의 용례이다.





유형 연습 ①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케플러는 태양계 행성에 대한 관측 결과를 토대로 행성 운행의 규칙성을 발견했다. 행성은 태양을 하나의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따라 운행하며, 태양과 가까울 때는 빠르게 움직이고 태양과 멀어질 때는 느리게 움직인다. 또한 공전 궤도가 큰 행성일수록 공전 주기 역시 길다. 하지만 이러한 행성의 운동에 대한 발견은 경험적 관찰에 대한 분석이었기 때문에 행성이 왜 이렇게 운행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당대의 학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적 운동관에 따라 행성을 타원 궤도 방향으로 미는 힘이 계속해서 가해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물체의 자연스러운 상태는 정지 상태이므로 행성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움직이는 내내 행성을 밀어 줄 무언가가 존재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후 갈릴레이에 의해 관성의 법칙이 발견됨으로써 어떤 물체가 외부로부터 아무런 힘을 받지 않는다면, 그 물체는 지금의 빠르기와 진행 방향을 유지하면서 영원히 직선 운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다. 이는 이후 뉴턴에 의해 물체의 속도가 변화하면, 즉 운동 방향이나 빠르기에 변화가 생겼다면 물체에 새로운 힘이 가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물체에 힘을 가해 발생한 가속도의 크기는 그 물체의 질량에 반비례한다는 역학 법칙으로 발전했다.

뉴턴은 그의 역학 법칙에 따라 행성이 태양 주변을 공전하기 위해서는 궤도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아니라 태양 쪽을 향해 작용하는 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뉴턴의 역학 법칙에 따르면, 행성에 아무런 힘이 가해지지 않는다면 행성은 관성에 의해 궤도의 접선 방향으로 등속 운동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행성이 태양을 하나의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따라 운행하며, 태양과의 거리에 따라 운행 속도가 달라지기 위해서는 행성을 태양 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해야 한다고 뉴턴은 생각했다. 그는 이로부터 임의의 두 물체 사이에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 즉 ‘만유인력’이 존재하며, 만유인력의 크기는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둘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표했다.

하지만 만유인력의 법칙이 발표되던 당시, 학계를 지배하고 있던 데카르트주의는 행성 사이의 원거리 인력 작용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물체의 운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외부의 작용뿐이며, 그러한 외부의 작용은 물체 간의 접촉에 의해서만 일어날 수 있다. 데카르트 역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진공 상태란 불가능하며, 우주는 ‘에테르’라는 물질 입자로 가득 찬 공간이라고 보았다. 그는 행성이 타원 궤도를 따라 운행하는 것은 에테르의 소용돌이 때문이라는 ‘소용돌이 이론’을 주장했다. 즉 행성들이 마치 흐르는 강에 떠 있는 배처럼 거대한 에테르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태양 주위로 운반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데카르트의 우주관을 따르던 당시 학계는 두 물체가 진공 상태에서 아무런 물질의 매개 없이 상호 작용할 수 있다는 뉴턴의 주장에 대해 자연 과학을 신비주의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관측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뉴턴의 만유인력이 데카르트의 소용돌이 이론에 대해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특히 ①혜성의 운동에 대한 관측은 데카르트의 소용돌이 이론이 부정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어느 날 갑자기 밤하늘에 긴 꼬리를 드리우고 나타나는 혜성은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경이의 대상이었다. 데카르트는 태양계 내에서 바깥쪽으로 갈수록 소용돌이의 회전 속도가 느려지지만, 태양계의 외곽을 넘어가면 소용돌이의 속도가 다시 빨라진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 흐름을 타고 매우 빨리 운동하는 천체가 있는데, 이것이 혜성이라고 보았다. 그는 태양계와 같은 우주들이 수없이 많이 존재하며, 혜성은 이런 우주들을 가로질러서 운동하는 물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뉴턴은 행성들의 공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태양계를 가로질러 가는 혜성의 존재가 에테르의 소용돌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 증거라고 보았다. 그는 소용돌이 속에서 혜성만 다른 행성들의 공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배를 타고 강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다고 비판하며, 혜성 역시 타원 궤도를 따라 운동하는 태양계의 천체라고 주장했다. 뉴턴의 주장대로 혜성 역시 행성과 마찬가지로 태양을 공전하는 천체라면, 만유인력의 법칙을 통해 혜성의 궤도를 예측할 수 있으며, 동일한 혜성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후 같은 위치에서 다시 관측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핼리는 이러한 뉴턴의 생각에 따라 혜성의 궤도를 계산하여, 1531년, 1607년, 1682년에 나타난 혜성이 모두 같은 혜성이며 1758년에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1758년 12월 25일에 혜성이 관측됨으로써 만유인력은 의심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으로 굳어지게 되었다.

글의 사실적 이해를 묻는 유형

▶ 8048-0031

01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아리스토텔레스적 운동관에 따르면, 행성에 접촉하여 행성을 타원 모양으로 운동하게 하는 지속적인 물체의 작용이 존재한다.
- ② 뉴턴의 만유인력은 임의의 두 물체 사이에서 물질의 매개 없이도 작용하는 힘이다.
- ③ 뉴턴은 태양과 행성 간의 거리에 따라 행성의 운행 속도가 달라지기 위해서는 행성에 작용하는 힘이 태양과의 거리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 ④ 데카르트는 행성이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이유는 에테르의 소용돌이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 ⑤ 데카르트의 우주관은 공전 궤도가 큰 행성일수록 공전 주기 역시 길어지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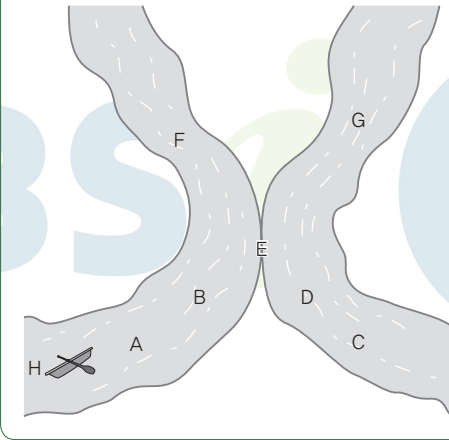


▶ 8048-0032

지문을 바탕으로 세부 내용을 추론하는 유형

02 <보기>는 ㉠을 설명하기 위해 데카르트가 든 비유이다. 이에 대해 ㉡이 제기했을 비판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왼쪽의 그림에서 보듯이 서로 붙어 있는 두 강에서 A→B→F 방향으로 진행하는 배 H가 유속이 빠를 경우에는 B에서 F로 가는 대신에 E를 넘어 G로 갈 수 있는 것처럼 혜성이 한 우주에서 다른 우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데카르트는 설명했다.

(단, 왼쪽 강물은 A→B→F로 흐르며, 오른쪽 강물은 C→D→G로 흐른다. 양쪽 강 모두 한 방향으로만 흐르며, 흘러간 강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 ① 배 H가 B→E→G로 이동하려면 강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기 때문이다.
- ② 배 H가 B→E→G로 이동한다면 C→E→F의 경로를 통해 F로 이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 ③ 배 H가 B→E→G로 이동한다면 G에 있는 태양계 행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 ④ 배 H가 B→E→G로 이동할 수 있다고 해도 다시 A에 배 H가 나타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 ⑤ 배 H가 E를 넘어갈 수 있다면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도 다른 우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 8048-0033

추가 정보를 적용하여 내용 이해를 묻는 유형

03 <보기>를 참고하여 뒷글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칼 포퍼는 과학적 발견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과정과 그 발견을 정당화하는 과정을 구별하고, 전자를 창의적인 상상력과 직관이 작용하는 영역으로, 후자를 논리와 이성이 작용하는 영역으로 정식화했다. 이른바 ‘발견의 맥락’과 ‘정당화의 맥락’의 구별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분석 틀에 대해 한스 라이헨바흐 역시 사유가 실제로 진행되는 과정에 관심을 두는 발견의 맥락에 관한 물음은 심리학의 관심사일 수는 있으나 인식론의 관심사는 아니라고 했다. 그는 인식론에서는 과학적 사고가 펼쳐진 실제 과정보다는 그것을 합리적으로 재구성한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① 데카르트가 진공 상태가 존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은 자연 현상에 대한 논리적 사유에 연유하겠군.
- ② 케플러가 행성 운동의 규칙성을 발견함으로써 데카르트의 행성 운동에 대한 이론은 정당화에 위기를 맞았겠군.
- ③ 뉴턴이 만유인력의 개념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케플러의 관측 결과에 대한 논리적 추론의 결과이겠군.
- ④ 아리스토텔레스의 접촉 운동 개념이 데카르트의 에테르 개념으로 이어진 것은 과학적 발견과 그에 대한 정당화가 구별되기 때문이겠군.
- ⑤ 데카르트와 뉴턴이 각각 에테르와 만유인력을 주장한 것은 발견의 맥락으로, 혜성에 대한 관측을 통해 만유인력의 법칙이 인정된 것은 정당화의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군.



Q '행성 운행의 원인에 대한 논쟁'

예제 이 글은 행성 운행의 원인에 대한 뉴턴과 데카르트의 논쟁을 소개하고 있다. 케플러가 발견한 행성 운행의 규칙성에 대해 뉴턴과 데카르트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그 원인을 설명했다. 즉 뉴턴은 만유인력을, 데카르트는 에테르의 소용돌이를 행성 운행의 원인으로 보았다. 이후 뉴턴의 주장대로 혜성 역시 태양계를 공전하는 천체임이 관측을 통해 확인됨으로써 뉴턴의 만유인력 이론이 데카르트의 소용돌이 이론에 대해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언급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주제 행성 운행의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서 뉴턴의 만유인력과 데카르트의 소용돌이 이론

- 구성**
- 1문단: 행성 운행의 원인에 대한 설명의 문제
 - 2문단: 아리스토텔레스적 운동관과 뉴턴의 역학 법칙
 - 3문단: 만유인력의 법칙을 통한 행성 운행의 원인에 대한 설명
 - 4문단: 데카르트의 소용돌이 이론과 만유인력에 대한 비판
 - 5문단: 소용돌이 이론의 혜성 운동에 대한 설명
 - 6문단: 혜성의 운동을 근거로 한 뉴턴의 소용돌이 이론 비판

답은꼴 발문 Tip

- 뒷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뒷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뒷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글의 사실적 이해를 묻는 유형

01 뒷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아리스토텔레스적 운동관에 따르면, 행성에 접촉하여 행성을 타원 모양으로 운동하게 하는 지속적인 물체의 작용이 존재한다.
- ② 뉴턴의 만유인력은 임의의 두 물체 사이에서 물질의 매개 없이도 작용하는 힘이다.
- ③ 뉴턴은 태양과 행성 간의 거리에 따라 행성의 운행 속도가 달라지기 위해서는 행성에 작용하는 힘이 태양과의 거리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 ④ 데카르트는 행성이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이유는 에테르의 소용돌이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 ⑤ 데카르트의 우주관은 공전 궤도가 큰 행성일수록 공전 주기 역시 길어지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

유형 이해

글의 사실적 이해 중 글에 나타나 있는 세부 정보를 잘 파악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난도가 낮은 경우에는 글에 직접적인 표현으로 제시되어 있는지의 여부만 판단하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난도가 좀 높은 경우에는 글에 직접적인 표현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제시되어 있는 표현을 통해 판단이 가능한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

유형 공략

- ① 선지의 핵심어나 핵심 어구를 찾고 선지의 핵심 내용을 파악한다.
- ② 지문에서 선지의 핵심 내용에 대해 진술한 부분을 찾는다.
- ③ 한군데에서만 제시된 정보에 해당하는 선지의 경우 지문과 일치하는지, 지문의 정보를 관련지은 선지의 경우 그 연결이 합당한지 파악한다.

정답 풀이

⑤ 데카르트는 행성이 타원 궤도를 따라 운행하는 이유는 에테르의 소용돌이 때문이라는 ‘소용돌이 이론’을 주장했다. 행성들이 거대한 에테르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태양 주위로 운반된다는 것으로, 5문단에서 ‘태양계 내에서 바깥쪽으로 갈수록 소용돌이의 회전 속도가 느려진다고 했는데 태양계의 바깥쪽에 위치한 행성일수록 공전 궤도가 크므로, 소용돌이 이론을 통해 공전 궤도가 큰 행성일수록 공전 주기 역시 길어지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2문단의 ‘당대의 학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적 운동관에 따라 행성을 타원 궤도 방향으로 미는 힘이 계속해서 가해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물체의 자연스러운 상태는 정지 상태이므로 행성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움직이는 내내 행성을 밀어 줄 무언가가 존재해야 했기 때문이다.’와 4문단의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물체의 운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외부의 작용뿐이며, 그러한 외부의 작용은 물체 간의 접촉에 의해서만 일어날 수 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3문단의 ‘임의의 두 물체 사이에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 즉 ‘만유인력’이 존재하며’와 4문단의 ‘이러한 데카르트의 우주관을 따르던 당시 학계는 두 물체가 진공 상태에서 아무런 물질의 매개 없이 상호 작용할 수 있다는 뉴턴의 주장에 대해 자연 과학을 신비주의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3문단의 ‘태양과의 거리에 따라 운행 속도가 달라지기 위해서는 행성을 태양 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해야 한다고 뉴턴은 생각했다. 그는 이로부터 임의의 두 물체 사이에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 즉 ‘만유인력’이 존재하며, 만유인력의 크기는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둘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표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④ 4문단의 ‘그는 행성이 타원 궤도를 따라 운행하는 것은 에테르의 소용돌이 때문이라는 ‘소용돌이 이론’을 주장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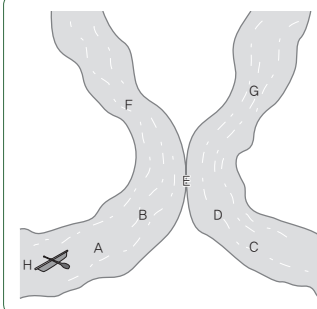
답은꼴 발문 Tip

- <보기>의 ㉠에 대한 ㉡의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의 ㉠에 대한 ㉡의 비판 근거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뒷글로 미루어 볼 때, <보기>의 ㉠에 대해 ㉡이 제기했을 비판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에 대해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문을 바탕으로 세부 내용을 추론하는 유형

02 <보기>는 ㉠을 설명하기 위해 데카르트가 든 비유이다. 이에 대해 ㉡이 제기했을 비판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왼쪽의 그림에서 보듯이 서로 붙어 있는 두 강에서 A→B→F 방향으로 진행하는 배 H가 유속이 빠를 경우에는 B에서 F로 가는 대신에 E를 넘어 G로 갈 수 있는 것처럼 행성이 한 우주에서 다른 우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데카르트는 설명했다.

(단, 왼쪽 강물은 A→B→F로 흐르며, 오른쪽 강물은 C→D→G로 흐른다. 양쪽 강 모두 한 방향으로만 흐르며, 흘러간 강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 ① 배 H가 B→E→G로 이동하려면 강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기 때문이다.
- ② 배 H가 B→E→G로 이동한다면 C→E→F의 경로를 통해 F로 이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 ③ 배 H가 B→E→G로 이동한다면 G에 있는 태양계 행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 ④ 배 H가 B→E→G로 이동할 수 있다고 해도 다시 A에 배 H가 나타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 ⑤ 배 H가 E를 넘어갈 수 있다면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도 다른 우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유형 이해

지문에 제시된 내용을 판단의 근거로 삼아 세부 내용을 이끌어 내는 문제이다. 글에 제시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하여 추가로 제시된 정보의 구체적 사항을 추론하는 것이다. 글의 정보를 근거로 하여 추론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한다.

유형 공략

- ① 추론의 대상이 되는 내용을 확인한다.
- ② 선지에서 언급한 정보를 지문에서 찾고, 추론의 대상과 관련지어 추론이 타당한지 판단해 본다.
- ③ 지문의 내용과 추가로 제시된 정보의 구체적 상황을 비교하여 서로 대응되는 지점을 찾는다.



정답 풀이

④ 데카르트는 혜성이 우주들을 가로질러서 운동하는 물체라고 주장했는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를 <보기>의 비유를 통해 제시했다. 즉 강물의 유속이 빠른 경우 배 H가 A→B→F의 흐름을 벗어나 C→D→G로 흘러가는 새로운 강물의 흐름에 포함될 수 있는 것처럼 혜성이 원래의 우주를 벗어나 새로운 우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데카르트의 주장에 대해 뉴턴은 혜성은 타원 궤도를 따라 운행하는 천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뉴턴의 주장에 따르면 혜성 역시 다른 행성들처럼 태양 주위를 공전하므로 만유인력의 법칙에 따라 그 궤도를 계산할 수 있고, 주기적으로 다시 나타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뉴턴은 혜성이 궤도를 따라 원래 위치에 다시 나타나기 위해서는 C→D→G의 흐름을 타게 된 배 H가 다시 E를 넘어 A로 흘러가야 하는데, 이는 A→B→F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므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뉴턴은 <보기>의 비유대로 B→E→G로 이동할 수 있다고 해도 강물을 거슬러 A에 배 H가 다시 나타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비판할 것이다.

오답 풀이

- ① 배 H가 경계 E를 넘어 B에서 G로 이동하는 것은 강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강의 흐름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E→G의 흐름은 오른쪽 강이 흘러가는 방향과 같기 때문이다. 이 글에 나타난 뉴턴의 ‘강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다’라는 비판이 적절하기 위해서는 데카르트의 비유가 강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귀착되어야 한다.
- ② 배 H가 E를 넘어 G로 이동한다면 오른쪽 강물을 따라 이동할 것이며, 흘러간 강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C→E→F의 경로로 이동할 수는 없을 것이다.
- ③ 태양계 행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혜성에 대한 데카르트의 비유를 반박하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 뉴턴 역학에 따라 혜성이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천체인 경우에도 혜성과 행성의 충돌은 나타날 수 있으며, 충돌 여부는 혜성의 정체가 무엇인지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 ⑤ 혜성의 운동에 대한 비유와 관련해서 뉴턴의 데카르트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혜성 역시 타원 궤도를 따라 운동하는 태양계의 천체’라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행성들에 대한 언급은 비판의 핵심을 벗어난다. 또한 데카르트의 소용돌이 이론에서 우주를 넘나드는 천체인 혜성은 태양계의 바깥쪽에서 운동하므로 소용돌이의 안쪽에서 운동하는 행성과는 맥락을 달리한다.





답은 곧 발문 Tip

- <보기>를 바탕으로 뒷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를 적용하여 뒷글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를 참고할 때,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추가 정보를 적용하여 내용 이해를 묻는 유형

03 <보기>를 참고하여 뒷글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칼 포퍼는 과학적 발견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과정과 그 발견을 정당화하는 과정을 구별하고, 전자를 창의적인 상상력과 직관이 작용하는 영역으로, 후자를 논리와 이성이 작용하는 영역으로 정식화했다. 이른바 '발견의 맥락'과 '정당화의 맥락'의 구별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분석 틀에 대해 한스 라이헨바흐 역시 사유가 실제로 진행되는 과정에 관심을 두는 발견의 맥락에 관한 물음은 심리학의 관심사일 수는 있으나 인식론의 관심사는 아니라고 했다. 그는 인식론에서는 과학적 사고가 펼쳐진 실제 과정보다는 그것을 합리적으로 재구성한 결과가 중요하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① 데카르트가 진공 상태가 존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은 자연 현상에 대한 논리적 사유에 연유하겠군.
- ② 케플러가 행성 운동의 규칙성을 발견함으로써 데카르트의 행성 운동에 대한 이론은 정당화에 위기를 맞았겠군.
- ③ 뉴턴이 만유인력의 개념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케플러의 관측 결과에 대한 논리적 추론의 결과이겠군.
- ④ 아리스토텔레스의 접촉 운동 개념이 데카르트의 에테르 개념으로 이어진 것은 과학적 발견과 그에 대한 정당화가 구별되기 때문이겠군.
- ⑤ 데카르트와 뉴턴이 각각 에테르와 만유인력을 주장한 것은 발견의 맥락으로, 혜성에 대한 관측을 통해 만유인력의 법칙이 인정된 것은 정당화의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군.

유형 이해

추가로 주어진 정보를 글에 적용하여 글의 내용을 심화하여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이때 제시되는 추가 정보는 지문의 핵심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이거나 이를 다른 관점으로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는 내용이다. 글의 전체 맥락을 바탕으로 추가 정보와 글의 연관성을 잘 파악해야 한다.

유형 공략

- ① 선지에서 특정한 지문의 정보를 찾아 표시한다.
- ② 추가로 제시된 정보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이것과 글의 연관성을 파악한다.
- ③ 추가로 제시된 정보가 글의 내용을 다른 관점으로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으로 구성된 경우 새롭게 제시된 개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정답 풀이

⑤ <보기>는 직관이 작용하는 과학적 '발견'과 논리가 작용하는 발견에 대한 '정당화'가 서로 구별된다고 말한다. 이에 따르면 행성의 운행에 대해 데카르트가 제시한 에테르의 소용돌이와 뉴턴이 제시한 만유인력은 논리적 또는 이성적 영역이 아니라 창의적, 직관적 영역인 '발견의 맥락'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혜성에 대한 관측을 통해 만유인력이 정당화된 것은 '정당화의 맥락'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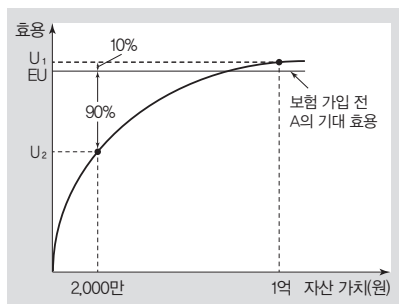
오답 풀이

- ① 데카르트가 진공 상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은 논리적 정당화의 결과가 아니라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직관에 근거한다.
- ② 데카르트는 케플러가 발견한 행성 운동의 규칙성을 소용돌이 이론을 통해 설명하려 했다.
- ③ <보기>는 과학적 발견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창의적인 상상력과 직관이 작용하는 영역이라고 하며, 논리와 이성이 작용하는 영역과 구별된다고 했다. 이에 따르면 뉴턴이 만유인력 개념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논리적 추론의 결과가 아니라 직관과 상상의 결과일 것이다.
- ④ 아리스토텔레스의 접촉 운동 개념과 데카르트의 에테르 개념 모두 정당화가 아닌 발견의 맥락과 관련되므로 발견과 정당화의 구별과는 관련이 없다.

유형 연습 ②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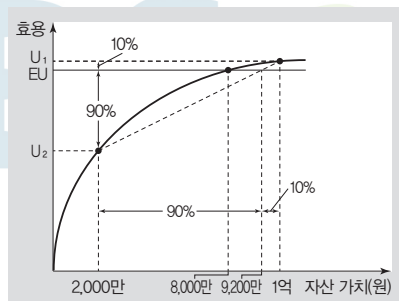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경제 주체는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소유한 주택의 가치가 1억 원이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 8,000만 원의 손실을 입는다고 하자. 이때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주택의 가치는 1억 원이고,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주택의 가치는 2,000만 원이 되어, A는 앞으로 자신의 주택 가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에 직면한다고 할 수 있다. 보험이란 보험 회사가 이러한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는 대신 가입자로부터 일정한 보험료를 ①지불받는 계약으로, 불확실성에 직면한 경제 주체는 보험 가입을 통해 불확실한 상황을 확실한 상황으로 ②바꾸으로써 효용(utility)*의 증가를 경험할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보험 가입을 통해 주택 가치의 변동 위험을 보험 회사에 전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1〉

A의 주택에 화재가 발생할 확률이 10%이고, 화재가 발생하지 않을 때의 효용이 U_1 , 화재가 발생할 때의 효용이 U_2 라고 하자. 이처럼 주택 가치의 불확실성에 직면한 A의 효용은 화재 발생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A의 효용은 화재 발생 확률에 의존하게 된다. 따라서 불확실한 현재 상태의 효용은 각 상황이 발생할 확률에 의해 각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효용들을 가중 평균한 값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를 ‘기대 효용(expected utility, EU)’이라고 한다. 이 값은 〈그림 1〉에서 U_1 과 U_2 사이의 길이를 1 대 9의 비율로 나누는 지점인 $EU(=90\% \times U_1 + 10\% \times U_2)$ 에 ③표시된다. 따라서 화재 발생 확률이 증가한다면 EU의 크기는 현재보다 작아질 것이다.

불확실한 현재 상황에서 A가 화재 발생 시 손실액 전액을 보상받는 보험에 가입한다고 하자. A는 얼마의 보험료를 지불할 용의가 있을까?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험에 가입하여 화재 발생 시 손실액 8,000만 원을 보상받는다면, A의 주택 가치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1억 원-보험료’이며, 화재가 발생할 경우 ‘2,000만 원-보험료+8,000만 원’이므로, 보험 가입 이후 A의 자산 가치는 화재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1억 원-보험료’가 된다. 따라서 보험 가입 이후 자산 가치인 ‘1억 원-보험료’로부터 얻는 효용이 보험 가입 이전 A의 기대 효용인 EU보다 크다면 A는 보험에 가입할 유인이 있다.



〈그림 2〉

[가]

보험 가입 전 기대 효용인 EU와 동일한 효용을 주는 주택 가치가 〈그림 2〉에서와 같이 8,000만 원이라면, A는 보험료로 최대 2,000만 원을 지불하고 보험에 가입할 유인이 있게 된다. 왜냐하면 A가 8,000만 원을 확실히 보장받는다면 보험 가입 전과 동일한 효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불확실한 상황의 기대 효용과 ④동일한 효용을 보장하는 확실한 금액을 ‘확실성 증가액’이라고 하는데, 이는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 A가 매기는 주택의 주관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 확실성 증가액의 크기는 A가 주택 가치의 변동 위험을 얼마나 기피하는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A가 소유한 주택의 객관적 가치는 A의 위험에 대한 기피 정도와 상관없이 객관적 화재 발생 확률에 의존할 것이다. 따라서 주택의 객관적 가치는 각 상황에서의 주택 가치를 각 상황의 발



생 확률로 가중 평균하여 구한 주택 가치의 ‘기댓값’이 된다. 90%의 확률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을 때의 주택 가치인 1억 원과 10%의 확률로 화재가 발생할 때의 주택 가치인 2,000만 원의 기댓값은 <그림 2>에서 자산 가치 1억 원과 2,000만 원을 1 대 9의 비율로 나누는 지점인 9,200만 원 (=90%×1억 원+10%×2,000만 원)이다. 즉 화재 발생 확률을 고려한 주택의 객관적 가치는 9,200만 원이다. 보험 회사 입장에서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을 때 주택의 가치인 1억 원과 화재 발생을 고려한 주택의 객관적 가치인 9,200만 원의 차이, 즉 800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받는다면 보험 계약 전보다 순이익이 증가하므로, 보험을 제공할 유인이 존재한다. 따라서 A와 보험 회사는 최대 2,000만 원과 최소 800만 원 사이에서 보험료를 결정하고 화재 발생 시 손실액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맺음으로써 각각 이전보다 효용과 이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

*효용: 경제 주체가 자신의 경제적 선택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주관적 만족.

▶ 8048-0034

📖 글의 사실적 이해를 묻는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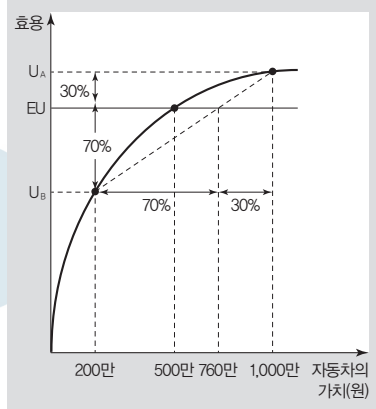
01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보험 가입 이후 경제 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객관적 가치는 보험 가입 이전에 비해 증가한다.
- ② 경제 주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느끼는 기대 효용과 그때의 확실성 등가액으로부터 얻는 효용은 같다.
- ③ 화재 발생 확률이 증가한다면 경제 주체의 기대 효용과 그가 보유한 주택의 객관적 가치 역시 감소한다.
- ④ 보험 가입자는 주택 가치의 변동 위험을 보험 회사에 전가함으로써 불확실한 상황을 확실한 상황으로 바꿀 수 있다.
- ⑤ 보험 회사가 보험 가입자의 위험을 제거해 주는 대신 보험 가입자가 보험 회사에 보험료를 지급함으로써 보험 회사와 보험 가입자 모두 효용과 이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

지문의 내용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여 묻는 유형

02 <보기>의 상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갑은 현재 1,000만 원짜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 갑의 자동차 사고 확률은 30%이며 보험 회사 역시 이를 알고 있다. 사고가 나는 경우 800만 원의 손실을 입어 자동차의 가치가 200만 원으로 하락한다. 왼쪽의 그림은 자동차의 가치에 따른 갑의 효용을 나타낸 것이며, U_A 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때, U_B 는 사고가 발생할 때 갑의 효용이고, EU 는 보험 가입 전 갑의 기대 효용이다.

(단, 갑이 보험에 가입한 이후 사고가 난다면, 보험 회사는 손실액 전액을 보상한다.)

- ① 보험 회사는 최소 240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갑에게 요구할 것이다.
- ② 자동차 보험료가 500만 원을 넘는다면 갑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것이다.
- ③ 보험 회사는 갑에게 자동차 보험을 제공함으로써 최대 260만 원의 순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할 것이다.
- ④ 갑이 500만 원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험에 가입한 경우 갑의 효용은 보험 가입 이전에 비해 증가할 것이다.
- ⑤ 갑의 보험 가입 전 효용은 자동차 사고가 발생할 확률과 발생하지 않을 확률, 그리고 각 상황에서의 효용에 의해 결정된다.



▶ 8048-0036

추가 정보를 적용하여 지문을 이해하는 유형

03 <보기>를 [가]에 적용하여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불확실한 상황이 주는 위험을 기피하는 경제 주체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보험 회사가 보험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기회비용보다 더 많은 금액을 추가로 지불할 용의가 있다. 이때 경제 주체가 추가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을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한다.

- ① A의 주택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은 그가 보험료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인 2,000만 원이다.
- ② A가 주택 가치의 변동 위험을 더욱 기피하게 된다면 A의 주택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은 감소하게 될 것이다.
- ③ A의 주택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은 주택 가치의 기댓값과 A의 주택에 대한 확실성 등가액의 차이인 1,200만 원이다.
- ④ A가 800만 원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험에 가입한다면 A의 주택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의 크기는 0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A의 주택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이 커진다면 보험 회사가 보험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기회비용의 크기도 더 커질 것이다.

▶ 8048-0037

어휘의 문법적 의미를 묻는 유형

04 @~㉔ 중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기

파생어는 어근에 접두사나 접미사가 붙어 형성된 단어이다. 이때 접미사가 붙어 파생된 단어는 원래의 어근과 품사가 달라지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체언에 접미사가 붙어 형성된 파생 용언이다.

- ① ㉔: 지불받는
- ② ㉑: 바꿈
- ③ ㉑: 표시된다
- ④ ㉑: 동일한
- ⑤ ㉑: 증가시킬



‘기대 효용과 보험 계약’

예제 이 글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경제 주체가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보험 회사 역시 보험 계약을 통해 이득을 얻을 수 있음을 가상적 상황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효용인 기대 효용과 확실성 증가액의 개념을 통해 경제 주체가 보험에 가입할 유인이 있음을 설명하고, 자산 가치의 기댓값 개념을 통해 보험 회사 역시 보험 계약의 유인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보험 계약을 통해 경제 주체와 보험 회사가 모두 효용과 이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은 보험 가입을 통해 경제 주체는 자산 가치의 변동 위험을 보험 회사에 전가하고, 보험 회사는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보험료를 지불받기 때문이다.

주제 보험 가입자와 보험 회사의 보험 계약을 통한 효용과 이득의 증가

- 구성**
- 1문단: 불확실성과 보험
 - 2문단: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효용인 기대 효용
 - 3문단: 불확실한 상황에서 보험 가입의 유인
 - 4문단: 확실성 증가액과 불확실한 자산의 주관적 가치
 - 5문단: 불확실한 자산의 객관적 가치로서 자산 가치의 기댓값

답은꼴 발문 Tip

-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답 4 글의 사실적 이해를 묻는 유형

01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보험 가입 이후 경제 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객관적 가치는 보험 가입 이전에 비해 증가한다.
- ② 경제 주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느끼는 기대 효용과 그때의 확실성 증가액으로부터 얻는 효용은 같다.
- ③ 화재 발생 확률이 증가한다면 경제 주체의 기대 효용과 그가 보유한 주택의 객관적 가치 역시 감소한다.
- ④ 보험 가입자는 주택 가치의 변동 위험을 보험 회사에 전가함으로써 불확실한 상황을 확실한 상황으로 바꿀 수 있다.
- ⑤ 보험 회사가 보험 가입자의 위험을 제거해 주는 대신 보험 가입자가 보험 회사에 보험료를 지급함으로써 보험 회사와 보험 가입자 모두 효용과 이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

유형 이해

글의 사실적 이해 중 글에 나타나 있는 세부 정보를 잘 파악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난도가 낮은 경우에는 글에 직접적인 표현으로 제시되어 있는지의 여부만 판단하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난도가 좀 높은 경우에는 글에 직접적인 표현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제시되어 있는 표현을 통해 판단이 가능한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

유형 공략

- ① 선지의 핵심어나 핵심 어구를 찾고 선지의 핵심 내용을 파악한다.
- ② 지문에서 선지의 핵심 내용에 대해 진술한 부분을 찾는다.
- ③ 한군데에서만 제시된 정보에 해당하는 선지의 경우 지문과 일치하는지, 지문의 정보를 관련지은 선지의 경우 그 연결이 합당한지 파악한다.

정답 풀이

① 자산의 객관적 가치는 경제 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가치의 기댓값이다. 자산 가치의 기댓값은 각 상황이 발생할 확률과 각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자산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자산 가치의 기댓값은 자산 보유자의 보험 가입 여부와는 상관이 없으므로 보험 가입 이후에도 자산 가치의 기댓값은 변하지 않는다.



원의 효용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즉 보험 가입을 통해 갑은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지만, 효용은 변화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 ① 자동차 가치의 기댓값은 760만 원($=30\% \times 200\text{만 원} + 70\% \times 1,000\text{만 원}$)이므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자동차의 가치 1,000만 원에서 이를 뺀 240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보험 회사가 요구할 것이다.
- ② 갑이 보험 가입 전 느끼는 효용인 기대 효용 EU와 동일한 효용을 주는 확실한 금액이 500만 원이므로 갑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보험료는 500만 원($=1,000\text{만 원} - 500\text{만 원}$)이다.
- ③ 보험 회사가 갑으로부터 최대 보험료인 500만 원을 받고 보험을 제공한다면 최소 보험료인 24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260만 원만큼의 순수익을 얻을 수 있다.
- ⑤ 갑의 보험 가입 전 효용은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효용인 기대 효용이므로, 각 상황이 발생할 확률과 각 상황에서의 효용에 의해 결정된다.

답은꼴 발문 Tip

- ㉔에 근거하여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를 바탕으로 [A]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의 a~e를 통해 ㉔이 일어나는 과정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03 추가 정보를 적용하여 지문을 이해하는 유형

03 <보기>를 [가]에 적용하여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불확실한 상황이 주는 위험을 기피하는 경제 주체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보험 회사가 보험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기회비용보다 더 많은 금액을 추가로 지불할 용의가 있다. 이때 경제 주체가 추가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을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한다.

- ① A의 주택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은 그가 보험료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인 2,000만 원이다.
- ② A가 주택 가치의 변동 위험을 더욱 기피하게 된다면 A의 주택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은 감소하게 될 것이다.
- ③ A의 주택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은 주택 가치의 기댓값과 A의 주택에 대한 확실성 등가액의 차이인 1,200만 원이다.
- ④ A가 800만 원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험에 가입한다면 A의 주택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의 크기는 0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A의 주택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이 커진다면 보험 회사가 보험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기회비용의 크기도 더 커질 것이다.

유형 이해

추가로 주어진 정보를 글에 적용하여 글의 내용을 심화하여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이때 제시되는 추가 정보는 지문의 핵심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이거나 이를 다른 관점으로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는 내용이다. 글의 전체 맥락을 바탕으로 추가 정보와 글의 연관성을 잘 파악해야 한다.

유형 공략

- ① 선지에서 특정한 지문의 정보를 찾아 표시한다.
- ② 추가로 제시된 정보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이것과 글의 연관성을 파악한다.
- ③ 추가로 제시된 정보가 글의 내용을 다른 관점으로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으로 구성된 경우 새롭게 제시된 개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정답 풀이

③ 위험 프리미엄이란 보험 회사가 보험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보다 더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이다. [가]에서 보험 회사가 보험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는 800만 원이며, A의 최대 지불 용의 보험료는 2,000만 원이다. 따라서 A의 주택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은 이것의 차이인 1,200만 원이다. 또한 주택 가치의 기댓값은 9,200만 원이며, A의 주택에 대한 확실성 등가액은



8,000만 원이므로 그 차이 역시 1,200만 원이다. 이는 위험 프리미엄이 결국 객관적 가치인 자산 가치의 기댓값과 주관적 가치인 확실성 등가액의 차이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 ① 위험 프리미엄은 보험 회사가 필요로 하는 금액보다 추가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이므로 최대 보험료 2,000만 원에서 보험 회사의 기회비용 800만 원을 뺀 값인 1,200만 원이다.
- ② 주택 가치의 변동 위험을 더욱 기피하게 된다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더 많은 금액을 추가로 지불하려 할 것이므로 위험 프리미엄이 더 커지게 될 것이다.
- ④ 위험 프리미엄은 보험료로 추가 지불한 금액이 아닌 보험 회사가 보험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기회비용보다 추가로 더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으로, 실제로 지불한 보험료와는 관련이 없다. 즉 A가 실제 보험료로 얼마를 지불했든 A의 주택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은 1,200만 원으로 동일하다.
- ⑤ 위험 프리미엄의 크기는 A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보험료와 관련된 것으로, 보험 회사의 보험 제공 기회비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보험 회사가 보험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기회비용은 주택 가치의 기댓값과 관련된다.

맞은말 발문 Tip

- ㉠~㉢ 중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말이 아닌 것은?
- <보기>를 참고할 때, ㉠~㉢ 중 단어의 형성 방법이 다른 것은?
- <보기>를 참고할 때, ㉠~㉢ 중 문장 내 기능이 다른 것은?

어휘의 문법적 의미를 묻는 유형

04 ㉠~㉢ 중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기

파생어는 어근에 접두사나 접미사가 붙어 형성된 단어이다. 이때 접미사가 붙어 파생된 단어는 원래의 어근과 품사가 달라지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체언에 접미사가 붙어 형성된 파생 용언이다.

- ① ㉠: 지불받는
- ② ㉡: 바꿈
- ③ ㉢: 표시된다
- ④ ㉣: 동일한
- ⑤ ㉤: 증가시킬

유형 어예

지문에 제시된 어휘의 문법적 의미를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어휘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의 경우 어휘의 문맥적 의미, 사전적 의미를 묻기도 한다. 문법적 의미를 묻는 경우 관련된 문법 지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문에 제시된 어휘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유형 공략

- ① 특정된 어휘를 확인한다.
- ② <보기>를 통해 문법적 지식이 주어진 경우 해당 문법 개념의 구체적 적용 양상을 파악해야 한다.
- ③ 지문에 특정된 어휘들의 문맥적 의미 또는 문장 성분으로서의 기능을 비교함으로써 문법적 적용 양상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

정답 풀이

② ‘바꿈’은 동사 ‘바꾸다’의 어간에 명사형 어미 ‘-(으)ㅁ’이 붙어 활용된 동사의 명사형이다. 따라서 체언에 접미사가 붙어 형성된 파생 용언이 아니다.

오답 풀이

- ① ‘지불받다’는 명사 ‘지불’에 접미사 ‘-받다’가 붙어 형성된 파생 동사이다.
- ③ ‘표시되다’는 명사 ‘표시’에 접미사 ‘-되다’가 붙어 형성된 파생 동사이다.
- ④ ‘동일하다’는 명사 ‘동일’에 접미사 ‘-하다’가 붙어 형성된 파생 형용사이다.
- ⑤ ‘증가시키다’는 명사 ‘증가’에 접미사 ‘-시키다’가 붙어 형성된 파생 동사이다.



유형 연습 ③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세기 후반 아르 누보(Art-Nouveau), 즉 '새로운 예술'을 표방했던 '예술 공예 운동'은 중세적 손노동의 부활을 추구했던 예술 운동이다. 장인적 수공예는 산업 혁명 이후 확산된 대량 생산 공업으로 인해 급격히 몰락한다. 1851년에 개최된 만국 박람회는 수공예 장인의 시대가 끝나고 기계의 시대가 왔음을 알린 상징적 사건이었다. 기계적 대량 생산은 단조로운 사물만을 반복 생산했고, 이로 인해 ①노동자는 노동으로부터 소외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술 공예 운동은 수공예 장인의 부활을 통해 기계적 대량 생산에 신음하는 인간을 구원하려 했다.

예술 공예 운동의 주창자인 윌리엄 모리스는 기계로 대량 생산된 저속한 가구와 공예품, 그리고 이를 생산한 기계를 거부하면서 수공예 방식으로 복귀할 것을 주장했다. 예술 공예 운동은 기계를 추악하고 퇴폐적인 것으로 치부하며, 손노동을 통해 대중을 위한 제품을 생산하고자 했다. 그러나 예술 공예 운동은 중세 장인의 고귀한 노동의 부활과 기계에 신음하는 인간 구원이라는 순수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만다. 예술 공예 운동은 장인이 제작한 아름다운 수공예품을 일반 대중이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랐지만, 대중은 관람자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장인의 수공예품은 귀족적 향수를 지향하는 신흥 부르주아들의 구매품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특히 화려한 장식을 강조하면서 그 장식을 민중에게 확대시키려 했지만, 그 장식성이 오히려 제품의 가격을 높임으로써 부르주아만이 아르 누보를 즐길 수 있었다. 구매력의 차이가 존재하는 불평등 사회에서 아르 누보의 정신은 실현될 수 없었던 것이다.

바우하우스는 예술 공예 운동의 중세적 수공예에 대한 지향을 계승하면서도 예술 공예 운동이 지닌 현실적 한계를 직시했다. 바우하우스는 1919년 독일에 설립되었던 예술 교육 기관이자 예술 변혁 운동으로, 이곳에서는 장인적 노동의 가능성을 찾고 그것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교육이 실시되었다. 바우하우스의 교육은 중세 시대 수공업의 근간이었던 '공방' 단위로 이루어졌으며, 가르치는 사람은 '마이스터', 학생은 '도제'로 불렸다. 하지만 바우하우스에서는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구분되지 않았다. 도제가 자신보다 숙련 수준이 높은 장인들과 작업의 전 과정을 함께 진행하면서 도제 자신이 스스로 배우게 되는 중세 공방의 구조가 재현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중세 시대 공방과 달리 바우하우스는 예술을 담당하는 '조형 마이스터'와 수공예를 담당하는 '기능 마이스터'의 협력적 체계를 토대로 구성되었다. 즉 바우하우스는 중세 공방의 장인의 역할을 조형 마이스터, 기능 마이스터로 구분하면서 이들 간의 협력이 가능한 환경을 구현했다. 이는 예술 공예 운동이 중세 공방의 회고적 복원에 초점이 놓여 있었다는 점과 구별된다.

또한 대량 생산 공업을 거부하며 중세 장인의 복원을 시도했던 예술 공예 운동과 달리 바우하우스는 과학 기술의 발달과 대량 생산 공업이 가져온 상황을 적극 활용하여 장인적 손기술을 복원하려 했다. 즉 공업화를 무조건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공업화로부터 유래한 표준화의 가능성을 적극 도입하려 한 것이다. 그 제품만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디자인, 표준화된 부품의 대량 생산 그리고 협력적 조립을 통해 바우하우스는 손노동과 아름다움 그리고 그것의 대중 향유를 모두 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추구했다. 바우하우스의 설립자 그로피우스는 바우하우스가 추구한 예술을 장난감 블록 쌓기에 비유하면서, 표준화된 부품이 다양한 형태의 구성물로 조립됨으로써 최대의 표준화와 최대의 다양성이 결합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다시 말해 바우하우스는 손노동과 예술 그리고 대량 생산 산업의 융합을 추구하면서, 각각의 경계를 없애려 하거나 분명한 경계를 갖기보다는 흐릿한 경계 사이에서 각자가 공존하며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했던 것이다.



바우하우스에서 표준형은 만들기 쉬운 공장 생산품의 의미보다는 문명사회에서 최고 수준의 원형(原型), 즉 우수한 표준을 의미했다. 따라서 바우하우스는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라는 명제로 대표되는 단순화된 기능적 형태미를 추구했으며, 이는 구조를 성립하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요소들만 사용함으로써 장식이 일절 배제된 간결한 형태로 표출되었다. 이러한 바우하우스의 기능 미학이 탄생시킨 제품들은 오늘날까지 디자인의 고전으로 여겨지고 있다.

▶ 8048-0038

글의 내용 전개 방식을 묻는 유형

0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당대의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일어난 예술 운동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피고 있다.
- ② 예술 사조에 대한 역사적인 접근을 통해 예술과 사회의 상호 관련성에 대해 논증하고 있다.
- ③ 서로 대립되었던 예술 사조들의 목표 의식을 비교함으로써 예술의 본질에 대해 탐구하고 있다.
- ④ 자본주의적 생산 체제의 모순이 예술 사조 간의 경쟁을 격화시킨 양상에 관해 서술하고 있다.
- ⑤ 현대 예술의 기원을 소개함으로써 회고적 예술 운동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 8048-0039

글의 사실적 이해를 묻는 유형

02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1851년 만국 박람회는 아르 누보의 정신을 표방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② 바우하우스는 우수한 표준의 제작을 위해 제품의 아름다움을 배제하고 기능성만을 추구했다.
- ③ 신흥 부르주아들은 화려한 장식의 수공예품들을 사들임으로써 중세 귀족과 같은 지위를 누리게 되었다.
- ④ 바우하우스는 수준 높은 제품의 대중적 향유를 위해 예술과 장인적 손노동, 그리고 공업 생산을 융합하려 했다.
- ⑤ 중세 시대 공방에서는 기능 장인과 조형 장인의 협력적 작업을 통해 배우는 자가 스스로 배우게 되는 구조가 이루어졌다.



추가 정보를 적용하여 내용 이해를 묻는 유형

03 <보기>를 참고하여 ㉠의 이유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기계적 대량 생산 체제가 노동자를 노동으로부터 소외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은, 기계 그 자체로 인한 것이었다기보다는 기계와 노동을 결합하는 새로운 방식이었던 테일러주의 때문이었다. 테일러주의란 소위 ‘과학적 관리’의 주창자였던 프레더릭 테일러가 정립한 노동 관리 방식을 말하는데, 그것의 핵심은 노동 과정에서 구상과 실행을 분리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숙련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관리자는 실행과 분리된 구상 기능을 독점하여 노동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했다. 또한 관리자는 노동의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동자들의 직무를 세분화한 후 각각의 직무를 시간 단위로 계획했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이러한 계획 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행하는 과정을 이해하기 어렵게 되었다.

- ㉠ 생산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노동자가 기술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 ㉡ 노동자의 숙련이 제거됨으로써 노동자의 생산성이 기계의 생산성을 능가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 ㉢ 자신의 작업에 대한 자율성이 배제되어 노동자가 생산 체제의 부속품과 같은 처지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 ㉣ 노동자의 직무가 시간 단위로 세분화됨으로써 작업 과정에서 일체의 여유도 허용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 ㉤ 노동자가 노동의 계획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중세 공방의 도제와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었기 때문이다.



▶ 8048-0041

지문의 내용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여 묻는 유형

04 읽기를 읽은 학생이 <보기>의 (가)와 (나)에 대해 보일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가) 안토니 가우디, <칼베트 의자>



(나) 마르셀 브로이어, <바실리 의자>

(가)는 건축가이자 공예가인 안토니 가우디의 원목 의자이다. 가우디는 예술 공예 운동의 철학을 적용하여 유려한 곡선을 지니고, 장식성이 높은 의자인 (가)를 제작했다. 바우하우스 졸업생이자 마이스터였던 마르셀 브로이어의 (나)는 바우하우스의 공방에서 제작되었다. 브로이어는 의자 재료로 가장 흔했던 나무 대신에 규격화된 강철관을 사용하여 간결하고 튼튼한 구조의 의자인 (나)를 만들었다. 강철관 사이에는 가격이 저렴한 천을 팽팽하게 연결하여 엉덩이와 등 받침대, 팔걸이를 구성했다.

- ① 가우디는 (가)에서 기계 생산 체제를 배제하고 수공예의 장식성을 살려 단조롭지 않은 심미감을 주려 했겠군.
- ② 브로이어는 (나)에서 규격화된 재료를 사용하여 부품의 표준화를 통한 제품의 대량 생산을 추구하려 했겠군.
- ③ (가)와 달리 (나)는 공방 내의 예술 담당 장인과 수공예 담당 장인의 협업에 의해 생산되었겠군.
- ④ (나)와 달리 (가)는 제품의 대중적 향유라는 목적이 아닌 고도의 장식성만을 목적으로 생산되었겠군.
- ⑤ (가)와 (나)는 모두 중세적 수공예의 예술성을 복원하려는 목적과 관련이 있겠군.



유형 연습 ③ Zoom In

Q '예술 공예 운동과 바우하우스'

예제 이 글은 중세적 손노동의 부활을 시도했던 예술 공예 운동과 그것의 한계, 그리고 예술 공예 운동의 중세적 공방에 대한 지향을 추구하면서도 대량 생산 체제의 이점을 적극 활용하려 했던 바우하우스의 예술 이념과 교육 철학을 소개하고 있다. 기계적 대량 생산은 인간의 노동 소외와 제품의 단조로움을 초래했다. 이에 예술 공예 운동은 중세적 장인의 손노동을 복원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만다. 새로운 형태의 예술 교육 기관이었던 바우하우스는 예술 공예 운동의 이러한 중세적 공방에 대한 지향을 계승하면서도 대량 생산 체제의 이점을 적극 활용하여 산업화 시대에 어울리는 예술성 있는 기술을 추구한 예술 변혁 운동이었다.

주제 예술 공예 운동의 한계와 바우하우스의 예술 이념 및 교육 철학

- 구성**
- 1문단: 인간의 노동 소외를 구원하려는 시도로서 예술 공예 운동
 - 2문단: 예술 공예 운동의 한계와 실패
 - 3문단: 새로운 형태의 예술 교육을 지향한 바우하우스의 교육 시스템
 - 4문단: 바우하우스가 시도한 장인적 손노동, 예술, 대량 생산 공업의 융합
 - 5문단: 바우하우스가 추구한 기능적 형태미

짧은골 발문 Tip

-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윗글의 논지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글의 내용 전개 방식을 묻는 유형

0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당대의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일어난 예술 운동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피고 있다.
- ② 예술 사조에 대한 역사적인 접근을 통해 예술과 사회의 상호 관련성에 대해 논증하고 있다.
- ③ 서로 대립되었던 예술 사조들의 목표 의식을 비교함으로써 예술의 본질에 대해 탐구하고 있다.
- ④ 자본주의적 생산 체제의 모순이 예술 사조 간의 경쟁을 격화시킨 양상에 관해 서술하고 있다.
- ⑤ 현대 예술의 기원을 소개함으로써 회고적 예술 운동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유형 이해

글쓴이가 글을 구조화하는 데 이용한 방식을 묻는 문제이다. 수능에 제시되는 독서 지문은 대부분 설명하는 글인데,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나에 따라 비교적 적합한 내용 전개 방식이 있다. 글의 내용과 구조를 모두 파악해야 글의 내용 전개 방식을 알 수 있다.

유형 공략

- ① 각 문단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 전체의 핵심 내용을 파악한다.
- ② 각 문단의 역할과 문단 간의 관계, 글의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한다.
- ③ 파악한 글의 내용과 구조를 바탕으로 내용 전개 방식을 파악한다.

정답 풀이

① 이 글은 대량 생산 체제로 인한 단조로운 제품의 생산과 노동 소외라는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중세적 손노동의 부활을 목표로 생겨난 예술 공예 운동과 바우하우스의 예술 운동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피고 있다.

오답 풀이

- ② 예술과 사회의 상호 관련성에 대해 논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③ 예술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탐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④ 자본주의가 예술 사조 간의 경쟁을 격화시켰다는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 ⑤ 회고적 예술 운동인 예술 공예 운동이 실패한 원인을 언급하고 있지만, 현대 예술의 기원을 소개하는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답은결 발문 Tip

- 뒷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뒷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뒷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02 글의 사실적 이해를 묻는 유형

02 뒷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1851년 만국 박람회는 아르 누보의 정신을 표방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② 바우하우스는 우수한 표준의 제작을 위해 제품의 아름다움을 배제하고 기능성만을 추구했다.
- ③ 신흥 부르주아들은 화려한 장식의 수공예품들을 사들임으로써 중세 귀족과 같은 지위를 누리게 되었다.
- ④ 바우하우스는 수준 높은 제품의 대중적 향유를 위해 예술과 장인적 손노동, 그리고 공업 생산을 융합하려 했다.
- ⑤ 중세 시대 공방에서는 기능 장인과 조형 장인의 협력적 작업을 통해 배우는 자가 스스로 배우게 되는 구조가 이루어졌다.

유형 이해

글의 사실적 이해 중 글에 나타나 있는 세부 정보를 잘 파악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난도가 낮은 경우에는 글에 직접적인 표현으로 제시되어 있는지의 여부만 판단하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난도가 좀 높은 경우에는 글에 직접적인 표현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제시되어 있는 표현을 통해 판단이 가능한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

유형 공략

- ① 선지의 핵심어나 핵심 어구를 찾고 선지의 핵심 내용을 파악한다.
- ② 지문에서 선지의 핵심 내용에 대해 진술한 부분을 찾는다.
- ③ 한군데에서만 제시된 정보에 해당하는 선지의 경우 지문과 일치하는지, 지문의 정보를 관련지는 선지의 경우 그 연결이 합당한지 파악한다.

정답 풀이

④ 바우하우스는 조형 마이스터와 기능 마이스터의 협력을 통한 예술과 기술의 융합 위에 부품의 표준화를 통한 산업과의 융합을 추구했으며, 이는 최대의 표준화와 최대의 다양화, 즉 수준 높은 제품의 대량 생산을 통한 대중 향유라는 목적과 관련된다.

오답 풀이

- ① 만국 박람회는 수공예 장인의 시대가 끝나고 기계의 시대가 왔음을 알린 사건이었다. 즉 아르 누보의 정신과는 대척점에 서 있다.
- ② 바우하우스는 단순화된 기능적 형태미를 추구했다고 했으므로 아름다움을 배제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③ 신흥 부르주아들이 화려한 장식의 수공예품을 사들임으로써 중세 귀족의 지위를 누렸다는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 ⑤ 기능 장인과 조형 장인의 협력적 작업은 중세 시대 공방이 아닌 바우하우스의 공방에서 이루어졌다.



답은꼴 발문 Tip

- 〈보기〉를 바탕으로 뒷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를 적용하여 뒷글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뒷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과 ㉡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추가 정보를 적용하여 내용 이해를 묻는 유형

03 〈보기〉를 참고하여 ㉠의 이유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기계적 대량 생산 체제가 노동자를 노동으로부터 소외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은, 기계 자체가 인한 것이었다기보다는 기계와 노동을 결합하는 새로운 방식이었던 테일러주의 때문이었다. 테일러주의란 소위 '과학적 관리'의 주장자였던 프레더릭 테일러가 정립한 노동 관리 방식을 말하는데, 그것의 핵심은 노동 과정에서 구상과 실행을 분리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숙련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관리자는 실행과 분리된 구상 기능을 독점하여 노동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했다. 또한 관리자는 노동의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동자들의 직무를 세분화한 후 각각의 직무를 시간 단위로 계획했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이러한 계획 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행하는 과정을 이해하기 어렵게 되었다.

- ① 생산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노동자가 기술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 ② 노동자의 숙련이 제거됨으로써 노동자의 생산성이 기계의 생산성을 능가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 ③ 자신의 작업에 대한 자율성이 배제되어 노동자가 생산 체제의 부속품과 같은 처지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 ④ 노동자의 직무가 시간 단위로 세분화됨으로써 작업 과정에서 일체의 여유도 허용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 ⑤ 노동자가 노동의 계획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중세 공방의 도제와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었기 때문이다.

유형 이해

추가로 주어진 정보를 글에 적용하여 글의 내용을 심화하여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이때 제시되는 추가 정보는 지문의 핵심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이거나 이를 다른 관점으로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는 내용이다. 글의 전체 맥락을 바탕으로 추가 정보와 글의 연관성을 잘 파악해야 한다.

유형 공략

- ① 선지에서 특정한 지문의 정보를 찾아 표시한다.
- ② 추가로 제시된 정보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이것과 글의 연관성을 파악한다.
- ③ 추가로 제시된 정보가 글의 내용을 다른 관점으로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으로 구성된 경우 새롭게 제시된 개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정답 풀이

③ 노동자가 생산 현장에서 자신의 노동으로부터 소외된 것은 테일러주의에 의해 작업의 구상 과정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노동자가 자신의 작업에 대한 자율성을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인간이 기계와 같은 생산 체제의 부속품과 같은 처지로 전락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생산 기술이 고도화되어 노동자가 기술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게 된 것이 아니라 테일러주의에 의해 노동자의 숙련이 제거되고 작업의 구상 과정에서 노동자가 배제되었기 때문에 작업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 ② 테일러주의에 의해 노동자 개인의 숙련은 낮아지게 되었으나, 테일러주의는 오히려 노동 전체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려 했다. 또한 노동자의 생산성과 기계의 생산성에 대한 비교는 이 글이나 〈보기〉에 나타나 있지 않다.
- ④ 노동자의 직무가 세분화됨으로써 작업 과정에서 휴식할 수 있는 시간마저 통제받게 된 것은 맞을 수 있다. 하지만 여유를 가질 수 없다고 해서 노동으로부터 소외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 ⑤ 노동자가 노동의 계획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은 맞지만, 노동자의 처지가 중세 공방의 도제와 같다고는 볼 수 없다. 중세 공방의 도제는 노동자와 달리 장인과의 협력을 통해 작업의 전 과정을 함께 진행했기 때문이다.



답은꼴 발문 Tip

- 뒷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을 적용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뒷글을 <보기>의 상황에 적용하여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문의 내용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여 묻는 유형

04 뒷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의 (가)와 (나)에 대해 보일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가) 안토니 가우디, <칼베트 의자>



(나) 마르셀 브로이어, <바실리 의자>

(가)는 건축가이자 공예가인 안토니 가우디의 원목 의자이다. 가우디는 예술 공예 운동의 철학을 적용하여 유려한 곡선을 지니고, 장식성이 높은 의자인 (가)를 제작했다. 바우하우스 졸업생이자 마이스터였던 마르셀 브로이어의 (나)는 바우하우스의 공방에서 제작되었다. 브로이어는 의자 재료로 가장 흔했던 나무 대신에 규격화된 강철관을 사용하여 간결하고 튼튼한 구조의 의자(나)를 만들었다. 강철관 사이에는 가격이 저렴한 천을 팽팽하게 연결하여 엉덩이와 등 받침대, 팔걸이를 구성했다.

- ① 가우디는 (가)에서 기계 생산 체제를 배제하고 수공예의 장식성을 살려 단조롭지 않은 심미감을 주려 했겠군.
- ② 브로이어는 (나)에서 규격화된 재료를 사용하여 부품의 표준화를 통한 제품의 대량 생산을 추구하려 했겠군.
- ③ (가)와 달리 (나)는 공방 내의 예술 담당 장인과 수공예 담당 장인의 협업에 의해 생산되었겠군.
- ④ (나)와 달리 (가)는 제품의 대중적 향유라는 목적이 아닌 고도의 장식성만을 목적으로 생산되었겠군.
- ⑤ (가)와 (나)는 모두 중세적 수공예의 예술성을 복원하려는 목적과 관련이 있겠군.

유형 이해

글의 내용을 새로 주어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여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글에 제시된 정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어진 구체적 상황의 각 요소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 상황을 글에 제시된 핵심 개념으로 포섭할 수 있어야 한다.

유형 공략

- ① 지문에 제시된 핵심 개념이나 사례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한다.
- ② 지문에서 가상적 상황을 통해 핵심 개념을 설명한 경우 해당 개념이 적용되는 양상을 파악한다.
- ③ 지문에서 개념 간의 인과적 설명을 제시한 경우 논리적 연관 관계를 잘 따져야 한다.

정답 풀이

④ (가)는 예술 공예 운동의 철학에 따라 제작되었다. 2문단에서 예술 공예 운동이 '장인이 제작한 아름다운 수공예품을 일반 대중이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랐'다는 진술을 통해 대중적 향유 역시 예술 공예 운동이 추구한 가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가)의 생산에 대중적 향유라는 목적이 배제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 ① 예술 공예 운동의 철학이 적용되었으므로 기계적 생산을 배제하고 수공예의 장식성을 살리려 했을 것이다.
- ② 바우하우스의 마이스터였던 브로이어는 강철관과 천 등의 규격화된 재료를 이용하여 제품의 대량 생산을 추구했을 것이다.
- ③ <바실리 의자>는 바우하우스의 공방에서 조형 마이스터와 기능 마이스터의 협력적 작업으로 생산되었을 것이다.
- ⑤ <칼베트 의자>는 예술 공예 운동의 정신에 따라, <바실리 의자>는 바우하우스의 정신에 따라 중세적 수공예의 예술성을 부활하려는 목적이 지향되었을 것이다.



유형 연습 4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근대에 이르러 인간은 신분 사회의 구성원이 아니라 '개인'으로 존재하게 되었으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다. 또한 이러한 자유의 권리가 신분적 특권이 아니라 모든 개인이 향유하는 보편적 권리로 부여되었다는 점에서 인간은 평등한 존재로 변화되었다. 근대 이전의 전통 사회는 신분 사회이자 통일적 세계관이 지배하는 사회로,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인간의 역할과 의무가 이미 결정된 사회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근대로의 이행은 전통 사회의 권위로부터 개인이 해방되는 과정이었으며, 동시에 인간의 자유와 평등이 증대되는 과정이었다.

이런 시대적 변화 속에서 칸트의 윤리학은 자유롭고 평등한 근대적 개인을 완성시킨 철학적 기반이 되었다. 칸트에게 있어 자유란 인간이 자신에게 스스로 부여한 법칙 이외에 어떠한 법칙에도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에 따르면 외부의 명령뿐만 아니라 본능적 충동 역시 인간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행위는 자유로운 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칸트는 인간이 본능이나 감정이 아닌 오직 보편적 이성에 따라 행동하는 주체일 때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때 이성이란 절대적으로 타당한 도덕 법칙을 따를 수 있는 인간의 보편적 능력으로, 칸트에 따르면 인간은 이러한 보편적 능력에 근거하여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평등한 존재로 규정된다.

또한 칸트는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어떤 행위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행위자의 자유 의지에 따른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칸트는 자유 의지에 따라 스스로 부과한 도덕적 명령인 '정언 명법'을 통해 자신의 윤리학을 구체화했다. 칸트의 정언 명법이란 모든 조건으로부터 독립된 무조건적인 행위 명령을 말한다. 이는 'A는 X를 해야 한다.'라는 형식을 지닌 명제로, 'A가 Y를 원한다면, X를 해야 한다.'라는 형식의 가언 명법과는 구분된다. 정언 명법에 따른 행위는 그 행위가 다른 목적에 상관없이 필연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야만 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이때 그 행위를 하는 필연성은 보편적 이성에 의해 발견된다.

따라서 자유 의지에 따라 스스로에게 부과한 도덕적 명령인 정언 명법은 보편적 이성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원칙이 된다. 즉 칸트의 도덕 법칙은 개인적 조건이나 형편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필연적으로 타당한 보편 법칙이다. 이와 같이 ㉠칸트의 윤리학은 인간을 자유롭고 평등한 도덕적 개인으로 규정했으며,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할 보편적 존재로 인식했다.

하지만 탈근대주의 철학자들은 칸트의 윤리학이 자유와 복종을 동일시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비판한다. 칸트는 인간의 자유를 이성적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 부여한 보편 법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으로 규정하지만, 정작 이 보편 법칙은 이성에 의해 선형적으로 부과된 것으로 인간 자신이 구성한 법칙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보편 법칙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은 사실 그 법칙에 복종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되며, 결국 자유와 복종이 동일시되는 역설이 나타난다. 이렇게 자유가 복종과 일치하게 되면 '타자'에 대한 억압과 폭력이 나타난다는 점을 탈근대주의 철학자들은 지적한다. 모든 개별자가 보편 법칙에 따라 행동하고, 모든 개별자를 이러한 법칙에 따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면 인간은 보편화될 수 없는 자신의 고유성과 자신과 타자의 차이를 억압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때 타자란 보편적 개념을 매개로 동일화될 수 없는 개별적 존재자들 간의 차이를 전제한다.

탈근대주의 철학자인 ㉡호네프트는 근대적 보편주의가 야기한 폭력의 희생자인 타자를 구원할 수 있는 윤리적 방안으로 '인정' 윤리를 제안한다. 호네프트에 따르면 인간의 자아실현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통해 가능하며, 이러한 긍정적 자기 관계는 타자의 긍정적 평가에 의존한다. 따라서



타자로부터의 긍정적 반응이 좌절될 경우 인간은 심리적 상처를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자아실현이 불가능한 상태에 처하게 된다. 이처럼 인간의 삶은 언제나 훼손 가능하기 때문에 일종의 보호 장치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호네프는 윤리가 이러한 보호 장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정이란 바로 타자에 대한 긍정적 평가나 반응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이는 자아실현의 가능 조건인 동시에 인간의 삶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윤리적 정당성을 갖는다. 따라서 타자에 대한 윤리적 태도는 바로 그의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즉 그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이 호네프의 주장이다.

이때의 인정은 타자에 대한 주체의 일방적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주체 역시 적극적 자아실현을 위해서는 타자의 인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즉 주체는 타자에게 또한 타자가 된다. 따라서 인정 윤리가 요구하는 것은 단지 타자에 대한 인정이 아니라 주체와 타자 간의 상호 인정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호네프의 인정 윤리에서 인간은 주체·객체의 관계가 아닌 상호 주관적 존재로 재구성된다.

글의 사실적 이해를 묻는 유형

▶ 8048-0042

0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근대로의 이행은 인간을 전통 사회의 예속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으로 탈바꿈시켰다.
- ② 칸트는 인간을 보편적 이성을 지닌 주체이자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존재로 규정했다.
- ③ 칸트는 근대적 개인을 동등하게 대우받아 마땅한 평등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보편적 존재로 규정했다.
- ④ 탈근대주의 철학자들은 선형적 법칙에 따른 행위는 자유와 복종을 동일시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보았다.
- ⑤ 탈근대주의 철학자들은 주체와 타자 사이의 차이에 주목함으로써 그러한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윤리적 방안을 제시했다.

특정 대상에 대한 이해를 묻는 유형

▶ 8048-0043

02 **정언 명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정언 명법은 선형적 이성이 모든 인간 존재에게 부과한 필연적·도덕적 명령이다.
- ② 인간은 정언 명법에 따라 행동할 때만 자유로운 존재이자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있다.
- ③ 정언 명법에 따르면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게 대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④ 정언 명법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은 본능적 감정을 보편적 이성으로 조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⑤ 어떤 명법이 도덕적 행위 그 자체가 아닌 다른 목적의 달성을 의도하고 있다면, 이때의 명법은 정언 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추가 정보를 적용하여 내용 이해를 묻는 유형

03 <보기>를 참고할 때, ㉠에 대한 ㉡의 비판을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호네프의 인정 윤리에서 인정의 획득은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인정 투쟁’에 의해 야기된 상호 주관적 과정이다. 즉 타자가 나에게 대해 갖고 있는 자아상을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으로 인식한 자아는 자신에 대한 새로운 정체성을 요구하고, 이를 인정받기 위한 투쟁을 하게 된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투쟁에 직면한 상대방 역시 이러한 갈등을 통해 더욱 고양된 자기의식에 도달하게 되면서 관련 당사자들은 새로운 인정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정 관계는 나와 타자의 공존과 화해를 이룰 뿐만 아니라, 각자의 고유성이 타자를 매개로 형성되고 고도화되는 조건이다.

- ① 인간 존재는 보편적으로 표상되는 것이 아니라 자아와 타자가 갈등을 매개로 자신의 고유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구성되는 것이다.
- ② 모든 인간이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할 보편적 존재인 이유는 인간의 자아실현이 상호 인정에 따른 긍정적 자기 관계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 ③ 인간의 타인에 대한 도덕적 의무는 주체의 희생을 대가로 타자를 구원하는 과정에서 달성되는 것이므로 이성보다는 자기희생에 의한 것이다.
- ④ 인간 자신이 구성한 법칙이란 이성에 의해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식의 주체가 타자와의 투쟁에서 승리하여 타인을 자기화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 ⑤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일 수 있는 이유는 인간이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개인의 자기의식이 자기 자신을 객관화함으로써 보편적 존재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다.



▶ 8048-0045

지문의 내용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여 묻는 유형

04 **윗글의 내용을 <보기>에 적용하여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관용’의 기원을 이루는 대표적 사례는 16세기 프랑스에서 일어난 종교 갈등이다. 1572년 구교도들은 프랑스 국왕의 어머니였던 카트린 드 메디시스의 음모에 따라 성 바돌로매 축일에 신교도를 학살했다. 그 수는 파리에서만 3천 명이 넘었고, 프랑스 전역에서는 2만 명을 헤아렸다. 신교도들은 생존을 위해 반격을 시작했고, 이는 피의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이에 종교적 차이로 인한 서로 간의 살육을 막고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등장한 것이 차이에 대한 관용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관용이 근본적으로 나와 타인 간의 평화 공존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관용이 상대방에 대한 입장 자체의 변화나 상대에 대한 인정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 즉 관용이란 관용할 수 없는 것을 관용하는 것이며, 따라서 비록 평화 공존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여전히 관용할 수 없는 존재로 남아 있는 ‘관용의 역설’이 나타난다.

- ① 칸트 윤리학에 따르면, 당대 프랑스인들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 타인을 해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겠군.
- ② 탈근대주의 철학에 따르면, 종교라는 선형적 원리에 대한 복종이 타자에 대한 보편 원리의 강요로 작용할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군.
- ③ 탈근대주의 철학에 따르면, 구교도들의 신교도 학살 행위는 자신과 타자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구체적 폭력으로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호네프의 인정 윤리에 따르면, ‘피의 악순환’이 이어짐으로써 당대 프랑스인들이 심리적 상처를 입고 ‘자아실현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였었다고 판단할 수 있겠군.
- ⑤ 호네프의 인정 윤리에 따르면, 구교와 신교가 상대방을 관용한 것은 관용할 수 없음에도 관용했다는 점에서 상호 인정을 통해 긍정적 자기 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유형 연습 ④ Zoom In

‘칸트와 호네프의 윤리학’

예제 이 글은 칸트의 보편주의 윤리학과 이를 비판하는 탈근대주의 철학, 특히 호네프의 인정 윤리학을 소개하고 있다. 칸트 윤리학은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을 완성시킨 근대의 철학적 기반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탈근대주의 철학은 보편주의 윤리로서 칸트의 윤리학이 타자와의 차이에 대한 억압과 폭력을 내재한다고 비판한다. 호네프는 보편주의 윤리로 인해 야기된 타자의 폭력을 구원하기 위해 인정 윤리학을 제시한다. 이때의 인정은 상호 인정이며, 상호 인정을 통해 인간은 상호 주관적 존재로 구성된다고 이 글은 이야기하고 있다.

주제 칸트의 보편주의 윤리학과 호네프의 인정 윤리학

- 구성**
- 1문단: 자유롭고 평등한 근대적 개인
 - 2문단: 근대적 개인을 완성시킨 칸트의 보편주의 윤리학
 - 3문단: 도덕적 명령으로서 정언 명법
 - 4문단: 보편적 도덕 법칙으로서 칸트의 정언 명법
 - 5문단: 탈근대주의 철학의 보편주의 비판
 - 6문단: 호네프의 인정 윤리학
 - 7문단: 상호 인정으로서의 인정과 상호 주관적 존재로서의 인간

짧은글 발문 Tip

- 읽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함 것은?
- 읽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읽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글의 사실적 이해를 묻는 유형

01 읽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근대로의 이행은 인간을 전통 사회의 예속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으로 탈바꿈시켰다.
- ② 칸트는 인간을 보편적 이성을 지닌 주체이자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존재로 규정했다.
- ③ 칸트는 근대적 개인을 동등하게 대우받아 마땅한 평등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보편적 존재로 규정했다.
- ④ 탈근대주의 철학자들은 선형적 법칙에 따른 행위는 자유와 복종을 동일시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보았다.
- ⑤ 탈근대주의 철학자들은 주체와 타자 사이의 차이에 주목함으로써 그러한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윤리적 방안을 제시했다.

유형 이해

글의 사실적 이해 중 글에 나타나 있는 세부 정보를 잘 파악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난도가 낮은 경우에는 글에 직접적인 표현으로 제시되어 있는지의 여부만 판단하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난도가 좀 높은 경우에는 글에 직접적인 표현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제시되어 있는 표현을 통해 판단이 가능한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

유형 공략

- ① 선지의 핵심어나 핵심 어구를 찾고 선지의 핵심 내용을 파악한다.
- ② 지문에서 선지의 핵심 내용에 대해 진술한 부분을 찾는다.
- ③ 한문단에서만 제시된 정보에 해당하는 선지의 경우 지문과 일치하는지, 지문의 정보를 관련지은 선지의 경우 그 연결이 합당한지 파악한다.

정답 풀이

⑤ 탈근대주의 철학자들은 근대의 보편주의와 비교하여 주체와 타자 사이의 차이에 주목했으며, 그러한 차이를 억압하는 보편주의 사상의 폭력성을 비판했다. 즉 탈근대주의 철학자들은 주체와 타자 사이의 차이를 줄이려 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차이를 동일화할 수 없는 것으로 전제한다. 따라서 탈근대주의 철학자들은 주체와 타자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러한 차이를 지닌 타자를 보편주의의 폭력성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윤리적 방안을 제시하려 했다.



오답 풀이

- ① 근대로의 이행은 전통 사회의 권위로부터 개인이 해방되는 과정이었으며, 동시에 인간의 자유와 평등이 증대되는 과정이었다.
- ② 이성이란 절대적으로 타당한 도덕 법칙을 따를 수 있는 인간의 보편적 능력으로, 칸트에 따르면 인간은 이러한 보편적 능력에 근거하여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평등한 존재로 규정된다.
- ③ 칸트의 윤리학은 인간을 자유롭고 평등한 도덕적 개인으로 규정했으며,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할 보편적 존재로 인식했다.
- ④ 탈근대주의 철학자들은 칸트의 윤리학이 자유와 복종을 동일시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비판한다. 칸트는 인간의 자유를 이성적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 부여한 보편 법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으로 규정하지만, 정작 이 보편 법칙은 이성에 의해 선형적으로 부과된 것으로 인간 자신이 구성한 법칙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답은꼴 발문 Tip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끼리 바르게 묶은 것은?

특정 대상에 대한 이해를 묻는 유형

02 정언 명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정언 명법은 선형적 이성이 모든 인간 존재에게 부과한 필연적·도덕적 명령이다.
- ② 인간은 정언 명법에 따라 행동할 때만 자유로운 존재이자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있다.
- ③ 정언 명법에 따르면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게 대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④ 정언 명법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은 본능적 감정을 보편적 이성과 조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⑤ 어떤 명법이 도덕적 행위 그 자체가 아닌 다른 목적의 달성을 의도하고 있다면, 이때의 명법은 정언 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형 이해

글의 사실적 이해 중 특정 대상에 대한 정보를 잘 파악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문두에서 특정한 대상을 제시하고 그것에 대해 진술한 선지의 정보가 옳거나 그른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선지는 정보가 표시된 지문의 문장을 거의 그대로 쓴 경우도 있고, 몇 가지 정보를 연결하여 합쳐서 쓰거나 새로 해석하여 제시하기도 한다.

유형 공략

- ① 선지에서 중심 화제에 대해 제시한 내용을 지문에서 찾아 표시한다.
- ② 정보가 표시된 문장을 거의 그대로 선지로 썼는지, 표시한 정보들을 연결하고 합쳐서 쓰거나 새로 해석하여 썼는지 파악한다.
- ③ 거의 그대로 선지로 쓴 것은 일치 여부를 판단하고, 연결하여 합쳐서 쓰거나 새로 해석하여 쓴 것은 그것이 옳거나 그른지를 판단한다.

정답 풀이

④ 칸트에 따르면, 인간이 정언 명법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은 이성이 부과한 명령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감정이나 본능에 따르는 행위는 이성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 봉사하는 행위로 가언 명법적이다.

오답 풀이

- ① 칸트의 정언 명법은 이성에 의해 부과된 반드시 지켜야 할 필연적 도덕 명령이다.
- ② 칸트에 따르면, 정언 명법에 따른다는 것은 이성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한다는 것이고, 이성에 따른 자유로운 존재일 때만 인간은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있다.
- ③ 선형적 이성의 명령인 정언 명법은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할 보편적 존재로 규정한다.
- ⑤ 정언 명법은 도덕적 행위 외의 다른 목적을 전제하지 않는다. 다른 목적의 달성을 조건으로 구성된 명법은 가언 명법에 해당한다.



답은꼴 발문 Tip

- 〈보기〉를 적용하여 윗글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과 ㉡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가)와 (나)를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추가 정보를 적용하여 내용 이해를 묻는 유형

03 〈보기〉를 참고할 때, ㉠에 대한 ㉡의 비판을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호네프의 인정 윤리에서 인정의 획득은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인정 투쟁'에 의해 야기된 상호 주관적 과정이다. 즉 타자가 나에게 갖고 있는 자아상을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으로 인식한 자아는 자신에 대한 새로운 정체성을 요구하고, 이를 인정받기 위한 투쟁을 하게 된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투쟁에 직면한 상대방 역시 이러한 갈등을 통해 더욱 고양된 자기의식에 도달하게 되면서 관련 당사자들은 새로운 인정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정 관계는 나와 타자의 공존과 화해를 이룰 뿐만 아니라, 각자의 고유성이 타자를 매개로 형성되고 고도화되는 조건이다.

- ① 인간 존재는 보편적으로 표상되는 것이 아니라 자아와 타자가 갈등을 매개로 자신의 고유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구성되는 것이다.
- ② 모든 인간이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할 보편적 존재인 이유는 인간의 자아실현이 상호 인정에 따른 긍정적 자기 관계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 ③ 인간의 타인에 대한 도덕적 의무는 주체의 희생을 대가로 타자를 구원하는 과정에서 달성되는 것이므로 이성보다는 자기희생에 의한 것이다.
- ④ 인간 자신이 구성한 법칙이란 이성에 의해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식의 주체가 타자와의 투쟁에서 승리하여 타인을 자기화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 ⑤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일 수 있는 이유는 인간이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개인의 자기의식이 자기 자신을 객관화함으로써 보편적 존재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다.

유형 이해

추가로 주어진 정보를 글에 적용하여 글의 내용을 심화하여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이때 제시되는 추가 정보는 지문의 핵심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이거나 이를 다른 관점으로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는 내용이다. 글의 전체 맥락을 바탕으로 추가 정보와 글의 연관성을 잘 파악해야 한다.

유형 공략

- ① 선지에서 특정한 지문의 정보를 찾아 표시한다.
- ② 추가로 제시된 정보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이것과 글의 연관성을 파악한다.
- ③ 추가로 제시된 정보가 글의 내용을 다른 관점으로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으로 구성된 경우 새롭게 제시된 개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정답 풀이

① 〈보기〉는 호네프의 인정 윤리에서 '인정 투쟁'의 개념에 대해 말하고 있다. 호네프는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한 상호 간의 갈등인 인정 투쟁을 통해 인간은 각자의 고유성이 공존하는 인정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인간이 상호 주관적 존재로서 재구성되는 과정은 자아와 타자가 인정 투쟁이라는 갈등을 통해 자신의 고유성을 형성해 가는 역동적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호네프의 인정 윤리의 입장에서 칸트 윤리학의 문제점은 인간을 상호 주관적 존재가 아닌 보편적 존재로서 이미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이다. 호네프에 따를 때, 인간은 보편적 이성에 의해 규정된 존재가 아니라 타자와의 인정 투쟁을 매개로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상호 주관적으로 구성해 나가는 존재이다.

오답 풀이

- ② 모든 인간이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할 보편적 존재라는 보편주의 철학의 입장은 타자의 차이를 억압하는 것일 수 있으므로 호네프는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 ③ 호네프에 따르면 타자에 대한 도덕적 의무는 상호 인정에 의해 정당화된다. 주체의 자기희생에 의한 것이라는 점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 ④ 인정 투쟁은 주체의 타자에 대한 승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더구나 타인을 자기화하는 것은 타자에 대한 폭력성을 내포하고 있다.
- ⑤ 자기의식의 객관화와 보편적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개념은 모두 보편주의 철학에 근거하고 있으며, 호네프는 이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짧은골 발문 Tip

- 뒷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을 적용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뒷글을 <보기>의 상황에 적용하여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04 뒷글의 내용을 <보기>에 적용하여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관용’의 기원을 이루는 대표적 사례는 16세기 프랑스에서 일어난 종교 갈등이다. 1572년 구교도들은 프랑스 국왕의 어머니였던 카트린 드 메디시스의 음모에 따라 성 바돌로매 축일에 신교도를 학살했다. 그 수는 파리에서만 3천 명이 넘었고, 프랑스 전역에서는 2만 명을 해야 했다. 신교도들은 생존을 위해 반격을 시작했고, 이는 피의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이에 종교적 차이로 인한 서로 간의 살육을 막고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등장한 것이 차이에 대한 관용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관용이 근본적으로 나와 타인 간의 평화 공존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관용이 상대방에 대한 입장 자체의 변화나 상대에 대한 인정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 즉 관용이란 관용할 수 없는 것을 관용하는 것이며, 따라서 비록 평화 공존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여전히 관용할 수 없는 존재로 남아 있는 ‘관용의 역설’이 나타난다.

- ① 칸트 윤리학에 따르면, 당대 프랑스인들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 타인을 해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겠군.
- ② 탈근대주의 철학에 따르면, 종교라는 선형적 원리에 대한 복종이 타자에 대한 보편 원리의 강요로 작용할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군.
- ③ 탈근대주의 철학에 따르면, 구교도들의 신교도 학살 행위는 자신과 타자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구체적 폭력으로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호네프의 인정 윤리에 따르면, ‘피의 악순환’이 이어짐으로써 당대 프랑스인들이 심리적 상처를 입고 ‘자아실현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였었다고 판단할 수 있겠군.
- ⑤ 호네프의 인정 윤리에 따르면, 구교와 신교가 상대방을 관용한 것은 관용할 수 없음에도 관용했다는 점에서 상호 인정을 통해 긍정적 자기 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유형 이해

글의 내용을 새로 주어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여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글에 제시된 정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어진 구체적 상황의 각 요소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 상황을 글에 제시된 핵심 개념으로 포섭할 수 있어야 한다.

유형 공략

- ① 지문에서 가상적 상황을 통해 핵심 개념을 설명한 경우 해당 개념이 적용되는 양상을 파악한다.
- ② 지문에서 개념 간의 인과적 설명을 제시한 경우 논리적 연관 관계를 잘 따져야 한다.

정답 풀이

⑤ <보기>는 종교 갈등에 기원한 프랑스의 ‘관용’에 대한 사례를 언급하고 있으며, 이때의 관용이 관용할 수 없는 것을 관용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타자는 관용할 수 없는 존재로 남아 있다는 ‘관용의 역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호네프에 따르면, 이러한 역설적 관용의 상황은 표면적으로는 관용을 추구하지만 실질적 상호 인정에 다다르지 못한 상태로 파악할 것이며, 긍정적 자기 관계 역시 나타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평가할 것이다.

오답 풀이

- ① 칸트 윤리학은 다른 목적을 위한 도덕적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자신의 안전이라는 목적을 위해 타인을 해치지 않기로 한 결정은 칸트에 따르면 도덕적 행동일 수 없을 것이다.
- ② 탈근대주의 철학은 칸트의 보편주의가 인간이 선택하지 못한 선형적 원리에 대한 복종을 강조함으로써 자유를 억압할 뿐만 아니라 타자에 대한 폭력을 드러내었다고 본다. 프랑스의 종교 갈등에서 신교와 구교 역시 자신의 선형적 원리를 통해 타자를 억압했다는 점에서 탈근대주의 철학의 입장에서는 타자에 대한 보편 원리의 강요로 해석할 수 있다.
- ③ 구교도들의 신교도 학살 행위는 자신과 타자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탈근대주의 철학의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타자에 대한 폭력이 내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살이라는 행위로 구체적으로 실현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 ④ 호네프는 인간의 자아실현은 타자의 자기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 의존한다고 본다. 따라서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해치려 했던 신교와 구교의 폭력적 행동은 서로에게 심리적 상처를 주어 자아실현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유형 연습 ①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이 따라와 한방에 누웠다.
어두운 방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어둠 속에 곱게 풍화 작용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며
눈물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백골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냐

지조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다.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게다.

가자 가자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 윤동주, 「또 다른 고향」

(나) 향단(香丹)아 그넛줄을 밀어라
머언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이 다소곳이 흔들리는 수양버들 나무와
베갯모에 놓이듯 한 풀꽃 더미로부터,
자잘한 나비 새끼 꾀꼬리들로부터
아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산호(珊瑚)도 섬도 없는 저 하늘로
나를 밀어 올려 다오
채색(彩色)한 구름같이 나를 밀어 올려 다오
이 올렁이는 가슴을 밀어 올려 다오!



서(西)으로 가는 ㉠달같이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

바람이 파도를 밀어 올리듯이
그렇게 나를 밀어 올려 다오
향단아.

- 서정주, 「추천사」

▶ 8048-0046

표현상 특징을 묻는 유형

0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직유법을 통해 시적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③ (가)는 청각적 심상을, (나)는 공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사물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는 독백적 어조를, (나)는 특정한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를 활용하여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02~03] <보기>를 참고하여 02번과 03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

(가)와 (나)에는 모두 화자의 염원이 드러나 있다. (가)에는 암울한 시대 현실 속에서, 자아 성찰을 통해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과 단절하고 시대 현실에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고자 하는 바람이 드러나 있으며, (나)에는 인간의 운명적 한계에 대해 인식하면서도, 현실 세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바람이 드러나 있다.

▶ 8048-0047

감상의 적절성을 묻는 유형

02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화자가 ‘백골을 들여다보며 / 눈물짓는 것’이 ‘나’인지 ‘백골’인지 ‘아름다운 혼’인지를 묻는 것은 자아를 성찰하는 모습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군.
- ② (가)의 ‘백골 몰래’는 자아의 부정적인 모습인 ‘백골’과 단절하고자 하는 화자의 바람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군.
- ③ (나)의 ‘수양버들 나무’, ‘풀꽃 더미’, ‘피꼬리’는 화자가 벗어나고자 하는 현실 세계를 함축하는 것으로 볼 수 있군.
- ④ (나)의 ‘바람’은 현실 세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적 한계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군.
- ⑤ (가)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은 화자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나)의 ‘산호도 섬도 없는 저 하늘’은 현실 세계에서 벗어난 공간이라는 점에서 화자의 염원이 투영된 공간으로 볼 수 있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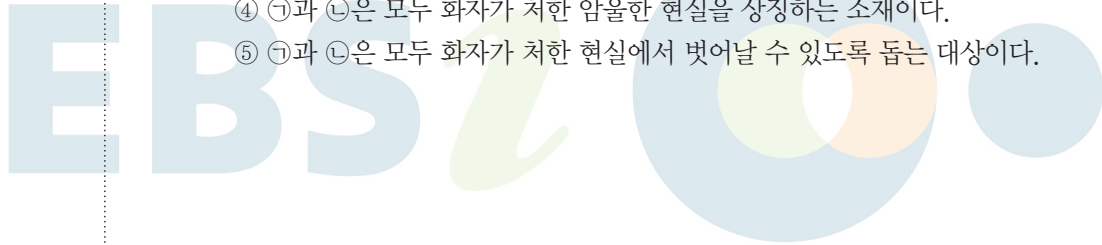


▶ 8048-0048

 시어의 의미를 묻는 유형

03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가 겪은 시련을, ㉡은 화자가 간직한 추억을 환기하는 대상이다.
- ② ㉠은 화자의 각성을 촉구하는 대상이며, ㉡은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대상이다.
- ③ ㉠은 화자가 처한 현실에 대한 절망감을, ㉡은 화자 자신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소재이다.
- ④ ㉠과 ㉡은 모두 화자가 처한 암울한 현실을 상징하는 소재이다.
- ⑤ ㉠과 ㉡은 모두 화자가 처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대상이다.





유형 연습 ① Zoom In

Q (가) 윤동주, 「또 다른 고향」

예제 이 시는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의 갈등과 지향, 그리고 화합을 보여 주는 작품으로, 일제 강점기의 시대 현실 속에서 현실의 부조리와 모순을 극복하고 초월하려는 시인의 고뇌가 표현되어 있다. ‘또 다른 고향’은 자기 본질을 회복하는 공간이며, 더 이상 진정한 의미의 고향을 찾을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시인이 설정한 새로운 고향이다. 즉 ‘고향’은 안식과 자아 정체성의 유지가 보장되지 않는 공간이므로, 시인은 ‘또 다른 고향’이라는 새로운 공간을 통해 참다운 자아를 회복하고 부조리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한 것이다.

주제 현실 극복에 대한 염원

- 구성**
- 1~2연: 귀향과 절망적 현실
 - 3연: 자아의 갈등과 고뇌
 - 4~5연: 현실적 자아에 대한 일깨움
 - 6연: 현실 극복에 대한 염원

Q (나) 서정주, 「추천사」

예제 이 시는 「춘향전」을 모티프로 하여 현실적 괴로움과 인간적 운명의 한계를 벗어난 초월적, 이상적 세계로의 열망을 형상화하고 있다. 즉 시적 화자인 춘향의 말을 통해 현실의 세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 시에서 ‘그네’는 현실 세계로부터 벗어나 이상 세계에 도달하기 위한 매개체라 할 수 있다. 또한 그네의 상승과 하강 운동은 화자가 추구하는 초월적 이상 세계에 대한 열망을 상징하는 동시에, 그에 도달할 수 없는 인간적 한계를 역설적으로 드러낸다.

주제 초월적 세계로의 갈망

- 구성**
- 1연: 현실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
 - 2연: 현실 세계에 대한 인식
 - 3연: 이상 세계에 대한 열망
 - 4연: 인간의 운명적 한계 인식
 - 5연: 인간의 운명적 한계를 자각한 후의 초월적 지향

짧은골 발문 Tip

-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 (나)의 표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표현상 특징을 묻는 유형

0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직유법을 통해 시적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③ (가)는 청각적 심상을, (나)는 공간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사물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는 독백적 어조를, (나)는 특정한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를 활용하여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유형 이해

시에 사용된 표현 방식이나 시상 전개 방식에 대해 묻는 문제이다. 표현 방식은 역설법, 반어법, 비유법 등의 표현법만을 가리키지 않고, 심상이나 어조 등 시적 효과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한 방식을 모두 가리킨다. 또한 시상 전개 방식에는 수미상관의 구조, 선경 후정, 시선의 이동, 시·공간의 변화 등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 선지들은 표현 방식이나 시상 전개 방식과 그 효과가 엮여서 구성된다.

유형 공략

① 시에 자주 나오는 표현 방식이나 시상 전개 방식의 개념을 정확히 파악한 후, 스스로 시를 감상해 보면서 어떤 표현 방식과 시상 전개 방식이 사용되었는지를 직접 찾아보는 연습을 한다.



② 시에 사용된 표현 방식이나 시상 전개 방식을 찾은 후에는, 이를 통해 어떠한 시적 효과가 일어났는지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해 보는 연습을 한다.

정답 풀이

④ (가)는 화자가 혼자 말하는 듯한 독백적 어조를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나)의 경우 화자는 '춘향'으로, 청자는 '향단'으로 설정되어 있어 특정한 대상인 '향단'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는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쫓기우는 사람처럼' 등에서 직유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나)는 '배를 내어 밀듯이', '채색한 구름같이' 등에서 직유법을 통해 시적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② (가)에는 '~이(가) 우는 것이냐'라는, (나)에는 '~을(를) 밀어 올려 다오'라는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 나타나 있다.

③ (가)의 경우 '내가 우는 것이냐'나 '지조 높은 개는 /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다.'에 청각적 심상이 활용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나)에는 공감각적 심상이 드러나 있지 않다.

⑤ (나)에는 2연의 '수양버들 나무', '풀꽃 더미', '나비 새끼' 등을 통해 봄의 계절감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가)에는 특정한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가 나타나 있지 않다.

답은꼴 발문 Tip

-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02 감상의 적절성을 묻는 유형

02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화자가 '백골을 들여다보며 / 눈물짓는 것'이 '나'인지 '백골'인지 '아름다운 혼'인지를 묻는 것은 자아를 성찰하는 모습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군.
- ② (가)의 '백골 몰래'는 자아의 부정적인 모습인 '백골'과 단절하고자 하는 화자의 바람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군.
- ③ (나)의 '수양버들 나무', '풀꽃 더미', '피꼬리'는 화자가 벗어나고자 하는 현실 세계를 함축하는 것으로 볼 수 있군.
- ④ (나)의 '바람'은 현실 세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적 한계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군.
- ⑤ (가)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은 화자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나)의 '산호도 섬도 없는 저 하늘'은 현실 세계에서 벗어난 공간이라는 점에서 화자의 염원이 투영된 공간으로 볼 수 있군.

유형 이해

<보기>에 제시된 내용을 토대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이러한 유형의 문제에 활용되는 <보기>는 일반적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나 감상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작가, 작품이 창작된 시대, 작품의 주제나 평가, 시어의 상징성 등에 대한 정보가 주로 제시된다.

유형 공략

- ① <보기>에 제시된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 ② <보기>에 제시된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된 지문을 다시 이해하고 감상한다.
- ③ '보기-지문-선지'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선지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한다.

정답 풀이

④ (나)의 5연을 보면, 화자는 '바람이 파도를 밀어 올리듯이' 자신을 밀어 올려 달라고 청자에게 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바람'은 파도를 밀어 올리는 동력을 의미하는 것이며, 현실 세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적 한계를 상징하는 것은 '그네'라고 할 수 있다. '그네'가 위로 향하는 상승의 움직임은 이상향에 대한 열망을 드러내며, 아래로 향하는 하강의 움직임은 결국 현실 세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 ① (가)의 3연에서 ‘백골을 들여다보며 / 눈물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 백골이 우는 것이냐 /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냐’를 보면 화자가 자아를 성찰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 ② (가)의 6연 ‘백골 몰래 /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에서 이상적 공간을 의미하는 ‘또 다른 고향’에는 ‘백골’과 함께하지 않으려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따라서 ‘백골 몰래’는 자아의 부정적인 모습인 ‘백골’과 단절하고자 하는 화자의 바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③ (나)의 2연에서 ‘수양버들 나무’, ‘풀꽃 더미’, ‘피꼬리’는 그녀가 아래쪽, 즉 지상으로 내려왔을 때 볼 수 있는 자연물로, 현실 세계를 드러내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수양버들 나무’, ‘풀꽃 더미’, ‘피꼬리’는 화자가 벗어나고자 하는 현실 세계를 함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가)의 6연에서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은 화자가 가기를 염원하는 공간으로, 화자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나)의 ‘산호도 섬도 없는 저 하늘’ 역시 화자가 밀어 올려지기를 원하는 지향점으로, 현실 세계에서 벗어난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과 (나)의 ‘산호도 섬도 없는 저 하늘’은 화자의 염원이 투영된 공간으로 볼 수 있다.

다음글 발문 Tip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가)와 (나)의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윗글의 시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어의 의미를 묻는 유형

03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가 겪은 시련을, ㉢은 화자가 간직한 추억을 환기하는 대상이다.
- ② ㉠은 화자의 각성을 촉구하는 대상이며, ㉢은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대상이다.
- ③ ㉠은 화자가 처한 현실에 대한 절망감을, ㉢은 화자 자신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소재이다.
- ④ ㉠과 ㉢은 모두 화자가 처한 암울한 현실을 상징하는 소재이다.
- ⑤ ㉠과 ㉢은 모두 화자가 처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대상이다.

유형 이해

시어의 의미를 이해했는지 묻는 문제이다. 시어 또는 시구의 의미는 작품 전체의 맥락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작품의 주제나 지배적인 정서를 파악한 후, <보기>가 제시된 경우는 <보기>의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해야 시어와 시구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유형 공략

- ① 화자가 처한 상황과 이로 인해 화자가 느끼는 지배적인 정서, 작품의 주제 등을 파악한다.
- ② 전체 맥락을 고려하여 해당 시어와 시구의 앞뒤 행이나 연을 참고한 후, 그 의미를 파악한다.

정답 풀이

② (가)에서 ‘개’는 ‘어둠’을 짓고 ‘어둠을 짓는 개는 / 나를 쫓는 것일 게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은 화자의 각성을 촉구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으며 (나)에서 ‘달같은 /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은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은 화자가 처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대상이므로 화자가 겪은 시련을 환기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은 화자와 대비되는 대상일 뿐 화자가 간직한 추억을 환기하고 있지는 않다.
- ③ ㉠은 화자의 각성을 촉구하는 대상이므로 화자가 처한 현실에 대한 절망감을 불러일으킨다고 볼 수 없다. (나)의 화자는 ㉢처럼 ‘갈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은 화자 자신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소재로 볼 수 없다.



④ (가)의 ‘밤’과 ‘어둠’은 어둠의 이미지를 통해 화자가 처한 일제 강점기의 암울한 현실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은 이러한 ‘어둠’을 짓고 있으므로 화자가 처한 암울한 현실을 상징하는 소재라고 볼 수 없다. ㉡은 화자와 달리 현실 세계에서 벗어난 대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역시 암울한 현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없다.

⑤ ㉠은 화자의 각성을 촉구하는 대상이므로 화자가 처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대상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은 화자에게 부러움을 느끼게 하는 대상으로 볼 수는 있으나 화자가 처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 유형 연습 2 ***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 가을에 덕이와 봉네의 잔치가 있었다. 그런데 그 잔치 전날 밤, 바우는 마을에서 사라졌다. 그의 홀어머니도, 또 늙은 할아버지 박 훈장도 몰랐다. 그러나 이장 영감만은 짐작하고 있었다. 그는 또, 종일 사랑방 벽에 뒷머리를 대고 앉아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다.

그해에도 골짜기의 눈이 녹고 진달래가 피자 학이 왔다. 예전처럼 부지런히 집을 틀고 새끼를 낳다. 두 마리의 어미 학은 실 새 없이 벌레를 물어 올렸다. 그때마다 두 마리 새끼가 노랑 주둥이를 내둘렀다. 올해에도 평년작은 된다고들, 우선 흉년을 면한 것을 기뻐했다. 그러던 어느 비 내리는 아침이었다. 학 나무 밑에 아주 어린 학의 새끼 한 마리가 떨어져 죽었다. 아직 털도 채 다 나지 않은 학의 새끼는 머리와 눈만이 유난히 컸다.

“히, 그 참, 흉한 일이로군.”

이장 영감과 박 훈장은 몹시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이런 일은 적어도 그들이 아는 한에서는 일찍이 없던 일이었다. 참새는 긴 장마철에 미처 먹이를 딸 수 없으면 그중 약한 제 새끼를 골라 제 주둥이로 물어 내버리는 수가 있다. 그러나 학이 그런 잔혹한 짓을 한 일은 보지 못했었다. 그건 필시 무슨 판 짐승의 짓이라 했다. 어쨌든 그게 학 자신의 뜻에서였건 또는 판 짐승의 짓이건 간에 이제 이 학마을에는 반드시 무슨 참변이 있을 계라고 다들 말 없는 가운데 더욱더 무거운 불안을 느끼고들 있었다.

과시* 무서운 변이 마을을 흔들고야 말았다. 그 일이 있는 지 한 달도 채 못 되어서였다. 별안간 하늘이 무너지고 산이 온통 갈라지는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박혔다. 덜덜 떨며 문틈으로 밖의 학 나무를 살폈다. 학도 동우리 안에 들어앉아 조용하였다.

밤낮 이틀이나 온 세상을 드르릉드르릉 흔들었다. 사흘째 되던 날부터 그 소리가 차츰 남쪽으로 멀어 갔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밖으로 나왔다. 학의 동정부터 보았다. 한 마리는 여전히 동우리 안에 들어 새끼를 품고 앉았고, 한 마리만이 그 바로 윗가지에 한 다리를 꼬부리고 나와 있었다.

그날 저녁때였다. 마을에는 또 판 일이 벌어졌다. 난데없는 누렁 옷을 입은 사람들이 북쪽 영을 넘어 마을로 들어왔다. 쉰 명도 더 넘는 그들은 개시* 어깨에 총을 메고 있었다. 그들은 이 마을 사람들을 해방시키러 왔노라고 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그 해방이란 말의 뜻을 잘 알 수 없었다. 박 훈장마저 알기는 알면서도 어텐지 잘 모를 이야기라 했다. 그렇게 그들이 하루, 마을에 머물고 남쪽으로 나가면 이어서 또 판 패들이 밀려 들어왔다. 그들은 꼭 같은 이야기를 하고 갔다. 이렇게 몇 차례를 겪고 나서야 마을 사람들은 그 아무나 보고 동무 동무 하는 그들이 북한 괴뢰군인 것을 알았고, 또 큰 싸움이 벌어진 것도 알았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야 비로소 학이 새끼를 물어 내버린 뜻을 알 것 같았다. 몇 차례나 들르던 그 괴뢰군 패가 좀 뜸했다.

〈중략〉

올 때만 해도 봉네가 옆에서 좀 거들기만 하면 되었던 이장 영감이었으나, 돌아가는 길에는 덕이와 봉네가 양쪽에서 부축을 해야 했다. 처음 오십 리, 다음 날은 사십 리, 삼십 리, 점점 줄어지다가는, 하루씩 어느 마을에고 들어가 쉬었다. 그러고는 또 이장 영감을 선두로 하고 걸었다. 이장 영감은 점점 쇠약해 갔다. 수염이 기운 없이 축 늘어졌다. 폭 꺼진 두 눈만이 애써 앞을 더듬고 있었다.

“아가, 늙은 것이 공연히 널 고생을 시키는구나. 허허허.”



길가에 앉아 쉴 때면, 혼자 돌아앉아 부어터진 발가락을 어루만지는 봉네의 등을, 이장 영감은 가엾게 쓸어 보는 것이었다. 그러면 봉네는 얼른 신을 신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앞으로 돌아앉는 것이었다. 웃어 보이려고 해도 어쩔지 자꾸 눈물이 쏟아져 나와 그네는 끝내 고개를 못 들곤 하였다.

보름째 되던 날이었다. 그들은 드디어 영마루에 섰다.

“야, 우리 마을이다.”

애들이 제일 먼저 소리를 질렀다. 다들 바우 위에 아무렇게나 주저앉았다. 멍히 저 밑에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는 그들의 눈에는 떠나던 날처럼 또 눈물이 징 소리를 내며 고여 올랐다. 아무도 말이 없는 가운데 그저 여기저기서 코를 들이키는 소리만 들려왔다.

마을은 변했었다.

학 나무는 흠뻑 타 새까만 뼈만이 앙상하게 서 있었고, 또 이쪽 이장네 집과 봉네네 집터에는 아직 녹지 않은 흰 눈 가운데 깨어진 장독이 하나 우뚝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탄 집들은 다행히 그대로 남아 있었으나, 단 두 사람 남겨 두고 갔던 바우 어머니와 박 훈장은 보이지 않았다.

완전히 빈 마을은 눈 속에 잠겨 있었다.

“갔지, 갔어.”

“바우 녀석이 와서 데려갔을 테지.”

“그리구 가면서 학 나무하구 이장 댁에 불을 놓았지, 뭘.”

마을 사람들은 모여 앉기만 하면 분해하였다. 이장 영감은 박 훈장이 쓰던 서당 글방에 누워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다.

여든에도 능히 명석을 메어 나르던 이장 영감이었으나 이제 극도로 쇠약해진 그는 때때로 한숨을 길게 내쉬곤 하였다.

덕이는 이제 농사일이 시작되기 전에 집을 다시 지으리라 생각했다. 그는 팽이를 들고 옛 집터로 갔다. 그날, 덕이는 무너진 벽 밑에서 반 타다 남은 시체를 하나 파내었다. 박 훈장이었다.

이장 영감은 덕이에게서 그 말을 듣고도 놀라지 않았다. 그는 마치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저 고개를 주억거렸을 뿐이었다. 그래도 눈물이 베개로 굴러떨어졌다.

그날 밤, 이장 영감도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덕이의 손을 더듬어 잡은 이장 영감은 여전히 눈은 감은 채 간신히 입을 움직였다.

“학, 학 나무를, 학 나무를…….”

이장 영감은 잠들듯이 숨을 거두었다. 흰 수염이 길게 가슴을 내리덮고 있었다.

상여는 들인데, 상주는 덕이 한 사람이었다. 그날, 마을 사람들은 다들 뒷산으로 따라 올라갔다. 피란을 가던 때처럼 이장 영감이 앞서갔다.

저녁때가 거의 다 되어서야 그들은 산을 내려왔다. 이번엔 덕이가 맨 앞에 두 주의 위패(位牌)를 모시고 걸었고, 그 바로 뒤를 봉네가 흰 보자기로 뿌리를 싼 조그마한 ㉠애송나무를 하나 어린애처럼 앞에 안고 따르고 있었다.

- 이범선, 「학마을 사람들」

*과사: 과연.

*개시(皆是): 모두 다.



▶ 8048-0049

서술상 특징을 묻는 유형

01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를 작중 인물로 설정하여 사건의 현장감을 높이고 있다.
- ②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와 상황을 전지적 시점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③ 서술자의 교체를 통해 외부 이야기에서 내부 이야기로 이동하고 있다.
- ④ 서술자가 자신의 체험을 진술하여 현실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서술자는 과거와 현재를 반복적으로 교차시켜 사건에 입체감을 부여하고 있다.

▶ 8048-0050

소재의 기능을 파악하는 유형

02 ㉠에 담긴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마을에 평화가 다시 찾아오기를 바라는 소망을 드러낸다.
- ② 바우가 새사람이 되어 돌아오기를 바라는 기대를 드러낸다.
- ③ 이장 영감이 좋은 세상으로 가기를 바라는 소망을 드러낸다.
- ④ 마을 사람들이 다산(多産)하여 번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낸다.
- ⑤ 덕이가 할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극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낸다.

▶ 8048-0051

이해와 감상의 적절성을 묻는 유형

03 다음은 윗글을 감상하기 위한 학습 활동지의 일부이다.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습 활동]

이 작품은 학의 생태를 마을의 행복 및 운명의 길흉으로 믿는 민속 신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학의 생태와 학 나무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생각을 표로 정리해 보자.

학의 생태와 학 나무	마을 사람들의 생각
학이 찾아와 새끼를 낳.	흉년을 면하게 될 것임. ㉠
학의 새끼 한 마리가 죽음.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임. ㉡
	나라에 큰 싸움이 일어날 것을 예고했던 것임. ... ㉢
학이 새끼를 품고 등우리 안에 가만히 있음.	마을에 좋은 일이 생길 것임. ㉣
학 나무가 불에 타 버림.	학이 오지 않아 마을에 나쁜 일이 생길 수 있음. ㉤

- ① ㉠ ② ㉡ ③ ㉢ ④ ㉣ ⑤ ㉤



이범선, 「학마을 사람들」

예제 이 소설은 학의 도래 여부와 생태를 마을의 행복행 및 운명의 길흉으로 믿는 전래적이고 집단적인 민속 신앙을 바탕으로 우리의 현대사를 이에 병렬시켜 전개하고 있다. 강원도 두메의 학마을을 배경으로 하여 일제 강점기 말부터 6·25 전쟁에 이르는 우리 민족의 현대사를 요약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설화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우리 민족의 평화 사랑의 정신과 수난 속에서도 잃지 않는 희망에의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

주제 민족의 수난과 극복 의지

전체 줄거리 강원도 두메의 학마을 사람들은 학을 그들의 신처럼 믿으며 살고 있다. 1910년 나라를 빼앗기게 된 이후로는 학이 찾아오지 않을뿐더러 가뭄과 재난이 이어진다. 일제 말 이장 영감과 박 훈장의 손자들이 징병에 끌려가던 해에도 학이 날아오지 않았는데, 광복이 되고 젊은이들이 돌아오던 해에 학은 다시 날아온다. 죽마고우인 바우와 덕이는 봉네를 좋아했으나 덕이가 봉네와 결혼하자 바우는 마을을 떠나고 만다. 그러던 중 나무에서 새끼 학 한 마리가 떨어져 죽더니 6·25 전쟁이 터지고 공산당원이 된 바우는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고 총으로 학을 죽여 버린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마을을 버리고 피란을 간다. 피란에서 돌아와 보니 마을은 폐허가 되어 있었다. 덕이와 봉네는 이장 영감의 유언에 따라 학 나무를 심기 위해 산에서 애송나무를 안고 돌아온다.

답은꼴 발문 Tip

- 윗글의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서술상 특징을 묻는 유형

01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를 작중 인물로 설정하여 사건의 현장감을 높이고 있다.
- ②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와 상황을 전지적 시점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③ 서술자의 교체를 통해 외부 이야기에서 내부 이야기로 이동하고 있다.
- ④ 서술자가 자신의 체험을 진술하여 현실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서술자는 과거와 현재를 반복적으로 교차시켜 사건에 입체감을 부여하고 있다.

유형 이해

소설의 서술상 특징과 그 효과에 대해 묻는 문제이다. 소설은 인물의 행동과 발화, 사건 등에 대해 서술할 때 시점, 문체, 구성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하여 특정한 효과를 얻는다. 이러한 유형의 문제는 대부분, 서술할 때 활용한 방법과 그 방법으로 인해 얻은 효과를 연결하여 선지를 구성한다.

유형 공략

- ① 선지에서 제시한 서술상 특징이 지문에 드러나는지 확인한다.
- ② 지문에 그러한 서술상 특징이 드러난 경우, 선지에서 언급한 효과가 나타나는지 판단한다.

정답 풀이

② ‘이제 이 학마을에는 반드시 무슨 참변이 있을 게라고 다들 말 없는 가운데 더욱더 무거운 불안을 느끼고들 있었다.’와 ‘마을 사람들은 이제야 비로소 학이 새끼를 물어 내버린 뜻을 알 것 같았다.’ 등을 보면,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와 상황을 전지적 시점으로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사건 외부에 있는 서술자가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 ③ 서술자의 교체가 나타나 있지 않다.
- ④ 서술자가 전지적인 위치에서 인물의 심리와 상황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이 글은 시간적 순서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고 있으므로, 과거와 현재가 반복적으로 교차하고 있지 않다.



짧은골 발문 Tip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윗글의 ㉠과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윗글의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소재의 기능을 파악하는 유형

02 ㉠에 담긴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마을에 평화가 다시 찾아오기를 바라는 소망을 드러낸다.
- ② 바우가 새사람이 되어 돌아오기를 바라는 기대를 드러낸다.
- ③ 이장 영감이 좋은 세상으로 가기를 바라는 소망을 드러낸다.
- ④ 마을 사람들이 다산(多産)하여 번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낸다.
- ⑤ 덕이가 할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극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낸다.

유형 이해

소설에 등장하는 사물이나 소재가 지닌 상징적 의미를 묻는 문제이다. 이러한 사물이나 소재는 사건 전개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기도 하고, 인물이나 사건이 지닌 의미를 압축적으로 보여 주기도 하며, 작품의 주제와 관련하여 특정한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한다. 따라서 소설의 전체 맥락 속에서 사물이나 소재가 지닌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유형 공략

- ① 지문에 나타난 사건의 전개 양상과 인물의 상황이 어떠한지 파악한다.
- ② 전체 맥락을 바탕으로 사건 전개에서 드러나는 사물이나 소재의 기능 또는 상징적 의미를 파악한다.

정답 풀이

① 봉네는 이장 영감의 유언에 따라 불타 버린 학 나무를 대신할 어린 소나무를 안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다. 따라서 애송나무는 학이 마을에 다시 와, 마을에 평화가 다시 찾아오기를 바라는 소망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 ② 마을에 불을 지르고 박 훈장까지 죽게 한 바우가 새사람이 되기를 기대한 사람은 없다.
- ③ 학 나무는 이장 영감의 소망과 관련이 있는데, 이장 영감의 소망은 마을에 평화가 오기를 바라는 것이므로 학 나무를 통해 이장 영감이 좋은 세상으로 가기를 바란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④ 마을 사람들이 번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간접적으로 드러난다고 할 수 있으나 ‘다산’의 의미는 없다.
- ⑤ 덕이가 할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극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드러나지 않는다.

짧은골 발문 Tip

-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를 참고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의 특성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해와 감상의 적절성을 묻는 유형

03 다음은 윗글을 감상하기 위한 학습 활동지의 일부이다.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습 활동]

이 작품은 학의 생태를 마을의 행복행 및 운명의 길흉으로 믿는 민속 신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학의 생태와 학 나무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생각을 표로 정리해 보자.

학의 생태와 학 나무	마을 사람들의 생각
학이 찾아와 새끼를 낳.	흉년을 면하게 될 것임. ㉠
학의 새끼 한 마리가 죽음.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임. ㉡
	나라에 큰 싸움이 일어날 것을 예고했던 것임. ㉢
학이 새끼를 품고 동우리 안에 가만히 있음.	마을에 좋은 일이 생길 것임. ㉣
학 나무가 불에 타 버림.	학이 오지 않아 마을에 나쁜 일이 생길 수 있음. ㉤

- ① ㉠ ② ㉡ ③ ㉢ ④ ㉣ ⑤ ㉤



유형 이해

제시된 학습 활동을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이해 또는 감상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이러한 유형의 문제는 제시된 자료의 정보가 작품을 이해하는 기준이 되므로 제시된 자료의 핵심 내용을 파악한 후, 그 내용을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 및 감상해야 한다.

유형 공략

- ① 제시된 자료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 ② 제시된 자료의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지문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 ③ '자료-지문-선지'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선지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한다.

정답 풀이

④ 학은 전쟁으로 인한 총성과 포성에 놀라 등우리 안에 가만히 있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마을 사람들도 불안에 떨며 문을 걸어 잠그고 집 안에 들어박혀 있었다. 그러므로 학이 등우리 안에 가만히 있는 것에서 마을에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우선 흉년을 면한 것을 기뻐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이제 이 학마을에는 반드시 무슨 참변이 있을 게라고 다들 말 없는 가운데 더욱더 무거운 불안을 느끼고들 있었다.'에서 알 수 있다.
- ③ ㉞에서 마을 사람들이 느낀 불길함이 현실로 나타난 사건이 북한군의 침입이며, 이로 인해 나라에 큰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 즉 학의 새끼 한 마리가 죽은 것은 나라에 큰 싸움이 일어날 것을 예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이장 영감이 죽으면서 학 나무 이야기를 한 것에는, 학 나무가 불에 타 버려 학이 오지 않아 마을에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학이 찾아올 나무를 심으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 유형 연습 ③ ***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부귀(富貴)라 구(求)치 말고 빈천(貧賤)이라 염(厭)치* 마라
인생 백 년(百年)에 한가(閑暇)할사 이내 것이
백구(白鷗)야 날지 마라 너와 망기(忘機)* 하오리라

<제1수>

천심 절벽(千尋絕壁) 섰는 아래 일대 장강(一帶長江) 흘러간다
백구로 벼를 삼아 어조 생애(漁釣生涯)* 늙어 가니
두어라 세간 소식(世間消息) 나는 몰라 하노라

<제2수>

보리밥 과 생채를 양 맞춰 먹은 후에
모재(茅齋)*를 다시 쓸고 북창하(北窓下)에 누웠으니
눈앞에 태공 부운(太空浮雲)*이 오락가락하노라

<제3수>

공산리(空山裏) 저 가는 달에 혼자 우는 저 두견(杜鵑)이
낙화 광풍(落花狂風)*에 어느 가지 의지하리
㉠백조(百鳥)야 한(恨)하지 마라 내곤 서러워하노라

<제4수>

저 ㉡까마귀 쫓지 마라 이 까마귀 쫓지 마라
야림(野林) 한연(寒煙)*에 날은조차 저물거늘
어여빨사 편편 고봉(翩翩孤鳳)*이 갈 바 없어 하듯다

<제5수>

서산(西山)에 해 저 간다 고깃배 뗏단 말가
[A] 죽간(竹竿)*을 둘러메고 십 리 장사(十里長沙) 내려가니
연화(煙火)* 수삼(數三) 어촌(漁村)이 무릉(武陵)인가 하노라

<제6수>

- 권구, 「병산육곡(屏山六曲)」

- *염치: 싫어하지.
- *망기: 속세의 일이나 욕심을 잊음.
- *어조 생애: 낚시하는 삶.
- *모재: 따로 지붕을 인 집.
- *태공 부운: 넓은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
- *낙화 광풍: 꽃잎이 떨어지도록 미친 듯이 부는 바람.
- *한연: 쓸쓸하게 피어오르는 연기.
- *편편 고봉: 훨훨 나는 외로운 봉황.
- *죽간: 대나무 장대. 여기서는 대나무로 만든 낚싯대.
- *연화: 인가에서 불을 때어 나는 연기라는 뜻으로, 사람이 사는 기척 또는 인가를 이르는 말.



▶ 8048-0052

01

시어의 기능을 파악하는 유형

㉠과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와 동병상련의 처지에 놓여 있는 대상이고, ㉡은 화자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대상이다.
- ② ㉠은 화자가 처한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은 화자가 처한 현실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 ③ ㉠은 화자와 임의 만남을 가로막는 방해물이고, ㉡은 화자와 임의 만남을 연결해 주는 매개체이다.
- ④ ㉠과 ㉡은 모두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이다.
- ⑤ ㉠과 ㉡은 모두 화자에게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소재이다.

▶ 8048-0053

02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유형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육가계 연시조는 여섯 수가 하나의 틀로 창작된 연시조라는 형식적인 특성과 함께 대체로 강호에 은거하는 태도를 노래한다는 내용적 특성을 지닌다. 「병산육곡」은 공간을 활용하여 자연에서의 삶에 대한 지향과 당시의 혼탁한 정치 현실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다. 이는 ‘물가-육지-물가’로 이동하는 시적 공간에 따라 구체화되어 나타나는데, 시적 화자는 때로 평온함을 느끼기도 하며, 혼탁한 현실로 인해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도 한다.

- ① 〈제1수〉에서 ‘백구’와 함께 ‘망기’하고자 하고 〈제2수〉에서 ‘세간 소식’과 단절하고자 하는 화자의 모습은, 자연 속에서 은거하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 ② 〈제2수〉에서의 ‘어조 생애’는 화자가 지향하는 자연에서의 삶을 나타내며, 〈제6수〉에서 ‘어촌’은 화자가 만족감을 느끼는 이상적 공간이라고 볼 수 있군.
- ③ 〈제3수〉의 ‘보리밭’과 ‘파 생채’는 자연 속에서의 소박한 삶을 드러내며, 〈제4수〉의 ‘낙화 광풍’은 당시의 혼탁한 정치 현실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군.
- ④ 〈제5수〉의 갈 바 없어 방황하는 ‘편편 고봉’은 〈제1수〉의 ‘빈천’으로 인해 갈등하는 화자의 모습을 상징하는 자연물로 볼 수 있군.
- ⑤ 〈제1수〉, 〈제2수〉, 〈제6수〉의 시적 공간은 ‘물가’이며, 자연 속에서 평온함을 느끼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군.

▶ 8048-0054

03

작품을 비교하여 이해하는 유형

[A]와 〈보기〉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이바 아히 돌아 새히 온다 즐겨 마라
 현스흔 세월이 소년(少年) 아사 가느니라
 우리도 새히 즐겨 ㅎ다가 이 백발이 되얏노라
 - 신계영, 「전원사시가(田園四時歌) 제9수」

- ① [A]와 달리 〈보기〉는 공간적 배경을 활용하여 화자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② [A]와 달리 〈보기〉는 하루 중 특정한 시간적 배경을 활용하여 시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③ 〈보기〉와 달리 [A]에는 현재의 자신과 다른 태도를 보이는 대상에 대한 혼계가 드러나 있다.
- ④ [A]에는 삶에 대한 만족감이, 〈보기〉에는 세월의 흐름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 ⑤ [A]와 〈보기〉는 모두 묻고 답하는 형식을 통해 삶에 대한 무상감을 표현하고 있다.



유형 연습 ③ Zoom In

권구, 「병산유곡」

예제 이 작품은 평생 벼슬에 뜻을 두지 않고 자연과 더불어 살며 학문을 닦았던 작가의 유유자적하는 삶의 태도가 잘 드러나 있는 총 6수의 연시조이다. 정치적으로 어지러운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자연과 일체감을 느끼며 지내는 소박한 삶에 대한 만족감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주제 자연 속에 사는 삶에 대한 만족감

- 구성**
- 제1수: 세속을 멀리하는 삶
 - 제2수: 자연과 벗하여 더불어 사는 삶
 - 제3수: 자연 속에서의 소박한 삶
 - 제4수: 혼탁한 현실에 대한 탄식
 - 제5수: 혼탁한 현실에 대한 염려
 - 제6수: 자연 속에서 사는 만족감

맞은꼴 발문 Tip

- ㉠과 ㉡의 기능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와 (나)의 시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어의 기능을 파악하는 유형

01 ㉠과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와 동병상련의 처지에 놓여 있는 대상이고, ㉡은 화자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대상이다.
- ② ㉠은 화자가 처한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은 화자가 처한 현실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 ③ ㉠은 화자와 임의 만남을 가로막는 방해물이고, ㉡은 화자와 임의 만남을 연결해 주는 매개체이다.
- ④ ㉠과 ㉡은 모두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이다.
- ⑤ ㉠과 ㉡은 모두 화자에게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소재이다.

유형 이해

고전 시가에 쓰인 시어의 의미와 기능을 이해했는지 묻는 문제이다. 시어의 의미와 기능은 작품 전체의 맥락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 특히 고전 시가의 경우 자연물이 다양한 기능을 하는 경우가 많다. 즉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객관적 상관물로 기능하는 경우, 화자와 대상 간의 만남을 방해하는 기능을 하는 경우, 또는 화자와 대상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개체로 기능하는 경우 등 고전 시가에서 자연물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유형 공략

- ① 시어를 통해, 화자가 처한 상황과 화자가 느끼는 지배적인 정서, 작품의 주제 등을 파악하여 고전 시가의 내용을 이해한다.
- ② 전체 맥락을 고려하여 해당 시어와 시구의 앞뒤 행이나 연을 참고한 후, 그 의미를 파악한다.

정답 풀이

① <제4수>의 종장을 보면 화자는 ‘백조’가 자신과 동일하게 서러운 처지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며 심리적 동질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은 화자와 동병상련의 처지에 놓여 있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제5수>의 ‘저 까마귀 쫓지 마라 이 까마귀 쫓지 마라’를 보면 ㉡은 화자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대상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 ② ㉠은 화자가 심리적 동질감을 느끼는 대상이므로 화자가 처한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낸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은 화자가 처한 현실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낸다고 볼 수 없다.
- ③ ㉠은 화자와 같은 서러움을 느끼는 대상이므로 임과의 만남을 가로막는 방해물로 볼 수 없으며, ㉡도 화자와 임의 만남을 연결해 주는 매개체로 볼 수 없다.



- ④ ㉠은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은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으로 볼 수 없다.
- ⑤ ㉠은 화자가 자신과 동병상련의 처지에 있다고 생각하는 대상이고, ㉡은 화자가 멀리하고자 하는 대상이므로 ㉠과 ㉡ 모두 화자에게 경외감을 불러일으킨다고 볼 수 없다.

짧은골 발문 Tip

-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를 참고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문제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유형

0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육가계 연시조는 여섯 수가 하나의 틀로 창작된 연시조라는 형식적인 특성과 함께 대체로 강호에 은거하는 태도를 노래한다는 내용적 특성을 지닌다. 「병산육곡」은 공간을 활용하여 자연에서의 삶에 대한 지향과 당시의 혼탁한 정치 현실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다. 이는 ‘물가-육지-물가’로 이동하는 시적 공간에 따라 구체화되어 나타나는데, 시적 화자는 때로 평온함을 느끼기도 하며, 혼탁한 현실로 인해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도 한다.

- ① <제1수>에서 ‘백구’와 함께 ‘망기’하고자 하고 <제2수>에서 ‘세간 소식’과 단절하고자 하는 화자의 모습은, 자연 속에서 은거하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 ② <제2수>에서의 ‘어조 생애’는 화자가 지향하는 자연에서의 삶을 나타내며, <제6수>에서 ‘어촌’은 화자가 만족감을 느끼는 이상적 공간이라고 볼 수 있군.
- ③ <제3수>의 ‘보리밭’과 ‘파 생채’는 자연 속에서의 소박한 삶을 드러내며, <제4수>의 ‘낙화 광풍’은 당시의 혼탁한 정치 현실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군.
- ④ <제5수>의 갈 바 없어 방황하는 ‘편편 고봉’은 <제1수>의 ‘빈천’으로 인해 갈등하는 화자의 모습을 상징하는 자연물로 볼 수 있군.
- ⑤ <제1수>, <제2수>, <제6수>의 시적 공간은 ‘물가’이며, 자연 속에서 평온함을 느끼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군.

유형 이해

<보기>로 제시된 자료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이러한 유형의 문제는 <보기>의 정보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해야 하므로 이전에 작품을 접하고 이해한 경험이 있더라도 자료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작품을 감상해 볼 필요가 있다.

유형 공략

- ① <보기>에서 제시한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 ② <보기>에서 제시한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지문을 해석하고 감상한다.
- ③ ‘<보기>-지문-선지’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선지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한다.

정답 풀이

④ <제5수>의 ‘편편 고봉’은 훨훨 나는 외로운 봉황으로, 화자와 같은 올바른 선비들이나 임금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편편 고봉’이 갈 바 없어 방황하는 모습은 혼탁한 현실로 인해 갈등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편편 고봉’이 <제1수>의 ‘빈천’으로 인해 갈등하는 화자의 모습을 상징하는 자연물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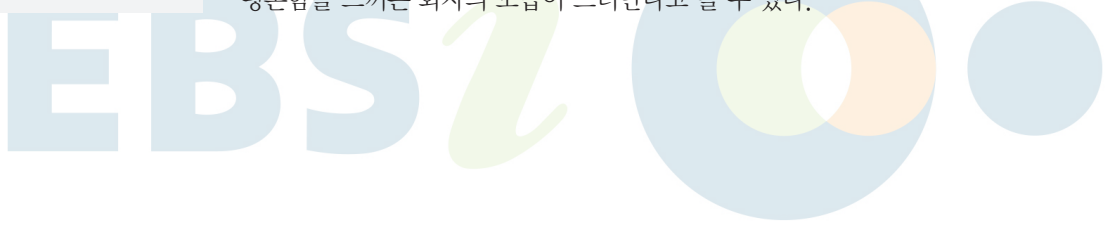
- ① <제1수>에는 ‘백구’와 함께 ‘망기’하고자 하는 화자의 바람이 드러나 있고, <제2수>에는 ‘세간 소식’과 단절하고자 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이는 자연 속에서 은거하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 ② <제2수>의 중장을 보면 ‘어조 생애’는 화자가 지향하는 자연 속에서의 삶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제6수>의 종장에서 ‘어촌이 무릉인가 하노라’를 보면 ‘어촌’은 화자가 만족감을 느끼는 이



상적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③ <제3수>의 '보리밭'과 '파 생채'는 안분지족하는 소박한 삶을 드러내는 소재로, 자연 속에서의 소박한 삶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제4수>의 '낙화 광풍'은 꽃잎이 떨어지도록 미친 듯이 부는 바람으로, <보기>의 내용을 참고할 때 당시의 혼탁한 정치 현실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⑤ <제1수>와 <제2수>에 나타난 '백구'와 <제6수>에 나타난 '고깃배', '십 리 장사', '어촌'이라는 시어를 볼 때, <제1수>, <제2수>, <제6수>의 시적 공간은 '물가'로 볼 수 있다. 또한 각 수의 내용을 살펴보면 속세를 멀리하면서 자연 속에서 안빈낙도하는 만족감이 나타나 있으므로, 자연 속에서 평온함을 느끼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짧은골 발문 Tip

- 윗글과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1>을 참고하여 윗글과 <보기 2>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작품을 비교하여 이해하는 유형

03 [A]와 <보기>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이바 아히들아 새히 온다 즐겨 마라
 현스흔 세월이 소년(少年) 아사 가느니라
 우리도 새히 즐겨 흥다가 이 백발이 되었노라 - 신계영, 「전원사시가(田園四時歌) 제9수」

- ① [A]와 달리 <보기>는 공간적 배경을 활용하여 화자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② [A]와 달리 <보기>는 하루 중 특정한 시간적 배경을 활용하여 시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③ <보기>와 달리 [A]에는 현재의 자신과 다른 태도를 보이는 대상에 대한 혼계가 드러나 있다.
- ④ [A]에는 삶에 대한 만족감이, <보기>에는 세월의 흐름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 ⑤ [A]와 <보기>는 모두 묻고 답하는 형식을 통해 삶에 대한 무상감을 표현하고 있다.

유형 이해

다른 작품과 비교하여 작품을 감상하고 이해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상호 텍스트적 맥락을 고려하여 여러 작품과 비교해 보면, 작품에 대한 감상과 이해가 깊어질 수 있다. 제시된 지문과 <보기>로 제시된 작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 보면서 작품을 감상해 보는 것이 좋다.

유형 공략

- ① 제시된 지문에 나타나는 주요 특징과 내용을 이해한다.
- ② 제시된 지문과 <보기>로 제시된 작품의 연관성을 찾아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한다.

정답 풀이

④ [A]의 화자는 자신이 있는 '어촌'이 '무릉'이라고 하면서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으나 <보기>의 화자는 '백발'이 된 자신을 한탄하면서 세월의 흐름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A]에서는 '고깃배'가 떠 있는 '어촌'을 공간적 배경으로 활용하여 화자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만, <보기>에는 특정한 공간적 배경이 드러나 있지 않다.
- ② [A]의 '서산에 해 저 간다'를 보면 하루 중 저녁에 해당하는 시간적 배경을 활용하고 있지만, <보기>에서는 하루 중 특정한 시간적 배경을 활용하여 시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지 않다.
- ③ <보기>에는 '새히'가 오는 것에 대해 현재의 자신과 다른 태도를 보이는 '아히들'에 대한 혼계가 드러나 있지만, [A]에는 이러한 혼계가 드러나 있지 않다.
- ⑤ <보기>의 경우 '아히들'로 설정된 특정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지만, 묻고 답하는 형식은 드러나 있지 않다. [A]에는 삶에 대한 무상감이 드러나 있지 않다.



유형 연습 4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재상 윤현의 아들 지경과 참판 최홍일의 딸 연화는 혼례를 올리려 하지만, 임금은 지경에게 귀인 박씨의 딸 옹주와의 혼례를 하교한다. 지경은 이를 거부하지만 임금은 위력으로 혼례를 강행한다. 이에 지경은 옹주를 부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연화와의 만남을 지속한다.

지경이 사은하고 물러와 옹주 박대하기 감치 않고 최 씨에게 가니, 박 씨 울고 상계 가로되, “성상이 지경의 궤홀 흉언(詭譎凶言)*을 경청하사 우답하시니, 더욱 자득(自得)하여 옹주를 박대하고 최녀의 집에 가 박혔으니, 옹주를 죽여 그 설위함을 보지 말고자 하나이다.”

상(上)이 웃으시고 윤현에게 편지하사, 옹주 고단함을 위로하라 하시고, 최홍일에게 전교하사 가로되, ㉠“당초에 네 딸을 개가치 못하였으나, 이제 방자히 지경을 맡겨 둬이 외람하니, 이후 다시 이러한 즉 사죄를 당하리라.”

하시니 공이 황공 사죄하고, ㉡윤 공이 지경을 대책하여 옹주 궁에 보내어 여러 날을 지키고, 최 공이 의사를 내어 윤 공더러 이르되,

“최 씨 병들어 낫지 않는다.”

하더니, 여러 날이 됴에 위중타 하는지라. 지경이 듣고 즉시 가니 최 공이 크게 노하여 가로되,

㉢“네 또 와 나를 죽이려 하는다? 내 딸이 병들어 죽으나 사나 네 알 바가 아니다.”

하고 밀어내어 문을 닫으니, 웃고 쫓기어 밖에 나와 조카더러 물으니, 고모의 ㉣병이 중하여 곡기를 끊고 눈을 뜨지 못한다 하거늘, 그 말을 듣고 크게 슬퍼 가만히 들어가고자 하되 정당(正堂)에 누웠다는지라. 볼 길 없어 돌아와 편지하니, 답장도 없어 주야 번뇌하더니, 하루는 윤 공이 가로되,

“최 씨 병을 보니 너로 하여 신세 참담함을 슬퍼하여 병이 난즉 아마도 살지 못할까 싶더라. 그런 잔인한 일이 어디 있으랴?”

지경이 묵연히 되하니, 이윽고 최 씨 부음이 오니 일가가 통곡하고 지경이 실정 통곡하여 엎어져 기절하였더니 이윽고 깨어 일어나 말을 타고 바삐 달려가니, 최 공이 하인을 명하여 문에 들이지 말라 하고 윤 공과 제자만 들이니, 지경이 뒤를 쫓아 들어가려 한즉, 여러 하인이 등을 밀어내고 문을 닫으며 이르되,

“노야가 가라사대 내 딸이 구태여 저와 혼인 아니 하려 하거늘, 우격으로 혼인을 지내고 내 딸이 저로 인하여 죽었으니 붙이지 말라 하시더이다.”

지경이 노하여,

“내 미워함이 아니야. 사세(事勢) 그렇게 되었거늘 어찌 그토록 험하게 구는고?”

백 가지로 들어가려 하되 마침내 들지 못하고, 안에서 곡성이 진동하니, 절로 눈물이 비 오듯 하여 하인청에서 지내더라.

이튿날 또 가니 한결같이 들이지 아니하니, 하릴없어 혈소청(歇所廳)*에서 성복(成服)*하고 돌아와 부형을 대하여 최가의 일이 괴이함을 고하니, 공이 가로되,

“나와 제자는 들이되 너를 아니 들이기는 상사에 조관 재상이 많이 모임에 너를 거절함을 보임일러라.”

지경이 가로되,

“그건 너무 과도하나이다. 이미 죽은 후 무슨 시비 있을 것이라 그러하리이까? 최 공의 바란 것이 병일러니, 이 일을 보건대 오히려 작심이로소이다.”



지경이 하 서러워하니 병이 나 누웠으니 잠깐 진정하여 낮거늘, 최부에 이르니 이날에야 들이거늘, 바빠 빈소에 들어가 관을 붙들고 대성통곡하다가 기운이 막히니 부인과 한림이 겨우 진정케 하고 서로 참담함을 인사하고 비통하다가, 차후로 옹주 박대 더욱 심하니, ㉠옹주와 박 씨는 최 씨 죽은 것을 가장 기꺼워하고, 상은 들으시고 인병치사(因病致死)로 알으사, 최 공을 불러 전일 엄책하심을 누우치 시니, 최 공이 감은하여 지경 속임을 넌지시 아뢰며 귀인계도 이같이 청하니 기꺼워 웃으시더라.

세월이 덧없어 장례를 치르게 되니 지경이 더욱 비통함을 이기지 못하여, 자가(自家) 선산에 묻기를 청하니, 최 공이 가로되,

“이미 나라에서 이리하여 계시니 어찌 네 집 선산에 가리요. 부질없이 유의 말라.”

지경이 더욱 설위하는 중 옹주 박대 갈수록 심하여 측량치 못할러라.

광음이 여류하여 최 씨 일주기(一週忌) 돌아오매, 심사가 더욱 비감함을 이기지 못하여, 조카 등을 데리고 글도 가르치며, 이르다가 입번(入番)하는 날은 대군(大君)도 글을 가르치니, 대군은 명묘시니 공경하고 사랑하시더라.

㉡박 씨는 지경이 미워 바로 보지 아니하니, 지경 또한 바로 보는 적이 없더라.

이러구러 최 씨 삼년상이 지나니, 지경이 설움을 이기지 못하여 최부에 가 침소 밖에 이르러 배회하며 혼잣말로 이르되,

‘중적은 의구하되 사람이 없으니 이 설움을 어찌 견디리오.’

두루 생각하니 심회 비감함을 정치 못하여 눈물이 한삼을 적시는지라. 옹주는 갈수록 싫고 최 씨는 오랫동안 잊을 길 없으니, 이십 세 남자가 일생 홀아비로 어이 견디리오.

자연 신세를 비탄하니, 최 공의 손자 선중이 나이 십 세라. 따라다니다가 이 거동을 보고 물어 가로되,

“숙부는 어찌 이대도록 우시나이까?”

지경이 답하여 가로되,

“네 고모를 생각하고 우노라.”

선중이 가로되,

“고운 부채와 필묵을 주면 고모 있는 곳을 아니 이르리이까?”

지경이 가로되,

“죽은 사람 간 곳을 네 어이 아는가?”

선중이 가로되,

“조부께서 숙부가 매양 본다 하고 죄다 감추었나이다.”

지경이 마음속으로 뜻밖의 일에 몹시 기뻐하여 즉시 종을 보내어 ㉢색부채와 필묵을 갖다가 주고 달래어 물으니, 선중이 가로되,

“나를 따라오소서.”

뒤를 따라가니, 동산 너머 두 집 지나 큰 집이 있어 대문을 잠갔거늘 동산 협문으로 들어가니 최 씨 바야흐로 종을 시켜 보거늘, 지경이 바로 들어가 부인을 붙들고 가로되,

“이 어인 일고. 당명황(唐明皇)의 봉래산(蓬萊山) 꿈*인가, 초양왕(楚襄王)의 무산(巫山) 구름*인가.”

최 씨 역시 몹시 놀라며 감탄하여 눈물이 샘솟듯 하니, 모든 시비 이 거동을 보고 슬퍼 아니 하는 이 없더라.

- 작자 미상, 『윤지경전』

*귀를 흥언: 교묘한 속임수와 흥한 말.

*혈소창: 예전에, 높은 벼슬아치의 집에 찾아온 손님이 잠깐 드러서 쉬거나 기다릴 수 있게 마련한 방.

*성복: 초상이 나서 처음으로 상복을 입음.

*당명황의 봉래산 꿈: 당 현종이 죽은 양귀비를 보고 싶어 했다는 고사에서 유래됨.

*초양왕의 무산 구름: 초양왕과 선녀가 사랑에 빠져 선녀가 아침에는 무산의 구름으로, 저녁에는 비로 찾아오겠다고 했다는 고사에서 유래됨.



▶ 8048-0055

소재의 기능을 파악하는 유형

01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주인공의 고뇌를 유발하는 소재이고, ㉡는 주인공이 고뇌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제공 하는 소재이다.
- ② ㉠은 주인공이 과거를 떠올리는 회상의 매개체이고, ㉡는 주인공에게 현재의 상황을 환기 하는 매개체이다.
- ③ ㉠은 주인공의 능력을 시험해 보고자 하는 이유가 되고, ㉡는 주인공의 초월적 능력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된다.
- ④ ㉠과 ㉡는 모두 앞으로 주인공에게 닥칠 위기 상황을 예견하고 있다.
- ⑤ ㉠과 ㉡는 모두 주인공과 다른 인물 간의 갈등을 심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8048-0056

감상의 적절성을 묻는 유형

0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윤지경전」은 ‘애정 성취의 장애와 극복’이라는 고전 소설의 보편성과 ‘남성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는 애정 서사’라는 독창성을 동시에 드러내는 작품이다. 「윤지경전」에서 드러나는 애정 성취의 시련은 전적으로 남자 주인공에게 부여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남성애 종속된 여성의 희생 및 인고와는 그 양상을 달리하는 것으로,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주종 관계가 아닌 인간 대 인간의 문제로 이해하려는 경향과 함께 인륜과 신의를 강조한 애정 관계를 보여 준다.

- ① 최 씨가 죽었다고 지경을 속이는 최 공은, 지경과 최 씨의 애정 성취를 방해하는 인물로 볼 수 있군.
- ② 지경이 최 씨를 만나 감격해하는 장면은, 애정 성취의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지경이 느끼는 재회의 기쁨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 ③ 삼년상이 지나도 여전히 최 씨를 잃은 설움에 겨워 슬퍼하는 지경의 모습에서, 인륜과 신의를 강조한 애정 관계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군.
- ④ 최 씨의 부음을 듣고 최 씨의 집에 들어가려 노력해 보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지경의 모습에서, 남자 주인공에게 부여된 애정 성취의 시련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지경이 최 씨의 묘를 자신의 선산에 마련하려 하자 최 공이 이를 수락한 것은, 최 공이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인간 대 인간의 문제로 인식하여 지경의 진심을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군.

▶ 8048-0057

인물의 심리와 의도를 파악하는 유형

03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임금은 지경과 최 씨가 만나는 것을 막기 위해 최 공을 질책하고 있다.
- ② ㉡: 윤 공은 지경이 최 씨를 만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 ③ ㉢: 최 공은 지경에게 다시는 찾아오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 ④ ㉣: 옹주와 박 씨가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임금은 최 씨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 ⑤ ㉤: 박 씨는 옹주를 박대하는 지경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으며, 지경은 박 씨와 옹주의 계략으로 최 씨가 죽었다고 생각하여 박 씨를 원망하고 있다.



유형 연습 4 Zoom In

Q 작자 미상, 「윤지경전」

예제 이 작품은 윤지경이라는 남자 주인공이 권력에 맞서 자신의 사랑을 지켜 내는 모습을 그린 애정 소설로, 역사적 사실과 허구를 적절히 조화시키고 있다. 또한 윤지경이 자신을 부마로 간택한 왕의 부당함에 저항하면서 자신의 사랑을 끝까지 지켜 내고, 당시 권세를 부리던 세력과 갈등하며 맞서는 모습을 통해 당시의 제도와 권력에 대한 저항과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부당한 권력에 흔들리지 않고 지켜 낸 사랑

전체 줄거리 재상 윤현의 아들 지경은 참판 최홍일의 딸 연화와 혼약한 사이이다. 그러던 중 지경은 임금의 부름을 받고 궁에 가 자신이 귀인 박씨의 딸인 연성 옹주의 남편으로 간택된 사실을 알게 된다. 지경이 이미 혼약한 몸임을 이유로 부당함을 강변하나 왕명을 거역할 수 없어 옹주와 혼인을 한다. 그러나 지경은 옹주를 멀리하고 밤마다 몰래 담을 넘어 연화와 만난다. 최 참판과 윤 공은 윤지경과 연화를 갈라놓기 위해 거짓 장례도 치르나 결국 둘은 또 만나게 된다. 이에 왕은 옹주를 박대한 죄를 물어 두 사람을 유배 보낸다. 이후 간신들에 의한 반란이 일어나게 되어 귀인 박씨는 처형되고, 옹주는 유배를 당한다. 그러나 윤지경의 간청에 의해 옹주는 풀려나고 윤지경은 옹주, 연화와 함께 화목한 가정을 이룬다.

짧은골 발문 Tip

- ㉠의 서사적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소재의 기능을 파악하는 유형

01 ㉡와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는 주인공의 고뇌를 유발하는 소재이고, ㉢는 주인공이 고뇌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제공하는 소재이다.
- ② ㉡는 주인공이 과거를 떠올리는 회상의 매개체이고, ㉢는 주인공에게 현재의 상황을 환기하는 매개체이다.
- ③ ㉡는 주인공의 능력을 시험해 보고자 하는 이유가 되고, ㉢는 주인공의 초월적 능력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된다.
- ④ ㉡와 ㉢는 모두 앞으로 주인공에게 닥칠 위기 상황을 예견하고 있다.
- ⑤ ㉡와 ㉢는 모두 주인공과 다른 인물 간의 갈등을 심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유형 이해

소설에 등장하는 특정한 소재가 작품 전체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묻는 문제이다. 이러한 유형의 문제에서는 작품 전체의 맥락 속에서 특정한 소재가 갖는 서사적 기능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유형 공략

- ① 문두에서 특정한 소재나 장면이 어떤 것인지 확인한다.
- ② 전체 맥락을 바탕으로 사건 전개에서 특정한 소재가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파악한다.

정답 풀이

① ㉡의 ‘병’은 최 씨의 병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로 인해 지경은 최 씨와 만나지 못하게 되고 최 씨가 죽음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게 되어 괴로워하므로 ㉡는 주인공의 고뇌를 유발한다고 볼 수 있다. ㉢의 ‘색부채와 필묵’은 지경이 선중에게 이를 가져다줌으로써 최 씨가 살아 있음을 알게 되므로, 이는 주인공이 고뇌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제공하는 소재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 ② 시간의 흐름이 순행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는 주인공이 과거를 떠올리는 회상의 매개체로 볼 수 없고, ㉢ 역시 주인공에게 현재의 상황을 환기하는 매개체로 볼 수 없다.
- ③ 중심인물의 애정 관계를 중심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어 주인공의 능력을 시험해 보거나 초월적 능력을 보여 주는 장면은 드러나 있지 않다.



- ④ ㉠와 ㉡는 모두 앞으로 주인공에게 닥칠 위기 상황을 예견하는 복선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않다.
- ⑤ ㉠는 지경과 최 공의 갈등을 심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는 지경과 다른 인물의 갈등을 심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짧은골 발문 Tip

- <보기>를 바탕으로 뒷글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를 참고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를 바탕으로 뒷글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감상의 적절성을 묻는 유형

02 <보기>를 참고하여 뒷글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윤지경전」은 ‘애정 성취의 장애와 극복’이라는 고전 소설의 보편성과 ‘남성의 회생을 바탕으로 하는 애정 서사’라는 독창성을 동시에 드러내는 작품이다. 「윤지경전」에서 드러나는 애정 성취의 시련은 전적으로 남자 주인공에게 부여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남성애 종속된 여성의 회생 및 인고와는 그 양상을 달리하는 것으로,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주종 관계가 아닌 인간 대 인간의 문제로 이해하려는 경향과 함께 인물과 신의를 강조한 애정 관계를 보여 준다.

- ① 최 씨가 죽었다고 지경을 속이는 최 공은, 지경과 최 씨의 애정 성취를 방해하는 인물로 볼 수 있군.
- ② 지경이 최 씨를 만나 감격해하는 장면은, 애정 성취의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지경이 느끼는 재회의 기쁨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 ③ 삼년상이 지나도 여전히 최 씨를 잃은 설움에 겨워 슬퍼하는 지경의 모습에서, 인물과 신의를 강조한 애정 관계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군.
- ④ 최 씨의 부음을 듣고 최 씨의 집에 들어가려 노력해 보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지경의 모습에서, 남자 주인공에게 부여된 애정 성취의 시련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지경이 최 씨의 묘를 자신의 선산에 마련하려 하자 최 공이 이를 수락한 것은, 최 공이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인간 대 인간의 문제로 인식하여 지경의 진심을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군.

유형 이해

<보기>로 제시된 자료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이러한 유형의 문제는 <보기>의 핵심 내용을 파악한 후 그 내용을 작품 이해의 준거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문제의 경우 「윤지경전」이 지닌 보편성과 독창성에 관한 내용을 <보기>로 구성하여 작품의 이해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유형 공략

- ① <보기>에서 제시한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 ② <보기>에서 제시한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지문을 해석하고 감상한다.
- ③ ‘<보기>-지문-선지’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선지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한다.

정답 풀이

⑤ 지경이 최 씨의 묘를 자신의 선산에 마련하려 했지만 최 공은 이를 거절했으며 지경과 최 씨의 만남을 계속해서 방해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지경이 최 씨의 묘를 자신의 선산에 마련하려 하자 최 공이 이를 수락한 것은, 최 공이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인간 대 인간의 문제로 인식하여 지경의 진심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최 공은 지경이 최 씨와 만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 씨가 죽었다고 지경을 속이고 있으므로, 지경과 최 씨의 애정 성취를 방해하는 인물로 볼 수 있다.



② 지경이 최 씨를 만나 ‘이 어인 일고, 당명황의 봉래산 꿈인가, 초양왕의 무산 구름인가.’라고 하며 감격해하는 장면은, 애정 성취의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지경이 느끼는 재회의 기쁨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③ 지경은 최 씨의 삼년상이 지나도 ‘심회 비감함을 정치 못하여 눈물이 한삼을 적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삼년상이 지나도 여전히 최 씨를 잃은 설움에 겨워 슬퍼하는 지경의 모습은 인륜과 신의를 강조한 애정 관계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④ 지경은 최 씨의 부음을 듣고 통곡하며 최 씨의 집에 들어가려 하지만 거절당하여 병을 얻기도 한다. 따라서 최 씨의 부음을 듣고 최 씨의 집에 들어가려 노력해 보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지경의 모습은 남자 주인공에게 부여된 애정 성취의 시련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답은꼐 발문 Tip

-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A]와 [B]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물의 심리와 의도를 파악하는 유형

03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임금은 지경과 최 씨가 만나는 것을 막기 위해 최 공을 질책하고 있다.
- ② ㉡: 윤 공은 지경이 최 씨를 만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 ③ ㉢: 최 공은 지경에게 다시는 찾아오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 ④ ㉣: 용주와 박 씨가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임금은 최 씨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 ⑤ ㉤: 박 씨는 용주를 박대하는 지경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으며, 지경은 박 씨와 용주의 계략으로 최 씨가 죽었다고 생각하여 박 씨를 원망하고 있다.

유형 이해

고전 소설의 사건 전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들의 행동이나 발화에 담긴 의미를 바탕으로 작품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했는지 묻는 문제이다. 인물들의 행동이나 발화에 담긴 심리와 의도를 파악하며 작품을 감상한다.

유형 공략

- ① 선지에 제시된 인물의 심리와 의도를 확인한다.
- ② 전체 맥락을 바탕으로 인물의 행동이나 발화에 담긴 성격, 심리, 태도 등을 파악한다.

정답 풀이

⑤ 박 씨는 이전부터 용주를 박대하는 지경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지경은 최 씨가 병으로 죽은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지경이 박 씨와 용주의 계략으로 최 씨가 죽었다고 생각하여 박 씨를 원망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임금은 ‘방자히 지경을 맡겨 둬이 외람하니, 이후 다시 이러한즉 사죄를 당하리라.’라고 하며 지경과 최 씨가 만나는 것을 막기 위해 최 공을 질책하고 있다.
- ② 윤 공은 지경을 용주 궁에 보내어 여러 날을 지키고 있으므로 지경이 최 씨를 만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③ 최 공은 지경에게 최 씨의 생사는 지경이 알 바가 아니라고 말하며, 다시는 찾아오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 ④ 용주와 박 씨는 최 씨의 죽음을 기꺼워하고 있지만 임금은 최 공을 불러 전일 엄책했음을 누우치고 있으므로, 용주와 박 씨가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임금은 최 씨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유형 연습 5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도념: (홀연히) 스님, 전 세상에 가서 살구 싶어요.

주지: 닥디려. 무얼 잘했다구 또 그런 소릴 하구 있니?

도념: 절더러 거짓말한다구만 마시구, 저한테 어머니 계신 테를 가르쳐 주십쇼.

주지: 네 어미란 대죄를 지은 자야. 너에게 에미라기보다 대천지원수라는 게 마땅하겠다. 파계를 한 네 에미 죄의 피가 그 피를 받은 네 심줄에 가득 차 있으니까, 너는 남이 한 번 헤일 염주면 두 번을 헤어야 한다.

도념: 왜 밤낮 어머니 욕만 하십니까? 아름다운 관세음보살님은 그 얼굴처럼 마음두 인자하시다구 하시지 않으셨어요? 절에 오는 사람마다 모두들 우리 엄마는 이뻐왔 것이라구 허는 걸 보면 스님 말씀 같은 그런 무서운 죄를 지으셨을 리가 없어요.

주지: 그건 부처님에게만 여쭙는 소리야. 너 유식론(唯識論)*에 쓰인 경문 알지?

도념: 네.

주지: 외면사보살(外面似菩薩) 내면야차(內面如夜叉)라 하셨느니라. 네 어미는 바로 이 경문과 같이, 얼굴은 보살님같이 아름답지만, 마음은 야차같이 무서운 독물이야.

도념: 스님, 그렇게 악마 같을 리가 없습니다.

주지: 네 아버지의 죄가 네 어미에게도 옮겨서 그러니라.

도념: 옮다니요?

주지: 네 아버지는 사냥꾼이거든. 하루에두 산 짐승을 수십 마리씩 잡아, 부처님의 가슴을 서늘하시게 한 대약무도한 자야. 빨리 법당으루 들어가자. 냉수에 목욕하구, 내가 부처님께 네가 저지른 죄를 모다 깨끗이 씻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마.

도념: 싫어요. 싫어요. 하루 종일 향불 냄새를 쐬면 골치가 어쩔어쩔해요.

주지: 이게 무슨 죄받을 소리니? (조용히 달려며) 도념아, 너, 저 연못을 봐라. 오월이 되면 꽃이 피고, 잎사귀에 구슬 같은 이슬이 구르구 있지 않니? 저렇게 잔잔한 연못두 한 겹 물만 퍼내구 보면 시꺼먼 개흙투성이야. 그것뿐인 줄 아니? 십 년 묵은 이무기가 용이 돼서 하늘루 올라갈랴구 햇바닥을 널름거리며 비 오기만 기다리구 있단다. 동네두 꼭 저 연못과 마찬가지로. 겉으루 보면 모두 즐겁구 평화한 듯하지만 속에는 모든 죄악과 진애(塵埃)*가 들끓는 그야말루 경문에 아로새겨 있는 글자 그 대루 오탁(五濁)*의 사바(娑婆)*니라.

도념: 아니에요. 모두들 그렇지 않대요. 연못 속에는 연근이라는 뿌럭지가 있지 이무기는 없대요.

주지: 누가 그러던? 누가 그래?

도념: 동네 사람들 올라올 적마다 물어봤어요.

주지: 그럼 동네 녀석들 하는 소리는 정말이구 내 말은 거짓말이란 말이지? 경전이, 부처님 말씀이 모두 거짓말이란 말이지? 오! 이런 불가사리 같은 녀석 봤나? (하고 펄펄 뛰다.)

도념: 스님, 바른대루 말이지, 저는 이 절에 있기가 싫습니다.

주지: 듣자 듣자 하니까 나중엔 못 하는 소리가 없구나? 오 그 눈으로 날 보지 마라. 살생을 하더니, 전신에 살이 뻗친 모양이다.

<중략>

주위는 차츰차츰 어두워진다.

이윽고 ㉔ 범종 소리 들려온다. 멀리 산울림.



초부, 나무를 안고 나와 지계에 앉고, 담배를 한 대 피운다. 훔날리는 초설(初雪)을 머리에 받은 채 슬픈 듯한 표정으로 종소리를 듣는다.

사이.

이윽고 종소리 그친다.

도념, 고깔을 쓰고 바람*을 걸머지고, 깡매기*를 들고 나온다.

초부: (지계를 지고 일어서며) 지금 그 종 네가 쳤니?

도념: 그럼은요. 언제 내가 안 치구 다른 이가 쳤나요?

초부: 밤낮 나무해 가지구 비탈 내려가면서 듣는 소리지만 오늘은 왜 그런지 유난히 슬프구나. (일어서다가 도념의 옷차림을 발견하고) 아니, 너 갑자기 바람은 왜 걸머지구 나오니?

도념: 이번 가면 다시 안 올지 몰라요.

초부: 왜? 스님이 동냥 나가라구 하시든?

도념: 아아니요. 몰래 나가려구 해요.

초부: 이렇게 눈이 오는데 잘 데두 없을 텐데, 어딜 간다구 이러니? 응, 갈 곳이나 있니?

도념: 조선 팔도 다 돌아다닐걸요 뭐.

초부: 아 애, 그런 생각 말구, 어서 가서 스님 말씀 잘 듣구 있거라.

도념: 벌써 언제부터 나가려구 별렸는데요? 그렇지만 스님을 속이구 몰래 도망가기가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아서 못 갔어요.

초부: 어머니 아버질 찾거나 했으면 좋겠지만 찾지두 못하면 다시 돌아올 수도 없구, 거지밖에 될 게 없을 텐데 잘 생각해서 해라.

도념: 꼭 찾을 거예요. 내가 동냥 달라구 하니까 방문 열구 웬 부인이 쌀을 퍼 주며 나를 한참 바라보구 있더니 별안간 “도념아, 내 아들이, 이게 웬일이냐.” 하고 맨발바닥으로 뛰어 내려오던 꿈을 여러 번 꾸었어요.

초부: 가려거든 빨리 가자. 퍽퍽 쏟아지기 전에. 이 길루 갈 테니?

도념: 비탈길루 가겠어요.

초부: 그럼 잘- 가라. 난 이 길루 가겠다.

도념: 네, 안녕히 가세요.

초부, 나무를 지고 내려간다.

도념, 두어 걸음 나갈 때 범당에서의 주지의 ⑥독경 소리. 발을 멈추고, 생각난 듯이 바람에서 표주박을 꺼내 짚을 한 움큼 담아서 산문 앞에 놓는다.

도념: (무릎을 꿇고) 스님, 이 ①젓은 다람쥐가 겨울에 먹으려구 등걸 구멍에다 파 둔 것을 제가 아침이면 몰래 꺼내 뒀었어요. 어머니 오시면 드리려구요. 동지선달 긴긴 밤 잠이 안 오시어 심심하실 때 깨무십시오. (산문에 짚을 한 후) 스님, 안녕히 계십시오.

멀리 동리를 내려다보고 길-게 한숨을 쉰다.

정숙.

원내에서는 목탁과 주지의 ②염불 소리만 청정히 들릴 뿐.

눈은 점점 퍽퍽 내리기 시작한다.



도념, 산문을 돌아다보며 비탈길을 내려간다.

- 함세덕, 「동승」

- *유식론: 법상종의 주요 경전으로, 인식의 과정을 명확히 하고 실천 수행의 다섯 계위를 밝힌 것임.
- *아차: 불가에서 사천왕에 딸린 여덟 귀신 중 하나로, 사람을 괴롭히거나 해친다는 사나운 귀신을 이르는 말.
- *진애: 티끌과 먼지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세상의 속된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도 쓰임.
- *오탁: 불가에서 세상의 다섯 가지 더러움을 이르는 말.
- *사바: 불가에서 괴로움이 많은 인간 세계를 이르는 말.
- *비랑: 승려가 등에 지고 다니는 자루 모양의 큰 주머니.
- *깡매기: '팽과리'의 전라도 방언.

▶ 8048-0058

▶ 작품 배경의 의미와 역할을 파악하는 유형

0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초부에게 애상적 정서를 느끼게 한다.
- ② ㉡는 도념으로 하여금 주지 스님을 생각나게 한다.
- ③ ㉢는 퍽퍽 내리기 시작하는 눈과 함께 도념이 절을 떠나려고 하는 장면을 구체화한다.
- ④ ㉠과 ㉢는 모두 속세와 떨어져 있는 절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드러낸다.
- ⑤ ㉠~㉣는 모두 주지의 불교적 깨달음을 소리로 표현한 것이다.

▶ 8048-0059

▶ 감상의 적절성을 묻는 유형

0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동승」은 어머니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과 불교적 교리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불가(佛家)의 삶 사이에서 겪는 주인공의 갈등을 잘 보여 주는 작품이다. 또한 성장의 주체인 주인공이 어머니를 찾기 위해 길을 떠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탐색하게 되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동승」은 성장의 주체가 등장하면서 길 떠남의 모티프를 보여 주는 작품으로, 주인공인 '도념'은 불가의 삶 속에서 살아야 하는 숙명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된다.

- ① 도념이 어머니를 만나는 꿈을 여러 번 꾸는 것으로 보아, 어머니에 대한 도념의 그리움이 길을 떠나 자신의 정체성을 탐색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군.
- ② 도념이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절을 떠나는 것으로 보아, 도념이 불가의 삶 속에서 살아야 하는 숙명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군.
- ③ 주지 스님이 도념에게 부모의 죄를 언급하며 절에서 죄를 씻어 내야 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주지 스님은 불교적 교리를 들어 도념이 길을 떠나는 것을 반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④ 도념이 주지 스님에게 어머니는 무서운 죄를 지었을 리가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어머니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아, 도념은 불가의 삶을 버리고 어머니를 찾아 나서게 될 것임을 알 수 있군.
- ⑤ 도념이 동네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고 절 밖의 동네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공간이라는 주지 스님의 말에 동의하면서도 절에 있기 싫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도념은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을 알 수 있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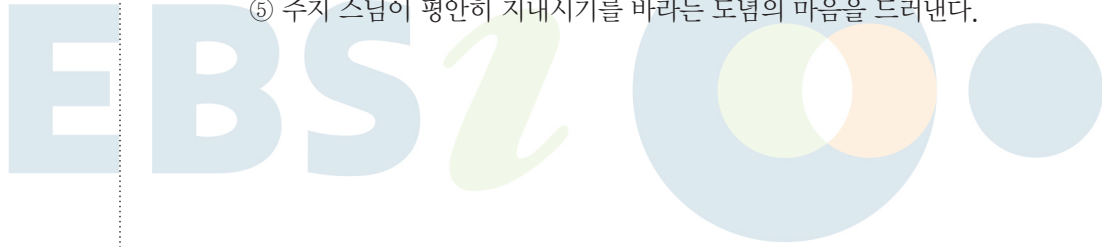


▶ 8048-0060

 소재의 기능을 파악하는 유형

03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도념의 앞으로의 삶이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한다.
- ② 주지 스님은 도념이 절을 떠날 것을 예견했음을 드러낸다.
- ③ 주지 스님과 도념의 만남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나타낸다.
- ④ 어머니가 도념을 만나기 위해 절에 온 적이 있음을 보여 준다.
- ⑤ 주지 스님이 평안히 지내시기를 바라는 도념의 마음을 드러낸다.





유형 연습 ⑤ Zoom In

함세덕, 「동승」

예제 이 작품에는 어머니를 향한 도념의 간절한 그리움이 긴밀한 극적 구조 속에 녹아 있다. 이 작품은 도념이 불가(佛家)에 서의 삶을 버리고 어머니를 찾아 속세를 향해 떠나는 장면으로 마무리된다. 이는 경직된 종교의 계율보다는 인간적 따뜻함을 추구하는 작가의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인간다운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주제 불가의 삶 속에서 살아야 하는 숙명과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인간적인 감정 사이의 갈등

전체 줄거리 깊은 산속에 있는 절의 동승인 도념은 어머니가 자신을 데리러 오리라 하는 확신을 갖고 어머니를 기다린다. 죽은 자식을 위해 불공을 드리러 오는 미망인이 도념에게 연민을 느끼고 양자로 삼으려 하지만, 도념이 절에서 죄를 씻으며 지내야 한다고 생각한 주지는 도념의 입양을 반대한다. 그러던 중 도념이 어머니의 목도리를 만들기 위해 불상 뒤에 숨겨 둔 토끼 가죽이 발견되면서 미망인의 양자로 가려던 일은 좌절된다. 도념은 초부의 우려를 뒤로하고 어머니를 찾기 위해 주지 몰래 절을 떠난다.

답은 풀 발문 Tip

- 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㉑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㉔, ㉒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작품 배경의 의미와 역할을 파악하는 유형

01 ㉔~㉒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㉔는 초부에게 애상적 정서를 느끼게 한다.
- ② ㉒는 도념으로 하여금 주지 스님을 생각나게 한다.
- ③ ㉑는 퍽퍽 내리기 시작하는 눈과 함께 도념이 절을 떠나려고 하는 장면을 구체화한다.
- ④ ㉔와 ㉑는 모두 속세와 떨어져 있는 절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드러낸다.
- ⑤ ㉔~㉑는 모두 주지의 불교적 깨달음을 소리로 표현한 것이다.

유형 이해

희곡이나 시나리오에서는 소설과는 달리 극적 기능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다양한 장치가 활용된다. 이러한 유형의 문제는 작품 전체의 맥락 속에서 희곡이나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소리나 시각적 장치 등의 기능이 무엇인지 판단해야 한다. 이 문제는 희곡에 나타난 소리의 기능과 효과를 파악하도록 요구하는 문제로, 제시된 장면의 맥락을 통해 소리의 기능을 이해하며 작품을 감상해야 한다.

유형 공략

- ① 문두에서 제시한 특정한 소재나 소리, 시각적 장치 등이 어떤 것인지 확인한다.
- ② 전체 맥락을 바탕으로 사건 전개에서 특정한 소재나 소리, 시각적 장치 등의 기능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정답 풀이

⑤ ㉒와 ㉑는 각각 주지의 독경 소리와 염불 소리이지만, ㉔는 도념이 친 종소리이다. 따라서 ㉔~㉑는 모두 주지의 불교적 깨달음을 소리로 표현한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㉔는 초부에게 유난히 슬프게 들리는 소리로, 애상적 정서를 느끼게 한다고 볼 수 있다.
- ② ㉒는 도념이 초부와 작별 인사를 하고 두어 걸음 나갈 때 발을 멈추게 하는 소리로, 도념으로 하여금 주지 스님을 생각나게 한다고 볼 수 있다.
- ③ ㉑는 도념이 절을 떠나려고 할 때 원내에서 청정히 들리는 소리로, 퍽퍽 내리기 시작하는 눈과 함께 도념이 절을 떠나려고 하는 장면을 구체화한다고 볼 수 있다.
- ④ ㉔는 멀리 산울림으로 퍼져 나가는 것으로 보아 속세와 떨어져 있는 산속의 고즈넉한 절의 분위기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㉑는 원내에 들리는 청정한 염불 소리로, 절 밖의 동네인 속세와 떨어져 있는 절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짧은골 발문 Tip

- <보기>를 바탕으로 뒷글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를 바탕으로 뒷글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를 참고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02 <보기>를 참고하여 뒷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감상의 적절성을 묻는 유형

보기

「동승」은 어머니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과 불교적 교리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불가(佛家)의 삶 사이에서 겪는 주인공의 갈등을 잘 보여 주는 작품이다. 또한 성장의 주체인 주인공이 어머니를 찾기 위해 길을 떠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탐색하게 되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동승」은 성장의 주체가 등장하면서 길 떠남의 모티프를 보여 주는 작품으로, 주인공인 '도념'은 불가의 삶 속에서 살아야 하는 숙명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된다.

- ① 도념이 어머니를 만나는 꿈을 여러 번 꾸는 것으로 보아, 어머니에 대한 도념의 그리움이 길을 떠나 자신의 정체성을 탐색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군.
- ② 도념이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절을 떠나는 것으로 보아, 도념이 불가의 삶 속에서 살아야 하는 숙명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군.
- ③ 주지 스님이 도념에게 부모의 죄를 언급하며 절에서 죄를 씻어 내야 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주지 스님은 불교적 교리를 들어 도념이 길을 떠나는 것을 반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④ 도념이 주지 스님에게 어머니는 무서운 죄를 지었을 리가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어머니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아, 도념은 불가의 삶을 버리고 어머니를 찾아 나서게 될 것임을 알 수 있군.
- ⑤ 도념이 동네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고 절 밖의 동네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공간이라는 주지 스님의 말에 동의하면서도 절에 있기 싫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도념은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을 알 수 있군.

유형 이해

<보기>로 제시된 자료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이러한 유형의 문제는 <보기>의 핵심 내용을 파악한 후 그 내용을 작품 이해의 준거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문제의 경우 「동승」이라는 작품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을 자료로 제시하여 작품의 이해에 도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보기>의 핵심 내용을 파악한 후 작품의 내용을 이해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유형 공략

- ① <보기>에서 제시한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 ② <보기>에서 제시한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지문을 해석하고 감상한다.
- ③ '보기-지문-선지'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선지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한다.

정답 풀이

⑤ 도념은 동네 사람들의 말을 믿고 있으며, 주지 스님의 말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도념이 동네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고 절 밖의 동네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공간이라는 주지 스님의 말에 동의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도념은 어머니를 만나는 꿈을 여러 번 꾸고 있다. 이는 도념이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어머니에 대한 도념의 그리움이 길을 떠나게 이끌었으며, 이렇게 길을 떠나 자신의 정체성을 탐색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② 도념은 주지 스님의 반대와 초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절을 떠나고 있다. 이는 도념이 절을 떠남으로써 불가의 삶 속에서 살아야 하는 숙명으로부터 벗어나 속세로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되었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 ③ 주지 스님은 도념에게 파계를 한 어머니의 죄와 사냥꾼으로 살생을 범했던 아버지의 죄를 언급하면서 도념은 절에서 죄를 씻어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주지 스님이 불교적 교리를 들어 도념이 길을 떠나는 것을 반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 ④ 도념은 주지 스님의 의견에 반대하면서 어머니가 무서운 죄를 지었을 리가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는 도념이 어머니에 대한 깊은 애정을 지니고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도념은 불가의 삶을 버리고 어머니를 찾아 나서게 될 것임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뺨은꼴 발문 Tip

- ㉠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의 서사적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소재의 기능을 파악하는 유형

03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도넘의 앞으로의 삶이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한다.
- ② 주지 스님은 도넘이 절을 떠날 것을 예견했음을 드러낸다.
- ③ 주지 스님과 도넘의 만남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나타낸다.
- ④ 어머니가 도넘을 만나기 위해 절에 온 적이 있음을 보여 준다.
- ⑤ 주지 스님이 평안히 지내시기를 바라는 도넘의 마음을 드러낸다.

유형 이해

희곡에 등장하는 특정 소재가 작품 전체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묻는 문제이다. 이러한 유형의 문제는 작품 전체의 맥락 속에서 특정 소재의 기능과 의미가 무엇인지 판단해야 한다.

유형 공략

- ① 문두에서 제시한 특정한 소재가 어떤 것인지 확인한다.
- ② 전체 맥락을 바탕으로 사건 전개에서 특정한 소재의 서사적 기능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정답 풀이

⑤ ‘жат’은 도넘이 어머니에게 드리기 위해 모아 두었던 것으로, 도넘에게는 소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도넘은 절을 떠나려고 할 때, 발을 멈추고 주지 스님을 위해 ‘жат’을 털어 산문 앞에 놓아 두고 간다. 따라서 ㉠은 주지 스님이 평안히 지내시기를 바라는 도넘의 마음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은 주지 스님에 대한 도넘의 정성이 담긴 것으로, 도넘의 앞으로의 삶이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 ② 주지 스님은 도넘이 절을 떠나는 것을 모르고 있으므로, 도넘이 절을 떠날 것을 예견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③ 주지 스님과 도넘의 만남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 ④ 어머니가 도넘을 만나기 위해 절에 온 적은 없으며, 도넘은 이러한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절을 떠나고 있다.



EBS*i*

이미 너는
최고야 😊

EBS*i*

수능완성
국어영역 국어

EB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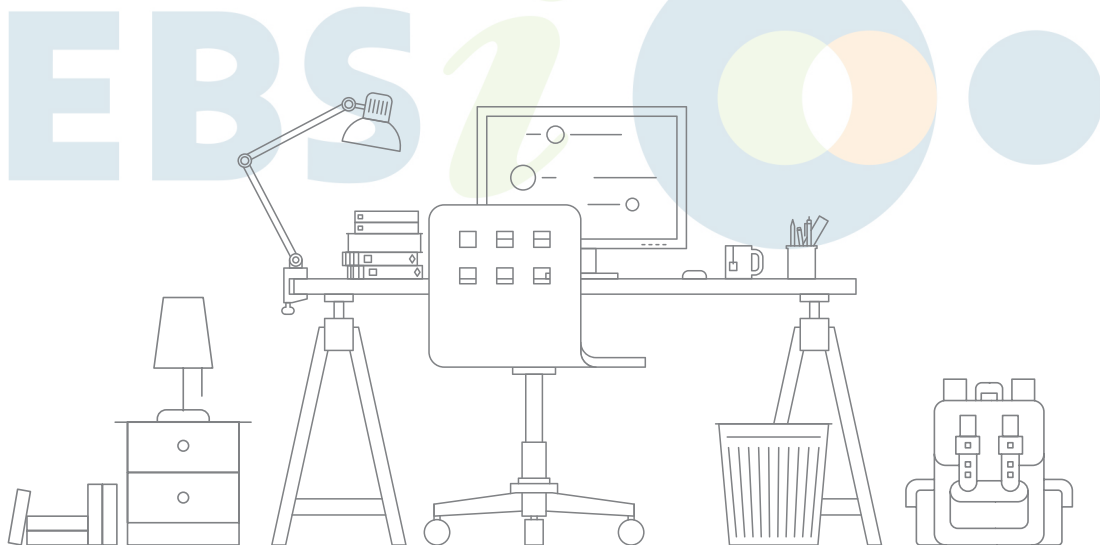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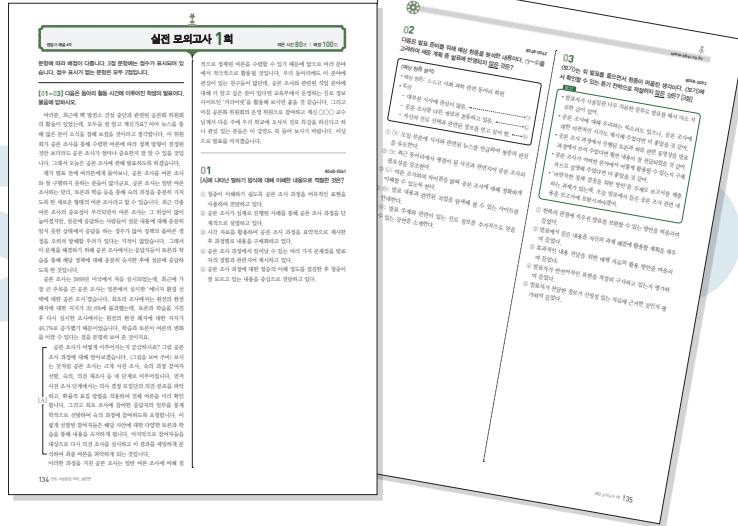


이 책의 구성과 특징 실전편

수능완성 <실전편>은 최근 3개년도에 걸쳐 시행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모의평가 문항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실전과 가장 가까운 문항을 수록하였습니다. 실전처럼 구성된 45개 문항을 정해진 시간에 맞춰 풀어 봄으로써 자신의 실력을 점검하고, 부족한 영역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문제 풀이 후,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여 국어영역의 사고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실전 모의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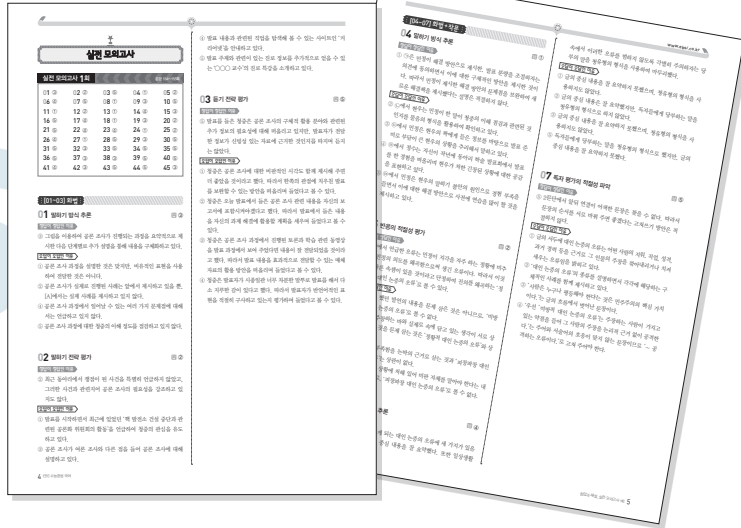
실전 모의고사는 45개 문항씩 총 5회분의 모의고사를 수록한 코너입니다. 실제 수능 국어영역에 응시한다는 생각으로 모의고사를 풀어 보는 과정에서, 실전 감각이 길러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BS *i* O

정답과 해설

정답과 해설에서는 각 선지에서 정답과 오답의 핵심 요소가 되는 부분을 '정답이 정답인 이유'와 '오답이 오답인 이유'를 통해 제시하였습니다. 각각의 선지가 적절/부적절한 이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제 문제 풀이의 사고 과정을 기를 수 있어 실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EBS 스마트북 활용안내

EBS 스마트북은 스마트폰으로 바로 찍어 해설영상을 수강할 수 있고, 교재 문제를 파일(한글, 이미지)로 다운로드하여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 > 모르는 문제, 찍어서 해설강의 수강

[8048-0001]
1. 뒷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스마트폰 문제 촬영
문항코드 입력도 가능
해설강의 수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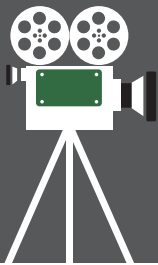
※ EBS 수능강의 앱 설치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기존과 같이 문항코드 입력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교사 > 교재문항을 한글(HWP)문서로 저장

[8048-0001]
1. 뒷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BS 교재문항을 한글(HWP)파일로 다운로드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교사지원센터(<http://teacher.ebsi.co.kr>) 접속 후 '교사인증'을 통해 이용 가능



이 책의 차례
실전편



실전 모의고사 1회	134쪽
실전 모의고사 2회	158쪽
실전 모의고사 3회	182쪽
실전 모의고사 4회	210쪽
실전 모의고사 5회	234쪽





EBS *i*



EBS 수능완성 국어영역 국어

실전편

**실전 모의고사
1회**

EBS *i*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01~03] 다음은 동아리 활동 시간에 이루어진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 최근에 핵 발전소 건설 중단과 관련된 공론화 위원회의 활동이 있었는데, 모두들 잘 알고 계신가요? 아마 뉴스를 통해 많은 분이 소식을 접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위원회가 공론 조사를 통해 수렴한 여론에 따라 정책 방향이 결정된 것만 보더라도 공론 조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론 조사에 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 전에 여러분에게 물어보니, 공론 조사를 여론 조사와 잘 구별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더군요. 공론 조사는 일반 여론 조사와는 달리, 토론과 학습 등을 통해 숙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도록 한 새로운 형태의 여론 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각종 여론 조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여론 조사는 그 위상이 많이 높아졌지만, 설문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설문 내용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응답을 하는 경우가 많아 정책의 올바른 결정을 오히려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론 조사에서는 응답자들이 토론과 학습을 통해 해당 정책에 대해 충분히 숙지한 후에 설문에 응답하도록 한 것입니다.

공론 조사는 1988년 미국에서 처음 실시되었는데, 최근에 가장 큰 주목을 끈 공론 조사는 일본에서 실시한 ‘에너지 환경 선택에 대한 공론 조사’였습니다. 최초의 조사에서는 원전의 완전 폐지에 대한 지지가 32.6%에 불과했는데, 토론과 학습을 거친 후 다시 실시한 조사에서는 원전의 완전 폐지에 대한 지지가 46.7%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학습과 토론이 여론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 준 것이지요.

공론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시죠? 그럼 공론 조사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여 주며) 보시는 것처럼 공론 조사는 크게 사전 조사, 숙의 과정 참여자 선발, 숙의, 의견 재조사 등 네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사전 조사 단계에서는 의사 결정 모집단의 의견 분포를 파악하고, 확률적 표집 방법을 적용하여 전체 여론을 미리 확인합니다. 그리고 최초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일부를 통계학적으로 선발하여 숙의 과정에 참여하도록 요청합니다. 이렇게 선발된 참여자들은 해당 사안에 대한 다양한 토론과 학습을 통해 내용을 숙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다시 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최종 여론을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공론 조사는 일반 여론 조사에 비해 질

적으로 정제된 여론을 수렴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우리 동아리에도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많던데, 공론 조사와 관련된 직업 분야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분이 있다면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진로 정보 사이트인 ‘커리어넷’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 공론화 위원회의 운영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신 ○○○ 교수님께서 다음 주에 우리 학교에 오셔서 진로 특강을 하신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이 강연도 꼭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01

8048-0061

[A]에 나타난 말하기 방식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청중이 이해하기 쉽도록 공론 조사 과정을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전달하고 있다.
- ② 공론 조사가 실제로 진행된 사례를 통해 공론 조사 과정을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③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공론 조사 과정을 요약적으로 제시한 후 과정별로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④ 공론 조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표자의 경험과 관련지어 제시하고 있다.
- ⑤ 공론 조사 과정에 대한 청중의 이해 정도를 점검한 후 청중이 잘 모르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전달하고 있다.

[A]



02

8048-0062

다음은 발표 준비를 위해 예상 청중을 분석한 내용이다. ㉠~㉣을 고려하여 세운 계획 중 발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예상 청중 분석〉

- 예상 청중: △△고 사회 과학 관련 동아리 회원
- 특성
 - 대부분 시사에 관심이 많음. ㉠
 - 공론 조사를 다른 개념과 혼동하고 있음. ㉡
 - 자신의 진로 선택과 관련된 정보를 얻고 싶어 함. ㉢

- ① ㉠: 도입 부분에 시사와 관련된 뉴스를 언급하여 청중의 관심을 유도한다.
- ② ㉠: 최근 동아리에서 쟁점이 된 사건과 관련지어 공론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③ ㉡: 여론 조사와의 차이점을 밝혀 공론 조사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④ ㉢: 발표 내용과 관련된 직업을 탐색해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안내한다.
- ⑤ ㉢: 발표 주제와 관련이 있는 진로 정보를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강연을 소개한다.

03

8048-00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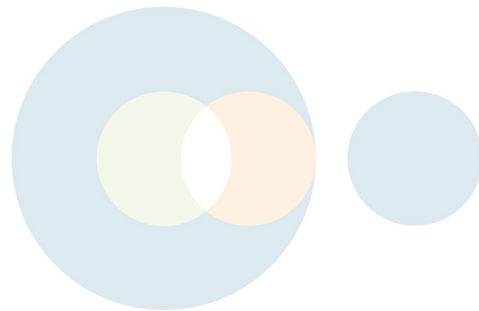
〈보기〉는 위 발표를 들으면서 청중이 떠올린 생각이다.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듣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 발표자가 시종일관 너무 차분한 말투로 발표를 해서 다소 지루한 감이 있어.
- 공론 조사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으니, 공론 조사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제시해 주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아.
- 공론 조사 과정에서 진행된 토론과 학습 관련 동영상을 발표 과정에서 보여 주었다면 훨씬 내용이 잘 전달되었을 것 같아.
- 공론 조사가 어떠한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아.
- ‘바람직한 정책 결정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제가 있는데, 오늘 발표에서 들은 공론 조사 관련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시켜야겠어.

- ① 한쪽의 관점에 치우친 발표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떠올리며 들었다.
- ② 발표에서 들은 내용을 자신의 과제 해결에 활용할 계획을 세우며 들었다.
- ③ 효과적인 내용 전달을 위한 매체 자료의 활용 방안을 떠올리며 들었다.
- ④ 발표자가 반언어적인 표현을 적절히 구사하고 있는지 평가하며 들었다.
- ⑤ 발표자가 전달한 정보가 신빙성 있는 자료에 근거한 것인지 평가하며 들었다.

EBSi





[04~07] (가)는 수행 평가를 앞둔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고, (나)는 이를 참고하여 '현우'가 발표에 앞서 작성해 본 설명문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정수: 다음 주에 우리 조가 발표할 차례인데, 발표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자.

민정: 우리 조에서 발표하기로 한 '논리의 오류'에 관한 자료는 다 찾아 두었어. 그런데 생각보다 논리의 오류는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

현우: 맞아, 논리의 오류는 종류가 너무 많아서 발표 시간에 이걸 다 소개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

민정: 그렇겠네. 그럼 발표 시간도 제한되어 있으니 발표 분량을 조절해 보도록 하자.

정수: ㉠그럼 '대인 논증의 오류'만 소개하는 건 어때? 다른 오류들은 수업 시간에 배웠는데, 이건 배우지 않았으니까 친구들도 흥미로워할 거야.

민정: '대인 논증의 오류'라고 하면 주장 그 자체보다, 그 주장을 하는 사람의 지위, 직업, 성격, 과거 경력 등에 근거하여 그 사람의 주장을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오류를 말하는 것이지?

정수: 잘 알고 있네. 대인 논증의 오류는 크게 비방적 대인 논증의 오류, 정확적 대인 논증의 오류, 그리고 피장파장 대인 논증의 오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니까 이 순서대로 발표하면 좋을 거야.

민정: 얼마 전 학급 회의 시간에 지각한 사람에게 벌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가 교육적이지 않으니 폐지하자는 의견을 내가 냈거든. 그랬더니 친구들은 내가 지각을 자주 하니까 벌금을 내기 싫어서 그러는 것이라면서 나를 몰아붙이더라 [A] 라고. 나는 정말 교육적인 측면만 생각하고 좋은 의도로 한 말인데, 그런 오해를 받으니까 기분이 정말 나쁘더라고. 이것도 대인 논증 오류의 하나로 볼 수 있겠지?

정수: 그래, 맞아. 많이 억울했겠네. 우리 주변의 이런 예들을 잘 활용하면 흥미로운 발표가 될 거야.

민정: 그리고 발표 중간에 친구들에게 가끔씩 질문을 던져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현우: ㉡친구들이 내 발표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라는 것이지?

민정: 그래, 주의 집중 효과도 생기고 말이야.

현우: 모두 좋은 의견인 것 같아. 너희 의견 참고해서 잘 준비해 보도록 할게.

정수: 우리도 많이 도와줄게. 그런데 현우야, 네 표정이 왜 이렇게 어둡니?

민정: ㉢아까 네 짝에게 들으니 네가 요즘 발표 준비 때문에 점심도 잘 안 먹는다고 하던데, 우리 조를 대표해서 발표를 하러니까 부담감이 큰 모양이구나.

현우: 응, 사실은 너무 걱정이 돼. 난 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해 본 경험이 거의 없거든. 혹시 발표를 하다 실수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 때문에 요즘 잠도 오지 않을 지경이야.

정수: ㉣나도 작년에 동아리 학술 발표회에서 발표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많이 떨리더라고. 네 마음 충분히 이해해. 내가 경험이 있으니까 많이 도와줄게. 그리고 우리 반 친구들 앞에서 하는 것이니까 너무 긴장할 필요는 없어.

민정: 그래, 너무 염려하지 마. ㉤네가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해 본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니까 우리를 청중으로 생각하고 사전에 연습을 많이 하면 훨씬 나아질 거야.

(나) 많은 오류의 종류 가운데 대인 논증의 오류가 있다. 대인 논증의 오류는 어떤 사람의 지위, 직업, 성격, 과거 경력 등을 근거로 그 사람의 주장을 깎아내리거나 치켜세우는 오류이다. 사람은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다.

대인 논증의 오류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범하는 오류인데,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비방적 대인 논증의 오류'는 주장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들어 그 사람의 주장을 논리적 근거 없이 공격한다. 예전에 뇌물 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람의 주장이니까 무조건 잘못된 주장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 '정확적 대인 논증의 오류'는 주장을 하는 사람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속셈이 있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몰아붙여 그 사람의 주장을 공격하는 것이다. 금리 인상에 반대하는 사람을 보고 자신이 빚이 많은 상황 때문에 한 주장이라고 몰아세우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피장파장 대인 논증의 오류'는 논쟁자들이 서로 크게 다를 것이 없으므로 반박해서는 안 된다고 하며 비판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다. 가령 쇠고기를 먹는 사람은 개고기를 먹는 사람을 비판할 수 없다는 식의 주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B]



04

8048-006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민정이 제시한 해결 방안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 ② ㉡: 물음의 형식을 활용하여 자신이 이해한 민정의 발언 속에 담긴 의도를 확인하고 있다.
- ③ ㉢: 제삼자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현우의 상황을 추리해서 말하고 있다.
- ④ ㉣: 자신의 유사한 경험을 떠올리며 현우가 처한 상황에 대한 공감을 표현하고 있다.
- ⑤ ㉤: 자신이 분석한 현우의 말하기 불안의 원인과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05

8048-0065

(나)를 읽고, [A]에서 언급한 오류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거에 했던 발언의 내용을 문제 삼아 비판하려는 것이므로, '비방적 대인 논증의 오류'로 볼 수 있겠군.
- ② 정황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속셈이 있을 것이라고 단정하여 진의를 왜곡한 것이므로, '정황적 대인 논증의 오류'로 볼 수 있겠군.
- ③ 겉으로 주장하는 바와 실제로 속에 담고 있는 생각이 서로 상반된다는 것을 문제 삼은 것이므로, '정황적 대인 논증의 오류'로 볼 수 있겠군.
- ④ 자신도 실천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어 현실성이 부족함을 논박의 근거로 삼고 있으므로, '피장파장 대인 논증의 오류'로 볼 수 있겠군.
- ⑤ 발언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모두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비판 자체를 말아야 한다는 것이므로, '피장파장 대인 논증의 오류'로 볼 수 있겠군.

06

8048-0066

'민정'과 '정수'의 의견을 참고할 때, [B]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민정: 중심 내용이 잘 드러나도록 요약하여 글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자.
- 정수: 중심 내용과 관련하여 독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을 청유의 형식으로 덧붙이자.

- 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어떤 사람의 지위, 직업, 성격, 과거 경력 등으로 인해 그 사람의 주장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 ② 이처럼 비방적 대인 논증의 오류, 정황적 대인 논증의 오류, 피장파장 대인 논증의 오류는 대인 논증의 오류에 속하는 것들이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흔히 범하게 되는 오류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 ③ 그러므로 대인 논증의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는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장 자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주장에 담긴 내용과 그 논리적 타당성을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 ④ 이처럼 우리가 흔히 범하게 되는 대인 논증의 오류는 비방적 대인 논증의 오류, 정황적 대인 논증의 오류, 피장파장 대인 논증의 오류로 나눌 수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자.
- ⑤ 이처럼 비방적 대인 논증의 오류와 정황적 대인 논증의 오류는 대인 논증의 오류를 대표하는 오류이다. 이러한 오류들은 타당한 논증을 가로막아 건전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게 하므로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자.

07

8048-0067

(나)를 읽은 독자가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인 논증의 오류'에 대한 개념을 서두에 밝혀서 중심 화제의 의미를 잘 알 수 있게 해 준 점이 좋았어.
- ②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대인 논증의 오류'의 종류를 설명해 주어서 대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
- ③ 글의 흐름에서 벗어난 문장이 1문단에 포함되어 있어서 글의 통일성을 떨어뜨린 점은 아쉬웠어.
- ④ 2문단에 앞뒤 문장의 연결이 어색한 부분이 있으므로, 문장의 순서를 서로 바꿔 주면 좋겠어.
- ⑤ 2문단에서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맞지 않는 문장은 올바른 문장이 되도록 고쳐 주면 좋겠어.





[08~10] (가)는 ‘노키즈존 설치는 타당하다’라는 학생 토론 논제에 대한 찬성 측의 입론서이고, (나)는 반대 측의 입론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노키즈존(No Kids Zone)’이란 5세 미만, 미취학 아동, 유모차 출입 금지 등 조건은 다소 다르지만 어린아이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곳을 말한다. 노키즈존은 주로 커피숍이나 음식점에서 시작하여 고급 가구숍까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렇듯 노키즈존이 확대되는 것은 해당 업주들이 노키즈존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며 더불어 해당 업소를 이용하는 손님들 역시 노키즈존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노키즈존의 설치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아이들이 소란을 피울 경우 다른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부 매장에서는 영업 특성에 따라 노키즈존을 일종의 전략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노키즈존의 설치 는 이용자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둘째, 어린아이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복잡한 식당 등에서는 종종 안전사고가 발생한다. 2011년에는 한 식당에서 어린아이가 뜨거운 물을 든 종업원과 부딪혀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소송으로 번진 해당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부모에게 30%, 식당 주인과 종업원에게 70%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약 4,1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따라서 업주들은 이러한 안전사고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노키즈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셋째, 노키즈존의 설치 는 영업 자유의 한 부분이므로 그 선택 은 존중받아야 한다. 소비자에게 살 자유가 있듯이 업주에게는 팔 자유가 있다. 따라서 노키즈존의 설치를 원하는 업주가 있다면 이를 반대할 근거가 없는 것이다.

노키즈존의 진정한 의미는 ‘무개념 부모 출입 금지’라는 견해도 있다. 이런 견해에 따르면, 노키즈존은 식당에서 활개를 치는 어린이, 이를 본체만체하거나 오히려 조장하는 철없는 부모를 향한 ‘업주들의 역습’이다. 따라서 노키즈존의 설치 는 업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 존중받아야 한다.

(나) 노키즈존은 어린이를 동반하고 입장할 수 없는 공간을 말한다. 노키즈존 설치가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부모와 함께 업소를 찾은 어린이들이 소란을 피우면 사고 발생 위험이 크고 다른 고객들의 불만도 크기 때문에 노키즈존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모든 어린이가 소란을 피우는 것도 아닌 데 음식점에서 제멋대로 행동하는 일부 어린이들 때문에 노키즈존이 요즘처럼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노키즈존 설치 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키즈존은 ‘어린이’라는 특정 집단 전체를 사전 차단

한다는 점에서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 종교 혹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누구든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어린이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둘째, 어린이를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통제하고 배제해야 할 대상으로 여긴다는 점이다. 노키즈존의 등장을 저출산 시대의 산물로 보는 견해가 있다. 한국 사회가 저출산 시대에 돌입하면서 어린이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져 어린이를 ‘남에게 피해를 주는 존재’로 바라보는 경향이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노키즈존의 등장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노키즈존의 입장 제한 연령 기준이 자의적이므로 노키즈존의 제한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점이다. 입장 제한 연령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입학 전, 10세, 12세 등 매장마다 너무나 다르다. 따라서 이와 비슷한 연령대의 어린이들을 가진 부모들은 여러 공간에서 출입을 제한받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가 있는 것을 고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배제해 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극심한 저출산 시대를 맞이하게 된 요즘,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배려의 마음이 필요하다.

08

8048-0068

〈보기〉는 (가)를 쓰기 위해 떠올린 생각이다. (가)에 반영된 생각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보기

- ㄱ. 노키즈존의 정의는 무엇일까?
- ㄴ. 노키즈존이 확대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 ㄷ. 노키즈존을 설치한 후에 발생한 매장의 이익과 고객의 만족도를 구체적 수치를 활용하여 제시하면 어떨까?
- ㄹ. 매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모든 책임은 매장 관계자들에게 있다고 판결한 사례를 찾아 근거로 제시하면 어떨까?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09

8048-0069

(나)에 사용된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헌법의 내용을 근거로 활용하여 (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을 밝힌다.
- ② 노키즈존을 설치해야 한다는 (가)의 주장을 일부 소개하되, 이를 반박하여 주장의 타당성을 높인다.
- ③ 노키즈존 설치에 따른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외국의 사례를 근거로 들어 (가)의 주장을 비판한다.
- ④ 저출산 현상과 노키즈존 설치의 확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밝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한다.
- ⑤ 노키즈존의 입장 제한 연령이 자의적이라 그 제한 범위가 넓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노키즈존 설치의 문제점을 밝힌다.

10

8048-0070

(가)와 (나)를 활용하여 토론을 실시하려고 한다. (가)를 쓴 학생이 자신의 글을 바탕으로, (나)를 반박하기 위해 작성한 메모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노키즈존은 주로 커피숍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밝혀야겠어.
- ② 노키즈존의 출입 제한 조건이 업소별로 상이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을 주장해야겠어.
- ③ 노키즈존 설치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배제해 버리는 경향과는 관련이 없음을 주장해야겠어.
- ④ 노키즈존을 설치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어린아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게 되는 것은 아님을 밝혀야겠어.
- ⑤ 어린아이와 부모들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면 노키즈존의 설치를 원하는 업주들의 자유도 보호받아야 함을 재차 강조해야겠어.

11

8048-0071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의 ㉠~㉤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음운 변동은 일반적으로 교체, 탈락, 첨가, 축약으로 나누어진다. 교체는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이므로 변동 전후에 음운의 수에 차이가 없다. 이에 반해 탈락, 첨가, 축약은 변동 전후에 음운의 수가 다르다. 한 음운이 없어지는 탈락과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합쳐져서 제3의 음운으로 바뀌는 축약의 경우에는 변동으로 음운의 수가 하나 줄어 들고, 음운이 새로 생기는 첨가의 경우에는 변동으로 음운의 수가 하나 늘어난다.

보기 2

- ㉠ 꽃도 → [꼰또]
- ㉡ 물약 → [물략]
- ㉢ 술한 → [수탄]
- ㉣ 읽는 → [잉는]
- ㉤ 색연필 → [생년필]

- ① ㉠: ‘ㄷ’이 ‘ㄸ’으로 바뀌는 교체에 의해서는 음운의 수에 변화가 없지만, ‘ㄷ’이 ‘ㅌ’으로 바뀌는 첨가에 의해서는 음운의 수가 늘었군.
- ② ㉡: ‘ㄴ’의 첨가에 의해서는 음운의 수가 늘었지만, ‘ㄴ’이 ‘ㄹ’로 바뀌는 교체에 의해서는 음운의 수에 변화가 없군.
- ③ ㉢: ‘ㅌ’이 ‘ㄷ’으로 바뀌는 교체에 의해서는 음운의 수에 변화가 없지만, ‘ㄷ’과 ‘ㅎ’이 합쳐져서 ‘ㅌ’으로 바뀌는 축약에 의해서는 음운의 수가 줄었군.
- ④ ㉣: ‘ㄹ’의 탈락에 의해서는 음운의 수가 줄었지만, ‘ㄱ’이 ‘ㅇ’으로 바뀌는 교체에 의해서는 음운의 수에 변화가 없군.
- ⑤ ㉤: ‘ㄴ’의 첨가에 의해서는 음운의 수가 늘었지만, ‘ㄱ’이 ‘ㅇ’으로 바뀌는 교체에 의해서는 음운의 수에 변화가 없군.



12

8048-0072

〈보기〉는 ‘한글 맞춤법’의 일부이다. ㉠와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끼리 묶은 것은?

보기

제47항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ㄱ	ㄴ
불이 꺼져 간다.	불이 꺼져간다.
내 힘으로 막아 낸다.	내 힘으로 막아낸다.
어머니를 도와 드린다.	어머니를 도와드린다.
그릇을 깨뜨려 버렸다.	그릇을 깨뜨려버렸다.
그 일은 할 만하다.	그 일은 할만하다.
일이 될 법하다.	일이 될법하다.
비가 올 성싶다.	비가 올성싶다.
잘 아는 척한다.	잘 아는척한다.

다만,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 용언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어 쓴다.

	㉠	㉡
①	집이 조용도 하다.	줄 끝에 돌을 매달아 놓았다.
②	비가 올 듯은 하다.	이런 일은 다시없을 듯하다.
③	그릇을 닦아만 두었다.	네가 덤벼들어 보아라.
④	이번 일은 알아는 들게.	그들은 값을 물어만 보고 갔다.
⑤	가을밤이 깊어만 간다.	방이 깨끗은 하다.

[13~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의존 명사는 분포상의 다양한 제약을 가진다.

첫째, 의존 명사는 그 앞에 반드시 관형어가 와야 하므로 문장의 첫머리에는 올 수 없다.

둘째, ㉠의존 명사는 그 앞에 오는 관형사형 어미가 제한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내일 갈 터이니 그리 알아라.’에서 ‘터’ 앞에 올 수 있는 동사 ‘가다’의 관형사형은 ‘갈’만 되고 ‘간, 가는’은 가능하지 않다.

셋째, ㉡의존 명사와 관련하여 서술어가 제약을 받는 경우도 흔히 발견된다. 예를 들어 의존 명사 ‘리’는 ‘그럴 리가 없다.’와 같이 서술어 ‘있다, 없다’와 주로 어울린다.

넷째, 의존 명사는 특정 문장 성분에서만 실현되는 제약이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고향을 떠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의 의존 명사 ‘지’는 주로 주어에서만 쓰이는데, 이런 점에 근거하여 이와 같은 의존 명사를 주어성 의존 명사라고 한다. 의존 명사에는 ㉠주어성 의존 명사 외에도 ㉡서술어성 의존 명사, ㉢목적어성 의존 명사, ㉣부사어성 의존 명사, ㉤보편성 의존 명사가 있다. 보편성 의존 명사는 이런 제약이 없는 부류를 가리킨다.

이와 같이 의존 명사는 분포상의 다양한 제약을 가지나, ‘것’과 같이 앞에 오는 관형사형 어미나 뒤에 오는 서술어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

13

8048-0073

㉠과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먹을 대로 먹어라.’
- ㉡: ‘그는 웃고만 있을 뿐이었다.’
- ㉠: ‘그를 만난 지 너무 오래되었다.’
- ㉡: ‘그 애가 이 일을 알 턱이 없지.’
- ㉡: ‘그야 두말할 나위가 있나?’

14

8048-0074

㉠~㉢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그가 그럴 리가 있을까?’와 같이 ‘리’는 문장이나 절의 주어에서만 쓰이니까 주어성 의존 명사이겠군.
- ㉡: ‘그저 당신을 만나러 왔을 따름입니다.’와 같이 ‘따름’은 문장이나 절의 서술어에서만 쓰이니까 서술어성 의존 명사이겠군.
- ㉢: ‘그는 밥도 지을 줄 모른다.’와 같이 ‘줄’은 문장이나 절의 목적어에서만 쓰이니까 목적어성 의존 명사이겠군.
- ㉣: ‘이제 때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와 같이 ‘수’는 문장이나 절의 부사어에서만 쓰이니까 부사어성 의존 명사이겠군.
- ㉤: ‘점무늬 있는 것이 제일 예쁘다.’, ‘이 우산은 언니 것이다.’, ‘말쭙한 것을 왜 버리냐.’ 등과 같이 ‘것’은 여러 문장 성분에서 쓰이니까 보편성 의존 명사이겠군.



15

8048-0075

〈보기 1〉은 우리말을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표기한 것이고, 〈보기 2〉는 ‘표준 발음법’의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보기 1〉과 〈보기 2〉를 연관 지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1

- ㉠ Hong Bitna(← *홍빛나[홍빈나])
- ㉡ haedoji(← 해돋이[해도지])
- ㉢ Samjuk-myeon(← 삼죽면[삼중면])
- ㉣ Nakdonggang(← 낙동강[낙퐁강])
- ㉤ Ulsan(← 울산[蔚山][울싼])

*는 인명을 나타냄.

보기 2

- 제9항 받침 ‘ㄱ, ㅋ, ‘스, ㅍ, ㅌ, ‘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음 [ㄱ, ㄷ, ㅂ]으로 발음한다.
- 제17항 받침 ‘ㄷ, ㅌ(꺾)’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ㅌ, ㅊ]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 제18항 받침 ‘ㄱ(ㄱ, ㅋ, ㆁ, ㄷ, ㄷ(ㄷ, ㅌ, ㅍ, ㅌ, ㅎ), ㅂ(ㅂ, ㅍ, ㅍ, ㅍ))’은 ‘ㄴ, ㄴ’ 앞에서 [ㅇ, ㄴ, ㄴ]으로 발음한다.
- 제23항 받침 ‘ㄱ(ㄱ, ㅋ, ㆁ, ㄷ, ㄷ(ㄷ, ㅌ, ㅍ, ㅌ, ㅎ), ㅂ(ㅂ, ㅍ, ㅍ, ㅍ))’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제26항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① ㉠을 통해 ‘표준 발음법’ 제9항의 음운 변동은 ‘로마자 표기법’에 반영되는 것을 알 수 있어.
- ② ㉡을 통해 ‘표준 발음법’ 제17항의 음운 변동은 ‘로마자 표기법’에 반영되는 것을 알 수 있어.
- ③ ㉢을 통해 ‘표준 발음법’ 제18항의 음운 변동은 ‘로마자 표기법’에 반영되는 것을 알 수 있어.
- ④ ㉣을 통해 ‘표준 발음법’ 제23항의 음운 변동은 ‘로마자 표기법’에 반영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어.
- ⑤ ㉤을 통해 ‘표준 발음법’ 제26항의 음운 변동은 ‘로마자 표기법’에 반영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어.

[16~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약용은 기존의 성리학이나 천주교와는 달리 고유한 방식으로 인간을 설명하려고 했다. 이를 위해 그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제시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을 현실의 구체적인 대상을 즐기고 좋아하는 성향, 즉 기호(嗜好)로 이해했다. 이것은 성리학이나 천주교에서 말하는 인간의 본성과는 차이가 있었다.

성리학에서는 인간을 선천적으로 선(善)한 존재로 규정한다. 우주의 보편적인 이치이자 일상의 실천적인 규범인 선이 본성으로 내재한다고 본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인 인(仁)·의(義)·예(禮)·지(智)라는 사덕(四德)과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인간의 본성은 형이상학적인 실체이자 절대적인 선으로, 역사의 변화나 조건에 의해 소멸하지 않는 영원성을 갖는다. 즉 역사적인 생성이나 변화를 초월한 초역사적이고 보편적인 본성이다. 다만 그것이 내재된 개체의 기질에 의해 실현의 제약을 받을 뿐이다. 이러한 성리학의 인성론에 따르면 인간의 본성은 현상적인 의식을 ㉡초월하는 본질로서의 위상을 갖는다.

한편 청년 시기에 정약용에게 사상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었던 마테오 리치는 성리학의 본성론을 비판하면서 천주교의 관점에서 새로운 본성론을 제기했다. 리치에 따르면 인간 본성은 인간을 다른 사물과 구별되도록 하는 근본을 말한다. 이런 관점에서 리치는 인간의 본성이 사물의 이치를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았다. 다시 말해 생명이나 지각과는 달리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이성적인 추론 능력을 인간의 본성으로 본 것이다. 이성적 추론 능력을 본성으로 보유한 인간은 선뿐만 아니라 악까지 행할 수 있다. 물론 리치는 악을 선과 동일한 위상에서가 아니라 ‘선의 부재’로 설정했지만, 인간의 본성을 선과 악 두 가지를 모두 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리치의 인간 본성론은 성리학의 입장과는 다른 것이었다.

한편 정약용은 인간이 선천적으로 인의예지라는 내면적 도덕성을 지니고 있다고 본 성리학의 기본 전제를 비판하면서, 인간이 선을 행할 수도 악을 행할 수도 있는 유동적 성격을 갖는다고 한 리치의 입장에도 반대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간의 본성을 기호로 보았다. 정약용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두 가지 기호가 있다. 그 하나는 ㉢형구(形驅)의 기호, 즉 육체적, 감각적으로 즐기고 좋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영지(靈知)의 기호, 즉 영성적(靈性的), 지성적(知性的)으로 즐기고 좋아하는 것이다. 형구의 기호란 인간의 눈이 좋은 빛깔을 좋아하고 입이 맛있는 요리를 즐기며, 따뜻하게 입고 배부르게 먹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동물도 가지고 있는 성품이다. 영지의 기호란 우리가 선을 즐거워하고 악을 미워하며 덕행을 좋아하고 더러움을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이다. 이것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성품이다.

그렇다면 영지와 형구의 기호를 함께 가지고 있는 인간이 선과 악을 스스로 ㉤결단하여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정약용은 그것을 인간이 하늘로부터 자주지권(自主之權)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하늘이 ㉠부여한 자주지권이란 선을 바라면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바라면 악을 행할 수도 있는 인간이, 그 향방을 선택할 수 있는 권능이다. 따라서 정약용은 선악의 방향성이 이미 고정되어 있다고 보는 성리학의 입장과는 달리, 선악은 그것의 결단을 촉구하는 인간의 자유 의지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그런데 무엇인가를 바라는 욕구는 그 바라는 대상을 자신이 완비하고 있지 못할 때 생기는 것이다. 만일 자신이 바라는 것을 완비하고 있다면 굳이 그 대상을 욕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을 좋아하는 욕구는 본성으로 갖고 있는 것이지만, 성리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선 그 자체가 충족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후천적인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곧 우리의 의식적인 노력과 선택을 통해 본성의 욕구를 실천해야만 그 욕구가 충족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그는 성리학과 달리 선을 일상적 실천 속에서 형성되어 가는 것으로 보았다.

즉 정약용의 인성론은 인간이 순수하게 선한 것을 지향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성리학과 상통하는 반면 이성적 추론 능력을 인간의 본성으로 제시한 마테오 리치의 주장과는 구별된다. 동시에 정약용이 말하는 인성은 형이상학적 실체나 본질의 내재가 아니라는 점에서 리치가 말한 인간 본성과 상통하고 성리학에서 말하는 인성과는 차이가 난다. 한편 정약용이 주장한 인성은 마음의 욕구라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항상 자신의 외부 세계를 향한다. 다시 말해 인간은 자기 내부에서 완전하고 순수한 만족에 이를 수가 없으며, 본성의 욕구는 반드시 타인과의 관계와 실천 행위 속에서 충족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처럼 정약용은 인간의 욕구를 긍정적으로 파악하고 인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인간관과 윤리관을 제시함으로써, 인간의 주체적인 실천을 강조하는 사회 질서의 개혁을 주장할 수 있었다.

16

8048-007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정약용의 사상이 형성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 ② 정약용 사상의 핵심 원리를 통해 다양한 인간 본성론을 종합하고 있다.
- ③ 인간이 선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부딪히게 되는 어려움을 정약용의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다.
- ④ 정약용이 자신만의 인성론을 정립하기 위해 판단의 근거로 내세운 사례들을 나열하고 있다.
- ⑤ 인간의 본성에 대한 정약용의 입장을 다른 관점과 비교하여 정약용의 인성론이 갖는 특징과 의의를 밝히고 있다.

17

8048-0077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성리학에서는 인간의 본성이 역사적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았다.
- ② 마테오 리치는 성리학의 인성론을 계승하여 새로운 인성론을 탄생시켰다.
- ③ 마테오 리치는 악을 선의 부재로 보아 악을 선과 동일한 위상으로 격상시켰다.
- ④ 정약용은 인간에게는 선과 악을 스스로 결단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보았다.
- ⑤ 정약용은 사회 질서의 개혁을 위해서는 인간의 본성적인 욕구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았다.

18

8048-0078

윗글과 <보기>를 참고할 때, '사덕'에 대한 정약용의 입장을 파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사람을 사랑한 뒤에 인(仁)이라고 하지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인이라고 하지 않고, 자신을 선하게 한 뒤에 의(義)라고 하지 자신을 선하게 하기 전에 의라고 하지 않는다. 손님과 주인이 절하고 읍하며 인사한 뒤에야 예(禮)라고 하고, 사물을 분명히 분간한 뒤에 지(智)라고 말할 수 있다. 어찌 인의에 지 네 알맹이가 복숭아씨나 살구씨처럼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것이겠는가?

- 정약용, 『여유당전서』

- ① 사덕을 인간이 실천을 통해 실현해야 할 후천적 덕목으로 보았겠군.
- ② 사덕은 인간의 선한 본성이 직접 발동한 것이므로 순수한 선에 해당한다고 보았겠군.
- ③ 사덕은 인간의 선한 본성이 발현된 것이자 실천을 통해 보완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겠군.
- ④ 사덕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인성 속에 내재된 선을 선택하는 결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겠군.
- ⑤ 사덕은 인간의 본성 속에 심어진 씨앗과 같은 것이므로 실천을 통해 성장시켜야 한다고 보았겠군.



19

8048-0079

㉠과 ㉡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과 달리 ㉡은 인간이 독자적으로 지닌 성향이다.
- ② ㉠을 멀리하고 ㉡을 가까이할 때 인성이 더욱 고양된다.
- ③ ㉠과 ㉡은 모두 자주지권의 작용에 의해 그 방향성이 결정된다.
- ④ ㉠과 ㉡은 모두 인간의 후천적인 노력과 실천에 의해서만 획득될 수 있는 것이다.
- ⑤ ㉠과 ㉡은 모두 우주의 보편적인 이치가 인간의 본성에 내재한다는 입장을 전제한 것이다.

20

8048-0080

윗글을 참고할 때, '성리학자'와 '정약용'이 모두 '예'로 답할 수 있는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간의 욕구는 선을 위해 자제되어야 하는가?
- ② 인간은 순수한 선에 대한 지향을 갖고 있는가?
- ③ 인간의 본성은 의식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것인가?
- ④ 인간의 본성을 이성적인 추론 능력으로 볼 수 있는가?
- ⑤ 인간의 윤리적 행위는 착한 본성이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21

8048-0081

㉠~㉢의 문맥적 의미와 거리가 먼 것은?

- ① ㉠: 선생님이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 ② ㉡: 그 사건은 계급의 한계를 초월한 것이었다.
- ③ ㉢: 형은 공부를 포기하고 사업을 하기로 결단했다.
- ④ ㉠: 의회는 시민들에게 결정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 ⑤ ㉢: 국가 대표 선수들이 이룬 성과는 노력의 결정이다.

[22~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경제 분야에서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각종 금융 자산의 구성을 포트폴리오(portfolio)라고 부른다. 각 자산은 수익성, 위험성, 유동성의 측면에서 나름대로 특성을 갖는다. 투자자가 어떤 포트폴리오를 만들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각 자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얼마만큼씩 투자할 것인지 결정했다는 뜻이 된다. 따라서 복수의 금융 자산들에 대한 분산 투자는 바로 이 포트폴리오 선택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금융 자산의 수익성은 어떤 자산으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의 기대치를 뜻하는 기대 수익률에 의해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K 전자의 주식이 현재 주당 10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다음 분기에 15만 원으로 오를 확률이 1/3이고, 9만 원으로 떨어질 확률이 2/3라고 하자. 주가가 15만 원으로 오르면 이를 구입하는 사람은 50%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지만, 9만 원으로 떨어지면 10%의 손해를 보게 된다. 이에 기초하여 $(0.5 \times 1/3) + (-0.1 \times 2/3)$ 라는 계산 과정을 통해 구한 수익률의 기대치는 10%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그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다. 그런데 투자자가 실제로 관심을 갖는 것은 기대 수익률에서 세금을 내고 난 후의 수익률인 세후 수익률이다. 다른 조건이 똑같을 때 세후 수익률이 높은 자산일수록 그것에 대한 수요가 더 커지게 마련이다.

어떤 자산과 관련된 위험성은 수익률의 변동과 관련이 있다. 주당 가격이 동일한 주식 A와 B의 기대 수익률이 5%로 똑같지만, 수익률의 변동 폭이 B가 더 크다면 A보다 B가 더 위험한 자산이라고 말할 수 있다.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다른 조건이 똑같다면 좀 더 안전한 자산을 선호하므로, 위험성이 작은 금융 상품일수록 수요가 더 클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어떤 자산은 위험*이 클수록 수익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투자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데 대한 대가의 성격으로 제공되는 추가적 수익률을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부른다.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는 세 번째 요소는 유동성이다. 유동성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자산을 현금으로 쉽고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하는데, 투자자는 필요할 때 쉽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여부가 중요하므로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선호한다.

포트폴리오 선택은 투자자들이 다양한 금융 자산에 투자를 분산시킴으로써 가격 변동에서 오는 위험을 어느 정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투자 다변화만으로 위험을 줄이는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이런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고안된 것이 파생 금융 상품이다. 파생 금융 상품은 자산의 변동에서 오는 자본 손실을 회피하려는 사람들과, 적절한 대가를 받고 위험을 대신 떠맡으면서 이를 통해 자본 이득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위험 그 자체를 거래하기 위해 고안한 것이다.



파생 금융 상품 중 대표적인 것에는 옵션이 있다. 옵션 계약은 미래의 일정한 시점 또는 기간 동안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어떤 기초 자산*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계약을 말한다. 옵션을 산 사람은 기초 자산을 사거나 파는 것이 유리하면 그 권리를 행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옵션 프리미엄* 50만 원을 지불하고 6개월 후 A 회사의 주식을 주당 10만 원에 100주까지 살 수 있는 권리를 얻는 옵션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자. 만약 6개월

[A] 후 이 회사의 주식 가격이 10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 그것을 10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는 아무 의미도 없게 된다. 따라서 그 권리를 포기하게 될 텐데, 이 경우의 손실은 그가 옵션을 구입하기 위해 지불한 금액 50만 원이 된다. 반면에 6개월 후 주식 가격이 10만 원을 넘으면 그 옵션을 구입한 사람은 그 차액만큼 이득을 보게 된다. 옵션을 행사하여 주당 10만 원의 가격에 구입한 후 더 높은 가격에 되팔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애초 옵션을 구입할 때 50만 원을 지불했으므로 실제로는 주식 가격이 10만 5천 원을 넘어야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옵션 중에서 일정한 시점 혹은 기간 동안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어떤 상품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콜옵션(call option)이라고 부른다. 이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을 만기일, 미리 정해진 상품 구입 가격을 권리 행사 가격이라고 한다. 콜옵션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기초 자산의 가격이 크게 상승할수록 더 큰 이득을 얻기 때문에 가격 상승을 예상하는 사

[B] 람들이 이를 구입한다. 콜옵션과 대조적으로 일정한 시점 혹은 기간 동안 미리 정해진 구입 가격으로 어떤 상품을 팔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풋옵션(put option)이라고 한다. 풋옵션을 갖고 있는 사람은 미래에 기초 자산의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할수록 더 큰 이득을 본다. 낮은 가격을 지불하고 시장에서 그 상품을 구입하여 미리 정해진 높은 가격에 되팔 수 있기 때문이다.

* 위험: 여기서의 '위험'은 보상이 주어지는 체계적 위험을 의미함.
 * 기초 자산: 옵션 계약에서 거래 대상이 되는 자산. 주식, 증권, 상품 등을 포괄하는 개념임.
 * 옵션 프리미엄: 옵션 구입을 위해 지불하는 금액.

22

8048-0082

윗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 ① 파생 금융 상품을 거래하는 이유
- ② 기대 수익률과 세후 수익률의 개념
- ③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고려해야 할 요소
- ④ 옵션 계약을 할 때 만기일을 정하는 절차
- ⑤ 기초 자산 가격의 등락 예상과 옵션 구입 여부의 상관관계

23

8048-008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현재 주당 가격이 5만 원으로 똑같은 주식 C와 D가 있다. C의 경우 다음 분기에 ㉠가격이 6만 5천 원으로 올라갈 확률이 1/2이며, 4만 5천 원으로 떨어질 확률이 1/2이다. 한편 D의 경우에는 다음 분기에 7만 5천 원으로 올라갈 확률이 1/2이며, 3만 5천 원으로 떨어질 확률이 1/2이다. 이때 수익률의 변동 폭은 D쪽이 더 크다. 주식 시장에서 C는 거래량이 풍부해서 쉽게 현금화할 수 있지만, D는 거래량이 적어 현금화하기 매우 어렵다.

- ① 유동성은 C보다 D가 더 높을 것이다.
- ② 위험 프리미엄은 D보다 C에서 더 커질 것이다.
- ③ 안전한 자산을 선호하는 투자자가 둘 중 하나에 투자해야 한다면 D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 ④ ㉠의 조건이 '가격이 6만 원으로 올라갈 확률이 1/2이며'로 바뀐다면, 기대 수익률은 C보다 D가 더 높을 것이다.
- ⑤ 기대 수익률만큼 수익을 올렸을 때 C의 세금이 1만 원이고, D의 세금이 8천 원이라면, 세후 수익률은 D보다 C가 더 높을 것이다.

24

8048-0084

<보기>를 고려하여 [A]를 읽은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선생님: 옵션 프리미엄에 해당하는 금액을 타인에게 빌려주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자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세금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 [A]를 살펴봅시다.

- ① 옵션을 구입한 사람의 손실은 주식 가격이 하락할수록 계속 커진다.
- ② 옵션 프리미엄은 이득을 얻기 위해 감수하는 위험으로 볼 수 있다.
- ③ 옵션 계약의 손익 분기점은 주식 가격이 10만 5천 원이 되는 지점일 것이다.
- ④ 6개월 후에 주식 가격이 12만 원이 되면 옵션을 행사하여 얻을 수 있는 최대 순이익은 150만 원이 될 것이다.
- ⑤ 옵션을 구입한 사람은 6개월 후에 주식 가격이 10만 2천 원이 되면 손실을 줄이기 위해 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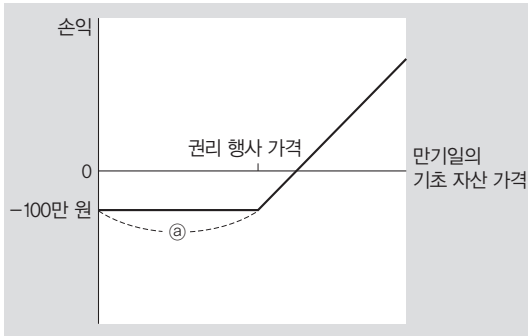
8048-0085

[B]를 바탕으로 <보기>의 그래프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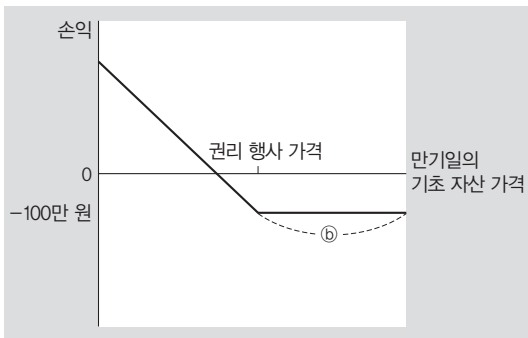
보기

(가)와 (나)는 각각 콜옵션과 풋옵션의 구입과 관련된 양상을 그래프로 제시한 것이다. (가)와 (나)의 옵션 프리미엄은 100만 원이다.

(가)



(나)



- ① (가)에서 옵션을 구입한 사람은 만기일의 기초 자산 가격이 권리 행사 가격에 비해 하락하면 이익을 보겠군.
- ② (나)에서 옵션을 구입한 사람은 만기일의 기초 자산 가격이 권리 행사 가격에 비해 상승하면 옵션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좋겠군.
- ③ (가)는 어떤 기초 자산을 팔 수 있는 권리로, (나)는 어떤 기초 자산을 살 수 있는 권리로 볼 수 있겠군.
- ④ (가)의 a와 (나)의 b는 만기일 이전의 일정 시기까지 주식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함을 나타내는 것이겠군.
- ⑤ (가)와 (나)는 모두 기초 자산 가격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옵션을 구입하는 것이겠군.

[26~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간의 뇌에는 약 1,000억 개의 신경 세포가 있다. 각 신경 세포는 1,000개가 넘는 다른 신경 세포들과 관계를 맺어 100조 개가 넘는 신경 접속을 만들어 낸다. 우리의 감각 경험은 바로 이 어마어마한 신경 회로 안에서 ㉠발생하는 전기적 현상의 결과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한 인간의 신경 회로를 조작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그 연구의 시초는 뇌에 직접 전극을 꽂아 전류를 흘려보내는 실험이었다.

제임스 올즈는 쥐의 쾌락 중추에 전극을 심은 뒤, 쥐가 버튼을 건드리면 전류가 흐르도록 조건화했다. 그러자 쥐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탈진할 때까지 버튼을 건드렸다. 쾌락 중추에 전극이 꽂힌 쥐는 생존 활동을 포기하고 자신에게 쾌락만 부여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기술로는 이와 같이 전극을 꽂아 직접 전류를 흐르게 하는 것으로 인간 뇌의 모든 신경 회로를 조작하기는 쉽지 않다. 인간의 뇌에는 초고밀도의 신경 세포가 ㉢밀집되어 있어 전극을 자칫 잘못 꽂았다가는 엉뚱한 신경 회로가 자극되어 예상치 못한 ㉡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신경 회로 조작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 준 계기는 나겔과 페터 헤게만이 빛을 쬐어 주면 빛을 향해 움직이는 녹조류 클라미도모나스를 찾아낸 것이다. 이들은 이 녹조류가 양의 주광성*을 나타낸다는 것에 주목하여 빛에 대한 감각과 그 빛으로 이동하는 행동 사이를 매개하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빛을 쬐어 주면 클라미도모나스 안에 전류가 흐른다는 것을 단서로, 그들은 단백질인 ‘채널로돕신(ChR)’이 빛을 감지하면 채널로돕신의 통로가 열리게 되고 빛이 감지되는 동안에는 그 통로로 칼슘과 나트륨 같은 양이온이 세포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게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양이온들이 들어오면서 세포 내부와 외부의 전위차가 생겨서 활성화된 세포가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것을 확인했다. 물론 빛이 감지되지 않으면 채널로돕신의 통로는 다시 닫혔다. 채널로돕신을 이용하여 표적 세포만을 정확하게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한 것이다.

이에 나겔과 페터 헤게만은 예쁜꼬마선충을 이용하여 채널로돕신에 대한 연구를 본격화했다. 가는 철사로 예쁜꼬마선충의 머리를 두드리면 촉각 신경들이 켜져 뒤로 도망가는 행동 반응이 관찰된다. 촉각 신경에 달려 있는 감각 센서들이 두드리는 자극을 감지하여 뒤로 도망가는 행동을 하게 하는 신경 회로를 켜기 때문이다. 그들은 예쁜꼬마선충의 촉각 신경 세포에 채널로돕신을 발현시켰다. 그런 다음 빛을 쬐어 주었더니 예쁜꼬마선충이 뒤로 피하는 반응을 보였다. 머리를 두드리는 물리적 자극이 가해지지 않았는데도 예쁜꼬마선충은 마치 누가 자기 머리를 두드렸다는 듯이 행동한 것이다.

나겔과 페터 헤게만은 동일한 실험을 행동 장애를 가진 개체에서도 수행했다. 그들은 예쁜꼬마선충 돌연변이들을 이용



해서 실험을 했는데, 이 개체들은 머리를 아무리 두드려도 뒤로 피하지 않았다. 촉각을 느끼는 센서가 망가져 머리를 두드려도 그 자극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개체들이었기 때 [A] 문이다. 그런데 이 돌연변이 개체들을 대상으로 빛을 이용하여 촉각 신경을 인위적으로 켜더니 촉각을 느끼는 센서가 망가진 돌연변이 개체들도 회피 반응을 나타냈다. 센서가 이미 망가졌지만 머리를 두드리는 물리적 자극을 받았을 때 센서가 일으키는 전기적 현상을, 빛을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일으켜 그 회로가 작동하게 만든 것이다.

나겔과 페터 헤게만의 연구에서처럼 빛으로 표적 신경 세포를 선택적으로 자극하거나 억제하여 감각이나 행동을 조절하는 광유전학 기술은 상당한 의의가 있다. 광유전학 기술이 바로 인간의 신경 정신 질환 치료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주었기 때문이다. 빛을 이용하여 감각과 행동을 조절하고 신경 정신 질환을 치료하는 데에는 물론 중요한 전제가 있다. 우리가 빛을 이용하여 조작하고자 하는 신경 회로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쁜꼬마선충에서 광유전학 기술을 이용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예쁜꼬마선충의 경우 인간과 달리 신경 세포들의 네트워크가 종합적으로 표현된 커넥톰이 거의 완벽하게 밝혀져 있기 때문이다. 인간에게 이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신경 회로를 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우울증을 빛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울증과 관련된 신경 회로를 잘 알고 있어야 이들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다.

*주광성: 생물이 빛의 자극에 대하여 가지는 주성. 밝은 빛을 향하는 경우를 양의 주광성, 그 반대를 음의 주광성이라고 함.

26

8048-0086

윗글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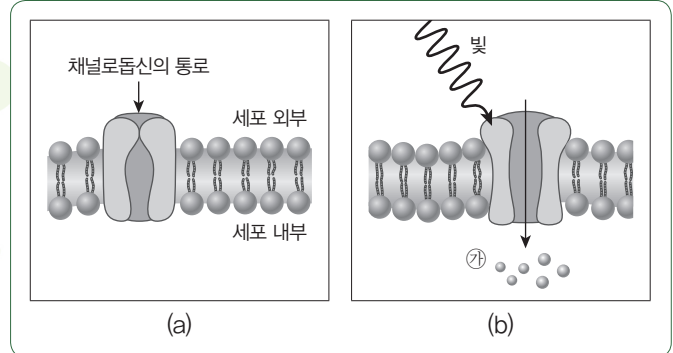
- ① 인간의 뇌에 전극을 꽂고 전류를 흘려 모든 신경 회로를 정확히 조작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사실상 어렵겠군.
- ② 인간의 뇌에서 커넥톰이 모두 밝혀진다면 광유전학 기술을 통해 신경 정신 질환 환자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겠군.
- ③ 인간이 보고 듣고 느끼며 대상을 인지하는 것은 신경 회로 안에서 발생하는 전기적 현상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군.
- ④ 제임스 울즈가 쥐의 쾌락 중추에 전극을 심은 것은 쥐의 생존에 관여하는 신경 회로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였군.
- ⑤ 빛을 이용하여 표적 세포만을 정확히 자극할 수 있는 채널로돕신은 감각이나 행동을 조절하는 실험에 활용되기도 했군.

27

8048-0087

<보기>의 (a)와 (b)는 ‘클라미도모나스’가 ‘빛’에 따라 반응하는 양상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 ① (a)에서 채널로돕신의 통로가 열리지 않은 것은 표적 세포가 채널로돕신을 충분히 자극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 ② (b)에서 세포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게 되는 ㉠은 칼슘과 나트륨 같은 양이온들일 것이다.
- ③ (b)에서 세포에 주는 빛의 자극을 없애 주면 (a)와 같이 채널로돕신의 통로가 닫힐 것이다.
- ④ (a)에서는 (b)에서와 달리 활성화된 세포가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 ⑤ (b)에서는 (a)에서와 달리 양이온들의 유입으로 인한 세포 외부와 내부의 전위차가 생길 것이다.

28

8048-0088

윗글을 통해 볼 때, [A]에서 ‘나겔과 페터 헤게만’이 세웠을 법한 가설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예쁜꼬마선충 돌연변이들의 머리를 두드리는 물리적 자극을 주면, 신경 세포 안에 채널로돕신 통로가 열려 예쁜꼬마선충은 회피 반응을 나타낼 것이다.
- ② 예쁜꼬마선충의 촉각 신경 세포에 빛을 비추 주면, 예쁜꼬마선충의 머리를 두드렸을 때 일어나는 반응과 동일한 반응이 일어나며 채널로돕신이 만들어질 것이다.
- ③ 촉각 신경 세포 내의 채널로돕신을 활용하면, 예쁜꼬마선충의 머리를 가는 철사로 두드렸을 때 촉각 신경 세포의 센서가 켜지는 행동 반응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 ④ 촉각 신경 세포가 망가진 예쁜꼬마선충은 채널로돕신을 발현시켜 주고 빛을 쬐어 주면, 전기적 자극으로 인해 촉각 신경 세포가 새로이 생성되어 정상 상태로 회복될 것이다.
- ⑤ 행동 장애를 가진 예쁜꼬마선충의 촉각 신경 세포에 채널로돕신을 발현시키고 빛을 비추면, 정상적인 예쁜꼬마선충의 머리를 두드리면 일어나는 것과 유사한 반응을 보일 것이다.



29

8048-0089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신경 과학자 미센보크는 뇌를 제거하고도 만 하루 정도 살 수 있는 초파리를 대상으로 채널로돕신과 관련된 실험을 설계했다. 그는 초파리의 뇌를 제거한 뒤 한 그룹의 초파리에는 날개를 움직이는 것과 관련된 신경 세포에 채널로돕신을 발현시키고, 다른 한 그룹의 초파리에는 앞다리를 움직이는 것과 관련된 신경 세포에 채널로돕신을 발현시켰다. 그리고 두 그룹의 초파리에 채널로돕신이 반응하는 파장의 빛을 쬐어 주었더니 미센보크가 예상한 대로 초파리들은 각각 날개나 앞다리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 ① 미센보크는 실험을 통해 빛으로 표적 신경 세포를 선택적으로 자극하여 행동을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겠군.
- ② 미센보크는 실험 전에 채널로돕신이 반응하는 파장의 빛을 쬐으면 특정 신경 세포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가정했었겠군.
- ③ 미센보크가 실험 과정 중에 초파리의 뇌를 제거한 것은 신경 세포에서 채널로돕신의 발현을 촉진하기 위함이었겠군.
- ④ 미센보크의 실험은 초파리의 어느 신경 회로를 쬐면 날개나 앞다리가 움직일 수 있는지 알았기에 가능한 것이었겠군.
- ⑤ 미센보크가 실험에서 빛을 중간에 제거했다면 초파리는 더 이상 날개나 앞다리를 움직이지 않게 되었겠군.

30

8048-0090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어떤 일이나 사물이 생겨남.
- ② ㉡: 빈틈없이 뻘뻘하게 모임.
- ③ ㉢: 자극에 대응하여 어떤 현상이 일어남.
- ④ ㉣: 아직 알려지지 아니한 현상, 사실 따위를 찾아냄.
- ⑤ ㉤: 대신하여 다른 것을 씀.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마삿등’의 판자촌에 살고 있는 황거칠 씨는 마을에 수도가 들어오지 않자 직접 산의 물을 끌어다 마을의 물 걱정을 해결한다.

그러나 해가 바뀐 지 몇 달 안 돼서 우리 황거칠 씨에게는 (물론 ‘마삿등’ 사람들에게도) 뜻하지 않던 불행이 들이닥쳤다. — 별안간 산 수도를 철거해 달라는 사람이 나타난 것이었다. 그것도 ‘마삿등’의 물 사정을 잘 알 만한 사람이었다. 황거칠 씨와도 안면이 있는, 바로 건너편 ‘사부랑골’에 사는 호동팔이란 목수였다.

㉠ “어째서 호 선생께서……?”

황거칠 씨는 식전부터 찾아와서 그런 똥판지같은 소리를 꺼내는 상고머리의 호 목수를 수상쩍게 건너다보았다.

“내가 그 자리의 관리를 하게 됐거든요. 형의 땅이니깐요—.”

“형님의 땅이라니? 그 자리는 적산*인데 그래…….”

“형이 불하를 받았으니 인자 개인 거 안잉기요.”

호동팔은 능글능글 웃는다기보다 숫제 의기양양한 티까지 보이려는 것이었다.

‘웁거니, 이놈들이 필연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한 짓이겠군! 이곳 물 사정을 잘 아는 놈들이렸다……?’

황거칠 씨는 대뜸 짐작이 갔다.

“그래, 불하를 받았다고 해서 남의 식수를 함부로 끊을 수가 있겠소? 수도만은 절대로 못 뜯어내겠소!”

거칠 씨의 언성은 거칠어졌다. 불의라면 비록 권력 앞에서조차 굽히지 않는 성미였다.

“그래요—?”

호 목수는 내치 음침하게 능글거렸다.

“가시오!”

㉡ 황거칠 씨는 버럭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로부터 일어난 해피망측한 사건들을 얘기하려면, 우선 이 호동팔 형제의 위인들부터 알려야만 되겠다. — 호동팔이란 이 오십이 넘는 상고머리의 사나이는 자기들 목수 사이에서도 종종 ㉢ ‘호로새끼’란 욕을 얻어먹었다. 게다가 과거 왜정 때부터 그러했거니와 그의 친형인 동수를 영판 닳아서, 자기보다 쥐꼬리만 큼이라도 권력을 가진 자라든가 혹은 무슨 잇속이 있을 만한 일에는 다람쥐 달라붙고 알랑거리는 성미였다.

<중략>

이런 줄때기 주제에다가 당치도 않은 만용을 낸다든가 거드름을 피우게 되는 것도 오로지 왜정 때 재판소 집달리*를 지낸 그의 형 동수를 믿고서다.

약질 집달리로 이름난 호동수는 그때 야바위 쳐 걷어 들인 재산으로 지금은 모 기관에 기부금도 내서 고문도 되고, 시정 자문





위원인가 뭐가까지 맡아서 만만찮은 사회적 지위도 지닌 위에, 빌딩도 몇 채 가진 알부자지만, 한편 그의 쥐꼬리만 한 법률 지식은 언제나 동생 동팔의 거드름을 뒷받침하고 있다.

“니가 머근데(뒤편)에 그래 큰소리를 탕탕 치노?”

친구들이 이럴 때 동팔이가,

“와? 우리 할배는 청국 사람이고, 우리 아베는 미국 사람, 우리 엄매는 일본 사람이다 와?”

하고 엇나가는 것도 다 그의 형 동수의 말버릇을 그대로 받아서 하는 셈이었다. 해방 후 한때 친일파로 몰렸던 호동수는 한국 사람치고, 친중, 친일, 친미 안 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식으로 늘 이렇게 구두떨거렸던 것이다.

동팔이가 형 동수의 어투를 배운 것은 이것만이 아니었다. 직접 친일파에 관한 얘기나 정치 얘기 같은 게 나오면,

“일본 놈들이 우리 조선 사람을 썰(쓸) 때는, 꼭 그 가문이 어떤가, 양반인가 아닌가 미리 알아보고 썼다 말이다. 무식한 쌍놈들 썰겠나! 그저 노름이나 해 쳐먹다가 징역 조금 살고 나온 것들이 무슨 애국잔 체하는 꼴 보문 참…….”

㉠이런 식으로 꼭 그의 형의 말 그대로를 들이대곤 했다.

그러한 동팔이가 갑자기 찾아와서 ‘마삿등’의 젓줄이라 할 수 있는 황거칠 씨의 산 수도를 뜯어내라는 데는 반드시 그럴 만한 꼬투리가 없지 않을 것이다. 짐작에, 잇속이 빠른 퐁파리란 자가 그 산에서 흘러오는 물을 독점할 생각으로(그럼 자연 산 수도는 제 것이 될 테니까), 그의 형과 싸고서 그러한 껌찍스러운 일을 꾸민 것이 아닐까 싶었다.

황거칠 씨는 그길로 일제 때부터 그 산을 보아 왔다는 박 노인이란 연고자를 찾아갔다.

“그래요?”

박이란 그 순적백성은 황거칠 씨의 말을 듣더니 비로소 미안스러운 표정을 하며,

“호동팔이가 자꾸 찾아와서 돈을 얼마 주며 줄라 쌓길래 도장을 안 찍어 조웃능기요. 머 연고권 서류라카등가요. 내싸 머 그런 거 불하받을 생각도 힘도 없고 해서…….”

황거칠 씨는 ‘아뽕싸!’ 싶었다. 손이 늦었었다. 그러나 손이 안 늦었더라도 그에게는 그런 걸 불하받을 돈이 있을 리 만무했다. 엄두도 못 낼 일이었다.

“죽일 놈들!”

해 보았됐자, 소용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황거칠 씨는 대범한 얼굴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산에서 솟는다고 산 임자의 물은 아닐 테지! 그때까지만 해도, 하늘이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물만은 빼앗기지 않으리라고 속으로 다짐했던 것이다.

그날 밤 실근이란 통장이 알아보고 온 얘기로서는, S산의 일부인 ‘마삿등’ 뒤의 적산 임야 일대가, 얼마 전 동팔의 형 호동수의 명의로 완전 불하 등기가 되어 있더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일주일이 채 못 돼서 법원으로부터 출두 통지서가 나왔다. 호동수가 수도 시설을 철거시켜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물론 황거칠 씨는 이의를 내걸고 반대했다. 그러나 끝다 끝다 결국 힘 부족 세 부족으로 재판에 지고, 집달리가 현장에 나타났다. 강제 철거다. 미리 시끄러울 것을 짐작했던지 경찰관까지 현장에 동원되었었다.

‘마삿등’에서도 그날은 일을 나가지 않은 사내 꼭지들은 거의 다 현장인 **샹터**에 나와 있었다. 아낙네들도 더러 나왔었다. 군중 심리의 탓이랄까, 경찰이 해산을 명령해도 꿈쩍도 하지 않았다. 도리어 일촉즉발의 험악한 공기가 되어 갔다.

황거칠 씨는 내쳐 풀이 죽어 있었다. 정상 작량(情狀酌量)*도 법을 쥔 사람의 자유다. 게다가 집달리란 사람들에게는 애당초 눈물도 인정도 없기 마련이다.

‘마삿등’ 사람들이 애써 만들어 놓은 다섯 개의 수도용 우물이 집달리가 데리고 온 인부들의 팽이에 무참히 헐리고, 대나무로 된 파이프들이 물을 문 채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이리저리 내던져졌다.

— 김정한 「산거죽」

* **적산**: 1945년 8·15 광복 이전까지 한국 내에 있던 일제(日帝)나 일본인 소유의 재산을 광복 후에 이르는 말.

* **집달리**: 법률, 명령, 재판, 처분 따위의 내용을 실행하는 일을 담당하는 관리.

* **정상 작량**: 법률적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이 그 형을 줄이거나 가볍게 하는 것. 정상 참작.

31

8048-0091

뒷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장면마다 서술자를 교체하여 사건의 의미를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 ② 액자 구조를 통해 상이한 이야기에 담긴 유사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사건 내부의 서술자가 자신의 내적 갈등을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④ 동시에 벌어진 사건을 병렬적으로 배치하여 이야기의 흐름을 지연시키고 있다.
- ⑤ 특정 인물의 시각이 반영된 서술을 통해 독자가 그의 심정에 공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32

8048-0092

샘터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산 수도를 빼앗으려는 인물의 태도 변화에 영향을 주는 장소이다.
- ② 산 수도를 지키기 위한 중심인물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장소이다.
- ③ 산 수도를 둘러싼 두 세력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드러나는 장소이다.
- ④ 산 수도와 관련하여 열세에 있던 인물들이 전세를 역전시키는 장소이다.
- ⑤ 산 수도와 관련하여 빚어진 집단 내부의 갈등으로 인해 갈등의 양상이 전환되는 장소이다.

34

8048-0094

<보기>를 바탕으로 밑줄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근대화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법적 권리의 자각은 사람들에게 점차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인정과 양심보다 법이 우선시되는 풍조를 만들고, 법이 수탈의 근거로 작용하여 법적 권리를 미처 자각하지 못한 힘없는 사람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제를 야기했다. 이로 인해 법적인 힘과 지식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의 소외는 근대화 과정에서 심화되었다. 「산거족」은 근대화 과정의 이러한 시대 상황을 잘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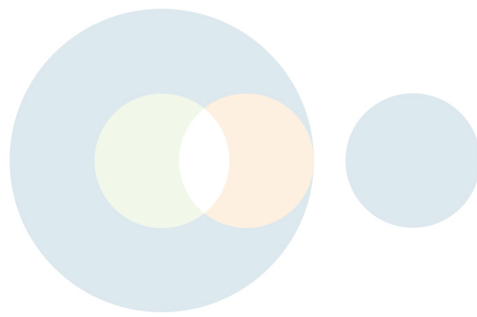
- ① 호동팔이 박 노인을 찾아가 연고권 서류에 도장을 찍어 달라고 조른 것은, 적산 임야에 대한 법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겠군.
- ② ‘마삿등’의 물 사정을 잘 알 만한 호동팔이 별안간 산 수도의 철거를 요청한 것은 법적인 힘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이었겠군.
- ③ ‘집달리란 사람들’이 ‘눈물도 인정도 없’이 산 수도를 헐어 버리는 것은, 인정과 양심보다 법을 집행하는 일이 우선시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④ 호동수가 수도 시설을 철거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마삿등’ 사람들이 진 것은, 법이 힘없는 사람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⑤ 강제 철거 현장에서 ‘마삿등’ 사람들이 경찰의 해산 명령에도 불구하고 저항한 것은, 법에서 소외되었던 ‘마삿등’ 사람들이 근대화된 세계를 비로소 인식하게 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33

8048-0093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호동팔이 갑자기 자신을 찾아온 속셈을 의심쩍어하는 황거칠 씨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 ② ㉡: 부당한 요구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황거칠 씨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 ③ ㉢: 호동팔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평판이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 ④ ㉣: 호동팔은 그의 형인 호동수에 의지하여 행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계약을 되돌려야겠다는 황거칠 씨의 다짐을 엿볼 수 있다.





[35~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하루는 범이 창귀*들을 불러 놓고 호령했다.
 “해도 저물어 가는데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할까?”
 굴각이 답한다.
 “제가 전에 점을 쳐 보니, 뿔도 없고 날개도 없이 머리 빛깔은 검은 것이 눈 위에 발자국을 남겼는데, 비틀비틀 걸으며 **뒤쪽 지에 꼬리가 붙어 꿈무늬를 감추지 못하는** 놈이었습시다.”
 이을도 말했다.
 “동문 쪽으로 먹을 것이 있습죠. 이름이 ‘의(醫)*’라 합니다. 의란 놈은 입에 온갖 풀을 머금고 있는데 살코기가 향기롭습니다. 서문 쪽에도 먹을 것이 있습니다. 이름은 ‘무(巫)*’라 합니다. 온갖 귀신에게 아양을 떠는 처지라 날마다 목욕재계를 하는 까닭에 몸이 깨끗합니다. 이 두 가지 고기 가운데 고르시지요.”
 범은 수염을 훑으며 성난 표정으로 말한다.
 “㉠의(醫)란 것은 의(疑)*와도 같으니, 의심스러운 바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을 해대는 통에 해마다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 간다. ㉡무(巫)란 무(誣)*에 불과해, 귀신을 속이고 백성들을 기만하여 해마다 앗아 가는 목숨이 수만은 된다. 사람들의 분노가 그놈들의 뺨속까지 스며들어 있다. 그것이 변하여 **금잠(金簪)***으로 금빛이 나는데 그 톱을 받아 음식에 두면 사람이 죽을 수 있다니, 독이 있어 먹을 수 없다.”
 육훈이 거든다.
 “숲속에 살코기가 있습니다. 인자한 심장과 의로운 쓸개에다가 충성스러운 마음과 깨끗한 지조를 지니고 있지요. 예악을 실천하면서 입으로는 제자백가를 외우고 다니며 마음속으로는 만물의 이치를 통달했는데, 그 이름은 ‘석덕지유(碩德之儒)*’라고 합니다. 등살이 불룩하고 몸통은 기름져서 오미(五味)를 갖추고 있습니다.”
 범이 눈썹을 치켜세우며 침을 흘리고는, 하늘을 쳐다보고 웃음 짓는다.
 “내 그놈에 대해 더 듣고자 한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북곽 선생(北郭先生)이라는 명망이 높은 선비가 열네로 칭송받는 젊은 과부인 동리자의 방에서 정을 통하려 했다. 이때 과부의 다섯 아들이 북곽 선생을 여우로 의심하여 몽둥이를 들고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이에 다섯 아들이 함께 어미의 방을 에워싸고는 안으로 들이닥쳤다. 북곽 선생은 깜짝 놀라 부리나케 내뺄면서 그 와중에도 행여 남들이 자신을 알아볼까 겁이 나 한 다리를 들어 목에다 얹고 귀신처럼 춤추고 웃으며 문을 빠져나왔다. 그러고는 그렇게 달아나다 **별판에 파 놓은 퉁구멍**에 빠지고 말았다. 퉁이 가득 찬 구멍이 속에서 버둥거리며 무언가를 붙잡고 간신히 올라가

목을 내밀어 살펴보니, 범 한 마리가 길을 막고 있었다. 범이 이 맛살을 찌푸리고 구역질을 하며 코를 막은 채 얼굴을 외면하고 말한다.

“아이구! 그 선비, 냄새가 참 구리기도 하구나.”

북곽 선생이 머리를 조아리며 앞으로 엉금엉금 기어 나와 세 번 절하고, 다시 꿇어앉아서 아뢰다.

“범님의 덕이야말로 참 지극합니다. 대인(大人)은 그 변화를 본받습니다. 제왕(帝王) 된 자는 그 걸음걸이를 배웁니다. 남의 아들 되는 이는 그 효성을 본받고, 장수는 그 위엄을 취합니다. 그 명성은 신룡(神龍)과 나란하여 한 분은 바람을 일으키고, 다른 한 분은 구름을 만드십니다. 이 몸은 천한 신하로, 감히 범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합니다.”

범이 꾸짖으며 답한다.

“에잇! 가까이 다가오지 말렸다. 전에 내 듣기로 ㉢유(儒)*란 유(誤)*라 하더니 과연 그렇구나. 네가 평소에는 세상의 온갖 나쁜 이름을 끌어모아 제멋대로 내게 갖다 붙이더니만, 지금은 서둘러 면전에서 아첨을 늘어놓으니 그 따위 말을 대체 누가 믿겠느냐?”

천하의 이치는 하나일 따름이니, 범이 정말 악하다면 인간의 본성 또한 악할 것이요, 사람의 본성이 착하다면 범의 본성 또한 착한 것이다. 네놈들이 하는 말은 모두 오상(五常)*을 벗어나지 않고, 경계하고 권장하는 것은 늘 사강(四綱)*에 있다.

그렇지만 사람 사는 동네에 코가 베이거나 발이 잘리거나 얼굴에 문신이 새겨진 채 다니는 자들은 모두 오륜(五倫)을 어긴 자들이다. 이들을 잡아들이고 벌하기 위해 제아무리 오랏줄이나 도끼, 톱 등을 써 대도 인간의 악행은 당최 그칠 줄을 모른다. 밧줄이나 먹바늘, 도끼나 톱 따위가 황행하니, 악행이 그칠 리가 없다. 범의 세상에는 본래 이런 형벌이 없는데, 이로써 보면 범의 본성이 인간보다 더 어질다는 뜻이 아니겠느냐?”

— 박지원, 「호질」

- *창귀(偃鬼):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범을 인도한다는 나쁜 귀신.
- *의(醫): 의원.
- *무(巫): 무당.
- *의(疑): 의심함.
- *무(誣): 무고함.
- *금잠: 금빛 누에.
- *석덕지유: 높은 덕망을 지닌 유학자.
- *유(儒): 선비.
- *유(誤): 아첨함.
- *오상: 인(仁), 의(義), 예(禮), 지(智), 신(信)의 오행. (오교(五敎)나 오륜(五倫)을 가리키기도 함.)
- *사강: 사람을 규제하는 네 가지 도덕인 예(禮), 의(義), 염(廉), 치(恥).



35

8048-0095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범은 창귀들에게 저녁거리로 무엇을 먹을지 의견을 구하고 있다.
- ② 굴각은 자신의 점괘를 바탕으로 오늘 밤 범의 먹잇감을 예측하고 있다.
- ③ 이올은 범에게 두 가지 먹잇감의 장점을 제시하며 선택을 권유하고 있다.
- ④ 육훈이 범의 먹잇감으로 유학(儒學)을 하는 선비 계층을 추천하고 있다.
- ⑤ 범은 이올과 육훈이 추천하는 먹잇감에 구미가 당기어 궁금해하고 있다.

36

8048-0096

㉠~㉥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의 외양을 묘사하여 그 대상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 ② 대상의 속성을 잘 보여 주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 ③ 속성이 유사한 사물을 나열하여 대상의 특징을 부각하고 있다.
- ④ 대상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 ⑤ 음은 같지만 뜻이 다른 한자를 활용하여 대상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다.

37

8048-0097

[A]에서 '범'이 주장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간의 본성과 범의 본성을 비교할 수 없다.
- ② 천하의 이치가 하나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 ③ 인간은 말로는 선을 권하지만 악을 일삼는 자가 많다.
- ④ 인간의 예절은 지나치게 형식적이라서 실천하기 어렵다.
- ⑤ 인간 사회의 악행을 줄이기 위해서 형벌을 강화해야 한다.

38

8048-0098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호질」은 범과 창귀들이 대화를 하는 전반부와 범이 북곽 선생을 꾸짖는 후반부로 나뉜다. 전반부에서는 인간 사회의 여러 가지 병폐를 비판하고 있으며, 후반부에서는 유학자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풍자하고 있다. 특히 인간의 모습이나 행동 등을 희화화하여 나타내거나 등장인물의 위선적인 말과 행동을 통해 허위성을 드러냄으로써 인간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있다. 이 작품에서 범은 당시 유학자 계층에 대한 작가의 비판 의식을 나타내기 위한 허구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구조	감상 내용
전반부	굴각의 말에서 '뒤쪽지에 꼬리가 붙어 꿈무늬를 감추지 못하는 놈'은 인간의 모습을 희화화한 것이라 할 수 있겠군. ㉠
	범은 의(醫)와 무(巫)의 병폐로 인한 백성들의 분노가 변하여 '금잠'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인간 사회의 문제를 비판하고 있군. ㉡
후반부	북곽 선생이 도망치면서 '한 다리를 들어 목에다 얹고는 귀신처럼 춤추고 웃'는 것은 청렴한 척하려는 위선적인 행동이라 할 수 있겠군. ㉢
	북곽 선생이 도망치다가 '별판에 파 놓은 똥구덩이'에 빠짐으로써 그의 권위가 노골적으로 추락되고 있군. ㉣
	'아이구! 그 선비, 냄새가 참 구리기도 하구나.'라는 범의 말에는 당시 유학자 계층에 대한 작가의 비판 의식이 담겨 있군. ㉤

- ① ㉠ ② ㉡ ③ ㉢ ④ ㉣ ⑤ ㉤



[39~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시 속의 공간은 다양한 양상으로 표현된다. 이를 통해 공간이 지닌 다양한 특성이 부각되며 이와 함께 공간에 대한 시인의 인식이 드러난다.

우선 시에서는 좁은 공간을 확대하여 보여 주는 경우가 있다. 마치 영화의 클로즈업한 장면처럼 묘사된 시 속의 공간은 독자가 공간 속의 특정한 대상에 집중하도록 유도하여 대상의 특성을 강조한다. 이것은 다시 ‘외형 묘사’와 ‘투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는 화자의 시선이 대상의 표면에만 머물면서 대상을 외적으로 관찰하는 것이고, 후자는 상상을 통해 화자의 시선이 대상의 안까지 파고 들어가 대상의 내적 속성까지 드러내는 것이다. 외형 묘사와 투사는 공간에 포함된 특정 대상의 속성과 특징을 다각적으로 부각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시에서는 넓은 공간을 한눈에 바라보는 것처럼 전경화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마치 영화의 원거리 쇼트와 같이 넓은 공간을 한 번에 포착하여 하나의 풍경으로 제시하는 방법이다. 이때 풍경은 흐르는 것처럼 묘사되기도 하고 고정된 것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전자는 영화의 파노라마 화면처럼 사방을 조망하도록 하는 것이고, 후자는 한 공간 안에 있는 여러 대상을 한 장면에서 보는 것처럼 집약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들로 제시된 풍경은 그 속에 존재하는 여러 대상이 동시에 발산하는 이미지들이 모여 그 공간의 분위기가 종합적으로 전달된다.

장만영의 시 「달·포도·잎사귀」는 좁은 공간을 확대하여 보여 주기도 하고 넓은 공간을 한눈에 보는 것처럼 표현하기도 하는 등 거리 조절을 통한 다양한 공간 표현을 통해 달빛을 받은 뜰이라는 공간의 분위기와 그 속에 놓인 대상들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잘 표현한 작품이다.

한편 시에서도 영화의 몽타주 기법과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여 개별적인 공간을 서로 연결하여 보여 주는 경우가 있다. 몽타주는 따로따로 촬영된 화면을 효과적으로 떼어 붙여서 하나의 새로운 장면이나 내용을 만드는 영화 편집 구성의 한 수법이다. 시에서도 이러한 수법을 활용하여 개별적인 의미 이상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거나 정서를 확충하는 경우가 있다. 이성복의 「당신」은 1, 2연에 서로 이질적이면서도 연관성을 지닌 공간을 나열함으로써, 새로운 시적 의미가 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화자의 정서도 확충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처럼 1, 2연에서 확충된 정서는 3연에서 ‘당신’의 상처를 떠올리며 ‘목청을 다해 부르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 집약된다.

(나) 순이 버레 우는 고풍한 뜰에
달빛이 밀물처럼 밀려왔구나. [A]

달은 나의 뜰에 고요히 앉아 있다. [B]
달은 과일보다 향그럽다.

동해 바다 물처럼
푸른
가을
밤 [C]

포도는 달빛이 스며 고웁다. [D]
포도는 달빛을 머금고 익는다.

순이 포도 넝쿨 밑에 어린 잎사귀들이
달빛에 젖어 호젓하구나. [E]

- 장만영, 「달·포도·잎사귀」

(다) 이른 아침 차를 타고 나가 보니 아낙네들은 얼어붙은 땅을 파고 무씨를 갈고 있었습니다 그네들의 등에 업힌 아이들은 고개를 떨군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남정네들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논두렁에 불이 타고 흰 연기가 천지를 들렀습니다

진흙길을 따라가다 당신을 만났습니다 무릎까지 오는 장화를 신고 당신은 아직 물이 마르지 않은 빨밭에서 흙투성이 연뿌리를 캐고 있었습니다

혹시 당신이 찾은 것은 연뿌리보다 질기고 뻗센 당신의 상처가 아니었습니까 삼에 찍힌 연뿌리의 동체에서 굶다란 물관 구멍을 통해 사라진 것은 도로(徒勞)*뿐인 한 생애가 아니었습니까 목청을 다해 불러도 한사코 당신은 삼을 찍어 얼어붙은 연뿌리를 캐고 있었습니다

- 이성복, 「당신」

*도로: 헛되이 수고함. 보람 없이 애씀.



39

8048-0099

(나)와 (다)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수미상응의 시상 전개를 통해 구성상의 안정감을 주고 있다.
- ② 색채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변화 과정을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유사한 시구를 점층적으로 반복하여 시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④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이 지닌 이중적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청자를 일컫는 시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느낌을 주고 있다.

41

8048-0101

(가)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밀물’과 ‘동해 바다’는 ‘고풍한 뜰’의 풍경을 파노라마처럼 보이도록 연출하여 역동적인 분위기를 부여했다고 할 수 있겠다.
- ② ‘달빛’은 ‘고풍한 뜰’의 ‘포도’와 ‘잎새’를 각각 조명하여 대상의 속성과 특징이 개별적인 것으로 부각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 ③ ‘포도 넝쿨 밑에 어린 잎새’는 화자의 시선을 대상의 안으로 투사하여 새롭게 인식하게 된 ‘포도’의 내적 속성에 해당하는 것이겠다.
- ④ ‘고풍한 뜰’에서 느껴지는 고요하고 편안한 분위기는 ‘달빛’, ‘포도’, ‘어린 잎새들’이 발산하는 이미지들이 모여 종합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 ⑤ ‘고풍한 뜰’로 시작하여 ‘어린 잎새’로 시상이 마무리된 것은 클로즈업 기법에서 원거리 쇼트 기법으로 바꾸어 화면을 제시하는 영화의 표현 기법과 유사하겠다.

40

8048-0100

[A]~[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복합적인 감각을 통해 화자가 주목한 달밤의 분위기를 전달하고 있다.
- ② [B]: 다른 대상과의 비교를 통해 화자가 느낀 달의 속성을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C]: 일부 시행을 하나의 시어로 구성하여 낭송을 할 경우 천천히 읽도록 유도하고 있다.
- ④ [D]: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의 모습과 변화를 달빛과 관련지어 제시하고 있다.
- ⑤ [E]: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를 교차하여 달밤의 분위기를 집약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42

8048-0102

(가)를 바탕으로,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연의 ‘아낙네들’이 ‘무씨’를 깔고 있는 공간과 2연의 ‘당신’이 ‘연뿌리’를 캐고 있는 공간은 생계를 위한 노동의 현장이라는 점에서 서로 연관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겠다.
- ② 1연의 ‘얼어붙은’과 2연의 ‘물이 마르지 않은’은 모두 대상이 처한 힘겨운 삶을 연상시킨다고 볼 수 있겠다.
- ③ 1연의 ‘논두렁’과 2연의 ‘빨밭’은 화자의 과거 회상을 통해 재인식된 공간으로, 상처의 치유가 시도되고 있는 공간으로 볼 수 있겠다.
- ④ 3연에서 ‘삼에 찍힌 연뿌리’, ‘얼어붙은 연뿌리’로 변주된 ‘연뿌리’는 ‘당신’이 살아온 생애와 겹쳐지면서 ‘당신’이 지닌 상처를 환기하겠다.
- ⑤ 3연의 ‘목청을 다해 불러도’에는 1연과 2연이 나열되면서 확충된 화자의 정서가 집약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집의 옷 밥을 얻고 들먹는* 저 고공(雇工)*아

우리 집 기별을 아나다 모로노다
 비 오는 날 일 업술 직 솟 쏘면서* 니르리라
 처음의 ㉠한어버이* 사름소리* 흐려 홀 직
 인심(仁心)을 만히 쓰니 사름이 절로 모다
 플 셋고 터을 닷가 큰 집을 지어 내고
 셔리* 보십* 장기* 소로 전답(田畠)을 괴경하니
 오려논 터밧치 여드레 ㉡리*로다
 자손(子孫)에 전계(傳繼) 하야 대대(代代)로 내려오니
 논밭도 죠커니와 고공도 근검터라
 저희마다 여름지어* 가움여리* 사던 것슬
 요스이 고공들은 험이 어이 아조 업서
 밥사발 크나 자그나 동웃시* 죠코 즈나
 므움을 듯호는 듯 호슈*을 식오는 듯*
 무슴 일 감드러* 흘긱할긱 흐느순다
 너희늬 일 아니코 시절(時節) 좃츠 스오나와
 ㉢긱의 ㉣너 세간이 플러지게 되야는늬
 엇긱지 화강도(火強盜)*에 가산(家産)이 탕진(蕩盡)하니
 집 흐나 불타 붓고 먹을 썬시 전혀 업다
 크나큰 세스를 엇지하여 니로려로
 김가 이가(金哥李哥) 고공들아 식 므움 먹어슬라

- 허전, 「고공가(雇工歌)」

- *들먹는: 못생기고 마음이 올바르지 못한.
- *고공: 머슴.
- *솟 쏘면서: 새끼 꼬면서.
- *한어버이: 조부모(祖父母).
- *사름소리: 살림살이.
- *셔리: 씨레. 말이나 소로 끌게 하여 갈아 놓은 논밭의 바닥을 고르는 데 쓰는 농구.
- *보십: 보습, 보삽. 쟁기 등의 술바닥에 맞추는 쇠조각. 땅을 갈아서 흙덩이를 일으키는 연장.
- *장기: 쟁기. 논밭을 가는 연장의 한 가지.
- *여드레 ㉡리: 여드레 같이.
- *여름지어: 농사지어.
- *가움여리: 부요(富饒)하게.
- *동웃시: 동웃[胴衣]이. 남자가 입는 저고리가.
- *호슈: 호수(戶首), 민호(民戶) 중의 수장(首長).
- *식오는 듯: 새우는 듯. 시기(猜忌)하는 듯.
- *감드러: 속임을 들어.
- *화강도: 왜적(倭賊)을 일컫음.

(나) 파리아, 날아서 고을로 들어갈 생각은 하지 말아라. 굶주린 사람을 엄히 가려내는데 아전들이 붓대 잡고 앉아 그 얼굴을 살피른다. 대나무처럼 뻣뻣이 늘어선 사람들 중에서 요행히 한 번 뽑힌다 해도 겨우 맹물처럼 멀건 죽 한 모금을 얻어 마시는 것이

고작이다. 그런데도 묵은 곡식에서 생긴 쌀벌레는 고을 창고에서 위아래로 어지러이 날아다닌다. 돼지처럼 살찐 것은 힘 있는 아전들인데, 서로 짜고 공이 있다고 보고하면 상을 주었으면 주었지 책임을 묻는 일은 없다. 보리만 익으면 그나마 구휼하는 일을 끝내고 잔치를 베푼다. 종과 북을 치고 피리 불고 눈썹 고운 예쁜 기생들은 춤을 추며 돌아가고, 교태를 부리다가는 비단 부채로 얼굴을 가린다. 그런 속에 비록 풍성한 음식이 있어 남아돌아도 너희들은 결코 쳐다볼 수도 없는 것이다.

파리아, 날아서 객사로 들어갈 생각일랑 말아라. 깃대와 창대가 삼엄하게 꽃혀 있다. 돼지고기, 쇠고기 국이 술에 가득 부글부글 끓고 있고, 메추리구이, 봉어지짐에 오리로 국 끓이고, 꽃무늬 조각한 중배끼* 약과도 차려 놓고, 실컷 먹고 즐기며 어루만지고 놀지만 커다란 부채를 휘두르는 통에 너희들은 엿볼 수도 없다. 우두머리 아전이 주방에 들어와 음식을 살피는데, 입으로 숯불을 불어 가며 냄비에 고기를 지져 내고 수정과 맛이 훌륭하다고 칭찬이 자자한데, 호랑이 같은 문지기들 철통같이 막고 서서 너희들의 애원하는 소리는 들은 척도 않고 소란 피우지 말라고 호통친다. 수령은 안에 앉아 제멋대로 판결한다. 역마를 달려 급히 보고하는데, 내용인즉 마을이 모두 편안하고 길에는 굶주려 수척한 사람 없으니 태평할 뿐 아무 걱정이 없다고 한다.

파리아, 날아와 다시 태어나지 말아라. 아무것도 모르는 지금 상태를 축하하라. 길이길이 모르는 채 그대로 지내거라. 사람은 죽어도 내야 할 세금은 남아 형제에게까지 미치게 되니, 유월 되면 벌써 세금 독촉하는 아전이 문을 걸어차는데, 그 소리가 사자의 울음소리 같아 산악을 뒤흔든다. 세금 낼 돈이 없다고 하면 가마솔도 빼앗아 가고 송아지도 끌고 가고 돼지도 끌고 간다. 그러고도 부족하여 불쌍한 백성을 관가로 끌고 들어가 곤장으로 불기를 친다. 그 때 맞고 돌아오면 힘이 빠지고 지쳐 염병에 걸려 풀이 쓰러지듯, 고기가 물크러지듯 죽어 간다. 그렇지만 그 술한 원한을 천지 사방에 호소할 데 없고, 백성이 모두 다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슬퍼할 수도 없다. 어진 이는 움츠려 있고 소인배들이 날뛰니, 봉황은 입을 다물고 까마귀가 울어 대는 꼴이다.

파리아, 날아가려거든 북쪽으로 날아가거라. 북쪽으로 천 리를 날아 임금 계신 대궐로 들어가서 너희들의 충정을 호소하고 너희들의 그 지극한 슬픔을 펼쳐 보여라. 포악한 행위를 아뢰지 않고는 시비를 가릴 수 없는 것. 해와 달이 밝게 비쳐 빛이 찬란할 것이다. 정치를 잘하여 인(仁)을 베풀고, 천지신명들께 아뢰어 규(圭)*를 쓰는 것이다. 천둥같이 울려 임금의 위엄을 떨치게 하면 곡식도 잘 익어 백성들의 굶주림도 없어지리라. 파리아, 그 때에 날아서 남쪽으로 돌아오너라.

- 정약용, 「파리를 조문하는 글」

*중배끼: 유밀과의 일종. 밀가루를 꿀 또는 조청과 기름으로 반죽하여 길고 네모지게 잘라 기름에 지져 만듦.



*규: 옛날 중국에서 천자가 제후를 봉하거나 신을 모실 때 조복(朝服)에 갖추어 손에 쥐던 때.

43

8048-0103

(가)와 (나)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자연과 인간사의 대응을 통해 삶의 교훈을 이끌어 내고 있다.
- ② 이질적 공간을 대비하여 현실에 내재된 문제점을 밝히고 있다.
- ③ 대상을 의인화하여 그 대상이 처한 부정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④ 반어적 표현을 통해 부정적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⑤ 화자가 청자에게 구체적인 행위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44

8048-0104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유교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조선 사회에서는 국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임금은 물론 신하들도 자신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고 보았다. 「고공가」에서는 전란에 황폐해진 국가의 재건을 위한 신(臣)의 역할이, 「파리를 조문하는 글」에서는 굶주리는 백성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군(君)과 신(臣)의 역할이 중요함을 비유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 ① (가)의 '화강도에 가산이 탕진하니'는 전란으로 인해 나라의 살림이 황폐해졌음을 뜻하는 것이겠군.
- ② (나)의 '지극한 슬픔'은 자신의 본분을 다하지 않은 신하들로 인해 고통받는 백성들의 심정이 담긴 것이겠군.
- ③ (가)의 '요스이 고공들'과 (나)의 '힘 있는 아전들'은 모두 자신의 본분을 저버리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신하들을 뜻하는 것이겠군.
- ④ (가)의 '식 먹음'과 (나)의 '인'은 국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각각 신하와 임금에게 요구되는 요소로 볼 수 있겠군.
- ⑤ (가)의 '집의 옷 밥을 얻고 들먹는' 것과 (나)의 수령이 마을이 '태평할 뿐 아무 걱정이 없다'고 보고하는 것은 군신 간의 질서 회복을 위해 신하가 가져야 할 자세가 반영된 것이겠군.

45

8048-0105

㉠과 ㉡을 중심으로 (가)의 화자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 안주하느라 ㉡의 상황에 대비하지 못했던 자신의 부주 의함에 대해 자책하고 있다.
- ② ㉠과 달라진 ㉡을 언급하여 고공들이 해야 할 역할이 과거와 달라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 ③ ㉠과 대비되는 ㉡의 어려움을 부각하여 고공들에게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 ④ ㉡과 관련된 문제점이 ㉠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언급하여 고공들의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
- ⑤ ㉡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을 제시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고공들의 각별한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EBS*i* 



EBS *i*



EBS 수능완성 국어영역 국어

실전편

**실전 모의고사
2회**

EBS *i*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01~03] 다음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물음에 답하십시오.

안녕하세요? 혹시 이 자리에 치과 치료를 최근에 받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그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대답을 듣고) 무서우셨다고요? 사실 저도 치과에 치료를 받으러 가야 되는 날에는 아침부터 긴장을 한답니다. 이렇게 뜬금없이 치과 치료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치과에서 느끼는 것과 같은 심리적 공포감이나 고통 등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① ‘긍정적 착각’으로 어느 정도는 극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긍정적 착각’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지요? 실험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치과 치료를 받으러 온 20대 학생 5명을 선정했습니다. 물론 이 학생들은 자신들이 어떤 실험의 대상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치료를 받기 위해 치료 의자에 누운 학생들에게 의사는 리모컨을 하나 주면서 버튼을 누르면 통증이 줄어든다고 설명합니다. 물론 치과 치료에서 통증을 줄여 주는 리모컨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리모컨의 버튼을 누르면 리모컨 엘이디(LED)에 5초 동안 불이 들어올 뿐입니다.

통증 감소 효과가 있다는 가짜 리모컨을 손에 쥔 학생들이 치료를 받기 시작합니다. 학생들이 과연 리모컨의 버튼을 눌렀을까요? (대답을 듣고) 네, 그렇습니다. 치료를 진행하는 동안 학생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고통스러운 듯 리모컨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떤 학생의 경우 치료가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리모컨 엘이디에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이 학생에게 리모컨을 가져가도 되느냐고 간호사가 묻자 치료를 받던 학생은 절대 안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리모컨을 가져가려고 하자 대부분의 학생이 리모컨을 쥐고 빼앗기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비교를 위해 간호사에게 학생들의 리모컨을 빼앗게 했습니다.

치료가 끝나자 학생들에게 리모컨의 실체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리모컨이 가짜라는 말에 치료가 끝난 학생들은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이예요?”라고 저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리모컨의 버튼을 눌렀을 때 통증을 정말 덜 느꼈던 것일까요? 신기하게도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가짜 리모컨이 있었을 때와 없었을 때, 치료를 받는 학생이 느끼는 통증뿐만 아니라 심적 부담감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치료가 끝난 학생들에게 리모컨이 있었을 때와 없었을 때에 대해 설문지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가짜 리모컨이 있었을 때는 없었을 때에 비해 스트레스 지수는 40퍼센트포인트, 불안감 지수는 무려 70퍼센트포인트나 낮게 나왔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리모컨의 버튼을 누르는 것이 통증 자체를 물리적으로 감소시

키지는 않기 때문에 리모컨의 버튼을 누르면 통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은 것은 모두 학생들의 착각입니다. 학생들은 리모컨의 버튼을 누름으로써 불안이 사라지고 마음이 안정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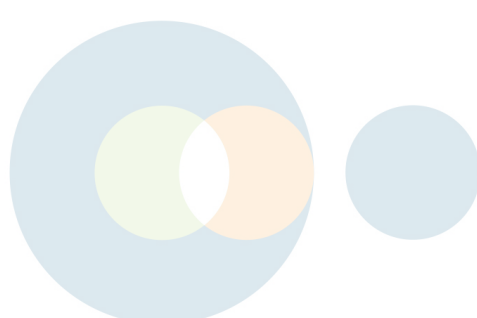
(목소리에 힘을 주어) 혹시 여러분 중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주저 말고 마음속 리모컨의 버튼을 누르십시오. 실험에서 학생들이 아무 효과도 없는 가짜 리모컨의 버튼을 눌러 통증이 줄어든 것으로 느낀 것처럼 여러분도 마음속 리모컨의 버튼을 누르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시련이 있을 때 그것을 견디게 하는 긍정적 믿음, 이것이 바로 ‘긍정적 착각’입니다. 여러분도 ‘긍정적 착각’의 힘을 믿어 보세요.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01

8048-0106

강연자의 말하기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신의 경험을 제시하며 강연의 화제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시각 자료를 통해 언어적 표현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설문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강연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④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들으며 청중과 상호 작용하고 있다.
- ⑤ 강연 내용과 관련된 제안을 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02

8048-0107

다음은 강연을 들은 청중이 게시판에 올린 추가 질문이다. 강연자가 답변할 추가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강연 주제와 관련한 것 중 강연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추가 질문을 올려 주세요. 강연 내용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은 답변하지 않습니다.

- ↳ 학생들은 치료 중 리모컨의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떠한 느낌을 받았다고 대답했나요? ①
- ↳ 학생들이 리모컨을 갖고 있었을 때와 갖고 있지 않았을 때, 치료를 받으며 느낀 심적 부담감에 차이가 있었나요? ②
- ↳ 학생들이 리모컨의 버튼을 누르는 것이 통증 자체를 물리적으로 덜어 주는 데에 효과가 있었나요? ③
- ↳ 학생들이 리모컨 없이 치료를 받았을 때에 스트레스와 불안감 지수는 수치가 정확하게 얼마가 나왔나요? ... ④
- ↳ 스트레스 지수와 불안감 지수 중에서 어느 것이 치료에 리모컨을 활용한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나요? ⑤

03

8048-0108

①의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승민은 독거 어르신을 위한 나눔 봉사를 하는 것이 보람이 있는 일이라고 느끼며 활동에 열심히 참여했다.
- ② 용준은 지금 체중 조절을 하지 않으면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다이어트를 시작했다.
- ③ 상원은 마라톤 대회에서 완주하지 않으면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을 것이라고 걱정하며 결승선을 향해 뛰었다.
- ④ 대희는 자신이 석사 논문을 쓰며 관심을 가졌던 주제를 심화하여 박사 논문의 주제로 삼으려는 계획을 세웠다.
- ⑤ 준섭은 경기 중 발을 다쳤지만 부상 완화에 효과가 없는 신발을 신고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견디어 경기를 무사히 마쳤다.

[04~07] (가)는 라디오 방송 보도이고, (나)는 (가)를 청취한 학생이 그 내용을 교지에 소개하기 위해 작성한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라디오 방송 보도

앵커: 인터넷 검색을 할 때 여러분의 관심사에 대한 자료만 걸러 제시되는 기능을 이용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바로 필터 버블(filter bubble)이라는 것인데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이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필터 버블에 대해 박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필터 버블은 인터넷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바탕으로 그 특성에 맞는 자료만을 걸러 보여 주는 기술을 말합니다. 필터 버블을 이용하면 같은 검색 키워드를 입력하더라도 인터넷 사용자에게 따라 검색 결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두 컴퓨터로 동일한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각각 '독도'를 검색했을 때, 영토 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에게는 '독도의 영유권 분쟁'에 대한 사이트 목록이, 여행에 관심이 많은 사람에게는 '독도 여행 정보'에 대한 사이트 목록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은 포털 사이트가 인터넷상의 이용자 활동을 기반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수집되는 정보는 주로 사용하는 검색어, 방문한 사이트, 사용자의 아이피(IP) 주소, 접속 장소, 사용 브라우저, 운영 체제, 아이디(ID) 등으로 매우 다양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포털 사이트에서는 데이터 필터링을 하는데, 이를 이용하면 자료 검색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지만 의도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용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문가: 필터 버블로 인해 이용자가 특정 정보만 편식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프레이저라는 사람은 테드 강연에서 필터 버블의 폐해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진보 성향의 사람이었던 프레이저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갖기 위해 노력했는데, 필터 버블을 이용한 이후 인터넷상에 보수 성향 사람들의 글이 모두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평소에 진보 성향의 정보를 더 많이 검색했기 때문에 포털 사이트에서 자신이 찾기 원했던 보수 성향의 정보는 모두 걸러진 것이지요.

기자: 인터넷 사용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사용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걸러진 정보 중에서만 정보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인터넷 사용자가 일부 정보를 전체 정보인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러분도 필터 버블로 인해 의도치 않게 정보 편식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볼 때입니다. EBS 뉴스 박상진입니다.



(나) 학생의 초고

필터 버블은 대량의 정보 중에서 인터넷 사용자의 관심과 성향을 파악하여 맞춤형 정보만을 걸러 제공하는 기술이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자료 검색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할나위없이 편리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필터 버블을 이용하는 것에는 의도하지 않은 위험성도 존재한다.

인터넷 사용자가 맞춤형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은 ㉡ 개인화된 알고리즘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이다. 개인화된 알고리즘을 활용하려면 당연히 인터넷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밖에 없다. 과거 인터넷에 입력했던 검색어나 방문 사이트는 물론이고, 접속 아이피(IP)부터 장소, 시간, 개인 아이디(ID)까지 모두 수집된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가 암호화되어 저장된다고 하지만, 저장된 개인 정보가 ㉢해킹 툴부터 유출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렇게 유출된 개인 정보는 다른 이들에게 공유되고 판매되어 2차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 실제 정보 보호원 조사 결과, 최근 000 포털 사이트가 해킹당한 후에 사용자들이 스팸 메일을 무더기로 받게 되고, 보이스 피싱 전화의 수신이 급증하는 등 해킹으로 인한 피해 접수가 해킹 사건 이전에 비해 50퍼센트포인트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하지만 필터 버블은 인터넷 사용자로부터 수집한 개인 특성에 맞추어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자에게 걸러진 정보만 제공하는 현상을 초래한다. 건강한 육체를 유지하려면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건강한 사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를 접해야 한다. 그런데 필터 버블을 통해 걸러진 ㉤편승된 정보를 전체 정보인 양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 자기가 관심을 두던 정보만 습득하게 되어 고정 관념과 편견이 강화될 수 있다.

[A]

04

8048-0109

다음은 (가)의 라디오 방송 보도를 위한 제작진 회의 내용의 일부이다. 실제 보도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앵커’가 필터 버블에 대한 청취자의 경험을 환기하고 필터 버블의 양면성을 지적하며 보도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 ② ‘기자’가 필터 버블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풀어 설명해 주어 청취자가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면 좋겠습니다.
- ③ ‘기자’가 필터 버블이 적용된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여 필터 버블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 ④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필터 버블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점을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⑤ ‘기자’가 ‘전문가’와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 설명을 덧붙이며 필터 버블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하면 좋겠습니다.

05

8048-0110

다음은 학생이 (나)를 작성하기 전에 (가)를 듣고 보인 반응이다. 보도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은?

- ① 필터 버블을 이용하면 인터넷 사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바로 찾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군.
- ② 포털 사이트에 의해 걸러진 정보를 주로 얻는 인터넷 사용자는 의도치 않게 정보 편식을 할 가능성이 높겠군.
- ③ 평소에 진보 성향과 보수 성향의 정보를 균형 있게 검색하는 인터넷 사용자에게는 중도 성향의 정보만 검색되겠군.
- ④ 두 인터넷 사용자가 동일한 포털 사이트에서 같은 검색어를 동시에 입력하여 다른 검색 결과를 얻었다면 필터 버블이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높겠군.
- ⑤ 인터넷 사용자가 포털 사이트의 개인 정보 수집을 차단하고 포털 사이트에 이미 수집된 개인 정보를 삭제한다면 필터 버블이 제대로 작동되기 어렵겠군.



06

8048-0111

(나)의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띄어쓰기가 적절하지 않으므로 '더할 나위없이'로 고쳐야겠어.
- ② ㉡: 필수 문장 성분이 생략되어 있으므로 '필터 버블에'를 추가해야겠어.
- ③ ㉢: 전체 문장의 의미를 고려할 때 적절한 표현이 아니므로 '해킹 툴에 의해'로 고쳐야겠어.
- ④ ㉣: 접속 표현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또한'으로 고쳐야겠어.
- ⑤ ㉤: 문맥상 단어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편협한'으로 고쳐야겠어.

07

8048-0112

<조건>을 고려하여 (나)의 마지막 문단을 완성하고자 할 때, [A]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조건

- 필터 버블의 특성을 적절한 비유를 활용하여 표현할 것
- 필터 버블 이용자가 가져야 할 태도를 드러낼 것

- ① 필터 버블은 동전의 양면처럼 장단점이 모두 존재한다. 편리한 측면만 보고 필터 버블에 의존한다면 의도치 않은 위험에 빠질 수 있음을 이용자들은 명심할 필요가 있다.
- ② 필터 버블은 최근 사회적으로 부각되며 아킬레스건같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실제 이익을 따져 보면 해가 더 크다. 그러므로 필터 버블 이용 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 ③ 필터 버블 그 자체는 악어의 눈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따라 그 가치는 달라진다. 결국 쓸모없는 기능을 가지 있게 바꾸는 것은 포털 사이트 운영자의 몫이다.
- ④ 필터 버블이 뜨거운 감자임을 부인할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필터 버블의 편리함을 늘리고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면 필터 버블은 인터넷 사용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⑤ 우리는 이미 인터넷상에서 필터 버블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 버렸다. 이렇게 된 이상 정부는 개인 정보 유출이나 정보 왜곡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08~10] (가)는 학생회 게시판에 올라온 공지 사항이고, (나)는 이를 읽고 학생들이 쓴 제안서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학생회 공지 사항

우리 학교에서는 작년에 많은 예산을 들여 교내 산책로를 조성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적어 무용지물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학생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교내 산책로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제안서를 공모합니다.

글을 쓸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교내 산책로 현황을 알려 드립니다.

<교내 산책로 현황>

- 총연장: 420m
- 식수: 향나무 12주, 전나무 11주, 버드나무 4주
- 노면 상태: 콘크리트 포장 67%, 비포장 33%
- 시설물: 세 지점에 3인용 벤치 각 1개

학우 여러분께서는 위의 현황을 참고하여 교내 산책로 활성화를 위해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학생들의 초고

<학생 1의 초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 산책로를 마련해 준 것은 참 고마운 일이다. 그렇지만 산책로가 그리 세심하게 설계된 것 같지 않아 아쉽다. 산책로 바닥이 딱딱한 콘크리트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마저 중간중간 끊기고 흠이 드러나 있어 점심시간에 실내화를 신고 산책로를 걷기가 꺼려진다. 벤치가 부족하여 걸다가 쉬어 가기도 마땅치 않고, 인근의 아파트 공사장에서 넘어오는 먼지와 소음 때문에 쾌적하지도 않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산책로 이용이 저조한 것이 아닐까?

산책로를 활성화하려면, 우선 흠길 부분에 작은 자갈들을 깔아 실내화를 신고 걸어도 별문제가 없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자갈길은 발바닥을 마사지해 주는 효과도 있고, 걸을 때 자갈들이 내는 소리도 걷는 재미를 더해 줄 것이다. 또한 여러 곳에 벤치를 더 마련하여 친구들끼리 담소를 나눌 장소를 늘려 주고, 산책로 요소요소에 스피커를 달아 음악 방송을 틀어 주면 좋겠다. 이야기꽃이 풍성하게 피고 음악이 넘쳐흐르는 길이라면, 많은 사람이 그 풍요를 누리기 위해 저절로 모여들 것이다.

<학생 2의 초고>

우리 학교 산책로는 학생들의 참여 없이 학교 측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문제라고 본다. 또한 나무들만 덩성덩성 심어져 있고 수종이 단순하여 볼거리가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산책로를 활성화하려면 이제라도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볼거리를 채울 필요가 있다.



이런 뜻에서 꽃밭·텃밭 가꾸기를 제안한다. 나무들 사이사이로 꽃밭과 텃밭을 조성해 놓으면 감성적인 분위기가 살아나 학우들의 사랑을 받는 산책로가 될 것이다. 희망하는 동아리에 부지를 분양하여 꽃밭과 텃밭을 일구게 하고, 부원들이 힘을 합쳐 거기에 화초와 채소를 가꾸어 나가게 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자신들이 직접 일구고 가꾼 꽃밭과 텃밭이라면 애착이 많아 자주 찾을 것이고, 팍과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면서 인성에도 좋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산책로에서 자라나는 꽃과 채소들은 다른 학생들의 발길도 자연스럽게 끌어올 것이다. 꽃밭·텃밭 가꾸기에 참여한 동아리들을 대상으로 11월쯤에 꽃밭·텃밭 가꾸기 보고대회를 열어 보는 것은 어떨까? 학생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한 방법일 것 같아 덧붙인다.

08 8048-0113
(나)의 두 초고에 공통으로 사용된 글쓰기 전략의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의문문을 이용하여 문제 상황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자 했다.
- ② 대조의 방법을 활용하여 문제 상황의 심각성을 효과적으로 부각하고자 했다.
- ③ 아이디어와 함께 기대 효과까지 제시하여 제안 내용의 설득력을 높이고자 했다.
- ④ 여럿이 함께 숙의한 내용을 제시하여 제안 취지에 대해 공감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했다.
- ⑤ 전문적인 정보를 수집하여 제안의 근거로 내세움으로써 제안 내용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09 8048-0114
(나)에 대한 평가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학생 1의 초고’에서는 (가)의 ‘교내 산책로 현황’ 중 ‘노면 상태’와 ‘시설물’에 주목하여 문제점 몇 가지를 제시했다.
- ② ‘학생 1의 초고’에서는 자신이 언급한 문제점 중 일부에 대해서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 ③ ‘학생 1의 초고’에서는 교내 산책로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다른 교내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까지 언급했다.
- ④ ‘학생 2의 초고’에서는 학생들의 참여와 관련하여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가)의 ‘교내 산책로 현황’ 중 ‘식수’와 관련지어 또 다른 문제점을 함께 제시했다.
- ⑤ ‘학생 2의 초고’에서는 자신이 제안한 교내 산책로 활성화 방안을 토대로 아이디어를 확장하여 또 다른 학생 참여형 활동을 제안했다.

10 8048-0115
<보기>의 ‘작문 상황’에 부합하는 글쓰기 계획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작문 상황]

다음 두 가지 사항을 반영하여, (가)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자 한다.

- ‘학생 2’의 제안 취지를 살릴 것
- 아래의 <자료>에 착안한 아이디어일 것

<자료> 전문가 인터뷰

“……정원은 계절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하고 변화를 느낄 수 있어야 하며 생명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무만 심었다고 친자연이라 할 수 없지요. 생태 친화적 환경이 형성되는 정원이라야 합니다. 또한 학교 정원은 관리자 중심이 아니라 이용자인 학생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계획 단계에서부터 학생들의 정서에 맞는 정원을 목표로 해야 하는 것이지요. 수종을 선정할 때도 학생들의 정서를 고려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향나무, 잣나무, 전나무 같은 상록수보다는 꽃이 피고 벌과 나비가 모여들고 열매가 맺히는 수종을 더 좋아합니다. 학생들은 시각적, 후각적으로 다채로운 후자 쪽과 더 강한 정서적 교감을 나누게 되는 것이지요……”

- ① 계절감을 느끼기에는 꽃밭·텃밭만 한 것이 없음을 부각하면서 꽃밭·텃밭 가꾸기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학생 2’의 아이디어 채택을 당부한다.
- ② 학생 참여의 부재보다는 볼거리의 부족에 주목하여 꽃밭·텃밭과 함께 연못의 조성을 제안하고, 기대 효과로 생태 환경의 형성을 통한 교육적 의미를 부각한다.
- ③ 산책로보다는 학교 정원을 가꾸는 데 힘을 모으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하면서, 학교 정원 조성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학생회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④ ‘학생 2’의 아이디어가 관리자 중심이 아니라 이용자인 학생 중심의 생각임을 강조하며, 꽃밭·텃밭 가꾸기를 시행한다면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임을 약속한다.
- ⑤ 교내 산책로에 과실나무를 추가로 심기를 제안하면서, 수종을 정할 때부터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묘목을 심고 가꾸는 것도 학생들이 주도하자고 제시한다.



11

8048-0116

다음은 국어의 자음을 분류한 표이다. 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조음 위치		입술 소리	잇몸 소리	센입천장 소리	여린입천장 소리	목청 소리	
조음 방법							
안울림 소리	파열음	예사소리	ㅂ	ㄷ		ㄱ	
		거센소리	ㅃ	ㄸ		ㅋ	
		된소리	ㅍ	ㅌ		ㆁ	
	마찰음	예사소리		ㅅ			ㅎ
		된소리		ㅆ			
		파찰음	예사소리		ㅈ		
		거센소리		ㅊ			
		된소리		ㅉ			
울림 소리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 ① ‘밭+이 → [바치]’는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모두 바뀌는 변동이군.
- ② ‘불꽃 → [불꼐]’는 조음 위치는 그대로이면서 조음 방법만 바뀌는 변동이군.
- ③ ‘신라 → [실라]’는 조음 위치는 그대로이면서 조음 방법만 바뀌는 변동이군.
- ④ ‘입+도 → [입똥]’는 조음 위치는 그대로이면서 조음 방법만 바뀌는 변동이군.
- ⑤ ‘떡++-는 → [명는]’은 조음 위치는 그대로이면서 조음 방법만 바뀌는 변동이군.

12

8048-0117

<보기 1>을 참고할 때 <보기 2>의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어미는 그것이 나타나는 자리에 따라 어말 어미와 선어말 어미로 나뉜다. 어말 어미는 단어의 끝자리에 들어가고 선어말 어미는 어말 어미의 앞자리에 들어간다. 어말 어미는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선어말 어미는 경우에 따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며, 둘 이상의 선어말 어미가 올 수도 있다.

어말 어미는 다시 기능에 따라 종결 어미, 연결 어미, 전성 어미로 나뉜다. 종결 어미는 문장을 맺어 주는 어미로, 이에 는 평서형 어미, 감탄형 어미, 의문형 어미 등이 있다. 연결 어미는 앞 문장과 뒤 문장을 연결해 주는 어미로, 이에 는 대등적 연결 어미와 종속적 연결 어미 등이 있다. 전성 어미는 용언의 서술 기능을 또 다른 기능으로 바꾸어 주는 어미로, 이에 는 관형사형 어미와 명사형 어미 등이 있다.

보기 2

- 밥도 ㉠먹었고 가방도 썼으니 등교 준비는 다 했다.
- 너도 이 사실을 알고 ㉡있겠지?
- 내일 비가 ㉢올지라도 소풍을 가기로 결정했다.
- 한국의 가을 하늘은 ㉣맑구나!
- 곡식이 ㉤익는 가을이 왔다.

- ① ㉠: 둘 이상의 어미가 하나의 어간에 붙을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예이다.
- ② ㉡: 어미 중에는 어말에 오는 것도 있지만 어말에 올 수 없는 것도 있음을 보여 주는 예이다.
- ③ ㉢: 어미 중에는 문장과 문장을 대등하게 이어 주는 어미가 있음을 보여 주는 예이다.
- ④ ㉣: 어미 중에는 감탄문을 만들어 주는 어미가 있음을 보여 주는 예이다.
- ⑤ ㉤: 어미 중에는 용언이 관형사의 성질을 띠게 하는 어미가 있음을 보여 주는 예이다.





13

8048-0118

〈보기〉의 ㉠과 ㉡의 예로 적절한 것끼리 묶은 것은?

보기

어떤 말이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때 그 말은 중의성을 띤다고 한다. 중의성에는 단어 차원의 중의성과 구조 차원의 중의성이 있다. 우선, 단어 차원의 중의성은 단어가 둘 이상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때 생기는 것으로, 이 중의성은 다시 ㉠동음어에 의한 중의성과 다의어에 의한 중의성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교통수단인〉 배와 〈사람의〉 배와 같이 전혀 관련이 없는 두 단어가 우연히 동음일 때 생길 수 있는 중의성이고, 후자는 〈사람의 팔목 끝에 달린〉 손과 〈‘일손’을 뜻하는〉 손과 같이 한 단어의 다의성에 의해 생길 수 있는 중의성이다. 다음으로, 구조 차원의 중의성은 하나의 표현이 두 가지 이상의 구조로 읽힐 가능성이 있을 때 생기는 중의성이다. ‘토끼’만 게으를 수도 있고 ‘토끼’와 ‘거북이’ 모두 게으를 수도 있는 ‘게으른 토끼와 거북이’가 이에 해당하는 예이다. 한편 ㉡동작상과 관련된 중의성도 있는데, ‘-고 있-’에 의한 문장 중 일부는 ‘진행’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완료’로 해석될 수도 있다.

	㉠	㉡
①	오늘은 감이 좋아.	영수는 한복을 입고 있어.
②	그는 스승을 따랐다.	형은 남색 넥타이를 매고 있어.
③	형이 나보다 발이 넓어.	동생은 과자를 먹고 있어.
④	날씬한 아버지와 어머니	지금 가고 있어.
⑤	이 다리보다 저 다리가 더 길어.	그는 지금 책을 읽고 있어.

[14~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어사에서 문법 현상은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다. 문법 현상을 표현하는 방법이 바뀌기도 하고, 없어지거나 또는 새로 생겨나기도 했다.

객체 높임법의 예를 들어 보기로 하자. 중세 국어에서 객체 높임법은 주로 선어말 어미 ‘-습-’에 의해 두루 실현되었다. ‘벼슬 노퍽 臣下(신하) | 님그믐 돕스방’(『석보상절』 9:34) 같은 문장을 보면 객체인 ‘님그믐’을 높이기 위하여 ‘-습-’이 쓰였다. 선어말 어미에 의한 이러한 객체 높임법은 현대 국어로 오면서 거의 사라졌다.

다음으로 사동 표현의 예를 들어 보기로 하자. 다음은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에서 사동 표현이 나타난 문장이다.

중세 국어: 넬-오-시고 또 깊-이-시니(『용비어천가』 20)

현대 국어: 알-게 하-시고 또 깊-게 하-시니

국어사의 시기를 막론하고 사동법에는 접미사에 의한 것과 ‘-게 하- (< -게 하-)’에 의한 것이 있는데, ‘넬다, 깊다’의 경우, 중세 국어에서는 파생 접미사 ‘-오-, -이-’를 각각 결합하여 사동을 주로 표현했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사동을 ‘-게 하-’ 구성으로 표현한다. 이런 점을 볼 때,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보다 파생 접미사를 훨씬 더 많이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역시 문법 현상이 역사적으로 변화한 예이다.

중세 국어에서 의문문은 의문사의 존재 여부에 따라 ‘-는가’, ‘-는가’와 같은 ‘아’ 형 어미와 ‘-고’, ‘-고’와 같은 ‘오’ 형 어미를 구별하여 사용했다. ‘아’ 형은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에 사용되고, ‘오’ 형은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에 사용되었다. 그리고 주어가 2인칭인 의문문에는 ‘-나다’가 사용되었다. 다음이 그 예들이다.

西京(서경)은 편안흔가 문 흔가?(『두시언해』 18:5)

古園(고원)은 이제 엇더흔고?(『두시언해』 25:24)

네 엇데 안다?(『월인석보』 23:74)

그러나 현대 국어에 이르러서는 의문문에 의문사가 있든 없든, 주어의 인칭이 어떠한든 의문형 어미를 구분하지 않게 되었다. 이것은 문법 현상이 사라진 예이다.

문법 현상은 사라진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새로 나타난 것도 있다. 예를 들어 주격 조사는 원래 ‘이’밖에 없었으나, 차츰 ‘가’가 사용되기 시작하여 근대 국어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두 형태가 함께 사용되었다. 또, 중세 국어에서 현대 국어로 오면서 선어말 어미 ‘-었-’이나 ‘-겠-’이 새로이 쓰이게 된 것도 문법 현상이 새로 나타난 예이다. ‘-었-’은 원래 중세 국어의 ‘-어 잇-’이라는 구성이 축약되어 새로 생겨난 선어말 어미이다.



14

8048-0119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중세 국어에서는 어미 ‘-었-’과 ‘-겠-’이 없었다.
- ② 중세 국어에서는 어미에 의해 실현되는 객체 높임법이 있었다.
- ③ 중세 국어에서는 ‘-게 흐-(> -게 하-)’ 구성에 의한 사동법이 없었다.
- ④ 중세 국어에서는 주어의 인칭에 따라 의문형 종결 어미가 구분되기도 했다.
- ⑤ 중세 국어에서는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과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의 어미가 구별되어 사용되었다.

15

8048-0120

윗글과 <보기>를 참고할 때, 동사 ‘듣다’와 ‘막다’에 객체 높임법 선어말 어미가 결합된 형태로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중세 국어의 객체 높임법의 선어말 어미 ‘-습-’은 어간의 끝소리와 어미의 종류에 따라 여섯 가지 형태로 실현된다.

- (1) 습, 줍, 습
- (2) 슷, 즐, 슷

(1)은 모두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 실현되는 것인데 어간의 끝소리의 종류에 따라 구별된다. ‘-습-’은 어간의 끝소리가 ‘ㄱ, ㅂ, ㅅ’일 때, ‘-줍-’은 ‘ㄷ, ㅈ, ㅊ’일 때 각각 실현된다. ‘-스-’는 어간의 끝소리가 모음이나 울림소리 자음일 때 실현되는데 이때 울림소리 ‘ㄹ’은 탈락한다. (2)는 (1)의 형태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실현되는 것이다.

- ① 듣습고
- ② 듣즈바
- ③ 막스바
- ④ 막스고
- ⑤ 막줍거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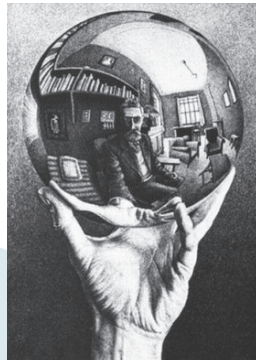


[16~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미장아빔’은 원래 두 개의 거울 사이에 상이 끝없이 맺히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근대 문학 사조에서 앙드레 지드가 소설 창작에 도입한 이후 누보로망*의 소설가들에 의해 주로 사용된 표현 기법이었다. 이처럼 문학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미장아빔은 일본의 완벽한 재현 예술이 패러다임을 이루고 있었던 때에는 완벽한 재현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론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미장아빔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예술 분야에 나타나는 미장아빔의 특성으로는 우선 낯설게 반복하기를 들 수 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반복의 개념은 단순한 이미지의 재현과 반복이 아닌 유사성을 기반으로 한 의미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동일성이 아닌 유사성의 반복이 드러난다. 그리고 낯설게 반복하기는 기존의 이미지가 가진 의미 체계를 해체하거나 뒤집어엮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재생산의 개념으로도 이해된다. 예를 들어 ㉠두에인 마이클스의 <사물의 기이함>은 9장의 사진으로 구성된 작품으로, 낯설게 반복하기가 잘 드러나 있다. 처음 사진에 나오는 화장실의 모습은 마지막 사진에 반복된다. 그리고 작가는 첫 사진에서 형성된 의미 체계를 다음 사진에서 벗어나게 한다. 즉 사물의 크기와 위치를 변화시키는 기법을 연속되는 사진에 활용한다. 이를 통해 처음 사진에 제시된 화장실이라는 공간이 다음에 제시되는 사진들로 인해 길거리 공간으로 전환되고, 다시 연속되는 사진들에 의해 화장실 공간으로 맥락이 새롭게 전환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각 사진의 부분적 요소는 확대되거나 혹은 새로운 이질적 요소에 의해 상대적으로 작아지며 이미지의 의미가 재생산되는데, 이로써 낯설게 반복하기가 구현된다.

미장아빔을 활용하는 예술 작품 속에는 실재와 가상의 구분이 확정적이지 않아 두 요소가 결합되고 뒤섞이는 특성도 드러난다. 마우리츠 코르넬리스 에스허르의 <유리구슬을 든 손>에는 작품 공간 속에 유리구슬을 들고 있는 손이 등장한다. 유리구슬 속에는 유리구슬을 들고 바라보고 있는 작가 자신이 반영되어 보인다. 반영에 표현된 모습은 실재보다 더 실재처럼 자세



마우리츠 코르넬리스 에스허르, <유리구슬을 든 손>(1935)

히 묘사되어 있지만 반영에 의해 묘사된 것이기 때문에 가상의 성격을 가진다. 그리고 유리구슬을 들고 있는 손은 작품 속에서 실재로 표현되는 듯 보이지만 그것이 실재라는 판단을 감상자가 선불리 내릴 수 없다. 그 이유는 작품 속에 내재된 손마저도 작가에 의해 묘사된 것이기 때문이다. 섬세하고 세밀하게 묘사된 구슬 속의 작가의 모습과 손은 미장아빔에 의해 실재와 가상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실재와 가상이 ㉡뒤섞여 있게 만든다.

미장아빔을 활용하는 예술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특성으로는 관입을 들 수 있다. 작품 밖에 존재하는 요소들이 유리구슬, 거울과 같은 작품 내부의 반영적 요소로 인해 작품 속에 첨가되는 관입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예컨대 <유리구슬을 든 손>에서 작품의 외부적 요소인 작가는 자신의 모습을 유리구슬을 통해 작품 내부로 관입시킨다. 이러한 표현 방법으로 인해 감상자는 작품 속에 등장하는 작가와 자신이 동일시되는 착각을 느끼게 되며, 이를 통해 작품의 시선이 작품 외부로 확장되는 특성이 드러나게 된다.

낯설게 반복하기, 실재와 가상의 뒤섞임, 관입 등의 특성을 지닌 미장아빔은 미술, 사진 등과 같은 분야에서만 국한되어 활용되지 않았다. 여러 철학자에 의해 미장아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며 미학적 담론이 형성되기도 했으며, 그 외연이 영화, 의상, ㉢건축 분야에까지 확장되어 예술사적 위상을 드러내기도 했다.

*누보로망: 전통적인 소설의 형식이나 관습을 부정하고 새로운 수법을 시도한 소설.

16

8048-012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미장아빔에 대한 여러 학자의 미학 이론을 비교하고, 미장아빔의 가능성을 설명하고 있다.
- ㉡ 구체적 사례를 통해 미장아빔의 한계를 드러내고, 미장아빔의 의의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 ㉢ 미장아빔에 대한 비판점을 제시하고, 철학자들의 서로 다른 관점을 비판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 ㉣ 미장아빔과 관련한 통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근거를 들어 가며 미장아빔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다.
- ㉤ 미장아빔의 개념을 소개하고 미장아빔이 예술 분야에 적용되어 나타나는 특성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17

8048-0122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미장아빔에 대한 여러 철학자의 논의로 인해 미학적 담론이 형성되기도 했다.
- ㉡ 미장아빔은 문학적 표현 기법으로 사용되기도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외연은 더 확장되었다.
- ㉢ 미장아빔을 활용한 예술 작품 중에는 실재와 가상의 이분법적 구분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도 있다.
- ㉣ 미술 작품에서 미장아빔의 관입을 구현하는 방법 중 하나는 작품 내부의 반영적 요소를 활용하는 것이다.
- ㉤ 원본의 완벽한 재현을 위한 방법론으로 등장한 미장아빔은 적용 범위를 넓히며 예술사적 위상을 드러내게 되었다.



[21~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스크린쿼터(screen quota)제’란 극장의 연간 상영 일수 가운데 일정 비율을 반드시 한국 영화를 상영하도록 강제하는 ‘자국 영화 의무 상영 제도’를 말한다. 한국에서 스크린쿼터제가 법제화된 것은 196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나 스크린쿼터제가 실질적으로 관철된 것은 1993년 스크린쿼터 감시단이 활동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2006년에 제정된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극장 경영자는 연간 상영 일수의 5분의 1 이상 한국 영화를 상영해야 한다. 스크린쿼터제가 시행되는 경우에도 극장 경영자가 한국 영화를 상영하고 싶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그가 외국 영화를 상영하고 싶은 경우에는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자신이 원하는 영화를 자유롭게 상영할 수 있는 권리는 극장 경영자에게 극장 영입이라는 직업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헌법 제15조는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선택한 직업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직업 수행의 자유’가 포함되는 포괄적인 의미의 직업의 자유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직업의 자유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와 같은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가 있다. 스크린쿼터제는 바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스크린쿼터제와 관련된 공익적 목적은 무엇일까? 영화가 일정한 문화를 표현하고, 강한 전달력을 지니는 표현 매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 영화의 보호는 문화 산업의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지닌다. 또 경제적 측면에서도 영화 산업의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어 한국 영화를 보호하는 것은 중요한 공익적 목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극장 영업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기본권은 헌법적 원칙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기본권 제한의 정당화를 위한 원칙으로 비례성의 원칙과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비례성의 원칙은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기본권의 제한은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입법자가 선택한 수단이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해야 하며, 효율적인 수단 중에서 기본권을 되도록 적게 침해하는 수단을 사용해야 하고, 침해의 정도와 공익의 비중을 비교하여 저울질했을 때 둘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헌법 재판소는 한국 영화의 보호가 중요한 공공복리이기 때문에 목적이 정당하고, 스크린쿼터제는 이러한 공공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한국 영화의 연간 의무 상영 일수를 제외한 그 밖의 기간에는 외국 영화 상영이 가능하여 침해가 최소화되고, 한국 영화의 보호라는 공공복리와 극장 경영자의 직업의 자유

를 비교하여 비중을 따져 볼 때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어 비례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직업 선택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 침해는 헌법 제10조가 전제로 하고 있는 개성 신장이나 생계유지를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 재판소는 본질적 내용 침해 면에서도 한국 영화의 연간 의무 상영 일수 동안 극장 경영자가 한국 영화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므로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스크린쿼터제의 정당성은 평등권의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다. 문화를 전달하는 다른 매체에 대해서는 의무 상영제를 시행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영화 매체에 대해서만 이러한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은 제11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평등권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공익적 목적을 위해 제한될 수가 있다. 우리 헌법의 평등은 모든 것을 항상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르게 대우할 수도 있는 ㉤‘평등을 의미한다. 스크린쿼터제를 통한 문화 산업 보호는 문화 주권의 확보와 관련이 있고, 할리우드 영화로 대표되는 외국 영화에 비해 자본이나 제작 여건이 빈약한 한국 영화를 보호하고 한국 영화의 자생적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스크린쿼터제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로 보기 어려운 것이다.

21

8048-012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스크린쿼터제에 대한 평가들을 병렬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 ② 스크린쿼터제의 합헌성을 설명하면서 관련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 ③ 스크린쿼터제의 등장 배경과 유형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밝히고 있다.
- ④ 스크린쿼터제의 변천 과정을 소개하면서 문제점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 ⑤ 스크린쿼터제에 대한 통념을 비판하면서 그 개념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A] 리고 한국 영화의 연간 의무 상영 일수를 제외한 그 밖의 기간에는 외국 영화 상영이 가능하여 침해가 최소화되고, 한국 영화의 보호라는 공공복리와 극장 경영자의 직업의 자유



22

8048-0127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우리나라의 경우 법률상의 스크린쿼터제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은 기간이 있었다.
- ② 스크린쿼터제는 헌법적 원칙에 따라 법률로써 극장 경영자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이다.
- ③ 스크린쿼터제를 변경하려면 영화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 법률적 측면도 논의해야 할 것이다.
- ④ 극장 경영자가 자신의 극장에서 연간 80일 동안 한국 영화만을 상영해도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
- ⑤ 스크린쿼터제는 경제적 시장 법칙의 자율성을 규제하지 않으면서 문화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23

8048-0128

[A]를 읽은 후 학생들이 '헌법 재판소의 판례'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공복리의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기본권을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의무 상영 일수가 연장될수록 직업의 자유가 더 많이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극장 경영자의 기본권을 사회 공동체를 위한 목적보다 중시하여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연간 의무 상영 일수를 제외한 기간의 한국 영화 보호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의무 상영 일수가 공공복리와 직업의 자유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깨지 않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었음을 뒷받침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24

8048-0129

윗글과 <보기>를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가) 해외 수출 중심의 미국 영화 산업은 타국의 스크린쿼터제의 철폐나 완화를 요구하지만,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는 자국 영화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이 제도를 존속시키고 있다. 파키스탄은 외화 전용 극장과 자국 영화 전용 극장을 구분하고 있으며, 외화 전용 극장이라 하더라도 연간 일정 기간 이상 자국 영화를 상영하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나 일본 등은 방송 쿼터 시스템 및 전용관 제도가 확립되어 있어, 사실상 스크린쿼터제의 기능이 유지되는 나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나) 2011년 이후 과거와 달리 한국 영화의 점유율이 50%대를 유지하고 있고, 한국 영화가 양적, 질적으로 수준이 높아졌다는 통계가 제시되고 있다. 그래서 한국 영화가 더 이상 스크린쿼터제라는 보호막에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미국 영화의 거대한 물량 공세나 한국 영화의 구조적 취약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주장이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지만, 이제는 한국 영화를 보호하는 동시에 극장 경영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대안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 ① 스크린쿼터제의 시행 방법이 국가마다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국가가 법률로 뒷받침하는 스크린쿼터제가 공익 달성에 더욱 효과적임을 알 수 있군.
- ③ 한국 영화의 자생적 경쟁력이 아직 미약하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입법 목적을 약화하는 상황의 변화가 스크린쿼터제의 존속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군.
- ⑤ 외국 영화에 대해 자국의 영화 산업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나타남을 알 수 있군.





25

8048-0130

문맥을 고려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스크린쿼터제를 해당 연도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② ㉡은 극장 경영자가 어쩔 수 없이 한국 영화를 상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
- ③ ㉢은 극장 경영자가 자신이 원하는 영화를 자유롭게 상영할 수 있는 권리와 관련이 있다.
- ④ ㉣은 기본권의 제한을 위해서는 입법이 필요함을 밝힌 것이다.
- ⑤ ㉤은 실질적이고 상대적인 평등으로 간주할 수 있다.

[26~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8세기 말 화학자들은 물이 수소와 산소가 결합된 화합물이라는 것을 발견했지만 수소와 산소가 어떤 비율로 결합되어 있는지는 여전히 알지 못했다. 19세기 초에 돌턴은 「화학 철학의 새로운 체계」에서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인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원자설을 주장했다. 그리고 원자들이 결합되어 물질을 만드는 몇 가지 기본 규칙을 제시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최대 단순성 규칙이다. 이 규칙에 따르면 두 종류의 원자가 결합하여 만든 생성물이 한 종류일 때 두 종류의 원자가 1:1로 결합하여 이원자 화합물을 만들게 된다. 돌턴은 이에 근거하여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가 한 개씩 결합하여 물이 형성된다고 주장했다. 오늘날의 방식대로 표현하면 물을 생성하는 화학 반응식은 'H+O → HO'가 되는 셈이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프랑스의 화학자 게이뤼삭이 발표한 기체 반응 법칙은 이 같은 돌턴의 원자설에 의문을 제기했다. 기체 반응 법칙에 따르면 서로 다른 기체가 반응하여 새로운 기체를 생성할 때, 반응 기체와 생성 기체의 부피 사이에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 예를 들어 염소 기체와 수소 기체가 만나 염화수소 기체를 생성할 때 각 기체의 부피의 비는 1:1:2가 된다. 그러나 돌턴은 기체 반응 법칙에 반대했다. 만일 염소 기체 1부피와 수소 기체 1부피가 반응하여 염화수소 기체 2부피가 만들어진다면, 같은 1부피의 기체 속에 들어 있는 입자 수가 같다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러나 물을 생성하는 화학 반응에서는 수소 기체 2부피와 산소 기체 1부피가 만나 수증기 2부피를 생성하므로 ㉠같은 부피의 기체에 같은 수의 입자가 들어 있다는 이런 가정은 돌턴의 원자설과는 잘 들어맞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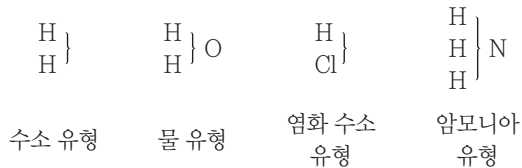
그러던 중 1811년에 이탈리아의 과학자 아보가드로는 분자 개념을 도입하여 원자설을 위배하지 않으면서도 기체 반응 법칙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가설을 제시했다. 그는 새로운 가설에서 기체의 종류가 다를지라도 같은 온도, 같은 압력하의 동일한 부피의 기체 안에 들어 있는 분자 수는 동일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기체는 분자라고 하는 작은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고, 분자는 원자 몇 개가 서로 결합하여 이루어진 알갱이라고 가정했다. 아보가드로에 따르면 수소와 산소가 만나 물이 되는 화학 반응식은 돌턴이 제시한 'H+O → HO'가 아니라, 두 개의 수소 분자가 하나의 산소 분자와 만나 두 개의 물 분자가 되는 '2H₂+O₂ → 2H₂O'가 된다.

그러나 당시 화학자들은 아보가드로가 주장한 분자 개념이 화학적 친화력설에 위배되기 때문에 아보가드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베르셀리우스에 따르면 모든 원자는 양전하(+)와 음전하(-)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양전하를 가진 원자와 음전하를 가진 원자 사이에 전기적인 인력에 의해 화학 결합이 일어나게 된다. 이에 따르면 양전하를 띤 수소 원자와 음전하를 띤



산소 원자의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하여 'HO'가 만들어지는 것은 설명이 가능하지만, 같은 전하를 띠는 입자들 사이에는 척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H₂'나 'O₂'와 같은 분자를 형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던 중 물의 화학식에 관한 결론을 내리는 데 유기 화학 분야에서 이용되던 분자 구조 모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유기 화학은 탄소를 기본으로 하는 유기 화합물의 구조나 특성 등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화학자들은 유기 화합물을 연구하면서 유기 물질들의 조성과 구조의 유사성으로부터 유형 이론을 제시했다. 유형 이론은 1839년에 프랑스의 화학자 뒤마가 제안하고 그의 제자였던 제라르가 발전시킨 이론이다. 유형 이론에서는 분자 구조의 기본 유형으로 다음의 네 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위의 [물 유형]을 보면 산소 원자 하나를 중심으로 그 왼쪽에 수소 원자 둘이 결합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는 돌턴의 'HO'가 아닌 아보가드로가 제안한 'H₂O'에 해당하는 구조 [A]이다. 물 유형을 이와 같이 구조화할 경우, 에탄올(C₂H₅OH)이나 아세트산(CH₃COOH)과 같이 물 유형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화합물의 구조를 일관성 있게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860년 국제 화학자 회의에서 칸니차로는 아보가드로 가설을 받아들일 경우, 원자량과 화학식 사이의 관계가 합리적으로 설명될 뿐만 아니라 원자량과 분자량에 관한 일관된 체계를 세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그의 주장이 수용되어 물의 화학 반응식은 '2H₂+O₂ → 2H₂O'로 공식화되었다.

26

8048-013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어떤 현상을 최초로 설명한 이론을 소개하고 그 의의를 평가하고 있다.
- ②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서로 다른 이론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고 있다.
- ③ 어떤 현상과 관련된 이론들이 발전된 과정을 통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④ 어떤 현상과 관련된 여러 이론을 절충하여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어떤 현상과 상반된 다른 현상을 소개하고 이를 비교하여 분석하고 있다.

27

8048-0132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보기

- ㄱ. 돌턴은 수소와 산소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물은 이원자 화합물이라 생각했다.
- ㄴ. 게이뤼삭은 서로 다른 기체가 만나 새로운 기체를 만들 때 반응 기체와 생성 기체의 부피비는 항상 1:1:2가 된다고 주장했다.
- ㄷ. 아보가드로는 같은 종류의 기체라도 온도와 압력의 변화에 따라 같은 부피에서 분자의 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 ㄹ. 유형 이론에서는 복잡한 분자 구조를 몇 가지 간단한 구조로 유형화하여 나타내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8

8048-0133

[A]와 관련하여 <보기>의 설명을 참고할 때, [물 유형]을 이용하여 설명할 수 없는 화합물은? [3점]

보기

유형 이론은 물질을 구성하는 분자들이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구성되는지를 연구함으로써 복잡한 분자들의 구조를 구조적으로 파악하는 이론이다. 유형 이론에 따르면 특정 유형을 가진 화합물의 일부분을 다른 물질로 치환함으로써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위의 물 유형에서 'H' 하나를 빼고 대신 'C₂H₅'로 치환하면 'C₂H₅+H+O'가 되므로 결국 'C₂H₅OH'인 에탄올이 된다. 이때 원자들의 배열 순서는 화학 구조에 따라 바뀌기도 한다. 화학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여러 유기물의 구조를 기본 유형을 이용하여 규칙화하려 했다.

- ① 황화 수소(H₂S)는 'O' 한 개를 'S'로 치환하여 만들 수 있겠군.
- ② 과산화 수소(H₂O₂)는 'H' 한 개를 'O'로 치환하여 만들 수 있겠군.
- ③ 수산화 칼륨(KOH)은 'H' 한 개를 'K'로 치환하여 만들 수 있겠군.
- ④ 아산화 질소(N₂O)는 'H' 두 개를 'N'으로 치환하여 만들 수 있겠군.
- ⑤ 수산화 나트륨(NaOH)은 'H' 한 개를 'Na'로 치환하여 만들 수 있겠군.



29

8048-0134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같은 부피에 들어 있는 입자의 수가 같다면, 산소 원자와 수소 원자의 크기도 같아야 하기 때문이다.
- ② 같은 부피에 들어 있는 입자의 수가 같다면, 산소 원자가 둘로 쪼개져야만 수증기 2부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 ③ 같은 부피에 들어 있는 입자의 수가 같다면, 두 종류의 기체가 결합하여 생성된 기체가 한 종류일 수 없기 때문이다.
- ④ 같은 부피에 들어 있는 입자의 수가 같다면,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가 결합하는 부피비가 정수비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 ⑤ 같은 부피에 들어 있는 입자의 수가 같다면, 수소 기체 2부피와 산소 기체 1부피가 결합한 수증기는 3부피여야 하기 때문이다.

30

8048-0135

윗글의 '베르셀리우스'의 주장과 <보기>를 비교하여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원자는 양전하를 가진 핵과 음전하를 가진 전자가 전기적 균형을 이루어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에 있다. 그리고 핵 주위에는 일정 거리를 두고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겹의 껍질이 있는데, 전자가 가장 바깥 껍질인 최외각 껍질을 채우면 원자는 안정된 상태가 된다. 만일 전자가 남거나 모자라는 원자들은 전자를 잃거나 얻어 양전하나 음전하를 띤 이온이 되므로써 전기적 인력에 의해 화학 결합이 일어난다. 그런데 최외각 껍질에 전자를 채우는 것은 원자들끼리 전자를 공유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 최외각 껍질에 전자가 모자라는 원자끼리 전자를 공유하여 결합하면 두 원자 모두 최외각 껍질에 전자를 채워 보다 안정된 결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는 화학 결합을 원자들이 보다 안정된 상태가 되려는 경향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① '베르셀리우스'의 주장과 달리 <보기>에 따르면 원자 자체에는 양전하와 음전하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
- ② '베르셀리우스'의 주장과 달리 <보기>에 따르면 같은 원자라도 부족한 전자를 공유하면 결합할 수 있다.
- ③ '베르셀리우스'의 주장과 달리 <보기>에 따르면 원자는 전자를 잃거나 얻음으로써 전기적 성질을 갖게 된다.
- ④ <보기>와 달리 '베르셀리우스'에 따르면 화학 결합은 핵과 전자 사이의 전기적 인력에 의해 생긴다.
- ⑤ <보기>와 달리 '베르셀리우스'에 따르면 수소 원자는 음전하를 띤 원자와만 화학 결합이 가능하다.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풍. 내게는 낯설기 짝이 없는 단어였지만 며칠 동안에 나는 그 말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그 실체를 온몸에 느끼게 되었다. '규칙적인 생활 제일주의'가 맨 먼저 나를 휘감은 이 집의 가풍이었다.

아침 여섯 시에 기상. (그러나 나의 경우는 자발적인 기상 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차를 끓여 가지고 손수 들고 와서 나를 깨우고 그 차를 마시게 하고 내가 무안함에 가슴을 두근거리며 황급히 옷을 주워 입으면 아침 산보를 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식구들은 심지어 세 살 난 어린애마저도 그 규칙을 지키고 있는 모양이었다.) 아침 식사. 출근 혹은 등교. 할아버지도 어느 회사에 중역으로 나가고 있었으므로 집에 남는 건 할머니와 며느리, 어린애와 식모, 그리고 노곤한 몸을 주체하지 못하는 나뿐이었다. 그동안 나는 오전 열 시경에 [A] 며느리와 할머니가 돌리는 미싱 소리를 쫓 듣게 되고, 열두 시경에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을 듣고, 오후 네 시엔 '엘리제를 위하여'를 듣게 된다. 오후 여섯 시 반까지는 모든 집안의 식구가 집에 와 있어야 하고 저녁 식사. 식사가 끝나면 십여 분 동안 잡담. 그게 끝나면 모두 자기 방으로 가서 공부. 그리고 식모가 보리차가 든 주전자와 컵을 준비해서 대청마루 가운데 있는 탁자 위에 놓는 달그락 소리가 나면 그때 시간은 열 시 오륙 분 전. 그 소리가 그치면 여러 방의 문이 열리고 식구들이 모두 나와서 물 한 컵씩을 마시고 '안녕히 주무십시오'를 한차례 돌리고 잠자리로 들어간다.

세상에 이런 생활 태도도 있었나 하고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식구 중 누구 한 사람 얼굴에 그늘이 있는 사람은 없었다. 나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하던 세계에 온 것이었다. 동대문이 가까운 창신동 그 빈민가의 내가 들었던 집의 식구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정식(正式)의 생활.

내가 간혹 이 양옥의 식구들의 얼굴을 생각해 보려 할 때면, 물론 대하는 시간이 적었던 탓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차라리 야마 낮잠에서 깨어났을 때 내가 지금 있는 방에 대해서 생소감을 느끼던 그런 알 수 없는 이유로써 ㉡나는 이 집 식구들의 얼굴을 뒀어 누르고 보다 명료하게 떠오르는 창신동 식구들의 얼굴 때문에 적지 않게 괴로워했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창신동 빈민가의 식구들 중에는 막노동자인 서씨가 있다. 어느 날 밤 서 씨는 자는 '나'를 깨워 동대문으로 데리고 간다. 그곳에서 그는 동대문 성벽의 돌을 들어 올리는 모습을 '나'에게 보여 준다.

서 씨는 역사(力士)였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까지 아무에게도 들려주지 않았다는 서 씨의 얘기를 들었다.



그는 중국인의 남자와 한국인의 여자 사이에서 난 혼혈아였다. 그의 선조들은 대대로 중국에서 이름 있는 역사들이었다. 족보를 보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장수(將帥)가 있다고 했다. 그네들이 가졌던 힘, 그것이 그들의 존재 이유였고 유일한 유물이었던 모양이었다. 그 무형의 재산은 가보(家寶)로서 후손에게 전해졌다. 그것으로써 그들은 세상을 평안하게 할 수 있었고 자신들의 영광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서 씨에 와서는 그 힘이 재산이 될 수는 없었다. ㉠이제 와서 그 힘은 서 씨로 하여금 공사장에서 남보다 약간 더 많은 보수를 받게 하는 기능밖에 가질 수 없게 된 것이다. 결국 서 씨는 그 약간 더 많은 보수를 거절하기로 했다. 남만큼만 벽돌을 날랐고 남만큼만 땅을 팠다. 선조의 영광은 그렇게 하여 보존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서 씨는 아무도 다니지 않는 한밤중을 택하여 동대문의 성벽에서 그 힘이 유지되고 있음을 명부(冥府)의 선조들에게 알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대낮에 서 씨가, 동대문의 바로 곁에 서서 행인들 중 누구 한 사람도 성벽을 이루고 있는 돌 한 개의 위치 변화에 관심을 보내지 않고 지나다닐 때, 옮겨진 돌을 바라보고 빙그레 웃고 있는 그의 모습을 나는 쉽게 상상할 수 있었다. 그것이 서 씨가 간직하고 있는 자기였고 내가 그와 접촉하면 할수록 빨려 들어갈 수 있었던 깊이였던 모양이었다.

㉡그 집-그들 많은 얼굴들이 살던 그 집에서 나는 나 자신 속에서 꿈틀거리는 안주(安住)에의 동경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의 헤어날 길 없는 생활 속에 내가 힘쓸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 무서웠기 때문이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그곳을 꼭 떠나서 이 한결같은 곡이 한결같은 악기로 연주되는 집에 오자 그것은 건디어 낼 수 없는 권태와 이 집에 대한 혐오증으로 형태를 바꾸는 것이었다. ㉢나란 놈은 아마 알 수 없는 놈인가 보다.

- 김승옥, 「역사(力士)」

31

8048-0136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서 씨를 알게 될수록 그에게 끌림을 느끼게 되었다.
- ② 서 씨는 사람들이 자신이 지닌 능력을 알아봐 주기를 바랐다.
- ③ '나'는 창신동 판잣집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봐 두려워했다.
- ④ 서 씨는 숨겨 두었던 자신의 내력에 대해 '나'에게 알려 주었다.
- ⑤ 서 씨의 가문은 대대로 중국에서 유명한 장수가 나온 집안이었다.

32

8048-0137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양옥집 사람들의 일과를 시간의 순서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
- ② 같은 시간에 반복되는 소리를 통해 양옥집에서의 일상적인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 ③ 명사로 끝나는 문장을 나열함으로써 규칙적으로 되풀이되는 일상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이야기 속의 서술자에 의해 양옥집 사람들의 생각이나 감정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 ⑤ 괄호 안의 진술에는 양옥집 사람들과 구별되는 '나'의 상황과 그들에 대한 '나'의 추측이 나타나 있다.

33

8048-0138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나'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양옥집 사람들의 규칙적인 생활을 의미하고 있다.
- ② ㉡: '나'가 양옥집에서 살면서도 창신동 빈민가 식구들을 떠올리며 갈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 전통적으로 가치 있게 여겨졌던 것이 현대 사회로 오면서 더 이상 예전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함을 의미한다.
- ④ ㉣: 할아버지의 엄격한 규칙으로 인해 자유롭게 살지 못했던 양옥집을 의미한다.
- ⑤ ㉣: '나'가 자신의 모순된 심리를 납득하기 어려워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34

8048-0139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역사」에서는 창신동 빈민가와 양옥집이라는 두 공간이 대립을 이루면서 자유와 생명력을 잃고 정해진 규칙에 얽매어 살아가야 하는 현대인의 기계적인 일상생활을 보여 주고 있다. 창신동의 빈민가는 가난하고 무질서하지만 본원적 생명력이 넘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인간적인 세계를 나타낸다. 특히 그곳에 사는 서 씨는 현대의 비인간적인 삶에 맞서 과거의 영광을 보존하며 본원적 생명력을 간직하고 있는 인물이다. 이와 달리 양옥집이라는 공간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 질서 있게 움직이지만, 이는 개인의 자유가 억압된 공간이라는 점에서 비인간적인 세계를 나타낸다. 이 두 공간 사이에서 ‘나’는 창신동에서의 생활을 그리워하지만 한편으로 양옥집에서의 생활에 대해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 ① ‘규칙적인 생활 제일주의’란 정해진 규칙에 의해 살아가는 현대인의 기계적인 일상생활을 의미하는 것이겠군.
- ② 서 씨는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힘을 이용하여 공사장 벽돌을 나르고 땅을 파면서 과거 선조들의 영광을 보존하고 있군.
- ③ ‘서 씨가 간직하고 있는 자기’란 현대인의 비인간적인 삶에 대비되는, 본원적 생명력을 간직한 자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④ ‘나’가 양옥집에서의 생활에 대해 보이는 이중적인 모습은 ‘안주에의 동경’과 ‘이 집에 대한 혐오증’이라 할 수 있겠군.
- ⑤ ‘한결같은 곡이 한결같은 악기로 연주되는 집’은 개인의 자유가 억압되고 규칙만이 강요되는 비인간적인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겠군.

[35~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구별을 다 짓고 나서 심 소저를 가져 할 때, 무릉촌 장 승상 덕 부인이 그제야 이 말을 듣고 급히 시비를 보내어 심 소저를 부르기에, 소저가 시비를 따라가니 승상 부인이 문밖에 내달아 소저의 손을 잡고 울며 말했다.

“네 이 무상한 사람아. 나는 너를 자식으로 알았는데 너는 나를 어미같이 알지를 않는구나. 쌀 삼백 석에 몸이 팔려 죽으리간다 하니 효성이 지극하다마는, 네가 살아 세상에 있어 하는 것만 같겠느냐? 나와 의논했더라면 진작 주선해 주었지. 쌀 삼백 석을 이제라도 내어 줄 것이니 뱃사람들 도로 주고 당치 않은 말 다시 말라.”

하시니 심 소저가 여쭙었다.

“당초에 말씀 못 드린 것을 이제야 후회한들 무엇하겠습니까? 또한 부모를 위해 공을 드릴 양이면 어찌 남의 명분 없는 재물을 바라며, 쌀 삼백 석을 도로 내어 주면 뱃사람들 일이 낭패이니 그도 또한 어렵고, 남에게 몸을 허락하여 약속을 정한 뒤에 다시 약속을 어기면 못난 사람들 하는 것이니,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하물며 값을 받고 몇 달이 지난 뒤에 차마 어찌 낫을 들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부인의 하늘 같은 은혜와 착하신 말씀은 저승으로 돌아가서 결코 보은하겠습니다.”

하고 눈물이 옷깃을 적시니, 부인이 다시 보니 엄숙한지라, 하릴없이 다시 말리지 못하고 놓지도 못했다. 심 소저가 울며 여쭙기를,

“부인은 전생에 나의 부모라. 어느 날에 다시 모시겠어요? 글한 수를 지어 정을 표하오니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부인이 반기어 종이와 붓을 내어 주니 붓을 들고 글을 쓸 제, 눈물이 비가 되어 점점이 떨어지니 송이송이 꽃이 되어 그림 족자였다. 안방에 걸고 보니 그 글은 이러했다.

사람의 죽고 사는 게 한 꿈속이니
정에 끌려 어찌 굳이 눈물을 흘리라마는
세간에 가장 애끓는 곳이 있으니
풀 돋는 강남에 사람이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라.

부인이 재삼 붙들다가 글 짓는 것을 보시고,
“너는 과연 세상 사람 아니로다. 글은 진실로 선녀로다. 분명 인간의 인연이 다하여 상제께서 부르시니 네 어이 피할쏘냐. 내 또한 이 운에 맞추어 글을 지으리라.”

하고 글을 써 주었다.

- [A] 난데없는 비바람 어둔 밤에 불어오니
- 아름다운 꽃 날려서 누 집 문에 떨어지나
- 인간의 귀양살이 하늘이 정하셔서
- 아비와 자식으로 하여금 정을 끊게 하는구나.





심 소저가 그 글을 품에 품고 눈물로 이별하니 차마 보지 못할 지경이었다. 심청이 돌아와서 아버지께 하직하니 심 봉사가 붙들고 뒥굴며 괴로워하여,

“네가 날 죽이고 가지 그저는 못 가리라. 날 데리고 가리라. 네 혼자는 못 가리라.”

심청이 아버지를 위로하기를,

“부자간 천륜을 끊고 싶어 끊사오며 죽고 싶어 죽겠습니 까마는, 액운이 막혀 있고 생사가 때가 있어 하느님이 하신 일이니 한탄한들 어찌하겠어요? 인정으로 할 양이면 떠날 날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저의 아버지를 동네 사람에게 붙들게 하고 뱃사람들을 따라갈 제, 소리 내어 울며 치마끈 졸라매고 치마폭 거듬거

[B] 듦 안고 흐트러진 머리털은 두 귀밑에 늘어지고 비같이 흐르는 눈물 옷깃을 적신다. 앞터지며 자빠지며 붙들어 나갈 제 건넌집 바라보며,

“아무개네 큰아가, 바느질 수놓기를 뉘와 함께 하려느냐, 작년 오월 단옷날에 그네 뛰고 놀던 일을 네가 행여 생각하느냐? 아무개네 작은아가, 금년 칠월 칠석 밤에 함께 기원하자더니 이제는 허사로다. 언제나 다시 보랴. 너희는 팔자 좋아 양친 모시고 잘 있거라.”

동네 남녀노소 없이 눈이 붓도록 서로 붙들고 울다가 마을 어귀에서 서로 손을 놓고 헤어졌다.

그때 하느님이 아시던지 밝은 해는 어디 가고 어두침침한 구름이 자욱하며 청산이 찡그리는 듯, 강물 소리 흐느끼고, 휘늘어져 곱던 꽃은 시들어 제빛을 잃은 듯하고, 하늘거리는 버들가지도 졸듯이 휘늘어졌고, 복사꽃은 다정하여 슬픈 듯이 피어 있다.

‘문노라 저 피꼬리, 뉘를 이별하였기에 벼를 불러 울어 대고, 뜻밖에 두견이는 피를 내어 우는구나. 달 밝은 너른 산을 어디 두고 애끊는 슬픈 소리 울어서 보내느냐. 네 아무리 가지 위에서 가지 말라 울건마는 값을 받고 팔린 몸이 다시 어찌 돌아올까.’ 바람에 날린 꽃이 얼굴에 와 부딪치니 꽃을 들고 바라보며,

“봄바람이 사람 마음 알아주지 못한다면 무슨 까닭으로 지는 꽃을 보내리오. 한무제 수양 공주 매화 비녀 있건마는 죽으러 가는 몸이 뉘를 위해 단장하리. 앞산에 지는 꽃이 지고 싶어 지라마는 마지못한 일이러니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리오.”

- 작자 미상, 「심청전」

35

8048-0140

윗글에 나타난 ‘심청’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장 승상 댁 부인을 다시 모시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아쉬워했다.
- ② 다른 사람에게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겼다.
- ③ 장 승상 댁 부인에게 자신이 입은 은혜를 잊지 않겠노라고 다짐했다.
- ④ 자신의 처지와 대비되는 자연물을 바라보며 부러운 마음을 드러내었다.
- ⑤ 명분이 없이 남의 재물로 아버지를 위해 공을 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

36

8048-0141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심 봉사가 귀양을 가게 되어 고생하게 될 것임을 예고한다.
- ② 심 봉사와 장 승상 댁 부인 사이의 갈등이 촉발되는 계기가 된다.
- ③ 심청과 심 봉사 사이의 갈등이 원만히 해소되는 실마리를 마련한다.
- ④ 장 승상 댁 부인과 심청이 천상에서 모녀 관계였음을 암시한다.
- ⑤ 심청이 겪는 일은 천상의 뜻으로 계획된 것이라는 인식을 드러낸다.



37

8048-0142

[B]와 <보기>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내 아이야, 이 말이 어인 말이나? 부처님을 속이고 억만 번 지옥에 들어가서 천만년 나오지 못한다, 네 어찌 차마 이런 의견을 내서 나를 급히 죽게 하느냐? 네가 있어도 서러운 일이 많은데 하물며 나 혼자 누구를 의지하여 살란 말이나? 너를 따라서 함께 죽자꾸나.”

하고 몸을 부딪치며 소리쳐 우니, 동네 사람이 청의 부녀가 갑자기 통곡하다가 기절하는 모양을 보고, 그 곡절을 물어 알고 저마다 불쌍히 여겨,

“자로(子路)가 쌀을 저다 부모를 봉양하고, 맹종(孟宗)이 눈 속에서 죽순 나물을 구해다 어머니께 드린 일이 천고에 드문 일이라 하지마는, 자기 몸을 죽을 곳에 팔아서 아비의 소원을 이뤘단 말은 듣지 못했으니, 열세 살 아녀자의 효성과 의기는 옛사람이 미칠 바 아니구나. 가련하다, 심청이 칠 팔 세부터 고생이 극심하여 우리가 늘 부귀와 빈천이 고르지 못함을 탄식했는데, 이제 수증 원귀가 될 줄을 어찌 알았으리오.”

하고 청을 위하여 슬퍼하는 사람이 많았다.

- 작자 미상, 「심청전」

- ① [B]는 <보기>와 달리, 뱃사람을 따라가는 심청의 외양을 묘사하여 심청의 가련함을 부각하고 있다.
- ② [B]는 <보기>와 달리, 심청이 심 봉사에게 하는 말을 삽입하여 심 봉사에 대한 심청의 위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보기>는 [B]와 달리, 역사 속 인물과 심청의 행위를 비교하여 심청의 지극한 효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보기>는 [B]와 달리, 심청에 대한 주변인의 반응을 서술하여 심청의 안타까운 처지를 나타내고 있다.
- ⑤ [B]와 <보기>는 모두 자신만을 남겨 두고 심청이 떠나지 못하게 하려는 심 봉사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38~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똑똑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윈 설움에 잠길 테요
 오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덤뎀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삼백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울네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 산에나 올라서서

바다를 보라
 사면(四面)에 백열 리*, 창파(滄波) 중에
 객선(客船)만 동동…… 떠나간다

명산대찰(名山大刹)이 그 어디메냐
 향안, 향탑*, 대그릇에
 석양이 산머리 넘어가고
 사면에 백열 리, 물소리라

“젊어서 꽃 같은 오늘날로
 금의(錦衣)로 환고향(還故鄕) 하옵소서.”
 객선만 동동…… 떠나간다
 사면에 백열 리, 나 어찌 갈까

㉢까투리도 산속에 새끼 치고
 타관만리(他官萬里)에 와 있노라고
 산중(山中)만 바라보며 목메인다
 눈물이 앞을 가리운다고

들에나 내려오면
 치어다보라
 해님과 달님이 넘나든 고개
 ㉣구름만 첩첩…… 떠돌아 간다

- 김소월, 「집 생각」

*백열 리: 백십 리.
 *향안(香案), 향탑(香榻): 제사 때에 향로나 그릇을 올려놓는 상.



(다) 이번 겨울은 소대한 추위를 모두 천안 삼거리 마른 능수버들 아래 맞았다. 일이 있어 충청도 진천으로 가던 날에 모두 소대한 이 들었던 것이다. 나는 공고로이 타관 길에서 이런 이름 있는 날의 추위를 떨어 가며 절기라는 것의 신묘한 것을 두고두고 생각하였다. 며칠 내 마치 봄날같이 땅이 슬슬 녹이고 바람이 폭석하니 불다가도 저녁결이나 밤사이 날새가 갑자기 차지는가 하면 으레 다음 날은 대한이 으등등해서 왔다. 그동안만 해도 제법 봄비가 꽃나물 내음새를 피우며 나리고 땅이 녹녹하니 밭*이 돌고 해서 이제는 분명히 봄인가고 했는데 간밤 또 갑자기 바람결이 차지고 눈발이 날리고 하더니 아침은 또 쫄쫄하니 날새가 매찬데 아니나 다를까 입춘이 온 것이다. 나는 실상 해보다는 달이 좋고 아침보다 저녁이 좋은 것같이 양력보다는 음력이 좋은데 생각하면 오고 가는 절기며 들고 나는 밀물이 우리 생활과 얼마나 신비롭게 얽혀 있는가. 절기가 틀 적마다 나는 고향의 하늘과 땅과 사람과 눈과 비와 바람과 꽃들을 생각하는데 자연이 시골이 아름답듯이 세월도 시골이 아름답고 사람의 생활도 절대로 시골이 아름다울 것 같다.

이번 입춘이 먼 산 너머서 강 너머서 오는 때 우리 시골서는 이런 이야기가 왔다. 우리 고향서 제일가는 부자가 요즈음 저 혼자 밤에 남포를 아래서 술을 먹다가 남포가 터지면서 불이 옷에 닿아 그만 타 죽었다 했다. 평소 인색하기로 소문난 사람인데 술을 먹되 누구와 같이 동무해 먹지 않았고 전등이나 켜 놓은 것이지 남포를 켜다가 변을 당했다고 하는 시비가 이야기에 덧붙여 왔다. 또 하나는 역시 우리 고향에서 한때는 남의 셋방살이를 하며 좁쌀도 되술로 말아먹고 지나던 사람이 금광에 돈을 모으고 얼마 전에는 자가용 자동차를 사들였다는 이야긴데 여기에는 또 어떤 분풀이 같은 기운이 말끝에 채이었다.

오는 입춘과 같이 이런 이야기를 맞으며 나는 생각했다. 내 시골서는 요즈음 누구나 다들 입이 빠치거나 숨쉴까 써 가며 이 이야기들을 할 것인데 그럴 때마다 돈과 목숨과 생활과 경우와 운수 같은 것에 대해서 킁킁하니 분명치 못한 생각들이 때로는 출제 때로는 더욱더 그들의 마음의 바람벽에 바람결같이 부딪치고 지나가는 즈음에 입춘이 마을 앞벌에 마을 어귀에 마을 안에 마을의 대문간들에 온 것이라고.

이런 고향에서는 이번 입춘에도 몇 번이나 '보리 연자 갔다가 얼어 죽었다'는 말을 하며 입춘이 지나도 추위는 가지 않는다고 할 것인가. 해도 입춘이 넘으면 양지바른 둔덕에는 머리칼풀의 속 움이 트는 것이다. 그러기에 입춘만 들면 한겨울 내 친했던 창애*와 썰매와 발구*며 꿩, 노루, 토끼에 멧돼지며 매, 멧새, 출출이 들과 떠나는 것이 섭섭해서 소년의 마음은 흐리었던 것이다. 높고 무섭고 쓸쓸하고 슬픈 겨울이나 그래도 가깝고 정답고 흥성흥성해서 좋은 겨울이 그만 입춘이 와서 가 버리는 것이라고 소년은 슬펐던 것이다.

그런 소년도 이제는 어느덧 가고 외투와 장갑과 마스크를 벗기

가 가까워서 서글픈 마음이 없듯이 겨울이 가서 슬퍼하는 슬픔도 가 버렸다. 입춘이 오기 전에 벌써 내 썰매도 노루도 멧새도 다 가 버린 것이다.

입춘이 드는 날 나는 공일 무휴(空日無休)*의 오피스에 지각을 하는 길에서 겨울이 가는 것을 섭섭히 여기지 못했으나 봄이 오는 것을 즐거이 여기지는 않았다. 봄의 그 현란한 낭만과 미 앞에 내 육체와 정신이 얼마나 약하고 가난할 것인가. 입춘이 와서 봄이 오면 나는 어쩐지 까닭 모를 패부(敗負)의 읍울(悵鬱)*을 느끼어야 할 것을 생각하면 나는 차라리 입춘이 없는 세월 속에 있고 싶다.

- 백석, 「입춘(立春)」

*밭: 아지랑이.

*창애: 짐승을 피어서 잡는 틀의 하나.

*발구: 마소에 메워 물건을 실어 나르는 큰 썰매.

*공일 무휴: 쉬는 날이지만 쉬지 못함.

*패부의 읍울: 패배에 대한 근심으로 마음이 답답함.

38

8048-0143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암담한 시대 현실을 부각하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계절적 배경으로부터 유발된 화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색채어의 대비를 통해 작품 전체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④ (가)~(다)는 모두 상승과 하강의 대립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⑤ (가)~(다)는 모두 처음 제시된 내용을 변형하여 마지막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구조적 안정감을 드러내고 있다.

39

8048-0144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모란이 떨어져 버린 상황을 봄을 여윈 것으로 여기며 화자의 서러운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② ㉡: 모란이 다시 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을 제시하여 화자의 섭섭한 정감의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 ③ ㉢: 모란과 관련하여 봄에 대한 화자의 복잡한 심정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④ ㉣: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타관에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는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⑤ ㉤: 중의적 소재인 '구름'을 활용하여 고향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를 함께 드러내고 있다.



40

8048-0145

(나)의 화자(A)와 (다)의 글쓴이(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의 '사면에 백열 리, 나 어찌 갈까'를 통해 A가 고향에 쉽게 돌아갈 수 있는 처지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다)의 '우리 시골서는 이런 이야기가 왔다.'를 통해 B가 다른 사람에게서 고향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다)의 '그런 소년도 이제는 어느덧 가고', '겨울이 가서 슬퍼하는 슬픔도 가 버렸다.'를 통해 B가 성인이 되어 유년 시절 고향에서 가졌던 순수함을 상실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나)의 '객선'과 (다)의 '금광'을 통해 고향 땅을 떠난 A와 B가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 ⑤ (나)의 '환고향'과 관련한 말의 인용과 (다)의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는 A와 B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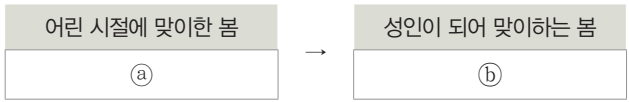
41

8048-0146

<보기>의 ㉠와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다)의 '봄'은 글쓴이의 관점에 따라 '어린 시절에 맞이한 봄'과 '성인이 되어 맞이하는 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① ㉠의 경우, 글쓴이는 입춘이 왔으니 겨울이 가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 ② ㉡의 경우, 글쓴이는 봄이 오는 것에 대해 즐거이 여기지는 않았다.
- ③ ㉡의 경우, 글쓴이는 봄이 오지 않는 세월 속에 있는 것이 낯졌다는 생각을 했다.
- ④ ㉠의 경우와 달리 ㉡의 경우, 글쓴이는 겨울이 가는 것에 대해 슬퍼하지 않게 되었다.
- ⑤ ㉠와 ㉡의 경우 모두, 글쓴이는 봄에 비해 겨울에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 많다고 여겼다.

[42~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시행(詩行)을 종결하는 방식은 시의 내용을 단락 짓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중요한 표지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특징은 「정읍사(井邑詞)」와 「제망매가(祭亡妹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정읍사」는 의미가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여음구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의미가 있는 부분은 시행을 종결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부탁-소망', '의문-근심', '부탁-근심'과 같이 3개의 쌍으로 다시 나눌 수 있다. 여기에서 두 번째 쌍과 세 번째 쌍은 공통으로 화자의 '근심'이라는 정서 상태를 드러내고 있지만, 그 결에는 차이가 있다. 이는 두 번째 쌍에서의 '근심'과 세 번째 쌍에서의 '근심'의 의미를 해석하는 중심에 '즌 덕'이 있기 때문이다. 이 시어는 '시적 대상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곳'과 '시적 대상이 비행(飛行)을 저지를 수 있는 곳'이라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전자로 해석할 경우, 두 번째 쌍의 '근심'은 시적 대상이 위해를 당할까 봐 염려하는 화자의 상황과 관련되고, 세 번째 쌍에서의 '근심'은 시적 대상이 가는 곳에 날이 저물까 염려하는 화자의 상황과 관련된다. 반면 후자로 해석할 경우, 두 번째 쌍의 '근심'은 시적 대상이 비행(飛行)을 저지르려까 봐 염려하는 화자의 상황과 관련되고, 세 번째 쌍에서의 '근심'은 자신에 대한 시적 대상의 마음이 사라질까 염려하는 화자의 상황과 관련된다.

한편 「제망매가」의 종결 방식은 화자가 동일한 정서의 목소리를 연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읍사」와는 다르다. 「제망매가는 종결 방식의 측면에서 본다면 크게 '의문-탄식-의지'로 구분된다. 마지막 구의 '기드리고다'에 드러난 '의지'는 '가느 낯고'와 '모드온더'와 같은 '의문'과 '탄식'을 갖게 한 근원적 문제에 대해 답을 찾은 것과 관련이 있다. 이 작품의 화자는 누이의 죽음에 대한 개인적 '의문'에서 출발하여, 그 '의문'을 인간 존재의 숙명에 연결하며 '탄식'한 다음, 시상을 집약하여 '미타찰'과 '도'를 통해 종교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지향을 보인다. 다만 여기서 '미타찰'과 '도'를 보편적인 개념으로 언급하는 데에 머물지 않고, '나'의 '의지'를 드러내며 애초에 제기되었던 화자 개인의 문제로 돌아온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즉 누이의 죽음, 나아가 모든 인연에 대한 화자의 슬픔을 시행의 종결 방식을 통해 한결같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 「제망매가」의 특징이다.

(나) 들하 노피곰 도드샤

어기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어기야 어강도리 / 아으 다롱디리
 겨재* 너러신고요
 어기야 즌 덕를 드덕올세라
 어기야 어강도리 / 어느이다 노코시라



㉠어귀야 내 가는 뒤 점그를세라
어귀야 어강도리 / 아으 다룽디리

- 작자 미상, 「정읍사」

*저재: 시장.

(다) 생사로논

㉠에 이샤매 저히고*

㉡나는 가느다 말스도

몬다 닛고 가느닛고

어느 그술 ㉢이른 브르매

이에 저에 ㉣떠딜 닙다이

흐든 가재 나고 / 가는 곧 모드온더

㉤아으 미타찰애 맛보올* 내

㉥도 닷가 기드리고다

- 월명사, 「제망매가」

*저히고: 두렵게 하고.

*맛보올: 만날.

42

8048-0147

(가)를 바탕으로 (나)와 (다)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나)의 화자가 근심하는 이유를 시적 대상의 안위나 비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즌 뒤’의 중의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② (나)의 ‘노코시라’는 ‘너러신고요’와 달리 화자가 시적 대상에게 부탁하는 상황을 드러낸 중결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③ (다)의 ‘기드리고다’는 ‘가느닛고’와 ‘모드온더’에 드러난 의문과 탄식의 원인을 극복한 것과 연관된다고 할 수 있겠군.
- ④ (다)의 ‘가느닛고’는 누이의 죽음과 관련한 의문을 존재의 숙명으로 귀결해 버린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군.
- ⑤ (다)의 ‘도 닷가 기드리고다’는 화자의 인식이 누이의 죽음에 대한 개인의 문제로 돌아왔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군.

43

8048-0148

㉠와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내용을 전환하며 시적 반전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 ② ㉠은 공간 이동을 암시하며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는 역할을 한다.
- ③ ㉡는 금지의 뜻을 드러내며 리듬을 맞추는 역할을 한다.
- ④ ㉡는 영탄의 정서를 드러내며 시상을 집약하는 역할을 한다.
- ⑤ ㉡는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며 주제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44

8048-0149

<보기>는 (나)에 대한 발표의 일부이다. 이를 근거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저는 정읍사의 배경 설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품 제목에 쓰인 정읍은 전주의 속현입니다. 이 고을 사람이 행상을 떠나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의 아내는 산 위 바위에 올라가 먼 곳을 바라보며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걱정하며 남편을 간절히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아내는 남편을 기다리던 언덕에서 망부석이 되었지요.”

- ① ‘노피곰’, ‘머리곰’에서 남편의 부재에서 비롯된 아내의 간절한 바람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비취오시라’에서 남편의 무사 귀가를 바라는 아내의 마음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저재 너러신고요’에서 아내는 남편이 시장에 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추측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드딕을세라’에서 망부석이 되어서라도 남편을 지키겠다는 아내의 희생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점그를세라’에서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 남편에 대한 아내의 걱정 어린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5

8048-0150

(다)의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생사의 길로 나누어지는 세상에서 죽음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화자가 누이에게 한 하직 인사를 인용하며 저승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누이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음을 비유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 하강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누이의 죽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 누이의 죽음에 대한 번민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구도적(求道的)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EBS*i* 



EBS 수능완성 국어영역 국어

실전편

**실전 모의고사
3회**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01~03] 다음은 ‘로봇세 부과’에 대해 학생들이 토론한 내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최근 4차 산업 혁명 시대로 접어들면서, 로봇을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사람이나 기업에 로봇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찬반 양측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1: 저희는 로봇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로봇 기술의 발달로 인해 우리 생활이 편리해진 부분도 있지만, 그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로봇을 통해 이익을 얻는 사람이나 기업에 로봇세를 부과하여, 로봇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재교육하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A]

반대 1: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면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사람들은 그 기술로 인해 자신들의 일자리가 위협을 받지 않을까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생산이 증가하고 소득이 늘어나면 오히려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게 됩니다. 미국 보스턴 대학의 경제학자 ○○○은 20세기 중반 이전까지 섬유 산업에서 급속히 진행된 자동화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자동화로 인해 일부 제조업 등의 일자리가 줄어들었지만 산업 전반으로 볼 때는 경기가 활성화되고 오히려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B]

반대 2: 그동안 기술이 발전해 오면서 수많은 기계가 발명되었고, 그것이 수많은 일자리를 대체했는데 갑자기 로봇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떨어집니다. 로봇세가 도입되면 결국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그 부담을 감당해야 하므로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그로 인해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로봇에 세금을 부과한다면 로봇 기술의 발달을 가로막는 원인이 되어 결과적으로 로봇 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게 됩니다. [C]

찬성 2: 로봇세 부과가 로봇 기술의 발달을 막을 것이라는 전망은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로봇의 기술력을 향상한다는 점에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로봇세를 감수하고 산업 현장에서 로봇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로봇이 인간의 능력으로 대체할 수 없는 고도의 기술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로봇세를 부과하게 되면 사용자는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봇세 부과는 무분별한 로봇 사용으로 인한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D]

찬성 1: 그뿐만 아니라 로봇세를 부과하게 되면, 로봇의 확산에 대한 많은 사람의 반감과 우려를 완화해 줄 것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사회적으로 반감이 조성되는 것은 로봇 산업의 발달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로봇을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위협적인 존재로 볼 것이 아니라, 인간을 더욱 편리하고 여유롭게 해 주는 조력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분야에 세금을 부과하여 로봇으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삶의 질을 고양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 1: 로봇세를 부과하면 로봇 기술의 도입이 신중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찬성 측의 주장은,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 내린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최대 목표는 생산 비용을 줄여 이윤을 많이 남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봇을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사람이나 기업에 로봇세를 부과하는 일은 곧 그들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이는 로봇의 사용 자체를 가로막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업들은 세금 부담으로 인해 아예 로봇세를 도입하지 않는 나라로 공장을 옮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 2: 최근 우리나라에서 로봇을 산업 현장에 활용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통계 자료를 보시면 우리나라의 경우만 봐도 작년 기준 총 4만여 대의 로봇을 산업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숫자입니다. 그간 어떤 산업 분야가 발전하게 되면 거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E] 보조금을 지원하며 혁신을 유도해 온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인류의 혁신과 기술의 진보에 세금을 매길 수 없습니다. 만약 산업 혁명 때 대량 실업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방직기나 증기 기관에 세금을 매겼더라면 과연 지금과 같은 기술의 발달과 문명의 진보가 가능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사회자: 네, 지금까지 찬성과 반대 측의 의견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①



01

8048-0151

[A]~[E]에 나타난 토론 참여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로봇의 사용으로 인한 긍정적인 면을 인정하면서 이로 인해 야기될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 ② [B]: 해당 분야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 ③ [C]: 인과 관계에 의해 예측된 결과를 제시하며 상대방의 주장이 갖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④ [D]: 반대 측의 주장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며 이를 비판하고 있다.
- ⑤ [E]: 통계 자료의 수치를 제시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02

8048-0152

<보기>의 ㉠~㉥ 중,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먼저 로봇세 부과에 대해 찬성 측에서는 ㉠로봇세를 로봇 기술의 발달로 인해 야기되는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과 ㉡로봇세 도입이 로봇 기술 확산에 대한 사람들의 반감과 공포심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반대 측에서는 ㉢로봇세를 부과하면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여 경기가 침체될 우려가 있다는 점과 ㉣로봇을 개발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서 로봇 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반대 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로봇세를 도입하면 기업의 세금 부담이 증가되어 로봇 사용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로봇세가 없는 해외로 공장을 이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03

8048-0153

위 토론에서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로봇 기술의 발달로 인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고용이 증가하는 직업군과 감소하는 직업군을 다음과 같이 예상했다.

(단위: 명)

고용이 증가하는 직업군		고용이 감소하는 직업군	
재무	49만 2,000	사무·행정	-475만 9,000
경영	41만 6,000	제조·생산	-160만 9,000
컴퓨터·수학	40만 5,000	건설·채굴	-49만 7,000
건축·엔지니어	33만 3,000	예술·스포츠	-15만 1,000
영업	30만 3,000	법조	-10만 9,000
교육·훈련	6만 6,000	시설·정비	-4만
계	201만 5,000	계	-716만 5,000

- ① 찬성 측에서 로봇 기술의 발달로 인해 현재에 없는 새로운 직업군들이 나타나게 될 것임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 ② 찬성 측에서 로봇 기술의 발달로 인해 야기된 각종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함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 ③ 찬성 측에서 로봇 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무·행정’, ‘제조·생산’의 고용 인원이 크게 줄어든다는 점을 들어 로봇세 부과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 ④ 반대 측에서 로봇 기술의 발달로 인해 경기가 활성화되면 오히려 산업 전반의 고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 ⑤ 반대 측에서 로봇으로 대체 가능한 일자리는 소수일 뿐이며 고용이 증가하는 직업군과 감소하는 직업군의 총인원에도 별 차이가 없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04~07] (가)는 수업 시간에 교사와 학생들이 나눈 대화의 일부이고, (나)는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 신문에 경제학 원리를 소개한 글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교사: 지난 시간에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원리를 학습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가격이 어떤 방식으로 형성된다고 했죠? (학생 1을 지목하며) 한번 말해 보세요.

학생 1: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가격이 형성됩니다.

교사: 대답을 잘했어요. ㉡그러면 이때의 가격을 무엇이라고 배웠죠?

학생들: (다 함께) 균형 가격입니다.

교사: 맞아요. 그런데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양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에요. ㉢만일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 생각해 볼까요?

학생 2: (좀 생각을 하다가) 만일 재화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비해 공급되는 재화의 양이 부족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재화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니까 가격이 상승할 것 같습니다.

교사: 맞아요. 그럼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학생 2: 재화의 공급량이 수요량에 비해 많아지면 남은 재화가 생기게 되니까 당연히 재화의 가치도 하락할 것 같아요. 이 경우 반대로 재화의 가격은 내려갈 것 같습니다.

교사: 예, 정확한 분석이었어요.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좀 전 학생의 대답과 관련하여, 수요량과 공급량에 따라 가격이 왜 달라지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판서한다.) 주말에 선생님이 ○○산을 등반했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산 밑에서 1,000원에 판매되는 생수가 산 정상에서 2,000원에 판매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생수를 사 먹고 있는 것이예요. ㉣여러분은 산꼭대기에서 생수를 비싸게 파는 것이 경제학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나요?

학생 3: 산꼭대기까지 생수를 운반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산 밑보다 비싼 가격에 생수를 파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됩니다.

학생 4: 아무리 산꼭대기라도 동일한 재화가 다른 가격에 팔리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5: 산꼭대기에서는 갈증 때문에 생수를 마시고자 하는 욕구가 커져 생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합니다. 수요가 증가하면 당연히 가격이 오르게 되므로 산꼭대기에서 생수를 비싼 값에 파는 것은 경제학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네, 의견이 다양하네요. 이것을 경제학적으로 설명하면 등산으로 인해 갈증을 느낀 등산객들은 생수에 대한 욕구가 커져 수요량이 증가하는 데 비해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생수를 팔고자 하는 공급자의 수는 줄어들어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아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되어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예요. 동일한 재화는 어떤 시장에서든지 가격이 같다는 '일물일가 법칙'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와 유사한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나) 초고

“왜 산 정상에 가면 생수의 값이 비싸질까요?”

'일물일가 법칙'이라는 경제학 용어가 있다. 말 그대로 동일한 물건은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된다는 뜻이다. ㉠시장에서 수요의 양과 공급의 양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균형 가격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동일한 물건이 서로 다른 가격에 판매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산 아래에서 1,000원에 판매되는 생수가 산 정상에서 2,000원에 판매되기도 하고, 휴가철과 같은 숙박 시설의 요금이 올라가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동일한 상품의 가격이 이처럼 다른 것인가?

경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상기시켜 보자.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제품의 가격은 제품에 대한 수요량과 공급량에 의해서 결정된다. 만일 어떤 재화를 사려는 사람들의 수가 공급된 재화의 양보다 많아지면 재화의 가격은 올라가고, 반대로 공급된 재화의 양이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보다 많아지면 재화의 가격은 내려간다. 이를 위의 경우에 적용하면, 산 아래에서 1,000원에 거래되던 생수가 산 정상에서 2,000원에 거래된다는 것은, 산 정상에서 생수를 사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가 생수의 공급량에 비해 많기 때문에 ㉢상승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산 정상이라는 공간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재화의 이동이 자유롭게 못하기 때문에 생수 가격을 올리더라도 생수의 공급량이 갑자기 늘어나지 않는다. 등산을 하면 더위와 갈증으로 인해 생수를 마시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하는 것도 수요량을 ㉣늘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마찬가지로 휴가철 비행기 표의 가격이나 숙박 시설의 요금이 갑자기 오르는 것도 이에 대한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기 때문이다. 반대로 겨울철 ㉤에어컨같은 계절 가전을 대대적으로 세일하는 이유도 공급량에 비해 수요량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04

8048-0154

(가)에 나타난 '교사'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전 시간의 수업 내용을 언급하면서 수업을 시작하고 있다.
- ② 학생의 대답에 긍정적으로 반응한 뒤, 이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을 덧붙이고 있다.
- ③ 학생의 대답과 관련하여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이 무엇인지 제시하고 있다.
- ④ 수업 내용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호기심을 유도하고 있다.
- ⑤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비교한 뒤 이를 통합하는 새로운 이문을 소개하고 있다.

05

8048-0155

<보기>를 참고할 때, (가)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수업 장면에서 교사의 질문은 크게 폐쇄적 질문과 개방적 질문으로 나뉜다. 폐쇄적 질문은 대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으로, 주로 전 시간에 배운 학습 내용을 확인하거나 용어의 개념 등을 묻거나 새로운 학습 내용을 도입하기 위한 질문에 해당한다. 반면에 개방적 질문은 대답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다양하고 심도 있는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질문으로, 확산적 질문이나 평가적 질문이 있다. 확산적 질문은 학생들의 사고력을 신장하기 위한 질문으로,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지식을 적용하거나 분석, 혹은 종합하는 사고 과정을 거치게 된다. 평가적 질문은 주로 가치의 문제를 다루는 질문으로, 학생들의 판단이나 평가 등을 요구한다.

- ① ㉠: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라는 점에서 폐쇄적 질문에 해당한다.
- ② ㉡: 경제학 용어의 개념과 관련된 질문이라는 점에서 폐쇄적 질문에 해당한다.
- ③ ㉢: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석적 사고가 요구되는 질문이라는 점에서 확산적 질문에 해당한다.
- ④ ㉣: 제시된 사례에 대한 학생들의 주관적 판단을 요구하는 질문이라는 점에서 평가적 질문에 해당한다.
- ⑤ ㉤: 새로운 학습 내용을 수업에 도입하기 위한 질문이라는 점에서 폐쇄적 질문에 해당한다.

06

8048-0156

<보기>의 ㉡~㉤ 중, (나)에 반영된 내용이 아닌 것은?

보기

이번 교내 신문에는 경제 수업 시간에 배운 '일물일가 법칙'을 토대로 생활 속에 필요한 경제학 상식을 소개하는 기사를 작성해야겠어. 먼저 ㉠ '일물일가 법칙'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략적인 개념을 제시한 뒤 ㉡ 학생들에게 익숙한 구체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일물일가 법칙'을 설명해야겠어. 그런 다음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생활 속 사례를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 ㉢ 특히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사례와 함께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다른 사례도 제시해야겠어. 그런 다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 우선 경제 수업 시간에 배운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일반적인 원리를 제시해야겠어. ㉤ 그런 뒤 앞서 제시된 사례에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를 분석하여 제시하면 재미있는 글이 될 것 같아.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07

8048-0157

(나)의 ㉠~㉤를 고쳐 쓴 것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글의 흐름을 고려하여 앞 문장과 순서를 바꾸어야겠어.
- ② ㉡: 잘못된 사동 표현에 해당하므로 '상기해'로 고쳐 써야겠어.
- ③ ㉢: 필요한 문장 성분이 빠져 있으므로 '가격이'를 첨가해야겠어.
- ④ ㉣: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단어이므로 '늘리는'으로 수정해야겠어.
- ⑤ ㉤: 띄어쓰기가 잘못되어 있으므로 '에어컨 같은'으로 띄어 써야겠어.



[08~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얼마 전 지리 선생님이 모둠별 답사 보고서 과제를 내 주셨다. 우리 모둠은 답사 보고서 과제로 수업 시간에 배운 석호를 다루기로 하고 기획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우리 지역과 이웃한 고성군에 있는 현존 국내 최대의 석호인 ‘화진포’에 대한 보고서를 쓰기로 하고, ㉠구체적인 답사 계획을 수립했다. 우리 모둠은 이 계획에 따라 답사를 진행하고 보고서의 초고를 작성했다. 그리고 ㉡검토 회의에서 초고의 내용을 보완했다.

(나) 답사 보고서의 초고

주제: 화진포의 특성과 다양한 가치

작성자: 3학년 3반 제5조

1. 답사 관련 사전 조사

답사 계획을 수립할 때 화진포 주변과 화진포 해수욕장의 특징을 답사 전에 인터넷이나 참고 문헌 등을 통해 미리 조사하기로 했다. 그래서 화진포는 동해에 잇닿은 호수로 주위는 울창한 소나무 숲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다는 점과, 호수 바로 옆의 해변은 수심이 얇고 물이 맑으며 모래가 고와 해수욕장으로 안성맞춤이라는 점을 알고 답사를 할 수 있었다.

2. 답사의 동기

현존 국내 최대의 석호인 고성군의 화진포는 석호의 지리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다. 또 인근에는 석호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 주는 생태 박물관과 현대사의 역사적 인물들과 관련된 별장들이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화진포를 방문하면 생태 박물관에서 석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고, 주변의 유명한 별장들을 둘러보며 역사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했다.

3. 답사 일정

- (1) 답사 기간: 2018년 ◇월 ◇일 오후 1시 30분~오후 5시 30분
- (2) 교통편: 학교 앞에서 □□번 버스를 타고 이동했다.
- (3) 계획에 따른 답사 순서
 - 1) 생태 박물관에 들러 석호의 형성 과정과 화진포 전설 등에 대한 전시 자료를 관람했다.
 - 2) 문화 해설사와 함께 유명한 별장들을 둘러보며 전문적인 설명을 들었다.
 - 3) 화진포와 화진포 해수욕장에서 바라본 주변 경치를 사진으로 촬영했다.

(4) 보고서 역할 분담

역할	담당자
답사 보고서 작성	윤○○
답사 시 사진 촬영	이○○
답사 관련 사전 조사 및 답사 후 추가 자료 수집	하○○, 문○○

4. 사진 자료



화진포 호수



생태 박물관 외관

5. 답사의 의의

답사 계획에 따라 먼저 화진포를 답사하고 생태 박물관을 관람함으로써 그간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했던 석호의 생태계, 형성 과정, 특성 등을 배울 수 있었다. 다음으로 문화 해설사와 함께 유명한 별장들을 방문하여 화진포가 6·25 전쟁 이전에는 북한 땅이었으나, 휴전 이후에는 남한 땅이 되어 이곳에서 현대사의 역사적 인물들과 관련된 별장들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설명을 들었다. 별장에서 화진포 해수욕장으로 이동할 때 문화 해설사는 이곳에서 북쪽으로 몇십 리만 가면 분단의 체험 학습장인 통일 전망대와 휴전선이 있다고 안내하셨는데, 그 말을 듣고 난 후에 비로소 남북 분단의 현실을 실감할 수 있었다. 그리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안보의 필요성도 느끼게 되었다. 화진포는 교통이 편리해서 방문객들의 접근 편의성이 높으며 수려한 자연과 볼거리가 잘 어우러진 곳이므로, ㉢전국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 관광 명소가 된다면 지리적 특성을 활용하여 더 많은 경제적인 가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08

8048-0158

(나)로 볼 때, (가)의 ㉠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방법
- ② 화진포 해수욕장의 특징 파악
- ③ 답사를 위한 공간적 이동 순서
- ④ 안보 의식을 키우기 위한 계획
- ⑤ 방문할 박물관과 역사 유적 선정



09

8048-0159

(가)의 ㉠에서 <보기 1>을 고려하여 (나)를 보완하려고 한다. 그 방안으로 적절한 의견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보기 1

- 최고의 문제점
 - 사진 자료가 부족함.
 - 과제와 관련한 지리 용어 설명이 빠짐.
 - 전망과 관련한 적절한 사례가 제시되지 않음.
 - 의견을 뒷받침하는 타당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음.
 - 답사 과정과 느낀 점이 뒤섞여 있어서 이 둘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

보기 2

- ㄱ. 화진포라는 지명의 유래와 관련한 전설을 소개하여 답사 장소에 대한 설명을 채우면 좋겠어.
- ㄴ. 생태 박물관 내부의 전시물이나 별장들과 관련한 시각 자료가 없네. 자료를 추가하면 좋겠어.
- ㄷ. 답사의 의의를 답사 과정과 활동 후 감상으로 나누어 구성하여 모듬의 구성원들이 인상 깊게 느낀 점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했으면 좋겠어.
- ㄹ. 화진포가 방문객들의 접근 편의성이 높은 장소라고 언급했는데, 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화진포 인근의 다른 절경과 유적들을 소개하면 좋겠어.
- ㅁ. 화진포가 전국적인 관광 명소가 된다면 지리적 특성을 활용하여 더 많은 경제적인 가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 귀감이 되는 장소를 소개하면 좋겠어.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ㄱ, ㄹ, ㅁ
- ④ ㄴ, ㄷ, ㅁ ⑤ ㄴ, ㄹ, ㅁ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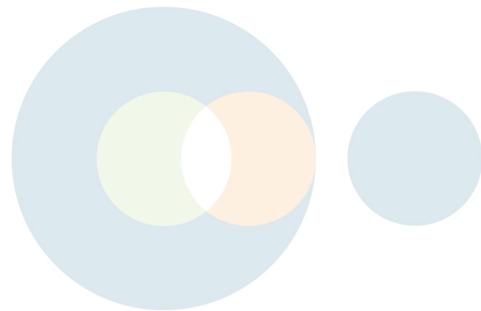
8048-0160

학생들이 (나)의 ㉡를 목적으로 하는 홍보 문구를 작성하고자 할 때, <조건>에 따라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건

- (나)에 드러난 화진포와 관련된 정보만을 활용할 것
- 대구법과 비유적 표현을 사용할 것

- ① 고성군의 신비로운 장막을 걷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화진포 생태 박물관을 찾으세요.
- ② 생태 체험도 하고 분단의 흔적도 살필 수 있습니다. 화진포 관광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 ③ 공부와 취미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현존 국내 최대의 석호! 호수의 넉넉한 품에 안겨 보십시오.
- ④ 송림으로 둘러싸인 호수, 명사(明沙)가 깔려 있는 해변! 지리도 배우고 역사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의 보고(寶庫)로 오십시오.
- ⑤ 우렁찬 바다와 순수한 산맥의 정기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선계(仙界)를 걸으면서 잠시 일상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11

8048-0161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끼리 묶은 것은? [3점]

보기

용언의 어간과 어미의 예사소리가 만나면 어미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기도 한다. 이때 된소리되지만 일어나기도 하지만 다른 음운 변동이 된소리되기와 함께 일어날 수도 있다. 다른 음운 변동이 함께 일어나는 경우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되기 두 변동만 일어나는 경우와 ㉡된소리되기와 자음군 단순화 두 변동만 일어나는 경우와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 자음군 단순화 세 변동이 모두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	㉡	㉢
①	입---고	없---고	앞---지
②	빨---고	뺨---고	옴---고
③	빗---지	읽---지	삶---고
④	엎---지	닭---지	할---지
⑤	짓---지	없---지	짧---고

12

8048-0162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나랏 말싸미 申屠國귀에 달아 文文字중와로 서르 스뭇디 아니홀씩 이런 전츠로 어린 百穡姓성이 니르고져 흙 ㉡배 이셔도 ㅁ츨내 제 ㉢쁘들 시러 퍼디 ㅁ훈흙 노미 하니라 내 이를 爲嬴ㅎ야 어엿비 너겨 새로 스물여덥 字중를 ㅁㅇ노니 사름 마다 ㅎ여 수비 니겨 날로 ㉣뿌메 便便安한리 ㅎ고져 흙 ㉤쓰르미니라

- 『훈민정음언해』

[현대어 풀이]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라. 내 이를 가엾게 여겨 새로 스물여덥 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사용함에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 ① ㉠: '나랏'은 명사에 관형격 조사가 결합되어 있는 관형어이다.
- ② ㉡: '배'는 명사에 주격 조사가 결합되어 있는 주어이다.
- ③ ㉢: '쁘들'은 명사에 목적격 조사가 결합되어 있는 목적어이다.
- ④ ㉣: '뿌메'는 명사에 부사격 조사가 결합되어 있는 부사어이다.
- ⑤ ㉤: '쓰르미니라'는 명사에 서술격 조사가 결합되어 있는 서술어이다.



13

8048-0163

<보기>의 접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01 「접사」

「1」(몇몇 형용사, 동사 어간 뒤에 붙어)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 길이/떡이.

「2」(몇몇 명사와 동사 어간의 결합형 뒤에 붙어) ‘사람’, ‘사물’, ‘일’의 뜻을 더하고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 때밀이/재떨이.

「3」(몇몇 명사, 어근, 의성·의태어 뒤에 붙어) ‘사람’ 또는 ‘사물’의 뜻을 더하고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 멍청이/딸랑이.

-이-02 「접사」

「1」(일부 동사 어간 뒤에 붙어) ‘사동’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 보이다/기울이다.

「2」(일부 동사 어간 뒤에 붙어) ‘피동’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 깎이다/놓이다.

「3」(몇몇 형용사 어간 뒤에 붙어) ‘사동’의 뜻을 더하고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 ㉥ 높다/깊이다.

-이03 「접사」

「1」(일부 형용사 어근 뒤에 붙어) 부사를 만드는 접미사. ㉦ 깊숙이/많이.

「2」(일부 1음절 명사의 반복 구성 뒤에 붙어) 부사를 만드는 접미사. ㉧ 집집이/나날이.

- ① ‘-이01」2」의 예로 ‘젓먹이’를 추가할 수 있어.
- ② ‘-이03」2」의 예로 ‘다달이’를 추가할 수 있어.
- ③ 세 접사 모두 둘 이상의 품사에 결합할 수 있는 접사야.
- ④ ‘-이-02’는 ‘-이01’, ‘-이03’과는 달리 뒤에 다른 파생 접사가 결합되어야만 해.
- ⑤ ‘-이01’은 명사 파생 접사이고, ‘-이-02’는 동사 파생 접사이며, ‘-이03’은 부사 파생 접사야.

14

8048-0164

<보기>의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자연의 세계에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있다. 하지만 언어의 세계에는 이 세 가지 시간 모두가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니다. 언어에 따라 이 중 일부가 없기도 하기 때문인데,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국어에는 미래 시제가 없다는 학설도 있다. 이 설은 국어에 ‘미래’를 일관성 있게 나타내어 주는 문법 요소가 없다는 것을 그 근거로 들고 있는데, ‘(㉠)’라는 문장은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어도 들어 있고 내용도 분명 미래이지만 우리가 흔히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라고 생각하는 ‘-겠-’ 등은 들어 있지 않다. 또 ‘(㉡)’라는 문장은 현재를 나타내는 부사어가 들어 있는 등 내용은 분명히 현재이지만 ‘-겠-’이 들어 있기도 하고, 심지어는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어가 있어 내용은 분명히 과거이지만 ‘-겠-’이 들어 있는 ‘(㉢)’라는 문장도 가능하다. 이 세 문장을 통해 우리는 ‘-겠-’이 미래를 일관성 있게 나타내어 주는 문법 요소라고 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면 ‘-겠-’의 기능은 무엇인가? 그것은 ‘(㉣)’라는 문장에서 볼 수 있듯이 추측을 나타내거나 ‘(㉤)’라는 문장에서 볼 수 있듯이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 주된 기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미래를 나타내는 기능은 이러한 추측이나 의지를 나타내는 것 외의 부차적 기능인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겠-’은 미래를 나타내는 문법 요소라고 하기 어렵고 일정하게 미래를 나타내는 다른 문법 요소를 찾을 수도 없어 우리 국어에는 미래 시제가 없다는 주장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 ① ㉠: 그는 내일 일본으로 떠난다.
- ② ㉡: 부산은 지금 춥겠다.
- ③ ㉢: 늦어도 어제는 고향에 소포가 도착했겠다.
- ④ ㉣: 아마도 조금만 더 기다리면 문이 열리겠군요.
- ⑤ ㉤: 곧 비가 오겠으니 실내로 들어가 주십시오.





15

8048-0165

〈보기〉의 설명을 바탕으로 밑줄 친 단어의 합성어 여부를 검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합성어는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로 나눌 수 있다. 통사적 합성어는 두 요소가 결합하는 방식이 구가 구성될 때와 같은 단어를 말하고, 비통사적 합성어는 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결합 방식을 보이는 단어를 말한다.

그런데 통사적 합성어는 구를 이룰 때와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지므로 구와의 구별이 어렵다. 동사로 국한할 경우, 통사적 합성어와 구를 구별하는 한 기준은 합성어도 단어이므로 ‘단어 내부에 다른 요소가 개입될 수 없다.’라는 단어 판별 기준을 여기에 적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뛰어서 나다’가 가능하지 않으므로 ‘뛰어나다’는 합성어이고, ‘깎아서 먹다’가 가능하므로 ‘깎아 먹다’는 구이다. 하지만 합성어 여부를 판별하는 다른 기준과 마찬가지로 이 기준도 절대적이지 않아 예외가 많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는 바르지 않은 표현임을 나타냄.

- ① 〈보기〉의 기준에 따르면 ‘책을 서가에 꽂아두었다.’에서의 ‘꽂아두다’는 합성어이다.
- ② 〈보기〉의 기준에 따르면 ‘침에 들어갈 배편을 알아보자.’에서의 ‘알아보다’는 합성어이다.
- ③ 〈보기〉의 기준에 따르면 ‘우리 할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에서의 ‘돌아가다’는 합성어이다.
- ④ 〈보기〉의 기준에 따르면 ‘이쪽에서 저쪽으로 한번 건너뛰어 보렴.’에서의 ‘건너뛰다’는 합성어이다.
- ⑤ 〈보기〉의 기준에 따르면 ‘이 의자는 자리만 잡아먹고 쓸모는 없다.’에서의 ‘잡아먹다’는 합성어이다.

[16~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예술 창작은 분명 예술가의 천재적 재능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예술가도 시대의 격랑에 흔들렸던 한 사람이다. 실제로 뛰어난 예술 작품들은 예외 없이 시대의 정신과 감수성을 훌륭하게 표현해 낸다. 헨델의 〈메시아〉는 신에 대한 찬미라는 오라토리오 형식을 빌려서 귀족에게 복속되지 않고 [A] 독립적인 삶을 구축해 나가던 18세기 영국 시민 계층을 찬양하고 있다. 그리고 파리 시민들의 세련된 여가 생활이 없었다면 드가의 발레리나 그림들이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처럼 예술과 역사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작품이 제작된 시대적 배경과 작품에 담긴 역사성을 이해하는 것은 작품 자체를 감상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16세기와 17세기 유럽 미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역사적 사건은 종교 개혁이었다. 1517년 루터가 면벌부 판매와 지나친 사치 등을 공격하는 95개조의 의견서를 교황에게 보내면서 시작된 종교 개혁으로 인해, 유럽은 종교 개혁에 반대하는 가톨릭과 찬성하는 프로테스탄트 진영으로 갈라졌다. 이탈리아 시민 계급의 사회적 성장과 왕족, 귀족, 성직자 등의 경제적 지원 아래 고대 그리스·로마 문화 속에서 모티프를 얻어 그 가치를 재현한 르네상스 미술은 종교 개혁으로 인한 교회의 분열과 30년 전쟁으로 대표되는 기나긴 전화 속에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인간을 찬양하며 생명력 있고 균형 잡힌 인체의 아름다움과 자연스러운 생동감을 조각과 그림에 적극적으로 표현한 르네상스의 고전적 균형미는 어느새 설 자리를 잃었던 것이다.

종교 개혁의 여파로 인해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진영의 화가들은 성격은 달랐으나 모두 위기 상황을 맞게 되었다. 종교 개혁 이후 가톨릭 진영의 화가들은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느낀 종교적 불안과 혼란스러움, 위기감을 예술에 반영한 ‘마니에리스모(Manierismo)’ 양식을 탄생시켰다. 가톨릭교회는 종교 개혁 이후 신앙의 이탈을 막기 위해 종교 재판과 검열을 공식화했으며, 화가들은 이에 환멸을 느끼고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음울한 세계관을 제시하거나 환상 속으로 도피했다. ㉠전성기의 르네상스는 올라오자마자 하산해야 하는 가파른 산등성이라는 빌플린의 말처럼, 마니에리스모의 도래는 루터가 면벌부 판매를 공격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에 발생했다. 르네상스적인 정연하고 온화한 분위기로 유명한 라파엘로조차 예수가 떠난 지상에서 불안과 어둠만이 인간들을 지배하게 된 그림을 그려 음울한 유럽의 운명을 암시했고, 심정적으로 프로테스탄트에 동조했으나 교황청에 고용되어 있던 미켈란젤로도 각 부분의 조화를 찾을 수 없고 절망과 공포가 넘치는 그림을 그려 예술가들이 겪어야 했던 내면적 분열의 양상을 드러냈다. 그리고 스페인의 엘 그레코는 종교 재판의 광풍 속에서 기독교 신앙을 환상적으로 처리하는 데 주력했다. 극도로 왜곡된 형태, 추상적이고 부자연스러운 공간



감 등을 표현한 그의 그림은 불안감과 비현실적 영감에 차 있는 마니에리스모의 특성을 잘 보여 준다.

종교 개혁 이후 프로테스탄트는 농민이 주장하는 평등을 외면하며 영주나 신봉 자본가의 편에 섰고, 이 때문에 프로테스탄트는 영주의 세력이 강한 독일 북부 지역이나 상업이 발달한 네덜란드 지역에서 신봉하게 되었다. 프로테스탄트는 예술을 통해 신앙을 유도하는 것을 금기로 여겼다. 이로 인해 중세 이래 가장 중요한 회화 양식이었던 종교화를 더 이상 그리지 못하게 된 화가들은 먹고살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장르를 개발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그래서 이들은 종교 개혁이 이루어진 지 한 세기가 채 지나지 않아 종교화의 배경 역할을 하던 정물들을 관심 대상으로 삼아 ㉠정물화를 탄생시켰다.

근면한 일상이 곧 천국에 가는 길이라고 가르쳤던 칼뱅파가 지배했던 17세기 네덜란드에서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구약 성경의 구절이 정물화 탄생의 단서를 제공했다. 네덜란드의 정물화는 사물의 모습을 정밀하게 재현하는 동시에 그 사물들 사이에 해골을 ㉡끼워 넣음으로써 인생의 무상함과



스테인베이크, <정물, 바니타스>

종교의 엄중함을 강조했다. 이런 정물화를 ‘바니타스(Vanitas)’라고 한다. 스테인베이크의 <정물, 바니타스>는 구약의 가르침을 압축함과 동시에 근면하고 청빈한 생활을 추구했던 네덜란드인들의 가치관을 드러냈다. 그림 속의 비어 있는 조각비와 불이 꺼진 램프는 영혼이 떠나 껍질만 남은 육체를 상징한다. 그리고 책, 악기, 술병은 즐거움을 주는 대상을 대표하는데, 해골 주변에 놓여 있음으로써 그 어떤 세속적인 즐거움도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림 왼편에서 홀연히 비치는 빛은 종교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도. 바니타스의 도입으로 인해 네덜란드 화가들은 사소하고 시시한 주제를 그림으로 그린다는 비난으로부터 스스로를 옹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정물화라는 새로운 장르가 발전하면서 식탁, 무기, 꽃 등 또 다른 사물을 그린 작품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16

8048-0166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르네상스 미술은 당대 사회 지도층의 지원을 받았다.
- ② 종교 개혁은 새로운 미술 양식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 ③ 가톨릭 진영의 화가들은 예술을 도구화하는 것을 비판했다.
- ④ ‘바니타스’는 17세기 네덜란드 화가들의 자기 옹호 수단이 되었다.
- ⑤ ‘마니에리스모’ 양식은 검열이 공식화된 시대 상황 속에서 현실 도피 경향을 띠게 되었다.

17

8048-0167

<보기>의 ㄱ~ㄹ을 [A]에 활용할 때, 그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 ㄱ. 예술 작품은 많은 것을 담고 있으며, 그중에는 우리가 발굴해야 할 금맥이 있다.
- ㄴ. 예술이란 당시의 상황을 비추는 거울이다. 우리는 거울 속을 잘 들여다보아야 한다.
- ㄷ. 예술이란 특별한 원과 같다. 소수의 사람만이 재능을 갖고 그 원 안에서 태어나고, 대부분의 사람은 원의 바깥에서 태어난다.
- ㄹ. 예술가는 수족관 안에서 헤엄치는 물고기에 빗낼 수 있다. 물고기는 자신이 물속에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지만, 수족관 밖의 사람은 물고기의 세상이 물속이라는 것을 안다.

- ① ㄱ을 통해 오라토리오가 쇠퇴한 원인을 부각할 수 있다.
- ② ㄴ을 통해 예술 작품에 담긴 시대의 정신과 역사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애써야 함을 강조할 수 있다.
- ③ ㄷ을 통해 예술 창작이 천재적 재능과 거리가 먼 후천적 노력의 산물임을 뒷받침할 수 있다.
- ④ ㄹ을 통해 예술 작품의 감상자가 예술가보다 작품에 담긴 역사성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힐 수 있다.
- ⑤ ㄹ을 통해 예술가가 당대의 시대적 배경에서 벗어나 인류의 역사 전체를 통시적으로 작품에 반영해야 함을 제시할 수 있다.



18

8048-0168

윗글을 바탕으로 ㉠과 관련된 상황을 이해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르네상스와 마니에리스모의 두 양식이 겹치는 시기가 있었다.
- ② 르네상스는 경제적 지원이 없으면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취약성을 지니고 있었다.
- ③ 르네상스는 루터가 르네상스의 복고적 성격을 공격함과 동시에 쇠퇴하기 시작했다.
- ④ 르네상스는 예술적 성취를 이룬 순간 향유 계층이 확장되어 그 본질적 속성을 잃었다.
- ⑤ 르네상스 미술의 주체가 가톨릭을 신봉하는 화가에서 프로테스탄트를 신봉하는 화가로 빠르게 대체되었다.

20

8048-017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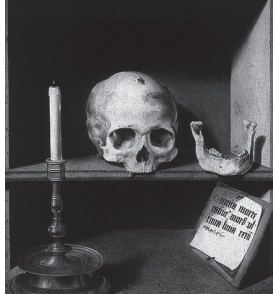
보기

(가)



엘 그레코가 그린 <목동들의 경배>는 마니에리스모 양식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이 그림은 추상적이고 부자연스러운 공간감을 통해 육체의 중량감을 잃은 인물들이 환상의 세계로 도피하는 느낌을 전달하고 있다.

(나)



바르텔 브루인 1세가 그린 <바니타스>에는 해골, 이가 붙은 턱뼈, 불이 꺼진 촛대, 글귀 등이 나타난다. 그림 속에 제시된 글귀는 '모든 것은 죽음과 함께 썩고, 죽음은 사물의 본성이다.'라는 의미이다.

19

8048-0169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장르가 발전하면서 좀 더 다양한 소재를 다루게 되었다.
- ② 프로테스탄트 진영에 속한 화가들의 생계 수단이 되었다.
- ③ 종교화에서 부수적 위치에 놓였던 소재를 중심 소재로 다루었다.
- ④ 청렴한 생활과 신분적 평등 관계를 강조하는 규범의 역할을 했다.
- ⑤ 네덜란드에서는 바람직한 삶의 방식과 종교적 교훈을 전달하려는 의도를 담은 그림이 등장했다.

- ① (가)는 르네상스 미술과는 달리, 왜곡된 형태나 부자연스러운 공간감으로 인해 균형미와 온화한 분위기를 느낄 수 없겠군.
- ② (나)는 스테인베이크의 <정물, 바니타스>와는 달리, 인생의 무상함을 문자를 통해서도 전달하고 있군.
- ③ (가)와 (나)는 모두 기독교 신앙과의 관련성을 찾을 수 있겠군.
- ④ (가)와 (나)는 모두 루터가 면벌부 판매를 공격한 후 그려진 작품이겠군.
- ⑤ (가)와 (나)는 모두 종교 개혁 이후 신앙의 이탈을 막으려는 움직임에 영향을 받은 것이로군.



21

8048-0171

문맥상 ㉔과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입(移入)함으로써
- ② 도입(導入)함으로써
- ③ 편입(編入)함으로써
- ④ 잠입(潛入)함으로써
- ⑤ 삽입(插入)함으로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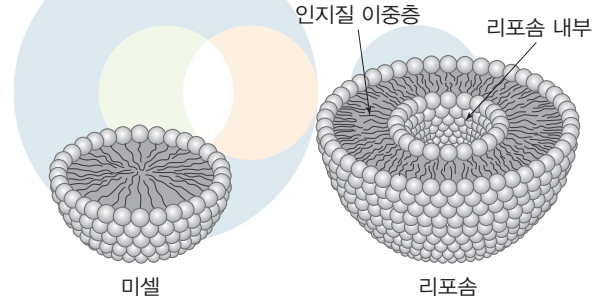
EBSi

EBSi

EBSi

[22~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계면 활성제를 물속에 넣으면 기름을 끌어당기는 소수성을 띤 꼬리 부분은 물을 피하기 위해 안쪽으로 모이고 물을 끌어당기는 친수성을 띤 머리 부분은 바깥쪽으로 배열되는데, 이러한 집합체를 ‘미셀’이라고 한다. 계면 활성제를 기름 속에 넣으면 머리 부분과 꼬리 부분의 위치가 바뀐 ‘역미셀’을 형성한다.



각종 생체막을 ㉔이루는 중요 성분의 하나인 인지질도 이와 마찬가지로 친수성을 띤 머리 부분인 인산과 소수성을 띤 꼬리 부분인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계면 활성제와는 달리 꼬리가 두 개 달려 있다. 물속에 이 인지질을 넣으면 친수성을 띤 인산은 바깥쪽으로 배열되어 물과 접하게 되고, 소수성을 띤 지방산은 안쪽에서 서로 마주 보며 배열되어 이중의 층 모양을 ㉕이루면서 구형 또는 타원형의 인공 구조물을 만들게 되는데, 이것을 리포솜이라고 한다.

과학자들은 이 리포솜을 이용하면 약물과 같은 물질을 인체 내부의 표적 세포 내로 안전하게 넣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리포솜은 구형 또는 타원형의 다양한 모양과 크기를 가지는 주머니 형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액체로 되어 있는 리포솜 내부의 공간에 각종 약물을 담아 전달할 수 있는 것이다. 리포솜에 약물을 담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먼저 인지질을 용기에 담긴 유기 용매*에 녹인 후 유기 용매를 휘발시키면 용기 벽면에 얇은 인지질막이 만들어진다. 그런 다음 이 용기에 수용액*을 넣고 흔들어 주면 인지질막의 인지질들이 수용액 안에서 흩어져 비교적 균일한 크기의 리포솜이 ㉖이루어진다. 인지질을 유기 용매에 녹일 때 기름에 잘 녹는 지용성 약물을 같이 넣으면 이 지용성 물질이 인지질 이중층에 끼어 들어가거나 막을 형성한 인지질에 결합하면서 지용성 약물을 함유한 리포솜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수용액에다 물에 잘 녹는 수용성 약물을 넣어 주면 수용성 약물이 리포솜 내부로 들어가게 된다. 이로써 수용성과 지용성 약물을 모두 넣을 수 있는 리포솜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리포솜이 소기의 목적을 ㉗이루기 위해서는 약물을 담은 리포솜이 표적 세포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 ㉘약물 전달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리포솜을 이용한 약물 전달에 있어 가장 일반적인 투여법은 정맥 주사이다. 이를 위해 리포



숨은 맥관* 내의 혈장 단백질의 공격에 잘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그리고 원하는 부위에 약물이 잘 축적될 수 있도록 체내 순환 시간이 길어져야 한다. 또한 원하는 부위가 혈관 내부라면 상관이 없지만 혈관 내부가 아니라 다른 조직이라면 내피 모세관을 거쳐 원하는 조직 내로 확산될 수 있도록 리포솜의 크기가 100nm 이하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약물이 원하는 부위에 정확하게 작용하기 위해서는 특정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원하는 부위에서 내포물을 방출하는 자극 반응형 리포솜을 개발해야 한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 열이나 빛과 같은 외부 자극에 의해 리포솜막이 열리도록 하는 방법과 효소의 방출 등 생물학적 자극에 의해 리포솜막이 열리도록 하는 방법들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 *유기 용매: 고체, 기체, 액체를 녹일 수 있는 액체 유기 화합물. 메탄올, 벤젠 따위가 있음.
- *수용액: 용매가 물인 용액. 물 분자는 극성이 크므로 여러 극성 물질을 녹일 수 따위가 있음.
- *맥관: 동물의 몸속에서 액체가 흐르는 관으로 혈관과 림프관을 이룸.

22

8048-0172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인지질은 인산과 지방산으로 이루어진 물질이다.
- ② 수용액에 담긴 인지질막을 흔들어 주면 인공 구조물인 리포솜이 만들어진다.
- ③ 계면 활성제는 친수성을 지닌 부분과 소수성을 지닌 부분을 함께 가지고 있다.
- ④ 계면 활성제를 기름에 넣으면 머리 부분이 안쪽으로 배열되는 역미셀이 형성된다.
- ⑤ 리포솜에 수용성 약물과 지용성 약물을 모두 담으려면 유기 용매에 두 약물을 함께 녹인다.

23

8048-0173

㉠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요소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내피 모세관을 통과할 수 있도록 리포솜의 크기 조절
- ② 정맥 내 단백질의 공격에 잘 대응하는 리포솜의 설계
- ③ 체내에서 장시간 동안 순환할 수 있는 리포솜의 설계
- ④ 표적 세포에 작용한 약물의 배출을 촉진하는 리포솜의 개발
- ⑤ 특정한 자극에만 리포솜막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의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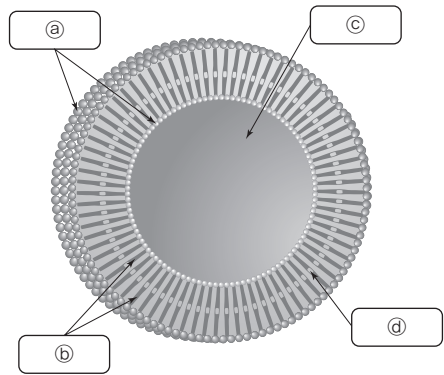
24

8048-017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아래 그림은 수용성 물질인 비타민 C와 지용성 물질인 레시틴을 리포솜에 넣어 인체 내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그린 모식도이다.



- ① ㉠은 수용액에서 친수성을 띤 부분이겠군.
- ② ㉠은 원하는 부위에 도달할 때까지 약물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겠군.
- ③ ㉠은 수용액보다 유기 용매 안에서 더 안정적인 성격을 띠므로 리포솜은 유기 용매에 넣어 보관하는 것이 좋겠군.
- ④ 비타민 C는 ㉠ 부분에 담겨 인체 내로 이동하겠군.
- ⑤ 레시틴은 인지질막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 부분에 끼어 들어하겠군.



25

8048-0175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구성(構成)하는
- ② ㉡: 형성(形成)하면서
- ③ ㉢: 생성(生成)된다
- ④ ㉣: 달성(達成)하기
- ⑤ ㉤: 조성(助成)하기

[26~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서양 철학에서는 언어의 본질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를 제기해 왔다. 그렇지만 언어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언어의 본질을 의사소통의 수단이나 도구로만 간주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이와 같은 도구적 언어관에서 탈피하고 언어 연구의 새로운 토대를 마련한 사람이 바로 흄볼트이다. 그는 ‘에네르게이아’, ‘세계관’, ‘내적 언어 형식’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언어를 정신 활동으로 규정했다.

흄볼트는 언어를 이미 만들어진 산물인 ‘에르곤’이 아니라 생산 활동, 즉 ㉠‘에네르게이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에네르게이아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용한 철학적 개념으로 ‘무엇인가를 실현하는 활동’이라는 의미이다. 언어는 매 순간 끊임없이 생산되고 사라지는 것이므로 문자를 통해 언어를 보존하는 것은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생명력을 잃은 미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언어는 문법과 어휘 목록 속에 수록되어 있는 정적인 체계가 아니라, 세계를 내적인 정신 활동을 통해 사상의 표현으로 바꾸어 놓는 동적인 활동인 것이다. 그는 언어를 에르곤으로 보는 정적인 언어관과 언어를 에네르게이아로 보는 동적인 언어관을 대비시켰다. 그리고 언어의 고유한 본질은 실제적인 언어의 생산 활동에 있음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언어를 죽어 있는 산물로 간주하는 정적인 언어관을 극복하고, 언어를 끊임없는 생산 활동으로 간주하는 동적인 언어관을 철저히 부각했다.

☐**흄볼트의 언어 이론**에는 ‘세계관’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언어적 세계관을 일컫는 말이다. 흄볼트는 “언어의 차이는 소리나 기호의 차이가 아니라 세계관 자체의 차이이다.”라고 주장한다. 즉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사물을 표시하는 기호로서의 언어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즉 언어적 세계관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언어를 습득한다는 것은 그 언어가 지니는 세계관을 새롭게 획득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일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흄볼트는 언어의 차이를 단지 표현상의 차이로만 간주하는 기존의 견해는 언어 연구의 장애가 된다고 비판하면서, 언어는 단순한 표현이나 이해의 수단이 아니라 화자의 세계관이 투영되어 있는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흄볼트는 어린아이가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언어에 담긴 세계관도 무의식적으로 습득된다고 보았다. 즉 어린아이는 모국어를 습득할 때, 단어나 문법 구조만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불식간에 언어를 통해 중재된 세계관도 함께 습득하게 된다. 이렇게 성장한 개인은 모국어라는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고하게 되므로, 인간은 결코 자신의 모국어에서 벗어나 세상에 대한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흄볼트는 민족, 즉 같은 모국어를 사용하는 집단의 정신과 언



어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언어는 곧 그 민족의 정신이며, 민족의 정신은 곧 민족의 언어라고 주장했다.

홀볼트의 언어관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는 ‘형식’에 관한 것이다. 그는 “의미는 형식과 함께 존재한다.”라고 말하면서 형식에 의해 의미가 결정됨을 강조했다. 그에게 형식은 질료*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질료가 수동적인 성격을 띠다면 형식은 능동적인 성격을 띤다. 만일 우리를 둘러싼 현상 세계가 질료라면, 언어는 그에 대한 형식이 되는 것이다. 결국 그는 ㉠“언어의 본질은 현상 세계의 질료를 상이한 형식 속에 부어 넣는 데 있다.”라고 주장했다.

홀볼트는 언어의 형식을 ‘외적 언어 형식’과 ‘내적 언어 형식’으로 구분했다. 외적 언어 형식은 음성과 같이 물리적인 속성을 가지는 것으로, 언어의 표현적인 측면과 관련이 있다. 이와 달리 내적 언어 형식은 비물리적이고 관념적인 속성을 가지며 주로 개념을 형성하는 데 관여한다. 홀볼트에 따르면 언어는 결코 대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에 의해 형성된 개념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대상이더라도 내적 언어 형식이 달라지면 다른 개념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므로 내적 언어 형식에는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이 공유하는 정신 체계가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그러한 정신 체계는 내적 언어 형식의 도움을 입어 한 언어 속에 표현된다. 따라서 앞에 말한 언어적 세계관은 바로 내적 언어 형식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언어의 차이는 외적 언어 형식의 차이보다는 내적 언어 형식의 차이가 더 크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홀볼트의 사상은 수많은 언어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선구자적 연구라고 평가를 받는다. 특히 언어를 단순한 의사 전달 수단으로 보지 않고, 언어가 사고를 형성한다고 본 관점은 이후 언어 철학 연구의 기본 토대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질료: 형식을 갖추어 비로소 일정한 것으로 되는 재료.

26

8048-017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몇 가지 이론을 제시한 뒤 이를 통합한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 ② 특정 이론에서 주장하는 핵심 개념을 설명하고 그 의미를 평가하고 있다.
- ③ 시간의 흐름에 따라 특정 이론이 변화되어 온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④ 기존 이론과 특정 이론의 관계를 설명하고 특정 이론의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 ⑤ 특정 이론과 기존 이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교하여 분석하고 있다.

27

8048-0177

<보기>에서 홀볼트의 언어 이론과 관련된 언어관만을 모두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보기

- ㄱ. 언어와 사고는 실과 바늘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 ㄴ. 언어의 차이는 동일한 대상을 표현하는 기호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 ㄷ. 어린아이는 모국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모국어에 담긴 세계관도 함께 습득하게 된다.
- ㄹ. 언어는 세계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의사소통 수단으로 한계가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8

8048-017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흠볼트가 강조한 언어의 고유한 본질에 해당한다.
- ② 세계를 사상의 표현으로 바꾸어 놓는 정신 활동이다.
- ③ 언어를 생산 활동으로 간주하는 동적인 언어관과 관련이 있다.
- ④ 문법과 어휘 목록 속에 담겨 있는 언어의 정적인 체계에 해당한다.
- ⑤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용한 철학적 개념을 흠볼트가 훗날 사용한 개념이다.

30

8048-018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ㄱ~ㅁ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 ㄱ. '돼지 등에 올라타다.'라는 문장은 아일랜드에서는 만사가 순조롭다는 뜻으로, 미국에서는 분수에 넘치는 사치를 비아냥거리는 뜻으로 사용된다.
- ㄴ. 우리말의 '이모', '고모', '숙모' 등의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모두 'aunt'가 된다.
- ㄷ. 일반적으로 단어를 나열할 때 선호하는 것을 앞에 배열하는 경향이 있다. 영어에서는 'ladies and gentlemen'이라고 하여 여성을 나타내는 단어를 앞에 쓰는 반면, 우리말에서는 '신사 숙녀'라고 하여 남성을 나타내는 단어를 앞에 쓴다.
- ㄹ. 산스크리트어에서 코끼리는 "두 배 물을 마시는 자", "두 개의 이빨을 가진 자", "하나의 손을 가진 자" 등으로 상이하게 불린다.
- ㅁ. 파란색을 구분하는 단어가 많은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영어 사용자들보다 실제로 파란색을 더 잘 구분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 ① ㄱ: 동일한 표현이 언어에 따라 다른 뜻을 갖는 이유는 내적 언어 형식이 다르기 때문이군.
- ② ㄴ: 우리말이 영어에 비해 외적 언어 형식을 중시하는 언어라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이군.
- ③ ㄷ: 영어와 우리말의 단어 배열의 차이는 두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겠군.
- ④ ㄹ: 동일한 대상을 다르게 부르는 것은 언어가 대상 자체가 아닌 대상에 의해 형성된 개념을 표현하기 때문이군.
- ⑤ ㅁ: 파란색 인지에 대한 연구 결과는 사람들이 언어에 의해 중재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 같군.

29

8048-0179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모든 개별적인 언어에 기초가 되는 보편적인 문법이 존재한다.
- ② 언어는 세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의사소통 도구이다.
- ③ 언어가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 동일한 표현도 서로 다른 뜻을 가질 수 있다.
- ④ 같은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개인에 따라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이 다를 수 있다.
- ⑤ 비록 세계의 모습이 동일하더라도 언어의 차이에 따라 다른 개념을 형성할 수 있다.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고향을 떠나 도시 번두리에 자리를 잡은 아버지는 노새로 연탄 배달을 하며 생계를 이어 간다. 어느 날 연탄을 실은 마차를 끌고 가파른 언덕길을 힘겹게 오르던 노새는 마차가 엎어지자 갑자기 달아나 버린다. 아버지와 ‘나’는 노새를 찾아 나서지만 찾지 못하고, ‘나’는 노새가 고속 도로를 따라 멀리 달아나는 꿈을 꾸다. 다음 날 이른 새벽부터 아버지와 ‘나’는 다시 노새를 찾아 나선다.

아버지는 키가 컸다. 그래서 그런지 급히 서둘지도 않고 보통 걸음으로 걷는데도 나는 종종걸음을 쳐야 따라갈 수 있었다. 나는 할 수 없이 한 손을 내밀어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의 손은 크고 투박하고 나무토막처럼 단단했다. 끌려가듯 따라가면 서도 나는 좀 우스웠다. 이날까지는 이런 일을 생각할 수도 없었다. 아버지와 손을 잡고 길을 걷는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렇게 지내 왔는데, 오늘 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아버지와 손을 맞잡고 길을 걷고 있다. 좀 우쭐한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런 우리를 부러운 눈초리로 쳐다보지는 않았다.

아버지와 나는 한도 끝도 없이 걸었다. 어느새 거리는 점심때쯤 되었고, 눈발이 비치기 시작했다. 어느 곳을 가나 거리는 사람으로 붐벼 있었고, 그 많은 사람들은 우리 부자더러 어디를 그리 바빠 가느냐고, 노새를 찾아다니느냐고 묻지 않았고, 아버지와 나는 아무에게 노새를 보지 못했느냐고 묻지 않았다. 다리는 쇠사슬을 단 것처럼 무겁고, 배가 고프고 쓰렸다. ㉠나는 그런 우리가 옛날얘기에 나오는 길 잃은 나그네 같다고 생각했다. 길은 멀고 해는 저물었는데, 쉬어 갈 곳이라고는 없는 그런 처지 같았다. 아무리 가도 인가는 나타나지 않고, 멀리서 깜박깜박 비치는 불빛도 없었다. 보이느니 거친 산과 들뿐 사람이거나 노새는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와 내가 동물원에 들어간 것은 거의 해가 질 무렵이었다. 어떻게 해서 동물원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나는 잘 기억해 낼 수가 없다. 둘 중의 아무도 동물원에 들어가자고 말한 사람은 없었는데 어째서 발길이 이곳으로 돌려졌는지 모른다. 정처 없이 걷다가 마침 닿은 곳이 동물원이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들어왔는지도 모르겠다. 하여튼 나는 희한한 곳엘 다 왔다 싶었다. 내 경우 동물원에 와 본 것은 지금까지 딱 한 번밖에 없었으니까. 그것도 어린이날 무료 공개한다는 바람에 동네 조무래기들과 함께 와 본 것뿐이었다. 그때는 사람들에 치여 제대로 구경도 못했는데 지금 나는 구경꾼도 별로 없는 동물원을 더구나 아버지와 함께 오게 되었으니 참 가다가는 별일도 있는 것이구나 하였다. 남들 눈에는 한가하게 동물원 구경을 온 다정한 부자로 비칠 것이 아닌가. 동물원 안은 조용하고 을씨년스러웠다. 동물들은 제 집에 처박혀 있거나 가느다란 석양이 비치는 곳에 웅크리고 있거

나 하였다. 막상 들어온 아버지는 그런 동물들을 별로 눈여겨보지 않았다. 동물들의 우리를 보다가 하늘을 보다가 할 뿐, 눈에 초점이 없었다. 칠면조도 사자도 호랑이도 원숭이도 사슴도 그런 눈으로 건성건성 보고 지나갈 뿐이었다. 그러던 아버지가 잠시 발을 멈춘 곳은 얼룩말이 있는 우리 앞이었다. 얼룩말은 두 마리였다. 아버지는 그러나 그 앞에서도 멍하니 서 있기만 하지 이렇다 할 감정의 표시를 하지 않았다. 나는 그런 아버지를 한번 쳐다보고, 얼룩말을 한번 쳐다보고 하였다. 그러다가 아버지의 얼굴이 어찌면 그렇게 말이나 노새와 닮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 하였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꼭 그랬다. 길게 찌진, 감정이 없는 눈이며 노상 별름별름한 코, 하마 같은 입, 그리고 덜렁하니 큰 귀가 그랬다. 아버지가 너무 오래 말이나 노새를 다뤄 와서 그런 건지, 애당초 말이나 노새 같은 사람이어서 그런 짐승과 평생을 같이해 온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막상 얼룩말 앞에 세워 놓은 아버지는 영락없는 말의 형상이었다.

동물원을 나왔을 때 이미 거리는 밤이었다. 이번엔 집 쪽으로 걸었다. 그릴 수밖에 우리는 더 갈 데가 없었던 것이다. 우리 동네가 저만치 보였을 때 아버지는 바로 눈앞에 있는 대폿집에서 발을 멈추었다. ㉡힐끗 나를 돌아보고 나서 다짜고짜 나를 술집으로 끌고 들어갔다. 이런 일도 전에는 없던 일이었다. 술집 안에는 사람들이 가득 차서 왁왁 떠들어 대고 있었다. 돼지고기를 굽는 냄새, 찌개 냄새, 김치 냄새가 집 안에 가득했다. 사람들은 우리를 의아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았으나 이내 시선을 거두고 자기들의 얘기 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는 들어가자마자 그 냄새들을 힘껏 마셨다. 쓰러질 것 같았다. 아버지는 소주 한 병과 안주를 시키더니 안주는 내 쪽으로 밀어 주고 술만 거푸 마셔 댔다. 아버지는 술이 약한 편이어서 저러다가 어찌나 하고 걱정이 되었다.

“아버지, 고만 드세요. 몸에 해로워요.”

“으응.”

대답하면서도 아버지는 술잔을 놓지 않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안주를 계속 주워 먹었으므로 어느 정도 시장기를 면한 나는 비로소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이제부터 내가 노새다. 이제부터 내가 노새가 되어야지 별수 있지? 그놈이 도망쳤으니까 이제 내가 노새가 되는 거지.”

기분 좋게 취한 듯한 아버지는 놀라는 나를 보고 히힃 한번 웃었다. 나는 어쩐지 그런 아버지가 무섭지만은 않았다. 그러면 형들이나 나는 노새 새끼고, 어머니는 암노새고, 할머니는 어미 노새가 되는 것일까? 나도 아버지를 따라 히힃 웃었다. 어른들은 이래서 술집에 오는 모양이었다. ㉢나는 안주만 집어 먹었는데도 술 취한 사람마냥* 퍽없이 즐거웠다. 노새 가족 — 노새 가족은 우리 말고는 이 세상에 또 없을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아버지와 내가 집에 당도했을 때 무참히



깨어지고 말았다. 우리를 본 어머니가 허둥지둥 달려 나와 매달렸다.

“이걸 어찌우, 글썽 경찰서에서 당신을 오래요. 그놈의 노새가 사람을 다치고 가게 물건들을 박살을 냈대요. 이걸 어찌지.”

“노새는 찾았대?”

“찾고나 그러면 괜찮게요? 노새는 간데없고 사람들만 다치고 하니까, 누구네 노새가 그랬는지 수소문 끝에 우리 집으로 순경이 찾아왔지 뭐유.”

㉠오늘 낮에 지서에서 나온 사람이 우리 노새가 튀는 바람에 여기저기서 많은 피해를 입었으니 도로 무슨 법이라나 하는 법으로 아버지를 잡아넣어야겠다고 이르고 갔다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술이 확 깨는 듯 그 자리에 선 채 한동안 눈만 뒤룩뒤룩 굴리고 서 있더니 히 하고 코를 풀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스틱스틱 문밖으로 걸어 나갔다. 나는 “아버지.” 하고 뒤를 따랐으나 아버지는 돌아보지도 않고 어두운 골목길을 나가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 또 한 마리의 노새가 집을 나가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켰다. 그리고는 무엇인가가 뒤통수를 때리는 것을 느꼈다. 아, 우리 같은 노새는 어차피 이렇게 비행기가 붕붕거리고, 헬리콥터가 앵앵거리고, 자동차가 빵빵거리고, 자전거가 썽썽거리는 대처에서는 발붙이기 어려운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언젠가 남편이 택시 운전사인 칠수 어머니가 하던 말, ㉡“최소한도 자동차는 굴러야지 지금이 어느 판데 노새를 부려.” 했다는 말이 생각났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 동안이고 나는 금방 아버지를 쫓았다. 또 한 마리의 노새를 찾아 캄캄한 골목길을 마구 뛰었다.

- 최일남, 「노새 두 마리」

*마냥: 처럼.



31

8048-018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문과 추측의 진술을 통해 아버지에 대한 ‘나’의 반감을 나타내고 있다.
- ② ‘나’의 회상을 통해 아버지가 처한 상황을 환상적 분위기로 그려 내고 있다.
- ③ ‘나’가 아버지의 행적을 요약적으로 진술하여 갈등의 해결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④ 다른 인물들의 말을 통해 ‘나’와 아버지의 위상이 뒤바뀌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 ⑤ 아버지의 외양을 다른 대상과 유사한 것으로 보는 ‘나’의 시선을 통해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32

8048-0182

<보기>를 윗글의 ‘나’가 쓴 일기의 일부라고 할 때,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오늘 나는 이른 새벽부터 아버지와 함께 달아난 노새를 찾기 위해 집을 나섰다. 거리에서 아버지의 발걸음을 따라갈 수 없어 아버지의 손을 잡았을 때 나는 우쭐했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나와 아버지를 부러워하지 않았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날이 저물 무렵에 우연히 동물원에 들어가게 되었다. 아버지는 잠시 얼룩말 우리 앞에 멈춰 섰는데, ㉡중요한 생계 수단을 잃어버린 상실감을 달래는 기색을 보였다. 동물원을 나온 후 우리는 집을 향해 걸어갔다. 아버지는 동네 부근의 술집에 나를 데리고 들어가서 소주를 마신 후 ㉢나에게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드러내었다. 우리가 기분 좋게 집에 왔을 때 ㉣아버지는 어머니로부터 소란을 일으킨 노새의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다. 아버지가 아무런 말도 없이 골목길로 나갔기 때문에 ㉤나는 어둠 속으로 사라진 아버지를 또 한 마리의 노새라 여기며 급히 뒤쫓았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33

8048-0183

〈보기〉를 참고하여 밑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노새 두 마리」는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세태와 급격한 도시화 속에서 노새를 생계 수단으로 삼아 도시에서 어떻게든지 살아가겠다고 노력하지만 점차 희망을 잃어 가는 서민들의 고통을 형상화하고 있다. 작가는 잠시나마 도시에서 어떻게든지 살아가겠다는 각오를 보이던 가장이 곤경에 빠지는 상황을 통해 비극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① ㉠: ‘나’의 가족이 도시 생활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고 있음을 비유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군.
- ② ㉡: 도시 생활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가족 외의 타인과 유대감을 형성하려는 아버지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군.
- ③ ㉢: 도시에서 어떻게든지 살아가겠다는 각오를 담은 아버지의 행동에 ‘나’가 즐거워하는 심리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군.
- ④ ㉣: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세태 속에서 노새로 인해 아버지가 곤경에 빠지는 상황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군.
- ⑤ ㉤: 급격한 도시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처지를 노새와 대비되는 소재를 통해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군.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철갑(鐵甲) 입은 오랑캐 동대문(興仁之門)으로 물밑 듯이 들어와 백성을 살해하고 성중(城中)을 노략하니, 도성 인민이 물 끓듯 곡성이 진동하며, 부모 형제 부부 노소가 서로 실신하여 살기를 도모하니 그 형상이 참혹하더라.

①이런 망극한 때를 당하여 조정에 막을 사람이 없고, 종사(宗社)의 위태함이 경각 사이에 있는지라. 상이 망극하사 시위 조신 6, 7인을 데리시고 남한산성으로 피란하실새, 급히 동가(動駕)* 하여 강변에 이르사 배를 타시매, 백성들이 뱃전을 잡고 통곡하며 물에 빠져 죽는 자가 무수하니, 그 형상을 차마 보지 못하겠더라. 왕대비와 세자 삼 형제는 강화(江華)로 가시고, 남은 백성은 호적에게 어육(魚肉)이 되니라.

도원수 김자점은 이런 난세(亂世)를 당하였으되 한 계교도 베풀지 못하고, 용골대는 백성의 집을 허물어 뗏목을 만들어 강화로 들어가더라. 강화 유수 김경징은 좋은 군기를 고중(庫中)에 넣어 두고 술만 먹고 누웠으니, 도적이 스스로 들어가 왕대비와 세자·대군을 잡아다가 송파(松坡)벌에 유진하고 세자·대군을 구류하고 외치기를,

“수이 항복치 아니하면 왕대비와 세자·대군이 무사치 못하리라.”

하는 소리가 천지진동하더라.

②이때 상이 모든 대신과 군졸을 거느리시고 외로운 성에 걸겹이 싸이사 용루(龍淚)* 비 오듯 하시더라. 김자점은 도적을 물리칠 계교가 없어 태연 부동하던 차에, 도적의 북소리에 놀라 진(陣)을 잃고 군사를 무수히 죽이고 산성 밖에 결진하니, 군량은 탕진하여 사세 위급한데, 도적은 외치기를

“중시 항복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기서 과동(過冬)하여 여름지어 먹고 있다가 항복받고 가려니와, 너희 무엇을 먹고 살려 하느냐? 수이 나와 항복하라.”

하고 한의봉에 올라 산성을 굽어보며 외는 소리가 진동하니, 상이 들으시고 양천통곡(仰天痛哭)하며

“안에는 양장(良將)이 없고 밖에는 강적(強敵)이 있으니, 외로운 산성을 어찌 보전하며 또한 양식이 진하였으니, 이는 하늘이 과인을 망케 하심이라.”

하시고 대신과 더불어 항복하심을 의논하는데, 제신이 아뢰기를

“왕대비와 세자·대군이 다 호진(胡陣) 중에 계시니, 국가에 이런 망극하온 일이 어디 있사오리잇고. 빨리 항복하사 왕대비와 세자·대군을 구하시고 종사를 보전하심이 마땅할까 하나이다.”

[A]

하거늘, 일인(一人)이 출반주* 알(出班奏曰)

“옛말에 일렸으되 ‘영위계구언정 물위우후라* 하였사오니, 어찌 오랑캐에게 무릎을 꿇어 욕을 당하리잇고. 죽기



를 무릅써 성을 지키면 임경업이 이 소식을 듣고 마땅히 올라와 호적을 파하고 적장을 항복받은즉 성상이 자연 옥을 면하리이다.”

하거늘, 상이

“길이 막혀 인적을 통치 못하니 경업이 어찌 알리오. 목전 사세 여차하니 아무리 생각하여도 항복할밖에 다른 묘책이 없으니, 경등은 다시 말 말라.”

하고 양천통곡하시니, 산천초목(山川草木)이 다 슬퍼하더라.

〈중략〉

이때 경업이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낮이면 높은 데 올라 호적이 오기를 기다리더니, 문득 바라본즉 호병이 승전고를 울리며 세자·대군을 앞세우고 의기양양하여 의주로 나오거늘, 경업이 분기 대발하여 절치부심하여 소리치기를

“이 도적을 편갑(片甲)도 돌려보내지 말고 무찌르리라.”

하고, 갑주(甲冑)하고* 말에 올라 큰 칼 들고 나가며 중군에 분부하여,

“군사를 거느려 뒤를 따르라.”

하더니, 호장이 정제히 나아오는지라. 경업이 노기충천하여 마주 내달아 칼을 들어 호장의 머리를 베어 내리치고 진중을 짓쳐 들어가 좌우충돌하여 호병을 बे기를 무인지경같이 하니, 호병이 황겁하여 각각 헤어져 목숨을 도모하여 달아나고, 남은 군사는 어찌할 줄 몰라 죽는 자가 무수하더라.

호장이 상혼낙담(喪魂落膽)하여* 십 리를 물러 진을 치고 패잔군(敗殘軍)을 모아 의논하며,

“경업은 용맹하니 장차 어찌하리오.”

하더니, 문득 생각하되

‘경업은 충신이라. 이제 조선 왕의 항서와 전교한 공문을 내어 뵈면 반드시 귀순하리라.’

하고, 진문에 나와 외치기를

“임 장군은 나와 조선 왕의 전지를 받아 보라.”

하거늘, 경업이 의아하여 크게 꾸짖으며,

“네 감히 나를 속이려 하느냐?”

용골대가 군사로 하여금 문서를 전하니, 경업이 문서를 받자와 보고 양천 탄식하는지라. 호장이

“너희 국왕이 항복하고 세자·대군을 볼모로 잡아가거늘, 네 어찌 감히 왕명을 항거하여 역신이 되고자 하느냐.”

하고 만단개유(萬端改諭)하거늘*, 경업이 또한 하교(下教)를 보았는지라. 할 수 없이 환도를 집에 꽂고 호진을 통하고 들어가 세자·대군을 뵈옵고 실성통곡하니, 세자·대군이 경업의 손을 잡고 유체(流涕)하며*

“국운이 불행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거니와, 바라건대 장군은 [B] 진심하여 우리들을 구하여 다시 부왕(父王)을 뵈게 해 주시오.”

경업이

“신이 이 기미를 알았으면 몸이 전장에 죽사온들 이런 망극하온 일을 당하리었고. 신의 몸이 만 번 죽사와도 아깝지 아 [C] 니하오니, 복원 전하는 슬픔을 관역하시고* 행차하시면, 신이 진충갈력(盡忠竭力)하여 호국을 멸하고 돌아오시게 하오리이다.”

- 작자 미상, 「임장군전」

*동가: 임금이 탄 수레가 대궐 밖으로 나감.

*용루: 임금의 눈물.

*출반주: 여러 신하 가운데 특별히 혼자 나아가 임금에게 아뢰.

*영위계구언정 물위우후라: 차라리 닭의 머리가 될지언정 소의 꼬리가 되지 말라는 말.

*갑주하고: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상혼낙담하여: 몹시 놀라거나 마음이 상해서 넋을 잃어.

*만단개유하거늘: 여러 가지로 타이르니.

*유체하며: 눈물을 흘리며.

*관역하시고: 격한 감정이나 분노를 너그럽게 억제하시고.

34

8048-0184

㉠과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호국에게 침략을 당한 결과로 볼 수 있다.
- ② ㉡을 통해 임금이 남한산성에서 포위된 처지임을 알 수 있다.
- ③ ㉠은 시간적으로 ㉡보다 먼저 일어난 것이다.
- ④ ㉠으로 인한 조선 지휘관의 교체가 ㉡을 유발하게 되었다.
- ⑤ ㉠과 ㉡이 발생했을 때 임경업은 곧바로 구원할 수 없는 곳에 주둔하고 있었다.



35

8048-0185

<보기>를 참고하여 밑줄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조선 후기 역사 군담 소설에서는 민중이 선망하는 실존 인물이 등장하여, 역사적 사실과 다른 승전을 통해 전란으로 인해 상처 입은 민족적 자존감을 높이는 경우가 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인 임경업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무능력한 집권층에 대한 민중의 비판 의식과 임경업의 죽음을 역울하게 여기는 민중의 안타까움으로 인해 임경업은 소설 속에서 비범한 영웅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런데 작품 속의 임경업은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에 지나치게 얽매이는 모습도 보인다. 이러한 모습에는 전란의 고통을 겪으며 임금에 대해 불만을 지니지만, 끝내 충(忠)이라는 가치관을 벗어나지 못하는 당대 민중의 인식의 한계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 ① 김자점과 김경징의 처신을 보여 주어 무능력한 집권층에 대한 민중의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군.
- ② 호장이 의주에서 패한 후 몹시 놀라 넋을 잃고 염려하는 장면을 통해 민족적 자존감을 높이고 있군.
- ③ 호적의 침입으로 백성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을 제시하여 당대 민중이 체험한 전란의 고통을 부각하고 있군.
- ④ 임경업이 호병들을 기다리다가 그들이 의주에 나타나자 분노를 터뜨리는 모습을 통해 주인공의 비범함을 나타내고 있군.
- ⑤ 임경업이 왕의 전교를 읽은 후 전투를 포기하는 모습에는 충이라는 가치관을 벗어나지 못하는 당대 민중의 인식의 한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군.

36

8048-0186

[A]와 <보기>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1636년(병자년) 12월 16일

밤에 영상과 김신국, 이성구, 최명길 등이 주상에게 세자를 적진에 보내기를 청했으나, 예조 판서 김상헌이 이 소식을 듣고 비변사에 들어와 큰 소리로 말했다. “이 의논을 하는 놈을 내가 당당히 머리를 베고, 한 하늘 아래에 서지 않을 것을 맹세하노라.”

1637년(정축년) 1월 1일

아침에 선전관에게 일러 적진에 말을 전하게 하고 김신국, 이정직을 보내려 하니 적장이 이런 답을 전해 왔다. “한*이 어제 나와서 지금 산성의 형세를 둘러보시니라. 이후의 일은 우리들이 알 바가 아니므로 진으로 돌아간 후 내일 다시 오라.” 이날 오후에 동문 밖에 두 양산(陽繖)과 큰 기를 세웠으니, 이것은 분명 한이었다.

- 작자 미상, 「산성일기」

*한: 청나라 태종.

- ① [A]와 달리 <보기>에서는 적군의 군주가 직접 종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A]와 달리 <보기>에서는 세자가 적군의 포로가 되지 않은 상황임을 알 수 있다.
- ③ <보기>와 달리 [A]에서는 적병이 항복할 것을 재촉하는 상황이 나타나 있다.
- ④ <보기>와 달리 [A]에서는 왕이 상황을 낙관하다가 신하들의 권유에 의해 항복을 논의하고 있다.
- ⑤ <보기>와 달리 [A]에서는 적군과의 화친에 반대하는 인물이 구원의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37

8048-0187

[B]와 [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B]에서의 회유에 대해 [C]에서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 ② [B]에서 간청한 바를 [C]에서 실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 ③ [B]에서는 상대를 존중하나 [C]에서는 상대를 경시하고 있다.
- ④ [B]에서 상대의 태도 개선을 촉구하자 [C]에서 순응하고 있다.
- ⑤ [B]에서는 왕자의 위의를, [C]에서는 신하의 도리를 지키려 하고 있다.





[38~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그윽한 뜨락에 비가 내리고

목련 핀 언덕에선 피꼬리가 우네.
 수실 늘어진 비단 휘장으로 봄추위가 스며드는데
 박산향로*에선 한 줄기 향 연기가 하늘거리네.
 미인이 잠에서 깨어나 새 단장을 매만지니
 향그런 비단 띠에는 원앙이 수놓였네.
 겹발을 견고서 비취 이불도 개어 놓고
 시름없이 은쟁을 안고 봉황곡*을 타네.
 금굴레에 안장 타신 임은 어디 가셨나.
 정다운 앵무새는 창가에서 속삭이네.
 풀섶에 날던 나비 뜨락으로 사라지더니
 난간 밖 아지랑이 낀 꽃에서 춤추네.
 뉘 집 연못가에서 피리 소리 흐느끼는데
 금술잔에는 달이 비치네.
 시름겨워 밤새 홀로 잠 못 이뤘으니
 새벽에 일어나면 명주 수건에 눈물 자국만 가득하리라.

[A]
 [B]
 [C]
 [D]

- 허난설헌, 「사시사」 중 '춘사'

*박산향로: 중국 산둥성에 있는 박산의 모양을 본떠 만든 향로.
 *봉황곡: 조선 시대의 가사(歌詞). 남녀의 금실을 노래했으며, 제목은 중국의 시마
 상어가 지은 「봉구황곡(鳳求凰曲)」을 본떠서 지음.

(나) ㉠나무하러 가자

이히후후 예헤
 남 날 적에 나도 나고
 나 날 적에 남도 나고
 세상 인간 같지 않아
 이놈 팔자 무슨 일로
 지게 목발 못 면하고
 어떤 사람 팔자 좋아
 고대광실 높은 집에
 사모에 풍경 달고
 만석록을 누리건만
 ㉠이놈 팔자 어이하여
 항상 지게는 못 면하고
 남의 집도 못 면하고
 죽자 하니 청춘이요
 사자 하니 고생이라
 세상사 살아진들
 치마 찢른 계집 있나
 다박머리 자식 있나
 광 넓은 논이 있나

사래 긴 밭이 있나
 ㉡버선 짝도 짝이 있고
 토시 짝도 짝이 있고
 털떡신도 짝이 있는데
 쟁이* 같은 내 팔자야
 자탄한들 무엇하리
 한탄한들 무엇하나
 청천에 저 기력아
 너도 또한 임을 잃고
 임 찾아서 가는 건가
 ㉢더런 놈의 팔자로다
 이놈의 팔자를
 언제나 면할꼬
 오늘도 이 짐을 안 지고 가면
 어떤 놈이 밥 한술 줄 놈이 있나
 자 가자 ㉣이히후후

- 작자 미상, 「초부가」

*쟁이: 곡식 따위를 까불러 쭉정이나 티끌을 골라내는 도구.

(다) 막바지 피약별 속

한창 매미 울음은
 한여름 무더위를 그 절정까지 올려놓고는
 이렇게 다시 조용할 수 있는가,
 지금은 아무 기척도 없이
 정적의 소리인 듯 쟁쟁쟁
 천지(天地)가 하는 별의별
 희한한 그들의 소리에
 멍청히 빨려들게 하구나.

사랑도 어찌면
 그와 같은 것인가,
 소나기처럼 숨이 차게
 정수리부터 목물로 들이붓더니
 얼마 후에는
 그것이 아무 일도 없었던 양
 맑은 구름만 눈이 부시게
 하늘 위에 펼치기만 하노니.

- 박재삼, 「매미 울음 끝에」



38

8048-0188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점층적 표현을 활용하여 갈등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 ② 대조의 방법을 사용하여 시의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상이 변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 ④ 화자의 처지와 대조를 이루는 의인화된 대상이 나타나 있다.
- ⑤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친밀감을 나타내고 있다.

39

8048-0189

작품의 흐름을 고려할 때 (가)의 [A]~[D]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목련’이 피고 ‘봄추위’가 스며드는 모습을 통해 계절적 배경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B]: 잠에서 깨어난 ‘미인’의 모습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군.
- ③ [B]: ‘봉황곡’이 남녀의 금실에 관한 노래라는 점에서 이를 타는 행위에는 임이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담겨 있군.
- ④ [C]: 화자는 ‘금굴레에 안장 타신 임은 어디 가셨나.’라고 탄식하면서 지난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군.
- ⑤ [D]: ‘밤새 홀로 잠 못’ 이루며 흘린 ‘눈물 자국’은 입에 대한 그리움과 독수공방의 외로움을 함축적으로 나타내고 있군.

40

8048-0190

<보기>를 바탕으로 (나)의 ㉠~㉣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초부가」는 나무꾼들이 나무를 하러 갈 때 부르거나 나무를 하는 과정에서 부르는 노동요를 총칭하는 말이다. 이 작품에서 화자는 남들과 달리 머슴으로 태어나 남의집살이를 면할 길 없는 자신의 신세에 대한 뉘우리를 하고 있다. 또한 재산도 없고 짝도 없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도 이 모든 것을 운명의 탓으로 돌리며 체념하고 있다. 이 노래는 의성어로 시작해서 의성어로 끝나는데, 이는 일종의 조흥구이면서 한편으로는 고된 노동으로 인한 숨소리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 ① ㉠은 이 노래가 「초부가」 중에서도 나무를 하러 갈 때 부르는 노래임을 알려 준다.
- ② ㉡에서 화자는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지게를 져야 하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다.
- ③ ㉢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비유적으로 나타낸 사물에 해당한다.
- ④ ㉣에서 화자는 자신의 처지를 운명의 탓이라 생각하며 이를 한탄하고 있다.
- ⑤ ㉤은 노동요에서 흥을 돋우는 역할을 하는 의성어로도 볼 수 있다.

41

8048-0191

<보기>를 참고하여, (다)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유추란 두 대상 간의 공통된 속성에 기초하여 다른 속성도 유사할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시에서 화자는 여름철 매미 울음소리가 극성을 부리다 어느 순간 잦아드는 자연의 순리에서 유추하여 사랑이라는 인간의 감정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있다. 또한 화자는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와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매미 울음소리가 사라진 뒤의 적막과 열정적인 사랑이 지나간 뒤의 고요함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① 1연의 ‘무더위를 그 절정까지 올려놓’는 매미 울음과 2연의 ‘소나기처럼 숨이 차게 / 정수리부터 목물로 들이붓’는 사랑은 열정적이라는 측면에서 공통된 속성이 있군.
- ② 1연의 ‘이렇게 다시 조용할 수 있는가’는 극성을 부리던 매미 울음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사라진다는 자연의 순리를 담고 있군.
- ③ 1연에서 ‘정적의 소리인 듯 쟁쟁쟁’은 공감각적 심상을 통해 매미 울음소리가 사라진 뒤의 적막을 형상화하고 있군.
- ④ 2연에서 ‘사랑도 어찌면 / 그와 같은 것인가’라고 말함으로써 화자는 자연의 현상을 통해 사랑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있군.
- ⑤ 2연의 ‘맑은 구름만 눈이 부시게 / 하늘 위에 펼치기만 하노니.’는 열정적인 사랑이 끝난 뒤의 고요한 마음의 상태를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군.



[42~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동동 낙랑동」은 고구려의 왕자인 호동이 낙랑 공주에게 자명고를 찢게 한 『삼국사기』의 ‘호동 설화’를 모티프로 삼았다. 그런데 설화와는 달리 낙랑 공주가 죽고 난 뒤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며, 원작에는 없는 낙랑 공주의 쌍둥이 언니가 고구려의 왕비이자 나라의 어머니 무당으로 등장한다. 자신을 위해 자명고를 찢고 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한 낙랑 공주에 대한 자괴감과 정당하지 못한 승전에 갈등하던 호동은 낙랑 공주의 쌍둥이 언니인 왕비를 보며 죄책감이 가중된다. 그와 달리 왕비는 시간이 지나면서 호동이 낙랑 공주를 진심으로 사랑한 것을 알게 되자 자신이 낙랑 공주의 역할을 맡아 호동 왕자의 ‘가상극’을 도우며 그를 위로한다. 작가는 가상극이라는 극적 장치를 활용하여 낙랑 공주를 잊지 못하는 호동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설화의 재해석을 통해 작가는 관객이 설화의 범주에서 벗어나, 비극적인 존재로서의 호동의 진심과 고뇌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에게 우호적인 감정을 지닐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나) 왕비: 다만 낙랑은 망하더라도 내 부모와 내 동생의 목숨만이라도 건질 수 있었더라면.

왕: 그 일이 안되었소. 왕자도 내 뜻을 받들어 그들을 살릴 생각이었는데, 성이 열리기 전에 모두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니.

왕비: ㉠.....

왕: 하늘의 뜻이 아니겠소.

왕비: (머리를 수그린다.)

왕: 자, 그러면 우리도 들어가 잔치 자리로 갑시다.

왕비: ㉡.....

북소리, 웅성거리는 소리 막 뒤에서.

왕: 아니, 당신은 큰일을 치렀으니 고단하겠지. 나 혼자 잔치에 나갈 테니 당신은 물러나 쉬는 것이 좋겠소.

왕비: 고맙습니다.

왕 들어간다.

북소리, 웅성거림 막 뒤에서.

사이.

왕비: (한 발 나서며) 아버님, 어머니님, 내 동생 낙랑 공주, 모두 이제는 못 보게 되었구나. 내 나라는 망하였구나. 내 나라, 어느 것이 내 나라냐, 내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동생을 평안케 하고자 이 나라에 시집왔거늘, 이렇게 되면 대체 무슨 쓸데가 있었던 말인가. 내 아버지보다 늙은 남자를 지아비로 삼은 것도 다 내 아버 어머니 동생을 위해서 한 일이거늘, 이렇게 되면 무슨 쓸데가 있었던 말인가. 그러나 싸워서 이기고 지는 것은 하늘의 뜻, 내 나라가 싸움에 졌으니 하늘을 탓하지는 못하는

것 — 그런데 (허공을 보며) — 그런데 낙랑의 복은 왜 울지 않았을까? 낙랑의 자명고는 왜 울지 않았을까? 아무도 모르는 그 복은 왜 울지 않았을까? 그것도 하늘의 뜻이었을까?

북소리, 웅성거림 막 뒤에서.

왕비: 내 아버지, 어머니, 동생의 죽음을 기뻐하며 춤을 추어야만 하다니, 내 아버지의 원수의 조상을 이 몸에 받아 말을 옮겨야 하다니, 아아 내 몸이여, 내 몸뚱아리여, 내 몸 아닌 내 몸뚱아리여, 불쌍한 내 몸뚱아리여.

왕비 제단을 쳐다본다.

멀리서 북소리.

왕비: 저렇게, 고구려의 북소리는 저렇게 우렁찬데, — 낙랑의 북이여, 너는 어찌 되었더라 말인가.

왕비 생각에 잠기면서 퇴장.

호동 나온다.

호동: 꼭 같다. 낙랑 공주, 낙랑 공주가 살아온 것 같다. 그럴 수 밖에. 쌍둥이니깐. 쌍둥이. 낙랑의 두 구슬이라던. 아까 어머니님이 나오실 때 낙랑 공주가 살아 돌아온 줄 알았지. 자기 아버지의 칼에 죽은 낙랑 공주가. 나는 인제 날에 날마다 낙랑 공주를 만나야 하겠으니. 죽은 낙랑 공주가 저렇게 살아 있으니. 아, 일이 야릇하구나. 왜 자명고가 울지 않았느냐고? 정정당당한 싸움이면 하늘의 뜻이라구? 어머니가 일이 어떻게 꾸며졌는지를 알게 된다면. 낙랑 공주여, 당신이 이 궁정에 먼저 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려. (제단을 향하여) 주몽 할아버지시여, 당신은 기쁘다고 하셨지요. 장하다고 하셨지요.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어떤 계책을 써도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당신은 장하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나는 괴로울 까닭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이 이렇게 부대끼니 웬일입니까? 두렵습니다. 할아버지시여, 당신의 마음과 다른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될 이 몸, 그런데 이 마음속에서 당신을 거스르는 이 마음, 내 마음 아닌, 이 마음이 두렵습니다. 할아버지시여, 이 마음을 이기게 도와주소서.

<중략>

호동: 바다 건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왕비: 친절하고 사귄성이 좋지요.

호동: 그 사람들이 우리 고구려하고는 친절하지도 않고 사귄성도 좋지 않으니 탈이군요.

왕비: 그렇대지요? 그러나 만일에 낙랑이 사이에 들어서 잘 거들면 두 나라도 가까워질 것입니다.

호동: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왕비: 될 겁니다. 처음부터 친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귀고



보면 못 사귄 이웃이 없지요.
 호동: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했지요. 그때 공주가 한 말입니다.
 왕비: 그때?
 호동: 네 그때.
 왕비: 우리는 지금 처음 만났는데 그때라니요?
 호동: 낙랑성 연못가에서.
 왕비: 여기가 낙랑성 연못인데, 왕자님은 꿈에 여기를 와 보셨나요?
 호동: 꿈에, 그것이 꿈이었다면, 차라리 꿈이었다면.
 왕비: 꿈에 만난 사람은 정말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호동: 이것이, 이것이 정말이 된 꿈입니까?
 왕비: 정말이 된 꿈입니다, 왕자는 벌써 여기를 다녀가셨고, 저를 만난 적이 있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저를 (손을 잡으며) 이렇게 손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호동: 이것이 정말이었으면.
 왕비: 정말입니다.
 호동: 이것이 꿈이었으면.
 왕비: 이것이 꿈입니다.
 호동: 어느 것이 정말입니까?

[A] 왕비: 꿈이 정말입니다, 정말이 꿈입니다. 꿈속에 정말이 있고, 정말 속에 꿈이 있습니다.
 호동: 저 소리.
 왕비: 무슨 소리?
 호동: 저 소리.
 왕비: 사공이 부르는 배따라기군요.

두 사람 귀 기울여 들리지 않는 배따라기를 듣는다.
 호동: 여기가 어딘가? 내가 들어온 여기가 어딘가, 어떤 어려운 싸움에서도 이렇게 헛갈리는 골짜기에 들어 본 적이 없는데.
 왕비: 싸움터가 아닙니다, 여기는 낙랑성 모란 정자, 연못가에서 배따라기 소리 들리는 당신과 나의 오늘 여깁니다.
 호동: 당신과 나의 오늘 여기, 공주, 나는 하늘나라에 온 것 같습니다.
 왕비: 우리가 선 곳이 하늘나라만 못하란 법이 있겠습니까? 왕자님 부디 이곳에 오래 계시다 가십시오.
 호동: 네, 이곳 사람들을 사귀러 온 길이니 이 아름다운 나라를 살살이 살고 싶습니다.
 왕비: 자 잔치 자리로 돌아갑시다. 춤이 곧 시작될 겁니다. 늘 그러니깐요.
 호동: …….

왕비: 자, (몸짓을 바꾸며) 이만하면 좀, 왕자의 속이 풀렸소?
 호동: (꿈에서 깨듯) 아, 너무, 너무.
 - 최인훈, 「동동 낙랑동」

42

8048-0192

(가)를 바탕으로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작가가 독창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설화에 없는 인물을 등장시키고 있군.
- ② 설화와 동일한 인물이나 나라, 소재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설화를 모티프로 삼았음을 알 수 있군.
- ③ 남자 주인공의 영웅적 분투와 인간적 고뇌를 조화시켜 관객을 설화의 범주에서 벗어나게 하고 있군.
- ④ 남자 주인공의 내면적 진심을 드러내어 관객이 주인공을 비극적인 존재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군.
- ⑤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 간의 대화는 관객이 남자 주인공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군.

43

8048-0193

(나)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왕은 왕비를 배려하여 승전 잔치에 데려가지 않았다.
- ② 호동은 왕비를 보며 죽은 낙랑 공주를 떠올리고 있다.
- ③ 왕비는 조상신의 말을 전하는 어머니 무당의 역할을 맡았다.
- ④ 호동은 조상신에게 호소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왕비는 왕과의 정략결혼을 후회하며 그에게 복수할 의사를 품고 있다.



44

8048-0194

(가)와 <보기>를 참고하여 [A]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선생님: 극의 진행 과정에서 ‘현실’은 고구려를 배경으로 하는 구체적 공간인 데 반해, ‘가상극’은 낙랑을 배경으로 삼아 호동이 공주와의 추억을 재구성하는 관념적 공간으로 볼 수 있어요.

- ① 호동은 왕비와 달리 ‘가상극’을 진행하면서 과거에 공주가 한 말을 떠올리고 있군.
- ② ‘가상극’에서 다시 ‘현실’로 전환하는 것은 왕비의 대사와 동작에 따라 이루어지는군.
- ③ ‘가상극’은 왕비가 호동을 위로하기 위해 동참하는 것으로 극 중극의 형식으로 볼 수 있군.
- ④ ‘가상극’에서 왕비는 공주의 역할을 맡아 자신이 직접 체험하지 않은 일을 재연하고 있군.
- ⑤ 호동은 ‘현실’과 ‘가상극’ 사이에서 혼란을 느끼다가 두 배경을 합쳐 새로운 관념적 공간을 만들고 있군.

45

8048-0195

㉠과 ㉡을 비교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거에 대한 회상을, ㉡은 미래에 대한 전망을 나타낸다.
- ② ㉠은 심리적 갈등의 유발과, ㉡은 심리적 갈등의 해소와 관련이 있다.
- ③ ㉠은 상황에 대한 절망감을, ㉡은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 ④ ㉠과 ㉡은 모두 달관의 경지를 보여 준다.
- ⑤ ㉠과 ㉡은 모두 비통한 심정을 내포하고 있다.





EBS*i* 



EBS*i*



EBS 수능완성 국어영역 국어

실전편

**실전 모의고사
4회**

EBS*i*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01~02] 다음은 전문가의 강연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특별 강연을 맡은 ○○ 대학교 천문학과 △△△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의 역사가 밝힌 ‘신성’의 비밀에 대해 강연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국제 천문 연구진이 신성 현상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사용된 자료가 특이합니다. 천문학 연구에 주로 쓰이는 전파 망원경이나 슈퍼컴퓨터가 아니라 역사서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조선 시대에 기록된 『세종실록』입니다.

제작년 6월 연구진은 전갈자리에 있는 어느 별과 그 별을 둘러싼 가스 구름을 관측했습니다. 또 1923년과 1942년에 관측된 사진에서 역시 이 별과 가스 구름을 발견했습니다. (사진을 가리키며) 이 가스 구름들은 신성 현상의 흔적들이었습니다. 신성이란 평소 어둡던 별의 밝기가 며칠 새 갑자기 밝아지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흔히 별이라고 하면 딱딱한 암석을 연상하지만, 사실 별은 수소·헬륨 등의 가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가스들이 물리·화학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때 방출되는 빛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별빛입니다. 시간이 지나 반응을 일으키는 가스가 다 사라지고 나면, 별의 중심에는 탄소처럼 무거운 물질들만 남습니다. 이러한 상태의 별을 백색 왜성이라고 하는데, 크기는 작지만 엄청난 중력을 갖고 있습니다.

신성 현상은 별 진화의 마지막 단계인 ‘백색 왜성’과 그 짝별이 쌍을 이룬 쌍성계에서 일어납니다. 식어 가는 별인 백색 왜성이 태양처럼 안정적인 별과 가깝게 짝을 이루면 백색 왜성이 짝별의 구성 물질을 빨아들입니다. 흡수하는 물질은 주로 수소인데, 이들 가스는 회전하는 백색 왜성 주변에 쌓이면서 원반 형태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이 수소는 중력에 의해 압축되고 1억 도 가까이 온도가 올라갑니다. 결국 고온·고압으로 압축된 수소 가스가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면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고 밝은 빛을 냅니다. 폭발 순간 우주를 향해 날아간 수소 가스는 매초 수천 km 속도로 구름 형태로 퍼져 나갑니다. 제작년에 관측된 가스 구름이 이러한 신성 현상의 흔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종 19년인 1437년 음력 2월 5일의 기록에 따르면, 전갈자리 꼬리 부분 둘째 별과 셋째 별 사이에 갑작스럽게 14일간 ‘객성’이 나타났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객성이란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별을 말하는데, 이런 현상이 관측될 수 있는 이유는 신성 현상 때문입니다. 즉 연구진은 『세종실록』 덕분에 580여 년 전에도 신성 현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연구진은 작년 6월 관측된 별인 ‘노바 스코피 1437’이 세종

19년에 관측된 별이며, 이를 통해 신성 현상의 과정을 규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노바’는 신성, ‘스코피’는 전갈이라는 뜻이며, ‘1437’은 세종 19년인 1437년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역사 기록은 수천만 년 이상을 주기로 하는 별의 일생을 추적하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우리의 역사 기록은 일종의 ‘역사 망원경’인 셈입니다.

01

8048-0196

다음은 위 강연을 준비하면서 구상한 메모 중 일부이다. ㉠~㉥ 중 강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신성 현상의 흔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연구진이 사용한 사진 자료를 활용해야겠다. ……㉠
- 신성 현상이 세종 시대에 관측된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세종실록』의 기록을 제시해야겠다. ……㉡
- 신성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신성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별과 비교해야겠다. ……㉢
- 신성 현상의 흔적이 관측된 별의 이름이 지닌 의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름을 구성하는 단어들의 뜻을 풀이해야겠다. ……㉣
- 신성 현상을 연구하는 데 사용된 자료의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 비유적 표현을 활용해야겠다. ……㉤

- ① ㉠ ② ㉡ ③ ㉢ ④ ㉣ ⑤ ㉤

02

8048-0197

위 강연을 들은 학생이 심화 학습을 계획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신성 현상이 일어난 이후 발생한 가스 구름이 관측된 적이 있는지 찾아봐야겠어.
- ② 백색 왜성이 짝별의 구성 물질을 흡수할 때 짝별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찾아봐야겠어.
- ③ 천문 현상에 대한 역사적 자료가 과학적 연구에 활용된 다른 사례는 없는지 찾아봐야겠어.
- ④ 신성 현상이 일어난 이후 다음 신성 현상이 일어날 때까지 별은 어떤 상태인지 찾아봐야겠어.
- ⑤ 신성 현상으로 발생한 빛의 밝기와 신성 현상 이전 별의 밝기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찾아봐야겠어.



[03~05] 다음은 인터뷰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기자: 안녕하세요? 저는 ○○ 고등학교 학생 기자 △△△입니다.

□□ 고등학교 연극 동아리가 올해 ‘전국 청소년 연극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고교 최고의 동아리’를 주제로 □□ 고등학교 연극 동아리에 대한 특집 기사를 준비하고 있어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동아리 회장: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연극 동아리 회장 3학년 ◇◇◇입니다.

기자: 그럼 이제 질문을 시작할게요. 먼저, 연극 동아리의 주요 활동은 무엇인가요?

동아리 회장: 저희 동아리는 매년 교내 축제 때 정기 공연을 해요. 그리고 여름 방학에는 청소년 연극 대회에 참가하고 있어요. 이번 대회에는 전상국 작가의 소설 「우상의 눈물」을 각색해서 참가했어요.

기자: 무대에서 공연할 작품을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동아리 회장: 배우들 각자의 연기가 서로 잘 어울릴 수 있는 장면이 있어야 해요. 저희는 전문 연극자가 아니기 때문에 1인 연기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독백하는 장면보다는 여러 배우의 협력이 빛나는 장면 위주로 극본을 각색하고 있어요. 또한 학생 입장에서 몰입할 수 있는 이야기를 골라요. 이번 공연 작품이었던 「우상의 눈물」은 교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학급의 분위기 변화가 작품 내용의 축이기 때문에 여러 배우의 연기가 어울리기에 좋은 작품이었어요.

기자: 그렇군요. 「우상의 눈물」은 저도 문학 시간에 배워서 잘 알고 있어요. 원작의 내용 중 어느 장면에 초점을 두고 작품을 각색했나요?

동아리 회장: 이 작품은 ‘보이는 폭력’과 ‘보이지 않는 폭력’에 대해 다루고 있어요. 저희는 대학 진학이 아닌, 남들과 다른 꿈을 갖고 있는 학생이 교실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을 보이지 않는 폭력에 억압당하는 장면으로 해석해서 극을 구성했어요. 이번 대회의 심사 위원들도 학생다운 시각으로 극을 구성한 점을 높이 평가했어요.

기자: 저는 같은 소설을 읽으면서도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 정말 대단하네요. 연극 동아리 활동을 통해 스스로 변화된 점이 있나요?

동아리 회장: 사실 저는 숫기가 없는 편이었어요. 하지만 연극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적극적인 성격으로 변했어요. 저희가 연극을 공연하기 위해서는 연기나 작품 선정 외에도 무대 설치, 소품 제작, 조명 및 음향 연출 등 준비해야 할 것이 많은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저희가 준비해야 해요. 그래서 서로 간의 협력이 없이는 연극을 공연할 수가 없어요. 저 역시 1학년 때부터 다양한 역할을 맡으면서 협력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제가 하는 역할이 다른 친구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성격도 활발해졌어요.

기자: 동아리 활동을 통해 정말 긍정적인 변화를 겪었군요. 마지막으로 연극 동아리에 대해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동아리 회장: 저희 동아리에는 다양한 꿈을 가진 친구들이 많아요. 연극자가 되고 싶은 친구, 경영자가 되고 싶은 친구, 경찰관이 되고 싶은 친구도 있어요. 이렇게 서로 다른 친구들이 어울릴 수 있는 것이 연극이라고 생각해요. (말을 잠시 멈추었다가) 연극이란 인간의 삶을 연기하는 것이니까요. 저희 동아리는 서로의 꿈을 존중하면서 함께하는 것을 배우는 곳이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기자: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희 학교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03

8048-0198

다음은 ‘기자’가 인터뷰를 마치고 인터뷰 계획의 실행 여부를 점검한 표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터뷰 계획	실행 여부	
인터뷰 대상자를 만나기 전 알게 된 정보를 언급하고 인터뷰의 목적을 전달한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 ①
동아리의 주요 활동에 대해 질문하고 해당 활동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을 추가로 질문한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 ②
동아리 활동이 인터뷰 대상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질문한다.	<input type="checkbox"/>	... ③
동아리의 장점에 대해 질문한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 ④
동아리의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 질문한다.	<input type="checkbox"/>	... ⑤

04

8048-0199

‘동아리 회장’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대방의 말을 재진술하며 상대의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 ② 질문받은 내용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들어 답변하고 있다.
- ③ 질문을 통해 대화 상대방의 이해 정도를 점검하며 말하고 있다.
- ④ 상대방이 언급한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질문 내용을 예측하고 있다.
- ⑤ 대화 상대방에 대한 사전 지식을 활용하여 답변 내용을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05

8048-0200

다음은 인터뷰를 마친 후 '기자'가 취재를 보강하기 위해 구한 '□□ 고등학교 연극 동아리'의 연극 대회 공연 극본의 일부이다. 이를 보고 '기자'가 떠올렸을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조명, 교실을 비춘다. 교단에서 담임 교사가 소리친다.

담임 교사: 모두 따라 한다, (목소리에 힘을 쥐서) '정신일도 하사불성!'

학생들: (느릿한 목소리로) '정신일도 하사불성!'

담임 교사: 그따위로 하면 계속 반복한다. 다시 복창!

학생들: (좀 더 긴장한 목소리로) '정신일도 하사불성!'

담임 교사: '대학이 우리의 목표다!'

학생들: '대학이 우리의 목표다!'

학생들의 목소리는 복창을 반복할수록 긴장감이 더해 간다. 음향, 학생들의 복창 소리를 반복하여 재생한다. 갑자기 조명이 모두 꺼지고 학생들의 복창 소리도 사라진다. 담임 교사를 비추는 조명이 켜지고 주변은 어둡다.

담임 교사: 지금 이 시간부터 제군들 삼십 명이 운명을 함께하는 역사적 출항을 선언한다. 아울러 이 시간 분명히 밝혀 둘 것은 우리의 항해를 방해하는 자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나는 통제를 싫어한다. 나는 자율이라는 낱말을 좋아한다. 자율! 그러므로 여러분 위에 채찍을 휘두르며 군림하고 싶지 않다.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기 바란다.

- ① 학생들이 복창하는 장면은 여러 명의 연기를 통해 1인 연기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장면이겠군.
- ② 극본 각색, 연기, 조명 및 음향 연출 등의 다양한 역할에 참여함으로써 동아리 부원들이 협력하는 방법을 배워 갔겠군.
- ③ 복창하는 학생들 목소리의 변화를 통해 학급 분위기의 변화를 연출한 장면은 전문 연출자로부터 도움을 받은 부분이겠군.
- ④ '대학'이라는 담임 교사의 일방적 목표 제시가 남들과 다른 꿈을 가진 학생이 교실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겠군.
- ⑤ '자율'을 강조하며 학생들을 통제하려는 담임 교사의 압박을 통해 '보이지 않는 폭력'에 억압당하는 교실의 모습을 표현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06~07] (가)는 학생이 작성한 메모이고, (나)는 학생이 선생님과 나눈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발표문 작성 계획을 구상한 메모

- 작문 상황: 가짜 뉴스와 관련한 발표를 위한 글 작성
- 목적: 설명을 통해 가짜 뉴스를 소개함. ㉠
- 예상 독자 분석: 학생들은 가짜 뉴스가 무엇이며, 가짜 뉴스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궁금해할 것임. ㉡
- 내용 생성
 - 가짜 뉴스의 개념과 원인을 밝힘.
 - 외국의 가짜 뉴스 사례를 언급함. ㉢
 -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 사례를 나열함. ㉣
 - 가짜 뉴스를 분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함.
- 조직 방법: 가짜 뉴스의 개념과 발생 원인을 다루고 가짜 뉴스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함. ㉤

(나) 발표문 작성 계획을 조정하기 위한 대화

학생: 선생님, 제가 발표를 준비하려고 글쓰기 계획을 구상해 보았는데,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구상한 내용을 메모해 보았는데, 한번 봐 주시겠어요?

선생님: (메모를 확인한 후) 그래, 가짜 뉴스를 글쓰기 주제로 정한 이유가 무엇이지?

학생: 공고문에서는 학생들의 실생활과 관련이 높은 시사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즘 언론에서 많이 거론되는 가짜 뉴스에 대해 다뤄 볼까 해요.

선생님: 가짜 뉴스를 다룬다고 하면 가짜 뉴스가 무엇인지 알려주어야 하겠지? 그렇다면 가짜 뉴스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 가짜 뉴스라 하면 그 개념이 넓게 쓰이는 편인데,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니?

학생: 가짜 뉴스는 미국 대통령 선거의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짜 뉴스의 대선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부각해 볼까 해요.

선생님: 가짜 뉴스가 미국 대선에 미친 영향력을 소개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 이와 더불어 실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가짜 뉴스가 제시된다면 학생들에게 더 유용하지 않을까? 이를테면 검증되지 않은 루머나 기사를 가장한 광고와 같은 것들 말이야.

학생: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만한 가짜 뉴스들도 다루면 좋겠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게 할게요. 그런데요, 선생님, 가짜 뉴스를 상업성과 관련지어 설명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런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선생님: 요즘 같은 인터넷 미디어 시대에는 기사 클릭 수, 즉 기사를 읽은 사람들의 수가 이익으로 연결돼. 가짜 뉴스는 기사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봐야지.

학생: 그러면 가짜 뉴스를 제대로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처럼 사회 경험이 부족한 학생들은 가짜 뉴스의 진위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는데요.

선생님: 우선 기사의 정보 출처가 어디인지, 그 출처가 믿을 만한 곳인지 확인해야겠지. 그리고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확인하다 보면 진실과 거짓 여부를 판명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이런 내용들을 글의 끝부분에서 다루면 되겠구나.

학생: 선생님, 감사합니다. 발표문 잘 작성해 볼게요.

06

8048-0201

(나)를 고려할 때, (가)의 ㉠~㉥ 중 조정이 필요한 항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07

8048-0202

(나)를 고려하여 글을 작성하려 할 때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글의 처음 부분에서는 가짜 뉴스의 개념을 풀어 설명하면서 가짜 뉴스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 ② 글의 중간 부분에서는 미국 대선에 등장한 가짜 뉴스와 함께 학생들에게 유용할 가짜 뉴스 사례를 소개한다.
- ③ 글의 중간 부분에서는 가짜 뉴스와 상업적 이익 사이의 상관 관계를 밝히고 가짜 뉴스가 나타난 원인을 다룬다.
- ④ 글의 중간 부분에서는 가짜 뉴스가 유통되는 과정을 다루면서 가짜 뉴스에 대한 행정적 규제 유형을 나열한다.
- ⑤ 글의 끝부분에서는 가짜 뉴스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알려 준다.

[08~10] 다음은 기사 요청서와 그에 따라 학생이 작성한 기사의 본문 개요 및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 학교 신문 편집부의 기사 요청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위해 물질을 다루어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환경 보호에 앞장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특집 기사를 작성해 주세요.

• 본문의 개요

- 1문단: 과학적 연구 결과를 통한 주의 환기 ㉠
- 2문단: 미세 플라스틱의 개념 및 사용 제품 제시 ㉡
- 3문단: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해 위협받는 인류 ㉢
- 4문단: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파괴되는 생태계 ㉣
- 5문단: 미세 플라스틱 처리 문제에 대해 분분한 의견 ㉤
- 6문단: 환경 보호를 위한 학생들의 행동 촉구

• 기사 초고

미세 플라스틱의 역습, 생태 환경이 위험하다

〈부제〉

〈전문〉

바닷속을 뒤덮어 가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 해양 생물뿐만 아니라 인류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다.

〈본문〉

최근 비영리 언론 단체가 과학자들에게 의뢰하여 세계 권역별 14개 나라의 159개 지역 수돗물 샘플을 검사한 결과 83%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색되었다. 전 세계 수돗물의 80% 이상에 미세 플라스틱이 포함되었다는 연구 결과는 자못 충격적이다.

폴리에틸렌이나 폴리프로필렌이라는 이름의 미세 플라스틱은 5mm 미만의 작은 플라스틱 입자를 말한다. 작은 알갱이인 미세 플라스틱은 각질 제거와 세정 효과가 높기 때문에 치약, 세안제, 화장품 등에 주로 포함되어 있다. ㉡세안 관련 제품 한 개에는 약 35만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 있는데, 이는 바다에 버려진 1리터 페트병 28개가 분해된 양과 맞먹는다.

문제는 입자가 너무 작은 미세 플라스틱이 하수 처리 시설에서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 이렇게 바다로 유입된 미세 플라스틱은 플랑크톤, 물고기 등 해양 생물의 먹이로 오인되어 어류의 성장과 번식에 장애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먹이 사슬을 통해 결국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와 인류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 미세 플라스틱은 바닷물을 증발시켜 얻는 소금에서까지 발견되고 있어 인간이 버린 플라스틱이 이제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해양 생태계 파괴는 이미 한계 상황으



로 차단고 있다. 해안에 떠밀려 온 고래, 폐죽음을 당한 앨버트 로스 뱃속에서 플라스틱이 쏟아져 나오고, 새우와 플랑크톤의 몸속에서는 미세하게 분해된 플라스틱이 확인되고 있다. 치약이나 화장품 등의 생활용품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페트 병과 비닐 등의 분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 생물의 위기가 속속 보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플라스틱 남용으로 인한 인류의 직접적인 피해가 확인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하면서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한다. 이 같은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들이 통과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 7월 1일부터 미세 플라스틱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플라스틱 제품은 이미 우리 생활 전반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어 하루아침에 플라스틱을 전면적으로 사용하지 ㉠말자라고 하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앞으로 올 미래를 위해 플라스틱 제품을 덜 사용하고, 플라스틱 용기를 재활용품으로 분리 배출하여 쓰레기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10

8048-0205

기사 초고의 ㉠~㉥를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단어이므로 '검출되었다'로 고친다.
- ② ㉡: 글의 통일성을 해치므로 삭제한다.
- ③ ㉢: 문장 성분의 호응을 고려하여 '들어간다는 점이다'로 고친다.
- ④ ㉣: 조사의 사용이 잘못되었으므로 '말자고'로 고친다.
- ⑤ ㉤: 문장의 연결 관계가 어색하므로 '그러나'로 고친다.

08

8048-0203

개요의 ㉠~㉥ 중, '본문'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09

8048-0204

<보기>는 글쓰기 과정에서 학생이 떠올린 생각이다. 이에 따라 작성했을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기사의 본문 중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생태계의 위기가 인간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부각되도록 '부제'를 정해야겠어.

- ① 정화 시설에서 걸러지지 않는 미세 플라스틱, 바다까지 흘러 들어가
- ②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 생물의 위기, 그 화살은 결국 인간을 향한 것
- ③ 플라스틱의 남용으로 인해 해양 생태계의 파괴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어
- ④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고 플라스틱 용기를 재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펼쳐져
- ⑤ 전 세계 80% 이상의 수돗물에 미세 플라스틱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말에서 음절 끝소리가 될 수 있는 자음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일곱 개뿐이다. 따라서 음절 끝에 이 일곱 개 자음 이외의 자음이 오면 이 일곱 자음 중 하나로 바뀌어 발음된다. 이러한 음운의 교체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말의 자음이 음절 끝에서는 단혀서 발음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음절 ‘파[파]’를 발음해 보면, ‘ㅍ’은 두 입술을 닫고 극히 짧은 동안이나마 그 상태를 유지하다가 모음 ‘ㅏ’를 발음하기 위해 입을 여는 순간, 막혔던 공기가 터져 나가면서 소리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파열음 ‘ㅍ’은 ‘폐쇄→지속→개방’의 세 단계를 거쳐 소리가 나게 된다. 하지만 음절 ‘앞[압]’에서 음절 끝소리 ‘ㅍ’을 조음할 때에는 입술을 다물어 폐쇄를 유지한 상태로 조음 과정이 끝난다. 즉 우리말의 음절 끝에서는 파열음의 조음 과정이 폐쇄와 지속 단계는 거치지만 개방 단계가 생략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때 음절 끝소리 ‘ㅍ’은 음절 끝소리 ‘ㅂ’과 소릿값이 같아져 음절 ‘앞’이 [압]으로 발음되는데, 이는 우리말의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의 구별이 개방 단계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마찰음인 ‘ㅅ, ㅆ’ 역시 음절 끝에서 개방되지 않은 상태로 조음된다. 따라서 조음되는 위치인 ‘혀끝-윗잇몸’에서 공깃길의 단계를 되므로 음절 끝의 마찰음 ‘ㅅ, ㅆ’은 이 위치의 파열음인 음절 끝소리 ‘ㄷ’과 소릿값이 같아지게 된다. 파찰음인 ‘ㅈ, ㅉ, ㅊ’의 경우 소리 나는 위치인 ‘앞 혀바닥-센입천장’에서 단혀서 발음되면 이 위치에서 조음되는 파열음의 소릿값과 같아져야겠지만, 이러한 소리는 우리말에 없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위치인 ‘혀끝-윗잇몸’ 위치의 음절 끝소리 ‘ㄷ’으로 교체된다. 그리고 조음 위치가 뚜렷하지 않은 마찰음인 ‘ㅎ’ 역시 음절 끝에서 음절 끝소리 ‘ㄷ’으로 바뀌는 것으로 처리된다.

울림소리인 ‘ㄴ, ㄹ, ㅁ, ㅇ’도 위와 같은 과정을 겪는다. 하지만 이 네 자음은 음절 끝에서 개방 단계를 거치지 않더라도 공기의 흐름이 완전히 차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자음들과 다른 특징을 지닌다. 음절 끝 유음 ‘ㄹ’은 혀끝이 공깃길의 중앙부를 막지만 그 특성상 혀의 양옆으로는 여전히 공기가 흘러 나가는 상태로 소리가 난다. 음절 끝 비음 ‘ㄴ, ㅁ, ㅇ’은 입길을 막혀도 비음의 특성상 콧길로 공기가 흘러 나가게 된다. 따라서 울림소리인 ‘ㄴ, ㄹ, ㅁ, ㅇ’은 제 소릿값대로 조음된다.

이와 같이 우리말의 음절 끝에 마찰음, 파찰음이 오거나 파열음의 된소리, 거센소리가 오는 경우 모두 파열음의 예사소리로 교체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 우리말의 음절 끝소리가 될 수 있는 자음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일곱 개뿐이다.

11

8048-0206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우리말 음절 끝소리의 특징으로 인해 음절의 끝소리가 특정한 소리들로만 제한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 ② 파열음은 그것이 놓이는 위치에 따라 개방 단계를 생략하고 조음되기도 한다.
- ③ 동일한 위치의 된소리 파열음과 거센소리 파열음이 개방 단계 없이 조음되는 경우 소릿값의 차이가 사라지게 된다.
- ④ 음절 끝의 마찰음과 파찰음은 각각 동일한 위치에서 조음되는 음절 끝소리 파열음으로 발음된다.
- ⑤ 유음과 비음은 음절 끝에서 파열음의 예사소리로 바뀌지 않는다.

12

8048-020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표준 발음법’ 규정을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 제8항 받침소리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만 발음한다.
- 제9항 받침 ‘ㄱ, ㅋ’, ‘ㅅ, ㅆ, ㅈ, ㅊ, ㅌ’, ‘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음 [ㄱ, ㄷ, ㅂ]으로 발음한다.
- 제13항 홀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 제15항 받침 뒤에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 ① 제8항을 보면, 우리말의 음절 끝소리가 될 수 있는 자음은 파열음의 예사소리, 비음과 유음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군.
- ② 제9항을 보면, 음절 끝 파열음의 된소리와 거센소리는 모두 파열음의 예사소리로 교체된다는 것을 알 수 있군.
- ③ 제13항을 보면, 제9항에 열거된 자음들이 음절 끝에서 파열음의 예사소리로 바뀌지 않고도 음절 끝소리로 발음될 수 있음을 알 수 있군.
- ④ 제15항을 보면, 뒤 음절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인 경우 앞 음절의 끝소리가 파열음의 예사소리로 바뀐 뒤 연음된다는 것을 알 수 있군.
- ⑤ 제13항과 제15항을 보면, 음절의 끝소리가 파열음의 예사소리로 바뀌는 현상이 조음상의 특징만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군.



13

8048-0208

밑줄 친 말에 주목하여 <보기>의 ㉠~㉥에 대해 탐구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 장사꾼들 사이에 시비가 오고 갔다. / 날이 더워서 꽃이 시들어 갔다.
- ㉡ 길을 꾸민다고 마음이 예뻐지지 않는다. / 그 옷은 예쁘지 않다.
- ㉢ 문제가 조금 어려운 듯하다. / 기차가 연착할 듯하다.
- ㉣ 나는 사과를 먹어 보았다. / 나는 사과를 먹어 보고 싶다.
- ㉤ 약속 시간에 늦었더니 친구들이 다 가 버리고 없었다. / 약속 시간에 늦었더니 친구들이 다 *가서 버리고 없었다.

*는 비문법적임을 나타내는 표시임.

- ① ㉠을 보니, 동일한 형태의 단어가 본용언으로도 보조 용언으로도 쓰일 수 있군.
- ② ㉡를 보니, 동일한 보조 용언이라도 본용언의 품사에 따라 보조 용언의 품사가 달라질 수 있군.
- ③ ㉢를 보니, 본용언의 품사가 다르더라도 보조 용언의 품사는 동일할 수 있군.
- ④ ㉣를 보니, 보조 용언 뒤에 또 다른 보조 용언이 추가되면, 앞의 보조 용언이 본용언으로 변할 수 있군.
- ⑤ ㉤를 보니, 본용언과 보조 용언 사이에 연결 어미 '-아서'가 들어가면 문법에 어긋날 수 있군.

14

8048-0209

<보기>의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문장의 주체가 자기 스스로 행하지 않고 남에게 그 행동이나 동작을 하게 함을 나타내는 동사를 사동사라 하고, 문장의 주체가 남의 행동을 입어서 행하여지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를 피동사라 한다. ㉠동일한 동사의 어근에 사동 접사나 피동 접사를 덧붙여 각각 사동사와 피동사를 만들 수 있는데, 사동 접사와 피동 접사의 형태가 같아 사동사와 피동사의 형태가 같은 경우가 많다.

- ① 그녀는 자랑삼아 편지를 나에게 보여 주었다. / 멀리 건물 사이로 하늘이 보인다.
- ② 자전거가 논길에서 흙먼지를 날리며 지나갔다. / 봄에는 꽃가루가 날려 눈병에 걸리는 사람이 많다.
- ③ 기업주들이 은행에 토지를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렸다. / 그의 집은 채권자에게 담보로 잡혀 있는 상황이다.
- ④ 임금은 제 배만 불리는 관리들을 색출하여 귀양을 보냈다. / 시상식에서 내 이름이 불렸을 때 나는 숨이 멎을 뻔했다.
- ⑤ 사실 줄곧 누이에게만 애를 업히는 엄마에게 슬그머니 불평 같은 것이 생겼다. / 어린애가 엄마의 등에 업힌 채 세차게 울고 있었다.





15

8048-0210

〈보기〉는 ‘있다’의 높임 표현에 대한 선생님의 설명이다. 이를 참고할 때, 밑줄 친 부분의 높임 표현이 적절한 것은?

보기

선생님: ‘있다’의 높임 표현에는 ‘있다’에 선어말 어미 ‘-시-’를 붙여 활용한 ‘있으시다’와 ‘있다’의 특수 어휘인 ‘계시다’ 두 가지가 존재해요. 이 두 높임 표현은 ‘있다’의 의미에 따라 달리 나타납니다. 그러면 국어사전의 뜻풀이를 통해 ‘있다’의 적절한 높임 표현을 알아볼까요?

있다01

[I] 「동사」

[1] 【...에】

「1」 사람이나 동물이 어느 곳에서 떠나거나 벗어나지 아니하고 머물다.

[II] 「형용사」

[5] 【...으로】

사람이 어떤 지위나 역할로 존재하는 상태이다.

[III] 「보조 동사」

「1」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변화가 끝난 상태가 지속됨을 나타내는 말.

「2」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 계속 진행되고 있거나 그 행동의 결과가 지속됨을 나타내는 말.

계시다

[I] 「동사」

【...에】

‘있다01 [I] [1] 「1」의 높임말.

[II] 「보조 동사」

「1」 ‘있다01 [III] 「1」의 높임말.

「2」 ‘있다01 [III] 「2」의 높임말.

- ① 교수님께서서는 지금 댁에 있으실 겁니다.
- ② 할머니는 보통 새벽 4시부터 깨어 있으신다.
- ③ 아버지는 오빠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으셨다.
- ④ 선생님께서는 현재 모 대학의 교수로 있으시다.
- ⑤ 어머니께서는 손주가 꺾까 봐 계속 안고만 있으셨다.

[16~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전통적으로 기억은 한 개인이 자신의 과거를 현재화하는 심리적 현상으로 규정되어 왔다. 개인의 기억을 자기 철학의 기반으로 삼았던 베르그송은 개인의 정신적 상태의 연속을 의미하는 ‘지속’ 개념을 강조하면서, 이것은 각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귀속되어 기억의 토대를 이룬다고 주장했다. 이후 기억의 구성 과정에서 집단과 사회의 역할에 주목하는 학자들이 생겨났고, 이들 중 프랑스의 사회학자 ㉞알브락스는 통개인적(通個人的, trans-individual) 및 경험적, 비경험적 과거에 대해 특정 집단 내에서 공유된 인지를 뜻하는 ‘집단 기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기억 행위와 소유의 주체는 개인이지만 그 개인의 기억은 사회적으로 각인되는 것임을 강조하고자 했다.

알브락스에 따르면 집단 기억은 ‘사회적 구성물’, 즉 특정 집단을 이루는 구성원들 간의 자연 발생적인 의사소통과 상호 작용을 통해 만들어진다. 이 틀을 이루는 언어나 상징체계는 한 개인의 것이 아닌 사회적인 준거라는 점에서 기억은 애초부터 집단의 것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사회적 구성틀을 통해 발생, 분배, 공유된 집단 기억은 공간을 통해 실 [A] 체화되고 공고해진다. 집단의 구성원은 특정 공간에 그들 집단의 과거 사건과 관련된 상징적 이미지를 상상하거나 창조하고, 의사소통을 통해 이를 공유한다. 공간을 통해 구체화된 집단 기억은 그 집단의 구성원들을 여타의 집단과 구별 짓는 특수한 정체성을 제공한다. 따라서 집단 기억은 집단 외부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반면, 집단 내부에서는 동질성을 생성하고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사회 귀속성과 공간 친화성을 집단 기억의 속성으로 규정한 알브락스는 위 논의를 바탕으로 집단 기억을 역사와 대립되는 것으로 설명했다. 역사는 상상적 공간을 재현하는 대신 객관적인 사실을 확정하고 균질적인 시간성에 의거하여 체계적으로 배열함으로써 모든 집단에 불편부당한* 추상적 정체성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보편 불변의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집단 기억은 각각의 집단이 상상적 공간 이미지를 매개로 하여 배타적으로 공유하는 것이다. 집단 기억은 사회 내 집단이나 제도의 수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성립하고 존재할 수 있으며, 기억들 간의 경쟁이나 다방향적 작용으로 인해 상호 교섭, 참조, 모방, 수렴 등의 변화를 거치기도 한다.

알브락스의 집단 기억 개념은 한 집단이 실제 체험이나 비교적 가까운 과거의 사건에 대한 기억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구체적 정체성을 획득하는 과정을 구명했으나 오랜 시간에 걸쳐 집단 기억이 작용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보였다. ㉞아스만은 이를 지적하면서, 기억이 인공적이고 조직적으로 구축되는 문화적 창조물이라는 가정을 제시하고 오랜 시간에 걸친 기억의 형성 과정을 설명했다.



아스만에 따르면, 한 사회 내에서 주도권을 쟁취한 집단은 자신들의 집단 기억에 가해지는 시간적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 그 기억을 머나먼 기원에 ㉔소급하려 한다. 집단 기억의 시간적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그 기억을 지닌 자신들 집단의 보편적 정당성을 획득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원에 대한 기억은 그 집단의 현실 체험과 ㉕유리되어 있기에, 이를 환기하기 위해서는 기록물, 텍스트, 건축물, 도상, 모비, 사원, 기념비, 또는 제의와 축제 등과 같은 물질적, 상징적 형식을 통한 전승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는 이러한 유서 깊은 기억을 ‘문화적 기억’으로, 알브박스의 집단 기억 개념을 ‘의사소통적 기억’으로 지칭하고 이들을 집단 기억을 이루는 두 기억 형식이라고 규정했다. 의사소통적 기억이 동시대인의 생생한 체험에 대한 기억이라면, 문화적 기억은 머나먼 기원에 대한 전승의 결과에 대응된다. ㉖또한 아스만은 집단 기억을 현재의 직접적인 요청에 적절히 기능하도록 구성되는 ‘기능 기억’으로, 역사를 과거의 경험과 지식을 적절한 매체를 통해 저장하여 보존함으로써 항시적인 부름에 응하고자 하는 ‘저장 기억’으로 구별하여, 역사를 기억의 틀 안으로 통합시켰다. 이렇게 기억이 현실적 ‘기능’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과 지식을 저장하는 것임을 밝힘으로써, 그는 기억의 상대적 안정성과 부단한 변화 가능성을 동시에 부각했다.

*불편부당한: 아주 공평하여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16

8048-0211

윗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집단 기억의 개념은 기억 행위의 주체를 집단으로 보는 학문적 흐름에서 비롯되었다.
- ② 베르그송은 개인의 정신적 상태의 연속인 ‘지속’이 개인 기억의 토대를 이룬다고 주장했다.
- ③ 알브박스에 따르면 집단 기억은 상호 경쟁 및 다방향적 작용의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를 거치기도 한다.
- ④ 기억이 자연 발생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만들어진다고 했던 알브박스와 달리 아스만은 기억이 인공적 창조물이라고 생각했다.
- ⑤ 아스만은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체험에 대한 기억을 환기하기 위해서는 물질적, 상징적 형식을 통한 전승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17

8048-0212

[A]를 읽고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예수 사후의 성지 순례자들은 예수의 수난과 부활에 대한 기억을 실체화하기 위해 팔레스타인 땅을 찾았고, 그곳에서 ‘성지’의 이미지를 상상으로 창조했다.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사이의 경관은 순례자들에게 끊임없이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기념 장소로 자리 잡았고, 이를 통해 재현된 예수에 대한 기억은 서구 기독교인들에게 생생한 전통으로서 정체성의 원천을 제공할 수 있었다.

- ① ‘예수의 수난과 부활’은 과거의 사건으로서 종교적 동질성을 지닌 집단 성원들 사이에서 공유되어 온 집단 기억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 ② ‘팔레스타인 땅’, ‘베들레헴’, ‘예루살렘’은 ‘서구 기독교인들’이 ‘예수의 수난과 부활’과 관련된 상징적 이미지를 창조해 온 공간으로 볼 수 있다.
- ③ ‘순례’라는 행위는 특정 공간을 방문함으로써 과거 사건에 대한 집단의 기억을 생생한 것으로 경험하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순례자들’이 공간을 통해 환기된 영감을 공유하고 전달하는 것은 사회적 구성들에 의해 집단 기억이 매개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 ⑤ ‘예수에 대한 기억’을 ‘재현’하는 것은 과거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함으로써 동질성의 범위를 다른 집단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18

8048-0213

‘역사’에 대한 ㉗와 ㉘의 주장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㉗는 ‘역사’의 저장적 측면에, ㉘는 ‘역사’의 기능적 측면에 주목했다.
- ② ㉗는 ‘역사’가 구체적 정체성을 제공한다고 주장했지만, ㉘는 ‘역사’가 제공하는 것이 추상적 정체성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 ③ ㉗는 ‘역사’를 집단 기억과 대립되는 것으로 보았지만, ㉘는 ‘역사’와 집단 기억이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병립하고 있다고 보았다.
- ④ ㉗와 ㉘는 모두 ‘역사’의 부단한 변화 가능성을 인정했다.
- ⑤ ㉗와 ㉘는 모두 ‘역사’의 전승 과정에서 매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19

8048-0214

〈보기 1〉은 ㉠과 관련하여 학생이 찾은 심화 자료이다. 이를 참고하여 〈보기 2〉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1

• 아스만이 설명한 기능 기억과 저장 기억의 차이

기능 기억	저장 기억
집단, 제도 등의 보유자와 결부되어 있다.	특정한 보유자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를 놓는다.	현재와 미래로부터 과거를 철저하게 분리한다.
기억할 내용과 망각할 내용을 구별함으로써 과거의 사건을 선별적으로 처리한다.	모든 것이 기억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모든 것이 동등한 중요성을 지닌다.
가치들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특정 가치를 통한 정체성이나 행동 규범이 만들어진다.	객관적 진리를 찾아내면서 동시에 가치와 규범을 멀리하고자 한다.

보기 2

너지 임례는 1956년 헝가리의 총리로서 붕기를 주도했다가 소련군에 의해 진압당하고 얼마 후 처형된 인물이다. 너지에 대한 추모는 공산당 정권에 의해 기록에서 사라졌고, 공론장에서 언급되지 않도록 주도면밀하게 통제되었다. 그러나 그에 대한 기억은 소멸되지 않았고 책에서 사라졌기에 오히려 대중에게 깊이 각인되었다. 한 자유사상 단체는 1989년 너지의 상징적인 장례식을 치르고, 같은 해 대규모 장례 행사의 비용을 들여 그를 부다페스트 묘지에 이장하고 이를 매스컴에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공식적으로 말살된 기억의 상징인 너지는 결국 헝가리 탈공산화의 결정적 견인차가 되었다.

- ① 공산당 정권은 너지와 관련된 과거 사건에 대한 기억을 통제함으로써 자신들 정권의 정체성과 행동 규범을 공표하고 정권의 유지를 꾀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너지에 대한 기억을 없애고자 하는 시도는 기억할 내용과 망각할 내용을 구별하고 과거 사건을 선별적으로 처리하는 기능 기억의 특징을 보여 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③ 너지에 대한 기억이 대중에게 각인되었다가 이후 자유사상 단체에 의해 기념된 것은 이 기억이 저장 기억으로 존재하다가 이후의 필요에 응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너지에 대한 기억이 헝가리의 탈공산화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을 통해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기능 기억의 속성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너지 혹은 공산당 정권과 관련된 기억은 저장 기억의 측면에서 동등한 가치를 지니지만, 특정 집단의 의도에 따라 서로 다른 정체성 부여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20

8048-0215

㉡와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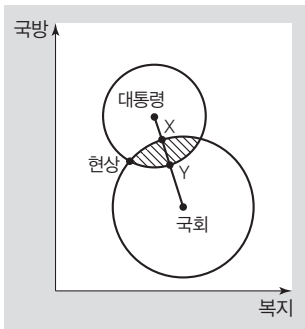
- ① ㉡는 ‘맞닿게 하려’로 대체할 수 있다.
- ② ㉢는 ‘동떨어져’로 대체 가능하다.
- ③ ㉡는 ‘연결’, ㉢는 ‘분리’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 ④ ㉡는 사동의 의미를, ㉢는 피동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 ⑤ ㉡는 시간적 맥락에서, ㉢는 공간적 맥락에서 사용된 어휘이다.



[21~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정부나 정당의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법률로 제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와 대통령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회 본회의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거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은 법률로 제정되지 못한다. 정책에 대한 대통령과 국회의 선호가 일치한다면 법률이 순조롭게 제정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다. 때로는 어느 한쪽만의 선호가 법률 제정에 반영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쪽의 정책도 실현되지 못하고 기존의 정책이 유지되기도 한다.

‘거부권 행사자 이론’에서는 공간 모형을 이용하여 이러한 결과의 차이를 설명하고자 했다. ㉠거부권 행사자란 현 상황의 변화를 위해 반드시 동의를 필요한 행위자를 뜻한다. 이 이론에서는 거부권 행사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정책 혹은 법률의 위치, 즉 ㉡이상점과 현 상황을 공간 모형 위에 표시하여 법률 제정의 결과를 예측한다.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한 국가에서 정부 예산안을 놓고 대통령과 국회가 협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다음 그림과 같이 나타내 보자.



그림에서 현상, 즉 현 상황은 기존의 정부 예산을 가리키며, 점으로 표시된 대통령과 국회는 각 정치 주체가 가장 선호하는 예산안, 즉 이상점으로 표현된다. 새로운 정부 예산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국회의 동의를 필요하므로 이들은 모두

거부권 행사자이며, 새 예산안에 대해 둘 중 하나라도 거부한다면 기존의 정부 예산이 유지된다. 거부권 행사자들은 자신의 이상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대안들에 대해 무차별적인 선호를 가지는 것으로 가정되며, 이는 이상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림에는 각 거부권 행사자의 이상점을 중심으로 현상을 통과하는 원이 제시되어 있다. 이를 보면 각 거부권 행사자는 자신의 이상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 위나 내부에 위치하는 어느 새로운 예산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예산안에 비해 자신의 이상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지므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그림에서 두 원이 겹치는 영역은 거부권 행사자들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들의 집합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기존의 정책을 변경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의 집합을 ㉢현 상황의 승리 집합이라고 하며, 이는 곧 현 상황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새 법률이 승리 집합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느 점에 위치하게 될지도 예측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는 대통령과 국회 중 누가 먼저 예산안을 제시하는가를 파악해야 한다. 다시 말해 거부권 행사자들 가운데 ㉣의제 설정자가 누구 인지를 알아야 한다. 만약 대통령이 의제 설정자라면 그는 X의 위치에 예산안을 먼저 제시할 것이다. 국회가 거부하지 않을 승리 집합 가운데 X가 자신의 이상점과 가장 가깝기 때문이다. 반대로 국회가 의제 설정자라면 정부 예산은 Y의 위치에서 결정될 것이다. 결국 의제 설정권을 누가 가지느냐에 따라서 X와 Y 사이의 거리만큼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때에 따라서는 새로운 대안에 대한 어떠한 시도도 상대 거부권 행사자에 의해 저지되어 거부권 행사자들이 현 상황을 바꾸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을 ㉤교착 상태라고 하며, 이는 곧 (㉦)이라고 할 수 있다. 교착 상태는 대통령제하에서보다는 의원 내각제하에서 좀 더 원활하게 해결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의회 다수당 혹은 다수 연합의 대표가 총리가 되어 내각을 수립하는 의원 내각제의 속성상, 의회의 이상점과 행정부의 이상점이 대체로 동일하기 때문이다. 즉 의원 내각제는 대통령제에 비해 실질적인 거부권 행사자의 수가 하나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상을 바꾸기가 보다 용이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산법률주의: 예산을 법률로 제정하여 예산에 법률적 효력을 부여하고 법률의 형태로 편성해야 한다는 원칙.

21

8048-021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정치 체제의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 ② 입법 제도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면서 그 역사적 배경을 탐색하고 있다.
- ③ 새로운 정책에 비해 기존 정책에 대한 선호가 높은 이유를 특정 이론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④ 정책 실현을 위한 법률 제정의 과정에 주목하면서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정치 주체의 선호에 따라 정책 결정이 달라지는 현실을 비판하면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소개하고 있다.



22

8048-0217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기존 정책의 변화를 위해 반드시 그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자로, 국회, 대통령 등의 정치 주체를 가리킨다.
- ② ㉡: 거부권 행사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정책의 위치를 의미하는, 그래프 상의 지점을 가리킨다.
- ③ ㉢: 거부권 행사자들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들의 집합으로, 거부권 행사자들의 합의로 결정된 새 법률은 이 중 한 점에 위치하게 된다.
- ④ ㉢: 거부권 행사자들 중 새로운 제안을 먼저 제시하는 주체를 의미하며, 자신의 이상점을 의제로 설정함으로써 최대한의 이익을 취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 ⑤ ㉢: 어떠한 새로운 정책도 거부되어 현 상황이 유지되는 상태를 가리키며, 거부권 행사자의 수가 적으면 좀 더 원활하게 해결되는 경향을 보인다.

[23~24] 윗글과 <보기>를 읽고 23번과 24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

A국의 정부는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당해 예산안에 대한 9개 긴급안을 편성했고, 이 긴급안은 국회를 통과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입법된 후 실행을 앞둔 상태였다. 그러나 A국의 헌법 재판소는 이 긴급안 가운데 공무원 연금 삭감 등 4개 긴급안에 대해 '평등의 기본 원칙'이라는 헌법의 정신에 반하고 국민의 복지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렸고, 이로 인해 4개 긴급안은 실행되지 못했다.

23

8048-0218

<보기>의 '헌법 재판소'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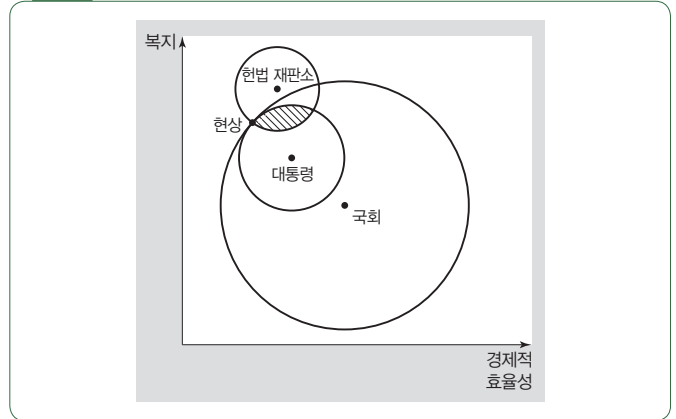
- ① '평등'이라는 새로운 의제를 제시하는 의제 설정자이다.
- ② 당해 예산안 전체를 실행되지 못하게 한 원인의 제공자이다.
- ③ 국회, 대통령(정부)과 더불어 법률의 제정과 시행에 그 동의가 필요한 거부권 행사자이다.
- ④ 국회와 대통령(정부)이 합의하여 결정한 정책을 입법하는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정치 주체이다.
- ⑤ '공무원 연금 삭감'에 관해 국회 및 대통령(정부)과 유사한 이상점을 공유하고 있는 정치 주체이다.

24

8048-0219

<보기>의 상황이 다음 <그림>과 같이 표현된다고 할 때, <그림>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그림



- ① 세 정치 주체 모두 기존 정책에서 '경제적 효율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국회와 대통령만이 거부권 행사자가 될 경우와 비교해서 현상의 승리 집합의 크기가 크게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 ③ 정책 합의의 주체가 국회와 대통령인 경우 국회는 대통령이 제시한 정책이 무엇이든 합의하게 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 ④ 헌법 재판소가 '경제적 효율성'과 '복지'를 모두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상의 변화를 원하는 반면, 국회와 대통령은 현상에서 '복지'의 강화보다는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그림>의 승리 집합 내에서 합의안이 도출될 경우 헌법 재판소 측의 이상점을 충족하는 수준으로 복지가 강화된 법안이 제정될 것임을 알 수 있다.

25

8048-0220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제 설정자의 역할이 부각되는 상황
- ② 승리 집합의 크기가 최소로 설정되는 상황
- ③ 현 상황의 승리 집합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
- ④ 기존 정책의 효용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
- ⑤ 현 상황의 변화 가능성이 최대한으로 예상되는 상황



[26~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면역이란 외부의 병원균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방어하는 현상을 말하며, 그 1차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피부와 점막이다. 우리 몸에 외부로 난 구멍들과 이들을 연결하는 통로들은 대부분 점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이곳의 침, 각종 효소, 위산 등은 외부로부터 침입한 병원균을 막아 내는 역할을 한다. 때로는 피부나 점막에 상처가 나서 병원균이 침투하게 되는데, 이때 출동하는 것이 면역 세포, 즉 백혈구이다. 백혈구는 어느 한 세포의 이름이 아니라 혈액과 림프액 속에서 면역을 담당하는 몇 가지 세포 집단을 **㉑**지칭하는 말로, 호산구, 호중구, 대식 세포, T 세포, B 세포, NK 세포 등을 포함한다. 이들은 모두 조혈모 세포로부터 분화되며, 일반적으로 백혈구라고 하면 이들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호중구를 뜻한다. 혈류를 따라 혈관 중심에서 움직이던 백혈구가 병원균의 침투를 알아차리고 혈관 밖의 염증 부위로 이동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병원균이 침투했다는 사실을 백혈구가 알아차릴 수 있는 이유는 케모카인이라는 물질 때문이다. 케모카인은 평소에도 분비되어 백혈구들의 이동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다가, 상처가 나 병원균이 침투하면 이를 가장 먼저 감지한 대식 세포가 보내는 신호를 받고 해당 부위에 집중적으로 분비된다. 이는 백혈구 세포에 있는 케모카인 수용체의 반응을 **㉒**야기한다. 이 수용체는 백혈구 세포의 막에 존재하며, 마치 뱀이 파리를 틀고 있는 듯한 모양을 하고 있다. 상처 부위에 다량의 케모카인이 분비되면 케모카인의 농도가 짙은 부위로 케모카인 수용체들이 쏠리면서 백혈구가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케모카인에 의해 주화성*을 띠게 된 백혈구들은 세포막 표면에서 쌍을 이루는 **부착분자들**의 결합을 이용하여 혈관 내부에서 움직이는 속도를 조정하게 된다. 이 부착분자들은 셀렉틴과, 뮤신과, 면역 글로불린 상과, 인테그린과의 네 가지로 **㉓**변주화되는데, 주로 셀렉틴과는 뮤신과 결합하고 면역 글로불린 상과는 인테그린과 결합한다. 이들 각각의 결합 쌍을 이루는 부착분자 중 하나는 백혈구 세포에, 다른 하나는 혈관의 내피세포에 발현되어 백혈구의 움직임을 조정하게 된다.

우선 셀렉틴과 뮤신의 결합은 백혈구들이 적절한 속도를 유지하며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다. 셀렉틴과 뮤신이 혈관 내피세포와 백혈구 세포의 표면에 **㉔**발현되면 이들 간의 약한 결합이 이어졌다 끊어졌다를 반복하게 되면서, 백혈구는 혈관 벽을 타고 구르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게 된다. 셀렉틴은 호중구와 혈관 내피세포의 관계에서는 후자에, T 세포와 혈관 내피세포의 관계에서는 전자에 주로 발현하여 백혈구가 혈류에 휩쓸리지 않고 상처가 난 곳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상처가 난 곳을 향해 이동하던 백혈구는 인테그린의 도움으로 목적지인 염증 조직 부근에서 정지하게 된다. 케모카인의 신호

에 의해 활성화되는 인테그린은 주로 백혈구의 세포막 표면에 존재하는데, 평소 무릎을 꿇고 있는 듯한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백혈구는 쉽게 혈관 벽에 **㉕**부착되지 않고 혈류를 따라 흘러간다. 그러나 케모카인의 연속적인 신호로 인해 인테그린이 활성화되면서 인테그린은 다리를 쭉 편 듯한 자세를 취하게 된다. 이렇게 활성화된 인테그린은 주로 혈관 내피세포에 발현되는 면역 글로불린 상과 부착분자와 강한 결합을 형성한다.

인테그린과 면역 글로불린 상과 부착분자의 강한 결합으로 인해 목적지에 정지하게 된 백혈구는 혈관 내피세포 사이로 빠져나가 염증이 일어난 조직으로 침투하게 되고, 이후 각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가장 먼저 도착한 호중구는 케모카인 알람이 울린 지 6~12시간 안에 감염 부위로 몰려들어 병원균을 분해하고 활성 산소를 만들어 병원균을 죽이기도 한다. 감염 발생 후 12시간쯤 지나면 더욱 강력한 면역 세포인 NK 세포가 등장하여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죽여 없애는데, 여기까지가 모든 동물이 가지고 있는 면역 시스템인 선천적 면역의 과정에 해당된다.

*주화성: 생물이 화학적 자극에 반응하여 운동하는 성질

26

8048-022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백혈구의 종류를 구분하고 각각의 기능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② 백혈구가 염증 부위로 이동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③ 백혈구의 분화 과정을 설명하고 이러한 과정이 일어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 ④ 선천적 면역의 과정에서 병원균의 침투를 막는 다양한 부착분자의 기능을 분석하고 있다.
- ⑤ 염증 부위에 침투한 병원균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백혈구가 대응하게 되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27

8048-0222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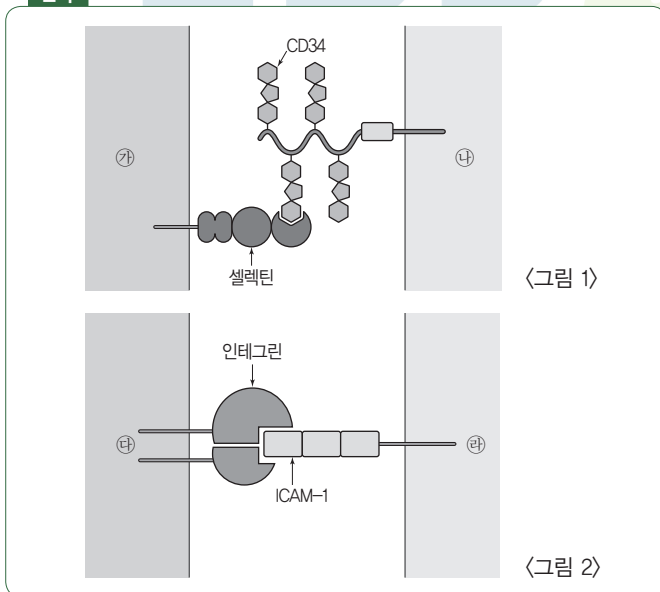
- ① 백혈구는 모두 조혈모 세포로부터 분화된다.
- ② 병원균이 침투하면 이를 가장 먼저 감지하는 것은 대식 세포이다.
- ③ 선천적 면역 과정에서 제거되지 않은 병원균은 NK 세포에 의해 처리된다.
- ④ 케모카인은 상처가 났다는 사실을 백혈구에 알리는 알람과 같은 역할을 한다.
- ⑤ 면역 과정에서 1차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점막에 존재하는 침, 각종 효소, 위산 등이다.

28

8048-0223

<보기>는 부착분자들을 나타낸 것이다. 윗글을 읽고 <보기>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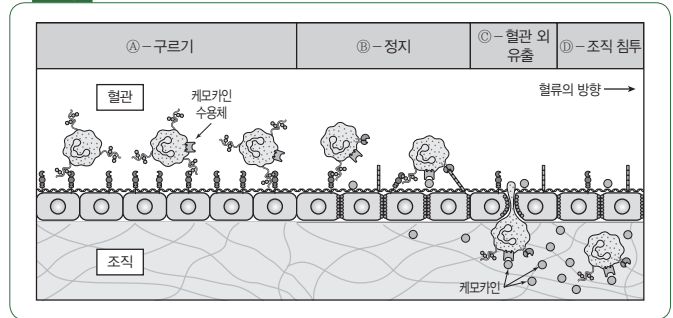
- ① <그림 1>의 'CD34'는 뮤신과에 속하는 부착분자이다.
- ② <그림 1>의 ㉓가 혈관 내피세포라면 ㉔는 백혈구 중 T 세포이다.
- ③ <그림 2>의 'ICAM-1'은 면역 글로불린 상과에 속하는 부착분자이다.
- ④ <그림 2>의 ㉑는 백혈구, ㉒는 혈관 내피세포이다.
- ⑤ <그림 1>의 결합은 <그림 2>의 결합에 비해 강도가 약하다.

29

8048-0224

<보기>는 호중구의 이동을 나타낸 그림이다. 윗글과 <보기>를 관련지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 ① A에서 부착분자들의 결합은 호중구가 움직이는 속도의 조절에 기여한다.
- ② A에서 보이는 케모카인 수용체의 반응과 B에서 일어나는 인테그린의 변형은 케모카인의 신호에 의해 이루어진다.
- ③ B와 같이 호중구가 특정 부위에 정지하게 되는 것은 인테그린의 활성화 과정이 선행되었기 때문이다.
- ④ C와 D에서 보이는 다량의 케모카인은 백혈구 세포에 존재하는 케모카인 수용체의 농도를 감지하는 역할을 한다.
- ⑤ D에서 호중구는 병원균을 분해하고 활성 산소를 만들어 병원균을 죽이는 작업을 수행한다.

30

8048-0225

문맥상 ㉑~㉓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가리키는
- ② ㉒: 끌어올린다
- ③ ㉑: 나뉘는데
- ④ ㉑: 나타나면
- ⑤ ㉑: 달라붙지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레포츠용품 수입업체의 영업 사원인 '나(민수)'는 형의 17층 아파트에 얹혀살며, 매일 백화점의 5, 6층에 있는 매장에 가서 영업 실적을 확인해야 하고, 그 결과를 11층에 있는 회사에 올라가 보고해야 한다. 이 끔찍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나'는 지상을 인간의 온갖 속물스러움이 판치는 공간으로 여기며, 지상에 편입되기를 거부한다. 그러던 '나'는 백화점 안내 사원인 주희와 만난다. 화려해 보이는 직업과는 달리 옥탑방에 살고 있던 주희는 관계가 진전되기를 바라는 '나'에게 가난에 찌든 자신의 삶의 공간을 보여 준다. 그녀는 '나'와 달리 그것이 인간적인 타락일지라도 지상의 주민이 되고픈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밝힌다. '나'는 옥탑방에서 지상에서의 삶과는 다른 해방감을 느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 어느 날 '나'는 백화점에 들렀다가 그녀가 갑작스럽게 5일간 휴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금요일 밤, 자정 무렵이 거의 다 되어서야 그녀는 ㉠옥탑방으로 돌아왔다. 월요일 밤부터 시작된 나의 막막한 기다림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깨에 멘 가방을 방바닥에 내려놓고 그녀는 한없이 몽롱한 표정으로 벽에 등을 기대고 힘없이 미끄러져 내렸다. 하지만 움푹하게 가라앉은 두 눈과 피곤에 지쳐 늘어진 그녀의 어깨를 보면서 나는 선뜻 말문을 열 수 없었다. 수명의 전모를 간파하지 못하는 인생의 장님, ㉡그녀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게 도대체 뭐란 말인가.

“……일요일에 엄마가 죽었어. 그래서 시골로 내려가 장례를 치르고…… 소아마비로 다리를 저는 여동생을 이모네 집에 맡기고 왔어. 하지만 전생의 일처럼…… 지난 며칠 동안 나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벌써 까마득하게 느껴져.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나 했던 건지…… 지금도 여전히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애.”

“내가 누구인지는 알겠어?”

그 순간, 내가 무엇 때문에 그런 질문을 건넸는지 모를 일이었다. ㉢막막한 기다림에 나도 또한 지칠 대로 지쳐 있었기 때문에 울컥, 나도 모를 역겨움이 치밀어 오른 것인가. 나의 질문을 받고 나서 그녀는 벽에 기댄던 머리를 들고 물끄러미 나를 보았다. 굳은 표정으로 내가 담배를 피워 물었을 때, 초점을 상실한 듯하던 그녀의 두 눈에는 어느새 맑은 눈물이 그렇그렇하게 고여 있었다.

“민수 씨,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어쩌서 민수 씨가 나에게 무엇이라도 되는 양…… 왜 자꾸 그런 식으로 행동하느냐 말야. 민수 씨가 누구인지…… 그런 걸 내가 왜 알아야 하지? 난 민수 씨가 누구인지 알아야 할 필요도 없고…… 정말, 진심으로 그런 건 알고 싶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제 그만 돌아가. 그리고…… 이제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민수 씨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고…… 나도 민수 씨에게 하등 도움이 안 되는 여자야. 그러니까, 제발…….”

“제발, 어쩌라는 거지? 저 낮은 지상의 주민이 되어 편안하게 안주하고 싶어 하는 주희의 꿈을 방해하지 말고 이제 그만 눈 앞에서 꺼져 달라, 이건가? 진실도 없고 감정도 없고, 오직 목적만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그 파렴치한 꿈 말인가? 그걸 위해 자신을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서 정말 행복하겠군. 하지만 말야, 이것 한 가지는 분명하게 알아 뉘. 그런 꿈을 실현하기 위해 자신을 철저히 기만하고 사느니, 차라리 꿈이 없이 사는 게 훨씬 나은 거라는 게 내 생각이야. 꿈을 위해 현실을 깡그리 부정하겠다는 거, 이미 꿈의 노예가 되었다는 뜻 아닌가?”

그녀가 오랫동안 공들여 쌓아 올린 탑을 허물어뜨리는 심정으로 나는 정신없이 지껄여 대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옥탑방에 대해 일말의 미련도 남기지 않기 위해, 그리고 뒤돌아서서 아쉬워하지 않기 위해 내 스스로 무너지는 탑이 되고자 한 것이었다. ㉣꿈꾸는 자를 꿈꾸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하느니, 차라리 잔혹한 파괴자가 되어 꿈의 가능성까지 짓밟아 버리는 게 훨씬 현명한 일 아니겠는가.

그날 이후 나는 그녀를 만나지 않았다. 업무를 위해 백화점으로 들어갈 때도 그녀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 정문 대신 건물 오른편의 옆문을 이용했다. 뿐만 아니라 먼 거리에서 시선을 맞닥뜨리는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매장 중앙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뒤쪽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5층으로 올라가곤 했다. 하루 이틀 사흘,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도록 내 마음에는 별다른 동요의 조짐이 일어나지 않았다. 겨울로 가는 가을의 막바지, 떨어진 가로수 잎새가 바람에 나뉘는 을씨년스러운 거리 풍경이 차라리 마음에 위안이 되는 것 같아 자주 창밖으로 눈길을 돌리곤 했을 뿐이었다.

십일 월.

조락이 끝나 가는 세상의 풍경을 눈여겨보며 나는 아주 가끔 「시시포스의 신화」를 떠올리곤 했다. 신화가 아니라, 산정에서 끊임없이 굴러떨어지는 바위가 아니라, 되풀이되는 시시포스의 절망이 아니라, 그것의 영원한 재현을 생각한 것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하지만 인간적인 숙명성으로 몽타주된 시시포스들의 육체에서 나는 더 이상 신화 속에서도 같은 육체적 긴장감을 발견할 수 없었다. 어느 누가 찡그린 얼굴, 바위에 부여대는 뺨, 진흙에 덮인 돌덩이를 멈추려고 버틴 다리, 그리고 바위를 받아 안는 팔과 흉터성이의 믿음직한 손을 여전히 지니고 있는가.

우리는 모두 거세당한 시시포스들, 산정을 향해 바위를 밀



[A]

어 올리는 불굴의 의지를 상실한 시시포스들이었다. 신을 향한 열시를 통해 인간의 운명을 극복하려는 반항적인 분투가 사라지고, 이제 지상에는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인간의 열시가 범람하고 있을 뿐이었다. 어느 누구도 희망 없는 노동을 투자하여 산정으로 올라가지 않으려 하고, 어느 누구도 도로(徒勞)의 절망을 숙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는 것이었다. 주어진 형벌의 바위도 부정하고, 지상에 안주하기 위해 인간의 숙명까지 부정하는 가련한 시시포스들의 지옥.

내가 무슨 근거로 그녀의 꿈을 열시켰던가.

그제서야 비로소 나는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녀가 나보다 먼저, 신화나 관념이 아니라 순수한 삶을 통해 지상의 불모를 간파하고 있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체념과 비관으로 뒤틀린 시시포스들의 세계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 자신의 꿈에 집착했을지도 모른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지상의 주민으로 편재되고 싶다는 그녀의 꿈은 영원히 실현 불가능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결론에 이르러 나는 슬그머니 수치심을 느끼고 말았다. 미물스럽고 속물스러운 세계로의 편재가 아니라 인간적인 전략과 절망이 바로 그녀가 말하는 꿈의 요체라는 걸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자기 형벌의 바위를 밀고 올라간 산정, 그곳이 바로 그녀의 옥탑방이 아니겠는가.

그날 밤, 나는 거세당한 시시포스의 심정으로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셨다. 그리고 밤 열 시경, 처음으로 행복한 시시포스를 꿈꾸며 비탈진 언덕길을 올라갔다. 하지만 그녀의 옥탑방에는 불이 꺼져 있었고, 그녀는 그 시간까지 귀가하지 않고 있었다. 방으로 들어가서 기다릴까, 잠시 망설였지만 웬지 그래서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다시 언덕길을 내려와 한동안 주변을 배회하다가 열린 시경에 형네 집으로 돌아와 버렸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며칠 동안 그녀의 주변을 맴돌던 '나'는 홀로 그녀의 옥탑방에 누워 있다가 그녀를 둘러싸고 있던 가난의 실체를 실감하게 된다. 옥탑방에서 그녀와 사랑하며 행복해했던 시간을 떠올리면서 '나'는 비를 맞으며 집 앞 골목에서 그녀를 기다린다.

그녀가 ㉞ 언덕 위로 올라왔을 때, 나는 비닐우산을 받쳐 들고 천천히 그녀 앞으로 걸어 나갔다. 그러자 그녀가 우뚝 걸음을 멈추고 나를 노려보았다. 주변의 주택가에서 밀려 나온 희미한 불빛으로 길을 가로막은 사람이 누구라는 걸 그녀는 이내 알아차린 것 같았다. 자신이 서 있던 우측 담벼락에다 등을 기대고 하아, 그녀는 소리 나게 한숨을 내뿜었다. 술을 꽤나 많이 마신 모양, 담벼락에다 등을 기댔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상체는 연신 흔들리고 있었다.

“자…… 씨.”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나는 손에 들고 있던 비닐우산을 그녀에

게 건네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건네받지 않고 취기가 배어 있는 몽롱한 눈빛으로 히죽이 웃음을 지어 보이기만 했다. ㉞ 그래서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손에다 우산을 쥐여 주고 나서 나는 다시 한 발 뒤로 물러났다. 그리고 부슬거리는 비를 맞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기 시작했다.

“나, 어젯밤부터 이곳에 있었어.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너무 추워서 새벽에 옥탑방으로 들어갔는데…… 그만 잠이 들어 버리고 말았어. 그래서 오늘 하루 결근하고 다시 이곳에서 주회를 기다리고 있었어. 어제 오늘만 그랬던 게 아니고…… 며칠 전부터 이곳을 배회하며 주회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거야. 다시 만난다고 해도 달라질 게 없다는 거…… 물론 알고 있어. 다만 한 가지…… 내가 설령 사마귀였다고 해도…… 그래, 부담스럽게 들린다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사마귀가 한 말이라고 무시해도 괜찮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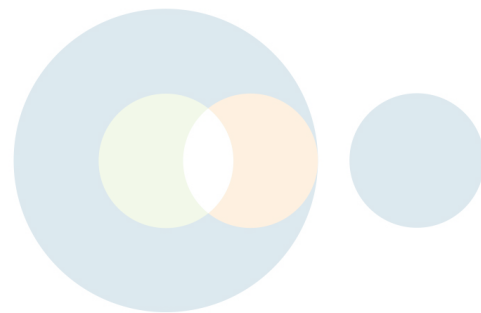
“나, 주회를 만나던 모든 순간에 주회를 사랑했어. 주회를 사랑하지 않았던 순간이 단 한 순간도 없었다는 거……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야. 주회의 꿈을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니라, 그것을 실현할 수 없는 나의 현실을 아파하고 있었다는 거…… 이제 알겠어?”

“…….”

그 순간, 그녀의 손에서 비닐우산이 떨어져 내렸다. 그녀가 고개를 떨구자 비에 젖은 긴 머릿결이 무겁게 그녀의 얼굴을 덮었다. 하지만 그녀는 곧이어 담벼락에 기댔던 등을 떼고 세차게 머리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는 사뭇 위태로운 표정으로 내게 다가와 와락 목을 끌어안고 격하게 오열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민수 씨, 이리지 마…… 제발, 이제 더 이상 나를 흔들리게 하지 마.”

— 박상우, 「내 마음의 옥탑방」





31

8048-0226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는 그녀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없다는 ‘나’의 자책이 드러난다.
- ② ㉡에는 갑자기 튀어나온 질문에 내포된 감정에 대한 ‘나’의 추측이 담겨 있다.
- ③ ㉢에는 그녀의 사랑을 회복할 여지를 남겨 두려는 ‘나’의 의지가 드러난다.
- ④ ㉣에는 그녀와 마주치는 낱끄러운 상황을 피하려는 ‘나’의 의도가 담겨 있다.
- ⑤ ㉤에는 우산도 없이 비를 맞고 있는 그녀에 대한 ‘나’의 배려가 담겨 있다.

32

8048-0227

㉢와 ㉤에서의 사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에서 그녀가 ‘나’에게 그동안 자리를 비운 사정을 밝히자 ‘나’는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다독거리고 있다.
- ② ㉤에서 ‘나’는 그녀에게 그동안 그녀 주변을 맴돌던 사정을 밝히고 있으나 그녀는 냉정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 ③ ㉢에서 그녀가 ‘나’에게 결별을 요구하는 이유가 ㉤에서 이루어지는 ‘나’와 그녀의 대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 ④ ㉢에서 ‘나’는 그녀의 처지에 대한 고려 없이 자기 생각만을 강요하고 있고, ㉤에서는 그녀의 감정에 대한 고려 없이 자신의 입장만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에서 그녀는 자신과 ‘나’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답답한 심정을 드러내는 반면, ㉤에서는 ‘나’를 사랑하나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괴로운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33

8048-0228

<보기>를 바탕으로 [A]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알베르 카뮈는 「시시포스의 신화」에서 일상이 반복되고 불평등과 모순이 가득한 인간 삶의 조건을 ‘부조리’로 보았다. 그는 부조리를 극복하고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인간 원형을 ‘시시포스’의 신화에서 발견한다. 시시포스는 죽음의 신을 속인 죄로, 산 정상에 이르자마자 굴러떨어지는 무거운 바위를 다시 정상까지 밀어 올리는 벌을 영원히 받게 된 신화 속 인물이다. 카뮈는 시시포스를 신의 뜻에 따르는 피동적 인간으로 보지 않고, 부조리한 운명 속에서도 자유 의지로 치열하게 고뇌하고 투쟁하는 적극적 인간으로 본다. 카뮈는 시시포스의 모습에서 ‘반항’, ‘자유’, ‘열정’을 이끌어 내고, 현대인이 권력과 권위, 부를 맹종하며 안일을 선택하는 나약한 인간이 되는 대신에 ‘반항’, ‘자유’, ‘열정’으로 운명의 부조리에 맞서는 행복한 시시포스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 ① ‘거세당한 시시포스들’은 카뮈가 말하는 시시포스의 치열한 투쟁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 대한 ‘나’의 인식을 함축하고 있군.
- ② ‘나’는 ‘신을 향한 열시’가 아닌 ‘인간의 열시’가 범람하고 있다고 현실을 진단한 결과 나약한 안일을 선택한 ‘그녀의 꿈은 열시’하게 되었군.
- ③ ‘나’는 그녀가 부조리한 운명을 치열하게 고민한 결과 자신보다 절실히 ‘지상의 불모’를 받아들여 지상에 편입되기를 거부했을 것이라 여기고 있군.
- ④ ‘나’는 지상의 주민이 되고자 했던 ‘그녀의 꿈’을 오해하고 있었음을 깨닫고, ‘그녀의 옥탑방’의 공간적 속성이 시시포스가 바위를 밀어 올렸던 산정과 유사하다는 생각에 도달하게 되었군.
- ⑤ ‘나’가 ‘수치심’을 느끼게 된 이유는 그녀가 ‘인간적인 전략과 절망’을 마음에 품고 운명의 부조리에 당당히 맞서는 행복한 시시포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로군.



34

8048-0229

윗글의 '옥탑방'의 공간적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가 그녀와 같등하며 사랑의 위기를 겪는 공간이다.
- ② '나'가 자신과 그녀의 가난한 처지를 인식하는 공간이다.
- ③ '나'가 그녀와의 재회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공간이다.
- ④ '나'가 그녀와 자신의 관계에 대해 깊이 고민한 공간이다.
- ⑤ '나'가 사랑을 되찾을 수 있다는 믿음을 회복한 공간이다.

[35~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바람이 거센 밤이면

몇 번이고 꺼지는 네모난 장명등을
 귀작 밟고 서서 몇 번이고 새로 밝힐 때
 누나는

별 많은 밤이 되어 무섭다고 했다

국숫집 찾아가는 ㉠다리 위에서
 문득 그리워지는
 누나도 나도 어려선 국숫집 아이

단오도 설도 아닌 풀벌레 우는 가을철

단 하루

아버지의 제삿날만 일을 쉬고

어른처럼 곡을 했다

- 이용악, 「다리 위에서」

(나) ㉡김천 의료원 6인실 302호에 산소마스크를 쓰고 암 투병 중인 그녀가 누워 있다

바닥에 바짝 엎드린 가재미*처럼 그녀가 누워 있다

나는 그녀의 옆에 나란히 한 마리 가재미로 눕는다

가재미가 가재미에게 눈길을 건네자 그녀가 울컥 눈물을 쏟아 낸다

한쪽 눈이 다른 한쪽 눈으로 훑아 붙은 야윈 그녀가 운다

그녀는 죽음만을 보고 있고 나는 그녀가 살아온 파랑 같은 날들을 보고 있다

좌우를 흔들며 살던 그녀의 물속 삶을 나는 떠올린다

그녀의 오솔길이며 그 길에 돌아나던 대낮의 빠꾸기 소리며

가늘은 국수를 삶던 저녁이며 흉담조차 없었던 그녀 누대의 가게를 떠올린다

두 다리는 서서히 멀어져 가랑이지고

폭설을 견디지 못하는 나뭇가지처럼 등뼈가 구부정해지던

그 겨울 어느 날을 생각한다

그녀의 숨소리가 느릅나무 껍질처럼 점점 거칠어진다

나는 그녀가 죽음 바깥의 세상을 이제 볼 수 없다는 것을 안다

한쪽 눈이 다른 쪽 눈으로 캄캄하게 쏘려 버렸다는 것을 안다

나는 다만 좌우를 흔들며 헤엄쳐 가 그녀의 물속에 나란히 눕는다

산소호흡기로 들이마신 물을 마른 내 몸 위에 그녀가 가만히 적셔 준다

- 문태준, 「가재미」

*가재미: 가자미의 사투리. 몸이 납작하여 타원형에 가깝고, 두 눈은 오른쪽에 몰



려 붙어 있음. 심해의 바닥에 납작하게 몸을 대고 살아가는 물고기로 어릴 때는 눈이 양쪽에 위치해 있다가 성장하면서 점차 한쪽으로 몰린다고 함.

35

8048-0230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독백적 어조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상의 상황을 통해 자기반성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 ③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대상과의 친밀감을 높이고 있다.
- ④ 유사한 시구를 반복함으로써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⑤ 시적 대상의 행위를 묘사하여 시의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36

8048-0231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용악 시인의 집안은 국경을 사이에 두고 수대에 걸쳐 밀수와 상업을 통해 생계를 꾸려 왔다. 그의 아버지는 그가 어렸을 때 낯선 타향에서 참담한 최후를 맞이했다. 아버지의 죽음은 그의 가족에게 두려움과 공포와 같은 내적 상처를 안겨 주었으며,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그는 어릴 적부터 힘들게 일을 해야 했다. 이 작품에서 시인은 자신의 어릴 적 경험을 간접적으로 고백하고 있다.

- ① ‘바람이 거센 밤’은 화자와 그의 가족에게 몰아닥친 힘겨운 현실을 의미하는군.
- ② ‘별 많은 밤이 되어 무섭다’는 말은 가족이 느꼈던 두려움과 공포를 함축하고 있군.
- ③ ‘국숫집 아이’에는 어린 시절에 겪은 일들로 인해 힘겨워했던 화자의 삶이 압축되어 있군.
- ④ ‘단오도 설도 아닌 풀벌레 우는 가을철’은 돌아가신 아버지로 인한 화자의 내적 상처를 환기하고 있군.
- ⑤ ‘아버지의 제삿날’은 화자가 고된 일에서 벗어나 기력을 회복할 수 있었던 유일한 시간으로 기억되어 있군.

37

8048-0232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문태준 시인은 자기중심적으로 존재를 대상으로서 끌어들이기보다 대등한 관계로 존재와의 수평적 만남을 시도한다. 이러한 수평적 관계 속에서 시인은 존재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어 그 존재의 삶의 슬픔에 주목하고, 그 슬픔이 환기하는 생의 덧없음을 차분하게 성찰하고 있다.

- ① ‘나’는 ‘바닥에 바짝 엎드린’, ‘한쪽 눈이 다른 한쪽 눈으로 읊아 붙은’ 그녀의 모습에서 가재미를 연상하는군.
- ② ‘가재미가 가재미에게 눈길을 건네’는 행위는 ‘나’가 그녀에게 보내는 공감과 연민의 시선을 함축하고 있군.
- ③ ‘나’는 그녀의 ‘두 다리’가 ‘가랑이지고’, ‘등뼈가 구부정해지던 그 겨울 어느 날’을 생각하며 오랜 세월 고단했을 그녀의 삶을 떠올리는군.
- ④ ‘한쪽 눈이 다른 쪽 눈으로 캄캄하게 쏠려 버렸다는 것을 안다’는 것에는 그녀와 마찬가지로 자신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나’의 인식이 나타나 있군.
- ⑤ ‘나’가 ‘그녀의 물속에 나란히 눕고, 그녀가 ‘마른 내 몸 위에’ 물을 적서 주는 행위를 통해 죽음을 앞둔 그녀와 삶을 살아가야 하는 화자 사이의 교감을 형상화하고 있군.

38

8048-0233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달리 ㉡은 상황에 대한 화자의 불안이 드러나는 공간이다.
- ② ㉡과 달리 ㉠은 화자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공간이다.
- ③ ㉠과 ㉡은 모두 화자와 대상 사이의 단절을 확인하는 공간이다.
- ④ ㉠과 ㉡은 모두 화자의 외로운 심경을 심화하고 있는 공간이다.
- ⑤ ㉠과 ㉡은 모두 화자의 체념적 태도를 부각하고 있는 공간이다.



[39~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부모(父母) 구존(俱存)하시고 형제(兄弟) 무고(無故)함을
남대되 이르되 우리 집과 같다더니
어여쁜* 이내 한 몸은 어디 갔다가 모르뇨 <제1수>

부모님 계신 제는 부모인 줄을 모르더니
부모님 여인 후에 부모인 줄 아노라
이제야 ㉠이 마음 가지고 어디다가 베프료 <제2수>

지난 일 애답아 마오 오는 날 힘써스라
나도 힘 아니 써 이리곰 애답노라
내일란 바라지 말고 오늘날을 아껴스라 <제3수>

형제 열이라도 처음엔 한 몸이라
하나가 열인 줄을 뉘 아니 알리마는
어디서 욕심에 걸려 한 몸인 줄을 모르느뇨 <제4수>

젊던 이 늙어 가고 늙은이 저서 가네
우리 종족(宗族)*이 또 몇이 있는고
이제나 ㉡잡 마음 없이 한잔 술을 나눠 먹세 <제5수>

공명은 재천(在天)하고 부귀는 유명(有命)하니
공명부귀는 힘으로 못 하려니와
내 타난 효제충신이야 어느 힘을 빌리오 <제6수>
- 이숙량, 「분천강호가」

*어여쁜: 가엾은.
*종족: 성(姓)과 본(本)이 같은 사람. 같은 핏줄을 이어받은 사람.

39

8048-023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주변 인물에 대한 관찰을 바탕으로 다양한 삶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 ② 추상적 관념을 ‘나’, ‘우리’의 문제로 구체화하여 전달 내용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 ③ 역사적 사례를 제시하여 화자가 처한 문제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는 의지를 부각하고 있다.
- ④ 자연의 풍광에서 본받을 만한 가치의 구현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시간의 흐름을 이겨 내고 본모습을 유지해 온 공간의 불변성에 주목하여 교훈적 의미를 이끌어 내고 있다.

40

8048-0235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상황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다짐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 ② ㉡은 ㉠과 달리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 ③ ㉠과 ㉡은 모두 화자의 현실 비판적 인식에 대한 근거로 작용한다.
- ④ ㉠과 ㉡은 모두 상실의 경험을 통해 얻은 성찰과 관련지을 수 있다.
- ⑤ ㉠과 ㉡은 모두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는 경계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41

8048-0236

<보기>를 읽고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이 작품의 작가는 자신의 책 「분천강호록」에서 ‘효부모’, ‘우형제’, ‘화친척’과 같은 덕목을 노래로 만들어 스스로를 가다듬고 후세로 하여금 반복하여 체득하고 실천하게 하려는 작품의 의도를 밝혔다. 또한 가족의 소중함을 다룬 첫째 수로 시작하여 둘째 수와 셋째 수는 부모에 대한 노래이며, 넷째 수와 다섯째 수는 각각 형제와 친척을 훈계하는 노래, 여섯째 수는 앞의 다섯 수를 묶어 반복 권면하기 위한 것임을 설명했다.

- ① <제1수>에서는 ‘부모 구존’과 ‘형제 무고’의 가치를 몰랐던 자신을 ‘어여쁜 이내 한 몸’이라 칭함으로써 후회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제3수>에서는 ‘내일’을 바라지 말고 ‘오늘날’을 아낄 것을 권고함으로써 효의 실천을 미루지 말고 당장 실행할 것을 역설하고 있다.
- ③ <제4수>에서는 형제간의 의를 가르는 ‘욕심’을 경계하면서, ‘형제 열’이 ‘한 몸’과 같은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제5수>에서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우리 종족’의 존속이 어려워지게 된 상황을 우려하면서 과거로 회귀하고자 하는 지향을 표현하고 있다.
- ⑤ <제6수>에서는 ‘공명부귀’와 대조하여 타고난 ‘효제충신’만은 자신의 힘으로 가능한 것임을 언급하여 실천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42~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원수가 다시 월파더러 묻기를,

“그대는 무슨 계교로 가히 도적을 파할꼬? 원컨대 가르침을 듣고자 하노라.”

월파가 대답하기를,

“만(蠻)의 장수 마달은 용력이 매우 뛰어나고 천봉 도사의 신기 비상하니 이는 국가의 큰 걱정거리라. 이제 만왕(蠻王)이 도성에 온 후로 은택을 베풀어 민심을 수습한다 하니, 만일 민심이 귀순한다면 이를 소탕하기 어려우니 빨리 도모할 지라. 속어(俗語)에 이르기를 ‘소를 몰매 그 앞을 범하지 말라.’ 하였으니, 마달이 도성(都城)을 근본으로 삼고 한중에서 군량미를 조달하여 싸우면 그 세가 가장 클지라. 장차 버려두지 못할 형세니, 원수는 대군(大軍)을 돌리어 성도를 엄습하여 양식을 끊으면, 마달과 천봉 도사가 비록 재주가 있으나 저희가 어찌 대군을 막으리오? 낭중취물(囊中取物)하듯 하리이다.”

원수가 묻기를,

“면죽은 누구로 하여금 지키리오?”

월파가 대답하기를,

“후군장(後軍將) 현덕무가 아니면 불가하니이다.”

원수가 현덕무를 돌아보아 말하기를,

“면죽은 우리의 근본이니 그대 진심(盡心)하여 지키고 소홀함이 없게 하라. 내 성도를 파(破)하고 만왕 맹세옹을 잡아 돌아오리라.”

현덕무가 응낙하니, 봉진이 말하기를,

“선생은 소임을 정하소서.”

월파가 말하기를,

“금월 십오일 밤에 가만히 성도로 진입할 것이니 누설치 말고 군중(軍中)에 약속을 엄히 하소서.”

여러 장수가 각각 명령을 듣고 물러나니라.

이때 송 진영에 몰래 들어온 천봉 도사가 월파의 계략을 듣고 두려움을 느껴 월파의 얼굴 모습을 살펴보니 남장 여인의 모습이더라. 심중에 한 계교를 생각하고, 군중에 돌아와 청풍을 타고 공중에 올라 입으로 기운을 토하니 한 줄 무지개 중천(中天)에 뻗었는지라. 도사가 몸에 학장의를 입고 손에 신선(神仙)의 부채를 들고 그 위에 서서 외치기를,

“송 진영의 장졸은 들으라. 너희 천시를 모르고 외람되게 만군에 항거하니 멸문지화를 면치 못할 것이요, 진중에 여도사(女道士)가 있으니 어찌 대사(大事)가 그르지 아니하리오? 수많은 목숨을 구하려면 일찍이 항복하여 죽기를 면하라. 나는 옛날 기산에서 여섯 차례 위와 싸운 제갈량이니, 너를 위하여 이르는 것이다.”

하고 서쪽으로 향하여 오니, 이때 주봉진이 현덕무와 함께 이 말

을 듣고 크게 노하여 활을 쏘니, 활시위가 울림과 동시에 도사의 다리를 맞으니, 도사가 한 소리를 지르고 쥐 숨듯 달아나니라.

차설, 월파가 천봉 도사의 말을 듣고 부끄러워하며 장중에 들어와 원수에게 말하기를,

“첩이 과연 서천 촉군 사람의 여자러니, 열 살에 부친이 장사하러 갔다가 남만 도적에게 죽은 바가 되고, 모친이 세상을 뜬 후에 주야로 원수 갚기를 생각하더니, 자허 선생이 불쌍하게 여기사 거두어 슬하에 두사 도학(道學)을 배우더니, [B] 선생이 장군에게 지시하시기로 가친(家親)의 원수를 갚고 산문(山門)에 돌아가 남은 생을 보낼까 하였더니, 조물이 시기하여 본색이 탄로 나매, 이제는 일시라도 진중에 있음이 불가하와 선생을 찾아 산문으로 돌아가오니, 장군은 충성을 다하여 대공을 세우소서.”

원수가 크게 놀라 말하기를,

“그대 비록 여자이나 국가 대사를 의논하는 때에 어찌 남녀를 분간하며, 내 이미 선생의 가르치심을 받아 선생으로 섬기거늘, 이제 한갓 조그만 혐의로 대사를 그르게 하리오? 제갈량이 국사를 위하여 혐의를 헤아리지 않고 오(吳)나라에 묘책을 주어 적벽에서 함께 조조의 대군을 물리치니, 그대가 나와 더불어 오·한(漢)의 혐의를 헤지 않고, 자고로 난시를 당하여 입공한 여장사를 이루 헤지 못하리니, 이제 그대 여화위남(女化爲男)하였으나 적을 대하여 흥망을 의논하는 때에 어찌 사소한 일로 대사를 버리리오?”

월파가 말하기를,

“천한 몸에 혐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대사에 여자가 참예함이 불가하고, 적진에서 알면 중국 대진에 영웅 군자가 없다 하여 웃음을 면치 못할 것이요, 이제는 첩의 몸이 없다 하여도 대사가 다 정하였으니 오래 있음이 불가하여이다.”

원수가 굳이 만류하되 월파가 듣지 아니하니, 원수가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기에, 월파가 말하기를,

“천금 귀체를 보증하사 쉬이 성공하시고, 부모를 모셔 즐기게 하소서.”

밝기를 기다려 여러 장수와 원수께 하직을 고하고 표연히 나아갈 때, 비단 주머니 셋을 주며 말하기를,

“차례로 쓰소서.”

하고 가니, 모두 눈물을 머금고 절하며 이별하더라.

원수가 월파를 이별한 후 한 팔을 잃은 듯하여 심사가 처량하여 하거늘, 주봉진과 현덕무가 들어와 원수더러 말하기를,

“이제 군무(軍務)가 급하오니 원수는 이미 간 사람을 생각지 마시고 신묘한 기략과 묘책으로 적을 무찌를 생각을 하소서.”

원수가 말하기를,

① “내가 월파의 여색을 탐함이 아니라, 대사를 의논할 곳이 없더니 월파를 만난 후로 복룡이 봉추를 만난 것* 같이 서로 진



심으로 알더니, 이제 버리고 돌아가시니 유비가 단복을 잃음*과 같도다.”

- 작자 미상, 『남정팔난기(南征八難記)』

*복룡이 봉주를 만난 것: '복룡'과 '봉주'는 초야에 숨어 있는 훌륭한 인재를 의미하는 말로, 『삼국지』의 뛰어난 지략가인 제갈량과 방통을 각각 가리킴.

*유비가 단복을 잃음: 단복은 유비의 군사(軍師). 이 구절은 『삼국지』에서 단복이 조조로 인해 유비와의 인연을 지속할 수 없게 되자 유비에게 제갈량을 천거하고 떠나게 된 사건을 가리킴.

42

8048-0237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만왕은 송의 도성에 진입하여 우호적인 방법으로 민심을 사고자 했다.
- ② 원수는 면죽을 지켜야 할 필요성과 관련하여 월파와 의견 대립을 보였다.
- ③ 천봉 도사는 계교를 통해 월파의 존재가 송 진영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 ④ 주봉진은 천봉 도사의 주장에 분노를 표출하며 이를 행동으로 드러내었다.
- ⑤ 현덕무는 월파와 이별한 원수를 독려하며 군무를 재촉했다.

43

8048-0238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는 문제 상황에 대한 대책이 제시되고 있다.
- ② [B]에서는 인물의 결단과 이를 뒷받침하는 이유가 서술되고 있다.
- ③ [A]에서는 [B]와 달리 관용구를 인용하여 주장하는 바를 강조하고 있다.
- ④ [B]에 제시된 인물의 과거 내력은 이 인물이 [A]와 같이 작전을 제시하게 되는 개인적 동기를 설명하고 있다.
- ⑤ [A]와 [B]는 모두 부정적 상황을 가정하고 이를 방지할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44

8048-0239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전형적인 영웅 소설인 이 작품에서는 여러 남성 영웅 가운데 여성 영웅들이 주변 인물들의 인정을 받으며 적대자와 대결하는 대목이 중요한 내용 요소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는 남성의 절대적 우위를 인정하는 인식이 약화되면서 남녀 구별 없이 영웅성의 발현 자체에 주목하려는 당대 영웅 소설의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에 상반되는 시각으로서 여성의 전쟁 참여를 인정하지 않는 보수적 입장이 여전히 존재했음을 드러내는 부분도 있어 주목된다.

- ① 오랑캐와의 전쟁에서 전세를 읽고 작전 계획을 짜는 월파의 모습에서 남성 영웅들 못지않은 활약으로 인정받는 여성 영웅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군.
- ② 월파의 정체를 송 진영에 폭로하면서 항복을 권유하는 천봉 도사의 행동은 여성의 전쟁 참여에 대한 보수적인 입장의 호응을 기대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군.
- ③ 국가의 대사에 남녀 분별이 불필요하다는 원수의 말에서 남녀 구별 없이 영웅성의 발현 자체에 주목하려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군.
- ④ 국가 대사에 여자가 참여함이 불가하다는 월파의 말에서 뛰어난 여성 영웅일지라도 당대의 보수적 입장에 얽매일 수밖에 없었음이 엿보이는군.
- ⑤ 거듭된 만류에도 불구하고 떠나는 월파를 잡지 못하는 원수의 모습은 남성의 절대적 우위를 인정하는 주변 장수들을 의식한 결과로 볼 수 있군.

45

8048-0240

㉠에 드러난 인물의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대방의 발언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공적 의무를 앞세우면서 개인적인 분노를 억누르고 있다.
- ③ 자신에 대한 오해를 인식하고 이를 바로잡으려 하고 있다.
- ④ 조력자와의 인연이 다한 데 대한 막막함을 표출하고 있다.
- ⑤ 주변 상황이 급변하면서 이로 인한 당혹감을 느끼고 있다.



EBS*i* 



EBS 수능완성 국어영역 국어

실전편

**실전 모의고사
5회**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01~03]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 무언가 이루고 싶다는 목표 의식이나 성취 욕구 등을 가져 본 적 있으신가요? (청중의 반응을 살피며) 생각이 금방 떠오르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럼 학교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험에서 더 좋은 성적을 받고 싶다, 이번 수행 과제는 열심히 조사해서 친구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다는 것 등이 그 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지니고 있는데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자신이 정한 목표에 좀 더 쉽게 다가갈까요?

이와 관련된 실험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마시멜로 실험'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청중의 반응을 살피며) 네, 아마 들어 보지 못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1960년대에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마시멜로 실험'을 실시하는데, 실험 내용은 간단합니다. 실험자는 피실험자인 네 살 아이들 앞에 마시멜로를 놓고, "15분만 기다리면 마시멜로를 하나 더 줄게. 못 참겠으면 먹어도 되지만 그때는 벨을 울려 주렴."이라고 말한 다음 방을 나갔습니다.

과연 아이들은 어떤 행동을 보였을까요? (청중의 반응을 살피며) 아, 바로 먹어 버렸을 거라고요? (웃으며) 아이들이 참을성을 발휘한 시간은 대개 2분 정도였습니다. 아이들 중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벨을 누르기도 전에 바로 먹어 버린 아이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30% 정도의 아이들은 끝까지 참아 내어 마시멜로를 하나 더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마시멜로를 하나 더 먹기로 목표를 세운 아이들은 나름대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자신의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는 데 전념하거나, 뒤로 돌아서서 마시멜로를 보지 않으려고 하기도 했으며 마시멜로를 인형 삼아 가지고 놀기도 했습니다.

요즘 여러분은 대학 진학이나 학업 등에 관심이 많을 텐데요,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사실은 이후 당시 실험에 참가했던 아이들을 추적 조사한 결과입니다. 1분 이내에 벨을 울렸던 아이들은 학교와 가정에서 자주 짜증을 부리는 등 문제를 안고 있는 확률이 높았습니다. 반면 15분간 기다렸던 아이들은 그렇지 않았던 아이들보다 미국 대학 진학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합니다. 자기 통제력이란 욕망이 향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참을 수 있는 힘, 즉 감정이나 욕망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데, 이 결과는 자기 통제력이 개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 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시멜로 실험은 실험 설계의 허술함, 지나친 일반화 등으로 이후 심리학자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말에 기분이 금방 언짢아진 경험이 있으시죠? (청중의 반응을 살피며) 이번에는 그렇다는 대답이 많이 들리네요. 맞습니다. 누구나 감정이나 욕망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이성적 판단보다는 감정에 치우쳐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뇌의 구조는 감정계와 사고계로 분류되는데, 감정계에서 느낀 것을 즉시 실행하지 않은 채 틈을 두고 사고계로 옮긴 뒤 행동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기 통제력을 발휘하여 감정계와 사고계 사이에서 한 박자 쉬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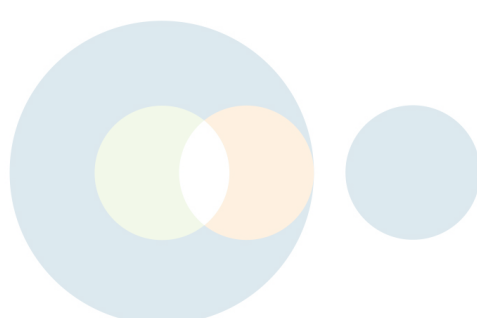
앞으로 우리도 자신이 세운 목표에 좀 더 다가가기 위해 자기 통제력을 높여 보면 어떨까요?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01

8048-0241

위 발표에 활용된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질문을 통해 청중의 반응을 살피면서 청중과 상호 작용하고 있다.
- ② 발표 내용과 관련된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③ 발표 중에 요약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제시하며 마무리함으로써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④ 발표 주제와 관련된 자신의 구체적인 경험을 사례로 들어 청중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 ⑤ 발표할 내용의 순서를 도입부에 제시하여 청중이 발표 내용을 예측하며 들을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





02

8048-0242

다음은 위 발표를 위해 사전에 청중을 분석하여 세운 발표 계획이다. 발표 내용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예상 청중: 고등학교 2학년 학급 친구들
- 사전 지식
 - 심리학과 관련된 '마시멜로 실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자세하게 설명해야겠어. ①
 - 심리학과 관련된 용어를 설명할 때에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의 정의를 제시해야겠어. ②
- 관심사 및 특징
 - 요즘 대학 진학이나 학업과 관련된 내용에 관심이 많을 테니 미국 대학 진학 시험 결과를 제시하여 '자기 통제력'의 효과를 부각해야겠어. ③
 - 학교생활에 관심이 많을 테니 '감정계'와 '사고계'에 대해 설명할 때에도 학교생활과 관련된 예를 소개해야겠어. .. ④
 -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과 같은 청소년들은 이성적 판단보다는 감정에 치우쳐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을 테니 '자기 통제력'을 높여 보는 것에 대해 제안해 봐야겠어. .. ⑤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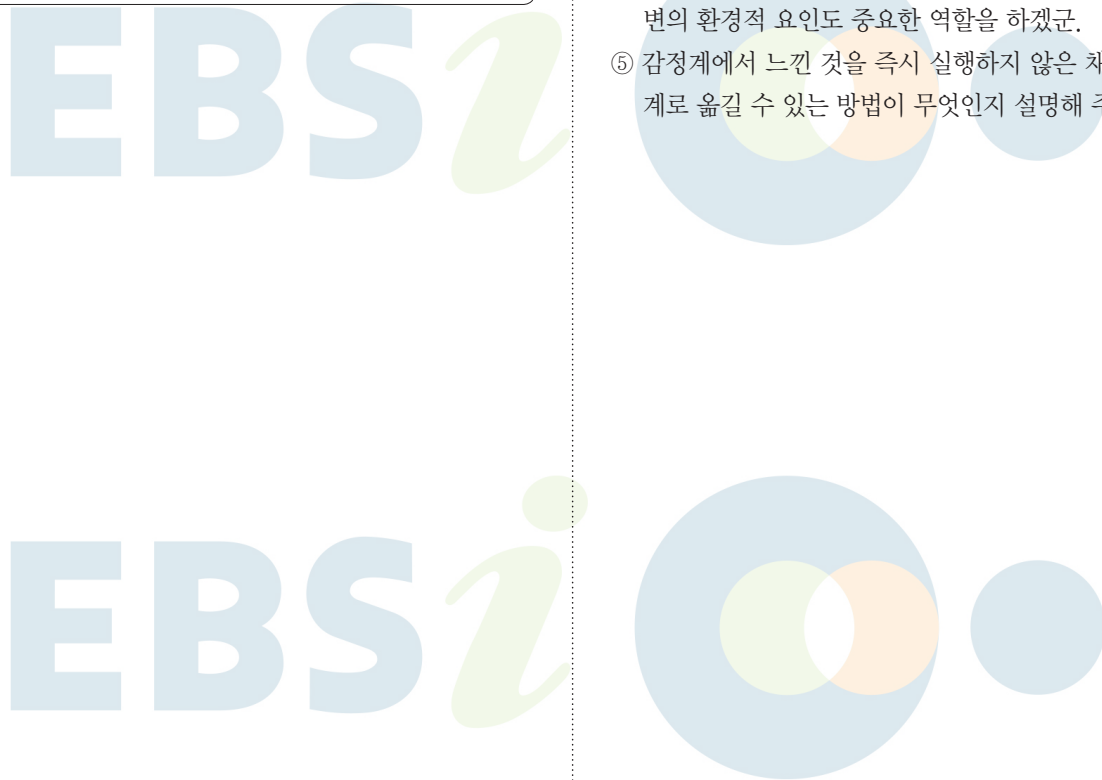
8048-0243

<보기>는 위 발표를 준비하기 위해 수집했던 '마시멜로 실험'에 대한 자료의 일부이다. 이를 발표 내용에 추가하여 설명했을 때 청중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1960년대에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실시한 '마시멜로 실험' 외에 또 다른 '마시멜로 실험'이 있다. 첫 번째 마시멜로 실험이 실시되고 약 20년이 지난 후, 월터 미셸은 비슷한 실험을 한다. 이번에는 외부적 조건에 변화를 주어 마시멜로에 뚜껑을 덮어 주고 아이들의 반응을 관찰했다. 그 결과, 뚜껑이 없이 기다렸던 경우보다 뚜껑을 덮었을 때에 아이들이 두 배 정도 더 많이 참을 수 있었다.

- ① 자기 통제력과 학력의 상관관계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싶어.
- ② 자기 통제력은 선천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자기 통제력을 향상하는 것은 쉽지 않겠어.
- ③ 마시멜로를 하나 더 먹기로 목표를 세운 네 살 아이들이 나름 대로의 전략을 세웠다는 것이 흥미롭군.
- ④ 자기 통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주변의 환경적 요인도 중요한 역할을 하겠군.
- ⑤ 감정계에서 느낀 것을 즉시 실행하지 않은 채 틈을 두고 사고계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면 좋겠어.





[04~07] (가)는 ‘학급별 졸업식 기획’과 관련된 학생 토의 내용이고, (나)는 이를 바탕으로 사회자가 작성한 ‘학급별 졸업식 계획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사회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롭게 도입되는 ‘학급별 졸업식을 어떻게 기획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학교는 강당에서 3학년 전체가 참여하는 형태의 졸업식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학급별로 실시하는 졸업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에 학급별로 ‘학급별 졸업식’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보고, 찬성하는 경우에는 졸업식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그럼 먼저 학급별 졸업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의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1: 네, 저는 획일화된 형태의 졸업식에서 학급별 졸업식으로 변경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그동안의 졸업식은 학생들이 오히려 주변인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학생 2: 네, 저도 동의합니다. 현재의 졸업식은 마치 상장을 받는 소수의 학생들만을 위한 행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회자: 네, 기존 졸업식의 문제점을 생각해 볼 때 학급별 졸업식을 실시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어떠한 학급별 졸업식을 원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3: 모두가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서로 협력하면서 만들어 가는 졸업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졸업식을 준비하는 과정이 또 하나의 소중한 추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 1: 저도 동의합니다.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졸업식을 만들되, 우리 반의 특색이 잘 드러나도록 기획했으면 좋겠습니다. 10반의 특색이 잘 살아 있는 졸업식을 만든다면 지난 1년간 즐겁게 생활한 친구들을 오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자: 네, 우리 반 졸업식은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 서로 협력할 수 있고 반의 특색이 잘 드러나는 졸업식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졸업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구체적 실행 방안들이 있을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2: 우리가 1년 동안 찍은 친구들의 사진을 모아 학급 영상 앨범을 제작하여 졸업식에서 상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학급 영상 앨범을 협동하여 제작한다면 과정도 즐겁고 무엇보다 졸업식의 좋은 추억이 될 것입니다.

학생 3: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회성으로 졸업식에서만 상영할 것이 아니라 학급 영상 앨범을 친구들에게 나눠 준다면 앞으로도 간직될 소중한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학생 2: 또 서로에게 고마웠던 점을 엽서로 써서, 졸업식 때 릴레이 형식으로 친구들에게 선물하면 좋겠어요.

학생 1: 그런데 혹시 특정한 친구에게만 엽서가 몰리거나 받지 못하는 친구들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졸업식 날 주인공이 되기는커녕 기분이 상하는 친구가 생길 것 같아요.

학생 3: 그렇다면 졸업식 한 달 전에 추천으로 마니토를 뽑고 이후 졸업식에서 마니토로 뽑힌 친구에게 엽서를 선물하면 어떨까요?

학생 1: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엽서를 못 받는 친구들도 없을 것 같고, 한 달 동안 마니토 친구를 몰래 도와주는 과정도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학생 2: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더 우리 반의 특색이 드러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추가되면 좋을 것 같아요. 졸업식 노래 대신에 우리 반의 특색이 드러나는 노래를 졸업식 날 합창해 보면 어떨까요?

학생 3: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우리 반은 지난봄 합창 대회에서도 1등을 한 적이 있으니, 그 노래의 가사만 우리의 이야기로 개사하여 부른다면 색다른 졸업식이 될 것 같습니다.

학생 1: 저도 동의합니다. 합창 대회에서의 감동을 되살릴 수 있는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사회자: 네, 다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모두가 협력하여 만드는 특색 있는 우리 반 졸업식이 될 수 있도록 학급 영상 앨범 만들기, 마니토에게 엽서 선물하기, 우리 반 노래 합창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의 내용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졸업식 준비 계획을 추가하여 학급별 졸업식 계획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이후 ①계획서가 토의 내용을 바탕으로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상호 평가를 거쳐,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토의를 마치겠습니다.

(나) 개성과 협력의 하모니, 3학년 10반 학급별 졸업식

3학년 10반은 모두가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서로가 협력하여 만들어 가는, 특색 있는 학급별 졸업식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학급별 졸업식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째, 지난 1년간 우리의 모습이 담긴 학급 영상 앨범을 제작하여 상영합니다. 학급 영상 앨범은 1년 동안 찍은 친구들의 사진을 모아 제작할 예정입니다. 둘째, 친구에게 엽서 선물하기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동안 자신에게 가장 많은 도움을 주었던 친구를 떠올려 본 후, 그 친구에게 엽서를 선물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셋째, 우리 반 노래 합창 공연을 진행합니다. 이 공연을 위해 가사는 우리의 이야기로 개사할 예정입니다.

모두이 만들어지면 학생들이 각자가 원하는 모둠에 속하여 활동하되, 합창처럼 전체가 함께 해야 하는 활동은 주 2회 정도 모여 연습할 계획입니다. 이렇듯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먼저 프로그램별로 담당 모둠을 만들어, 모둠별로 체계적인 준비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학급별 졸업식은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서로 간의 우정을 더욱 돈독히 쌓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졸업식 날에도 기억에 오래 남을 만한 풍성한 추억을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빛깔의 32색 무지개처럼 개성이 어우러진 3학년 10반만의 졸업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04 8048-0244
(가)에 나타난 사회자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토의 참여자들의 발언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고 있다.
- ② 토의의 주제를 소개하고 논의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 ③ 토의에서 논의해야 할 내용을 안내하며 토의를 진행하고 있다.
- ④ 토의 참여자들의 의견을 절충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안하고 있다.
- ⑤ 앞으로 진행해 나가야 할 일을 밝히면서 토의를 마무리하고 있다.

05 8048-0245
다음의 절차를 바탕으로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절차	내용	
문제점 확인	획일화된 형태로 졸업식을 진행함.	... ①
문제점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이 주변인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음. • 마치 상장을 받는 소수의 학생들만을 위한 행사처럼 느껴지기도 함. 	... ②
대안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두가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서로 협력하면서 만들어 가는 졸업식을 기획하도록 함. • 우리 반의 특색이 잘 드러나는 졸업식을 기획하도록 함. 	... ③
대안 도출	지난 1년간 즐겁게 생활한 친구들을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함.	... ④
실행 방안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급별 졸업식을 위해 학급 영상 앨범을 제작함. • 마니포에게 엽서 선물하기를 실시함. • 우리 반 노래 합창하기를 실시함. 	... ⑤

06 8048-0246
<보기>는 학급별 졸업식 계획서 작성 방법이다. (가)와 <보기>를 고려할 때,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보기

[학급별 졸업식 계획서 작성 방법]

1. 학급별 졸업식의 특징이 드러나도록 글의 제목을 붙일 것 ㉠
2. 학급별 졸업식에서 진행할 프로그램을 각각 서술할 것 .. ㉡
3. 각각의 프로그램을 선정한 이유를 토의의 내용을 근거로 들어 구체적으로 서술할 것 ㉢
4. 앞으로 학급별 졸업식을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인지를 밝힐 것 ㉣
5. 학급별 졸업식의 기대 효과를 밝히며 마무리할 것 ㉤

- ① ㉠ ② ㉡ ③ ㉢ ④ ㉣ ⑤ ㉤

07 8048-0247
다음은 (가)의 ㉠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나)에 대해 토의 참여자들이 상호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토의 참여자들의 상호 평가 내용	
잘한 점	1문단에서 대조의 방법을 사용하여 학급별 졸업식의 특징을 부각한 점 ①
	2문단에서 글의 흐름이 잘 드러나도록 문장의 앞부분에 순서를 알려 주는 표지를 활용한 점 ②
	4문단에서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학급별 졸업식의 장점을 효과적으로 드러낸 점 ③
수정할 점	2문단에서 학급별 졸업식 프로그램 중 일부 내용을 토의의 협의 내용과 다르게 제시한 점 ④
	3문단에서 앞뒤 문장의 위치를 잘못 배열하여 내용의 연결이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은 점 ⑤





[08~10] 환경 동아리에서 시청 누리집의 민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 위해 (가)를 바탕으로 (나)를 작성했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글쓰기 계획

[주제] 통학로에 버려지는 재활용 가능 물품을 효과적으로 수거하기 위한 제안

- 처음: 통학로에 무단 투기되는 일반 쓰레기나 재활용 가능 물품으로 인한 문제점을 제시한다.
- 중간
 1. 통학로에 무단 투기되는 일반 쓰레기나 재활용 가능 물품의 실태를 제시한다.
 2. 재활용 가능 물품의 무단 투기가 빚어지는 원인을 제시한다.
 3. 제시한 원인을 토대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 끝: 기대 효과를 제시하고 해결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요청한다.

(나) 초고

저희 학교 통학로는 통행량이 아주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인지 ㉠등교길에 보면 여기저기에 버려진 쓰레기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그중에는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도 많이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마구 버려지는 일반 쓰레기나 재활용 가능 물품은 환경을 오염시키고 거리의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도 정서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저희 환경 동아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개월간 4회에 걸쳐 실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봉사활동도 ㉡할결 토요일 오전에 환경미화원과 함께 통학로에 버려진 일반 쓰레기나 재활용 가능 물품을 수거해 보니, 1회의 수거 활동에서 수거한 양이 큰 포대로 세 포대나 될 정도였습니다. 또한 4회에 걸쳐 수거한 내용물을 분류해 본 결과 버려지는 것 중 부피를 기준으로 31%가 플라스틱 컵이었고, 종이컵 28%, 음료수병 17%, 캔류 12%, 종이류(종이컵 외) 7%, 기타 일반 쓰레기 5%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버려지는 것 중 대부분은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들이 왜 이렇게 많이 버려질까요? 그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저희 부원들이 직접 관찰을 하고, 통행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도 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지하철역에서 저희 학교까지 약 200m 사이에 상가와 사무실이 밀집되어 있어서 유동 인구는 아주 많은데, 거리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무단 투기가 많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유동 인구가 많으면 학생들은 여러모로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저희는 통학로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설치해 주

실 것을 시청에 제안합니다. 우리 시의 정책상 거리에 쓰레기통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일반 쓰레기통의 설치가 아니라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의 설치를 요청합니다. 누구나 손쉽게 재활용품을 분리하여 투입할 수 있도록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제작해서 적절한 위치에 설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면 재활용 가능 물품의 무단 투기를 줄일 수 있어 청소 드는 인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환경 오염을 방지할 수 있으며 거리의 청결을 유지하여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마음도 상쾌해질 것입니다. 시의 예산 문제나 정책상의 문제로 저희의 제안을 즉각 ㉤인수하기는 어렵겠지만, 긍정적인 시각에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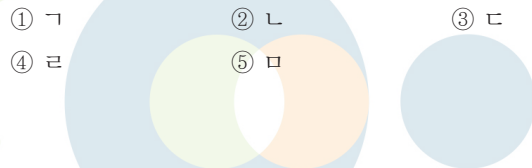
08

8048-0248

<보기>는 (가)를 바탕으로 (나)를 작성할 때 세운 내용 구체화 방안이다.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 ㄱ. 일반 쓰레기나 재활용 가능 물품의 무단 투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 몇 가지를 제시하여 ‘처음’을 구체화한다.
- ㄴ. 통학로에 버려지는 일반 쓰레기나 재활용 가능 물품의 실태를 양과 내용물로 나누어 제시하여 ‘중간 1’을 구체화한다.
- ㄷ. 관찰 및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재활용 가능 물품이 무단 투기되는 원인을 통학로의 구조적 특성과 통행인의 의식적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여 ‘중간 2’를 구체화한다.
- ㄹ. 일반 쓰레기통이 아닌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의 설치를 해결 방안으로 부각하여 ‘중간 3’을 구체화한다.
- ㅁ. ‘중간’에서 제시한 해결 방안을 통해 재활용 가능 물품의 무단 투기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여타의 기대 효과도 거둘 수 있음을 언급하여 ‘끝’을 구체화한다.





09

8048-0249

(나)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자료를 찾던 중 <보기>의 기사를 접했다. 이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시에서는 컵 모양의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유동 인구가 많은 5개 지점에 시범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치하는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은 일반 쓰레기는 버릴 수 없고 재활용품만 투입하게끔 특수 제작된 것으로, 스테인리스 재질에 높이 120cm, 폭 70cm로 되어 있다. 이 수거함은 예술적인 디자인을 적용하고 실제 컵 모형을 본떠 제작된 것이 특징이다. 일반 쓰레기의 무단 투기를 막기 위해 투입구도 컵, 음료수병, 캔 등의 모양과 크기를 고려하여 손쉽게 분리 투입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 ○○신문 기사 일부

- ① 본교 통학로에서 벌어지는 재활용 가능 물품의 무단 투기가 다른 학교 통학로의 경우보다 더 심각한 문제임을 부각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 ② 버려지는 쓰레기의 대부분이 재활용품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시한다.
- ③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의 통학로에 재활용 가능 물품의 무단 투기가 많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 ④ 제안 내용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의 디자인에 대한 아이디어까지 함께 제시함으로써 시청의 업무 담당자를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도록 한다.
- ⑤ 일반 쓰레기의 발생 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는 모범 사례로 제시하여 시청의 업무 담당자가 예산 문제를 들어 제안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활용한다.

10

8048-0250

(나)를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맞춤법에 맞지 않으므로 '등꽃길'로 고친다.
- ② ㉡: 띄어쓰기가 바르지 않으므로 '할 겸'으로 띄어 쓴다.
- ③ ㉢: 문단의 통일성을 해치므로 삭제한다.
- ④ ㉣: 문단의 연결 관계를 고려하여 '이에'로 바꾼다.
- ⑤ ㉤: 문맥상 적합한 말이 아니므로 '수합하기는'으로 교체한다.

11

8048-0251

<보기>를 참고하여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동화는 어떤 소리가 주변의 소리와 같아지거나 비슷해지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 가운데 자음 동화에는 파열음인 ‘ㄱ, ㄷ, ㅂ’이 비음 앞에서 비음인 ‘ㅇ, ㄴ, ㅁ’으로 바뀌는 비음화와 ‘ㄴ’이 앞이나 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으로 ‘ㄹ’로 바뀌는 유음화가 있다. 비음화와 유음화는 조음 위치가 같고 조음 방법만 바뀌는 조음 방법 동화에 해당한다. 한편 유음화는 ‘ㄹ’이 뒤에 오는 ‘ㄴ’에 영향을 주는 순행적 유음화와 ‘ㄹ’이 앞에 오는 ‘ㄴ’에 영향을 주는 역행적 유음화로 나뉜다.

- ① ‘곡물[공물]’은 ‘ㄱ’이 ‘ㄹ’ 앞에서 ‘ㅇ’으로 바뀌는 비음화에 해당하는군.
- ② ‘설날[설:랄]’은 ‘ㄴ’이 ‘ㄹ’ 뒤에서 유음으로 바뀌는 순행적 유음화에 해당하는군.
- ③ ‘밤물[밤물]’과 ‘난로[날:로]’는 모두 뒤에 오는 소리의 영향으로 동화가 이루어졌군.
- ④ ‘말머느리[만머느리]’의 ‘ㄷ’은 ‘ㄹ’ 앞에서 파열음에서 비음으로 조음 방법이 달라지는군.
- ⑤ ‘권력[궐력]’과 달리 ‘국난[궁난]’은 조음 위치가 같고 조음 방법만 바뀐 경우에 해당하는군.

12

8048-0252

<보기>의 ㄱ~ㄷ을 통해 ‘부사’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ㄱ. 설마 너를 두고 그 사람이 벌써 떠났겠니?
 ㄴ. 그 영화를 보고 냐더니 너무도 가슴이 아팠다.
 ㄷ. 심히 험한 집이 무서워 매우 빨리 뛰어가다가 넘어졌다.

- ① ㄱ의 ‘설마’를 보니 부사가 문장의 맨 앞에서 문장 전체를 꾸미기도 하는군.
- ② ㄴ의 ‘너무도’를 보니 부사에 조사가 결합하기도 하는군.
- ③ ㄷ의 ‘매우’를 보니 문장 내에서 부사는 다른 부사를 꾸미기도 하는군.
- ④ ㄱ의 ‘벌써’와 ㄷ의 ‘빨리’를 보니 부사가 용언을 수식하는군.
- ⑤ ㄴ의 ‘너무도’와 ㄷ의 ‘심히’를 보니 부사가 체언을 꾸며 주기도 하는군.





13

8048-0253

<보기>의 ㉠과 ㉡을 동시에 만족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단어를 이루는 형태소 중에서 어근에 붙어 뜻을 제한하는 부분을 접사라 하고, 어근에 접사가 붙어 이루어진 말을 파생어라 한다. 일반적으로 접사는 어근의 앞이나 뒤에 붙어 의미를 한정하는데, 특정 접사와 결합하면 파생의 결과 ㉠품사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한편 접사 중에는 문장 구조를 바꾸는 접사가 있는데, 이러한 접사와 결합한 파생어를 사용하면 ㉡문장 구조가 달라지기도 한다.

- ① 갑자기 아파하는 딸에게 아빠가 약을 먹였다.
- ② 할아버지에게 안긴 아이는 깊이 잠이 들었다.
- ③ 어머니는 준비해 두신 양념을 뒤섞어 버무렸다.
- ④ 그 친구는 막노동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 ⑤ 사람들이 장마를 대비해 독을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

14

8048-0254

<보기>의 문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ㄱ. 여러분, 돈이라면 남기시겠습니까?
- ㄴ. 아버지께 여쭙봐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 ㄷ. 보라는 달리기 기록 단축을 달성하지 못했다.
- ㄹ. 논바닥이 갈라지고 있는데도, 비가 내리지 않았다.
- ㅁ. 곧 눈이 쏟아질 기세여서 서둘러 집으로 가고 있다.

- ① ㄱ과 ㄴ에는 동일한 상대 높임이 실현되었다.
- ② ㄴ에서는 격 조사와 특수한 어휘를 사용하여 객체 높임을 실현하고 있다.
- ③ ㄷ은 능력의 부족에 의한 부정이, ㄹ은 주체의 의지에 의한 부정이 나타나 있다.
- ④ ㄷ과 ㄹ은 모두 본용언 뒤에 보조 용언이 사용된 긴 부정문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 ⑤ ㅁ의 종속절에는 미래 시제가 나타나고, 주절에는 진행의 동작상이 나타나 있다.

15

8048-0255

<보기>의 중세 국어 자료에 나타나는 특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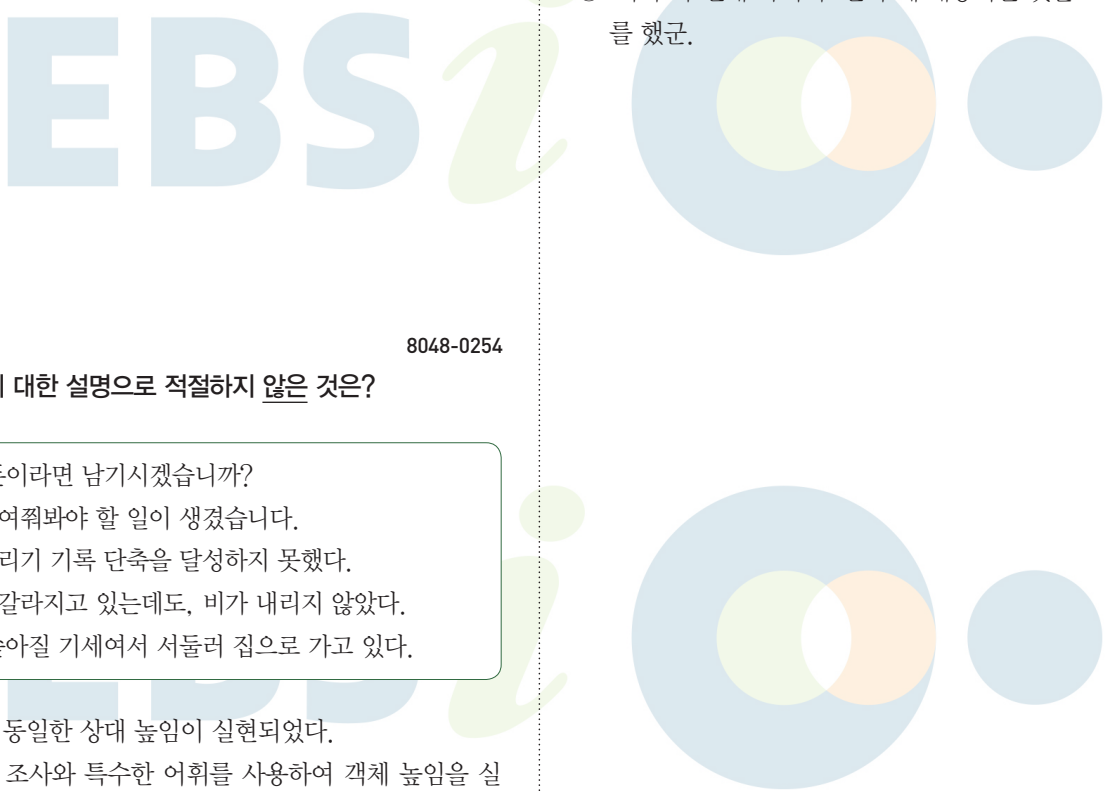
보기

물근 ㅁ꺠툥 혼 고꺠 ㅁ꺠술홀 아나 흐르느니
- 『두시언해』 초간본

[현대어 풀이]

맑은 강의 한 굽이가 마을을 안아 흐르니

- ① ‘물근’이 현대 국어의 ‘맑은’에 대응하는 것을 보니 ‘은’이라는 어미가 사용되었군.
- ② ‘ㅁ꺠툥’이 현대 국어의 ‘강의’에 대응하는 것을 보니 ‘ㅁ’이 부사격 조사의 역할을 했군.
- ③ ‘ㅁ꺠술’을 보니 현대 국어에 쓰이지 않는 모음 ‘·’와 자음 ‘ㅁ’이 쓰였군.
- ④ ‘ㅁ꺠술홀’이 현대 국어의 ‘마을을’에 대응하는 것을 보니 ‘마을’을 뜻하는 옛말은 ㅎ 종성 체언이로군.
- ⑤ ‘아나’가 현대 국어의 ‘안아’에 대응하는 것을 보니 이어 적기를 했군.



**[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법치주의는 인권 사상과 더불어 근대 국가의 핵심적 이념이다. 법치주의의 이상은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합리적인 법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권력이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집행되는 것이다. 그러나 법은 일반적·추상적이고, 현실은 개별적·구체적이다. 예외 없는 법칙은 없으며, 예외로 인해 합리적인 법치주의에는 균열이 발생한다. 이탈리아의 철학자 조르조 아감벤은 ‘호모 사케르(Homo Sacer)’라는 개념을 통해 법이 그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 예외적 상태에 주목하고, 그 속에서 권력의 본질을 포착하려고 시도한다.

‘성스러운 인간’이라는 뜻의 호모 사케르는 로마법에서 유래한 말로, 제물로 바쳐서는 안 되지만 누구나 죽일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성스럽기 때문에 제물로 바칠 수 없다는 것과 누구나 죽일 수 있다는 것 사이에는 모순이 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아감벤은, 호모 사케르는 공동체의 종교적·법적 질서로부터 추방된 자라고 규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희생 제의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그를 죽이는 행위가 살인죄를 구성하지도 않는다. 호모 사케르가 된다는 것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삶에서 아무런 보호도, 구속도 없는 자연적 삶, 즉 ‘벌거숭이 삶’으로 전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감벤은 추방을 통해 호모 사케르의 삶, 즉 벌거숭이 삶이 만들어진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이 벌거숭이 삶은 자연 질서가 아니라 법질서를 관장하는 권력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법이 등을 돌림으로써 문명화된 세계의 예외로서 호모 사케르가 만들어졌으므로 호모 사케르는 법질서에서 배제되어 있지만 바로 그 사실을 통해 법질서와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된다. 이에 따라 법질서에서 배제됨으로써 법질서 속에 갇혀 있다는 역설이 성립한다. 이러한 법과 호모 사케르의 관계를 ‘예외 관계’라고 부른다. 예외자로서 호모 사케르는 법의 영토와 무법 지대, 공동체의 안과 밖 사이에서 떠돌게 된다.

이러한 호모 사케르 개념을 바탕으로 아감벤은 우리 시대를 진단한다. 호모 사케르의 삶은 주권(자)에 의해 추방당한 삶이다. 주권 혹은 주권자는 호모 사케르와 쌍을 이루는 개념으로 사용되는데, 아감벤에게 주권은 누가 호모 사케르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이다. 주권자는 예외적 상황인 비상사태를 선포함으로써 문제가 되는 상황을 법질서 바깥으로 밀어낸다. 그뿐만 아니라 합법적으로 법의 효력을 정지시켜 자기 자신을 법에 대한 예외자가 되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도 함께 법질서의 예외로 만든다. 다시 말해서 보호받아야 할 보편적 삶과 그렇지 않은 예외적 삶 사이의 경계를 정하는 것, 즉 삶과 죽음의 경계를 정하는 것이 바로 주권이라는 것이다.

아감벤은 이 주권과 호모 사케르 사이의 관계가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근대 국가라고 본다. 아감벤에 따르면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생물학적인 의미의 삶을 뜻하는 ㉠ ‘조에(zoē)’와 사회, 정치, 문화의 맥락 속에서 규정되는 삶의 형식과 양식을 의미하는 ㉡ ‘비오스(bios)’라는 두 가지 생명 개념이 존재한다. 고대 그리스 사상에서 논의된 생명 개념은 언제나 비오스였으며, 정치화된 삶인 비오스에 비해 벌거벗은 자연적 삶인 조에는 항상 배제되어 왔다. 이처럼 배제되어 왔던 조에가 정치적 영역으로 진입하게 된 것은 근대에 이르러서이다.

고대 그리스로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정치적·법적 권리는 그가 속한 사회적 신분에 대해 부여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조에를 정치적·법적 권리의 궁극적 근거로 한 근대 인권 사상은,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권리를 가지므로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나며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본다. 따라서 과거와 달리 신분이나 종교에 따른 공식적 차별이 철폐된 사회에서 차별과 배제는 예외의 형태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예외적 영역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주권자, 즉 국가 권력이다.

이처럼 근대 국가 권력은 개인들의 신체와 삶 안으로 침투해 들어갈 수 있게 되었으며, 예외적 상황에서는 그 누구라도 호모 사케르와 같이 될 수 있다. 아감벤은 근대의 합리주의가 구축한 법의 보편적 지배 체제하에서 얼마나 많은 예외가 발생하는지, 그 예외들에 의해 서구 민주주의가 어떻게 지탱되고 있는지를 언급하면서 서구 민주주의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16

8048-0256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오늘날에도 국가 권력에 의해 개인들이 호모 사케르처럼 법의 보호망 밖으로 밀려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 ② 합리주의에 근간을 둔 법치주의의 맹점을 지적하기 위해 아감벤은 호모 사케르라는 개념을 끌어다 쓰고 있다.
- ③ 모든 인간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근대 인권 사상은 호모 사케르를 하위 개념으로 포괄하면서 그 가치를 유지해 왔다.
- ④ 근대 국가에서 주권자는 호모 사케르와 더불어 법의 예외 속에 놓일 수 있지만, 그들이 서로 동일한 입장에 처한 것은 아니다.
- ⑤ 법질서 속에서 예외가 발생하는 메커니즘으로 인해 근대 민주주의 체제하에서도 호모 사케르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발견된다.



17

8048-0257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이 아닌 ㉡만이 논의 대상에 해당했다.
- ② 근대에 이르러서야 그동안 논의에서 배제되었던 ㉠이 받아들여졌다.
- ③ 근대적 개념의 인권 사상은 ㉡이 아니라 ㉠에 의거하여 구축되었다.
- ④ 국가 권력은 ㉡에 근거를 두고 ㉠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공식화했다.
- ⑤ ㉠이 부각된 근대 법질서하에서도 국가 권력에 의한 예외들이 등장했다.

18

8048-0258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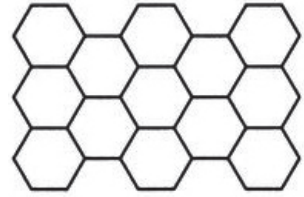
보기

정치상의 이유로 자국에서 핍박을 받거나 핍박을 받을 위험에 처해 타국으로 도피하는 사람을 '정치적 망명자'라고 한다. 국민 국가에서 개인은 원칙적으로 어느 한 국가에 속한다. 이 때문에 정치적·종교적 신조의 차이로 박해를 받을 경우 타국으로 도피하여 자신을 보호할 필요가 생긴다. 1917년 러시아 혁명 후 유럽 각국 및 미국 등지로 이주한 반소비에트파에 해당하는 백계 러시아인, 나치 독일의 박해로 인한 유대인·사회주의자·지식인의 망명 등이 그 예이다.

- ① 정치적 망명자들은 자국에서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추방당한 '호모 사케르'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군.
- ② 이 나라 저 나라를 떠돌면서 도피 중인 정치적 망명자들은 '별거숭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겠군.
- ③ 정치적 망명자들은 자신들이 '주권자', 즉 국가 권력에 의해 자국의 종교적·법적 질서에서 배제되었다고 생각하겠군.
- ④ 정치적 망명자들이 생겨나는 이유는 박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자국에서 '예외적 영역'에 놓인 사람들이 발생했기 때문이로군.
- ⑤ 특정 국가가 다른 나라의 정치적 망명자들을 받아들인다면 그들은 특정 국가의 법질서와 '예외 관계'를 맺는다고 할 수 있겠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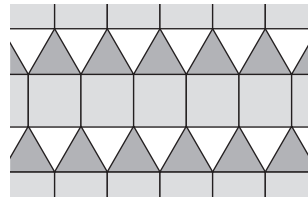
[19~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테셀레이션이란 평면에서 어떤 도형의 모양이 틈이나 포개짐이 없이 어느 방향으로나 한없이 ㉠퍼져 나가는 무늬 패턴을 가리킨다. 테셀레이션을 이루는 정다각형들은 하나의 꼭짓점에서 만나고 그 꼭짓점에서 형성되는 각을 모두 합하면 360°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 가지 정다각형으로만 테셀레이션을 이룰 때 이들 각각의 내각은 360°의 약수가 되어야 한다. 정삼각형의 한 내각은 60°이므로 한 꼭짓점에 정삼각형 여섯 개가 모이도록 배치하면 된다. 이 경우 정삼각형의 꼭짓점을 중심으로 정삼각형 여섯 개가 모이므로 (3, 3, 3, 3, 3, 3)으로 표시한다면, 정사각형은 (4, 4, 4, 4), 정육각형은 (6, 6, 6)으로 표시할 수 있다. 테셀레이션을 이룰 수 있는 정다각형은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육각형뿐이며 이들로 만들어지는 테셀레이션을 '플라톤 테셀레이션'이라고 부른다.



(6, 6, 6)

한 가지 정다각형으로만 면을 메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두 가지 이상의 정다각형을 이용해서 면을 메울 수 있는 테셀레이션을 '준-테셀레이션'이라고 한다. 수학적으로 계산하여 ㉡얻어낼 수 있는 준-테셀레이션은 총 아홉 가지이다. 준-테셀레이션 중 한 꼭짓점에 세 개의 정다각형이 모이는 경우는 (3, 12, 12), (4, 8, 8), (4, 6, 12) 세 가지뿐이다. 또 한 꼭짓점에 ㉢네 개의 정다각형이 모이는 경우는 두 가지를, 한 꼭짓점에 정다각형 다섯 개가 모이는 경우는 두 가지를 구할 수 있다. 한 꼭짓점에 정다각형 다섯 개가 모이는 (3, 3, 3, 4, 4)는 정다각형의 배열 순서에 따라 (3, 3, 4, 3, 4)와 (3, 3, 4, 4) 두 가지 경우로 구분되며, (3, 3, 3, 3, 6)도 방향에 따라 왼쪽 형과 오른쪽 형 두 가지로 구분된다. 플라톤 테셀레이션과 준-테셀레이션을 모두 합하여 '아르키메데스 테셀레이션'이라고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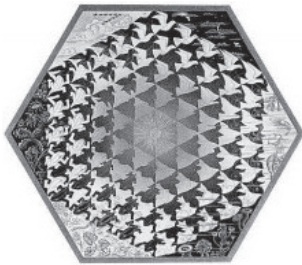
(3, 3, 3, 4, 4)

어떤 테셀레이션에서는 반복되는 무늬 패턴들이 있다. 이 무늬 패턴을 사용하면 아무런 겹침이 없이 연속적으로 무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것을 전체 디자인의 '기본 영역'이라고 하는데, 기본 영역은 가능한 한 크기가 가장 작아야 하며, 다른 영역과 겹치지 않아야 하고, 수평 이동하는 것만으로도 같은 테셀레이션을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진 기본 영역으로부터 ㉣만들어 낸 테셀레이션을 '주기적인 패턴의 테셀레이션'이라고 한다.

에스허르는 기하학적인 모자이크 무늬로 유명한 알람브라 궁전에 ㉤들어차 있는 수많은 타일 벽과 바닥의 빈틈없이 배열한



기하학적 삼각형 패턴에 영향을 받았다. 알람브라 궁전을 방문했을 때 수많은 스케치를 한 에스허르는 이를 토대로 새와 물고기 같은 캐릭터가 등장하는 기하학적인 무늬를 창조해 내기 시작했다. 그는 동일한 대칭 조작을 도입하여 테셀레이션처럼 끊임 없이 형태가 반복되는 교묘하면서도 단순한 그래픽을 창조해 냈다. 이처럼 그는 평면을 규칙적으로 채워 나가는 작업을 많이 했으며, 평면에 평행 이동, 회전 이동, 반사라는 세 가지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작품을 구상했다. 그는 특히 모자이크의 타일과 타일 사이의 경계선이 가지는 이중성에 주목했다. 하나의 경계선을 어느 한쪽의 윤곽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그림으로 보고 다른 한쪽으로는 지각 체험을 느끼도록 하면서 이러한 공간 감각을 더욱더 확대하여 전개해 나갔다.



〈Verbum〉(1942)

그는 테셀레이션 기법과 더불어 모자이크와 같이 평면을 균등하게 분배하는 평면 균등 분할 구조를 사용했다. ㉠〈Verbum〉에서는 중심부의 빛에서 삼각형 패턴이 사방으로 뻗어 나가면서 각각 하늘과 바다, 땅을 상징하는 새, 물고기, 도마뱀 등의 형상들이 흑과 백의 대비로 펼쳐진다. 하얀 무리를 인식할 때 검은 무리는 지각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검은 무리가 전경이 되면 하얀 무리는 지각되지 않는다. 규칙적으로 분할된 그의 평면 작품에서 형상들이 서로 접촉하지도, 겹쳐지지도 않으면서 ㉡이어져 있다. 한 형상은 다른 형상을 부정함으로써 존재한다. ㉢〈Sky and Water〉에서는 경계는 존재하지 않으나 이분법적으로 나뉜 가상의 공간이 개념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검은 무리에 주목하면 하늘을, 하얀 무리에 주목하면 바다를 연상할 수 있다. 물고기와 새, 흑과 백의 대비를 통해 하늘과 바다의 이미지와 상징을 보여 주지만 그 경계선은 명확하지 않다.



〈Sky and Water〉(1938)

에스허르는 이와 같은 형태 변형을 통해 작품 속 형태들의 점진적인 변화나 진화 과정을 보여 주면서 수학적 소재라고 할 수 있는 테셀레이션을 예술적 경지로 발전시켰다. 오늘날 에스허르의 작품 세계는 수학과 예술 분야 전반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

8048-0259

‘테셀레이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플라톤 테셀레이션을 이룰 수 있는 정다각형의 종류는 세 가지밖에 없다.
- ② 테셀레이션의 한 꼭짓점에서 만나는 정다각형들의 내각을 합하면 360°가 된다.
- ③ 주기적인 패턴의 테셀레이션은 ‘기본 영역’의 수평 이동만으로도 테셀레이션을 만들어 낼 수 있다.
- ④ 한 꼭짓점에 다섯 개의 정다각형이 모이는 테셀레이션은 배열 순서, 배열 방향에 따라 각각 두 가지가 있다.
- ⑤ 테셀레이션 중 한 꼭짓점에 모이는 정다각형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는 정사각형으로만 이루어졌을 때이다.

20

8048-0260

윗글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에 해당하는 사례로만 묶인 것은?

- ① (3, 4, 3, 4), (3, 4, 6, 4)
- ② (3, 3, 4, 6), (3, 6, 3, 6)
- ③ (3, 6, 3, 6), (3, 4, 3, 4)
- ④ (3, 4, 6, 4), (3, 6, 3, 6)
- ⑤ (3, 3, 4, 6), (3, 4, 6, 4)

21

8048-0261

㉠과 ㉢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 달리 ㉢은 하늘과 바다를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공간을 구성하고 있다.
- ② ㉢과 달리 ㉠은 형상과 형상 사이의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게 처리되어 있다.
- ③ ㉠과 ㉢은 모두 흑과 백의 대비를 통해 형상들을 제시하고 있다.
- ④ ㉠과 ㉢은 모두 주목하는 색깔에 따라서 지각되는 무리가 달라진다.
- ⑤ ㉠과 ㉢은 모두 평면을 균등하게 나누어 형태 변형을 보여 주고 있다.



22

8048-026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가)



(나)

(가)는 '새'의 형상을, (나)는 '천사'와 '악마'의 형상을 원에 채워 넣은 에스허르의 작품이다.

- ① (가)와 달리 (나)는 선악을 상징하는 형태의 명암 대비를 통해 대립적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있군.
- ② (나)와 달리 (가)는 하나의 형상이 다른 형상을 부정함으로써 존재하도록 유도하고 있군.
- ③ (가)와 (나)는 모두 테셀레이션처럼 형태들이 겹치지 않고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반복이 나타나는군.
- ④ (가)와 (나)는 모두 원의 중심을 축으로 회전 이동을 하면 형태들이 정확히 포개지도록 구성되어 있군.
- ⑤ (가)와 (나)는 모두 원의 중심에서 가장자리로 형상의 크기가 점차 변화하며 끊임없이 퍼져 나가게 했군.

23

8048-0263

㉠~㉥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확산(擴散)되는
- ② ㉡: 취득(取得)할
- ③ ㉢: 창조(創造)한
- ④ ㉣: 완비(完備)된
- ⑤ ㉤: 연계(連繫)된다

[24~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반적으로 규제는 개인 및 법인 등의 활동에 대해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입(介入)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국가의 규제 방식은 규제를 통해 특정한 활동 및 행위만을 허용 또는 금지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포지티브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로 나눌 수 있다.

포지티브 규제란 허용되는 영역 및 요건만을 규정하고, 그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행위를 금지하는 규제 방식으로 '원칙 금지-예외 허용 방식'이라고도 한다. 포지티브 규제의 경우에는 허용하는 내용이 법령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규제 당국에 의해 일단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로 인해 민간 부문의 경제적 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금지가 이루어지는 등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과잉 규제 내지 불필요한 규제가 이루어져 자율성 침해, 경제 활동 위축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대두(擡頭)되었다.

이와 달리 네거티브 규제란 특정한 활동 및 행위만을 금지하고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행위 또는 업무를 ㉤영위(營爲)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방식으로 '원칙 허용-예외 금지 방식'이라고도 한다. 가령 일반적인 질병과 수술에는 모두 건강 보험을 적용하되 비의료적 성형 수술과 같은 진료 서비스는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 등을 건강 보험 조항에 포함시키는 것은 네거티브 규제에 해당한다. 네거티브 규제는 모든 행위를 허용하되 규제 대상이 되는 사항, 즉 금지되는 내용만을 나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민간 부문의 자율성을 증대시키고, 과도한 규제 비용을 줄이며, 불필요하거나 이중적인 규제를 방지할 수 있다고 평가받는다.

그러나 네거티브 규제는 일부 분야에서는 과도한 규제 완화로 인해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안고 있다. 규제가 필요한 영역에도 네거티브 규제가 도입된다면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네거티브 규제의 과도한 적용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환경 및 안전 등 일반적으로 규제의 필요성이 높은 분야에 있어서는 보호하려는 공익의 크기를 따져 보아야 한다. 그 결과 사익보다 공익이 더 크다면 네거티브 규제보다는 포지티브 규제를 유지할 수 있다. 아울러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했다 할지라도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사후 규제의 대상 요건을 명확히 ㉦적시(揭示)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영업의 정지, 인허가의 취소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시각각 변해 가는 시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포지티브 규제에 비해 네거티브 규제는 현실 대응력을 ㉧제고(提高)하고, 금지요건 이외의 행위를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규제를 무조건적으로 철폐하기보다는 규제를 합리화하고, 민간의 창의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과 사



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 완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4

8048-0264

윗글의 논지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중심 화제에 대한 여러 사례를 제시한 후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② 중심 화제를 둘러싼 쟁점들을 나열하고 쟁점의 발생 빈도를 분석하고 있다.
- ③ 중심 화제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다루면서 주요 개념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 ④ 중심 화제와 관련하여 상반된 두 개념을 소개한 후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 ⑤ 중심 화제에 대한 특정 이론을 제시한 후 그 이론을 현실에 적용한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25

8048-0265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 달리 ㉡은 과도한 규제 비용을 줄여 불필요한 행정적 소모를 막을 수 있다.
- ② ㉠과 달리 ㉡은 특정한 활동 및 행위만을 금지하고 이외의 일들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한다.
- ③ ㉡과 달리 ㉠은 개인과 기업 등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많이 있다.
- ④ ㉠과 ㉡은 모두 법령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제하지 않는다.
- ⑤ ㉠과 ㉡은 모두 국가가 개입하여 민간 부문의 활동을 제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6

8048-026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수도법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상수원 보호 구역에서는 상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는 폐기물 및 유해 물질을 버리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수도법 제7조 제4항에 따르면, 상수원 보호 구역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 개축할 때는 관할 시장이나 군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상수원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강가에서 살고 있던 A 씨는 수도법 제7조 제4항에 의거하여 관할 군수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집을 증축했다. A 씨는 집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자재 및 각종 유해 물질을 강가에 방치해 두었는데, 상수원 보호 구역을 순찰하던 담당 공무원에게 적발되어 벌금형을 받았다. A 씨는 폐자재를 제때 처리하지 않은 것은 인정했으나 그것을 버린 것은 아니라고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면서 행정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수도법 제7조 제3항에 근거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 ① A 씨가 집을 증축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것은 상수원 보호 구역에 대한 포지티브 규제 조항 때문이로군.
- ② A 씨가 폐자재 및 유해 물질을 버린 행위로 처벌을 받은 것은 상수원 보호 구역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조항 때문이로군.
- ③ 상수원 보호 구역을 순찰하던 담당 공무원에게 적발되어 A 씨가 처벌받은 것으로 볼 때, 수도법 제7조 제3항에 대한 사후 규제 대상 요건이 법령으로 명시되었겠군.
- ④ A 씨가 법원에 행정 소송을 낸 것은 수도법 제7조 제4항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로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여 자신이 금지 행위를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로군.
- ⑤ 법원이 유해 물질을 방치한 A 씨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군청의 손을 들어 준 것은 상수원 보호라는 공익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이겠군.

27

8048-0267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에 끼어들.
- ② ㉡: 어떤 세력이나 현상이 새롭게 나타남.
- ③ ㉢: 일을 꾸러 나감.
- ④ ㉣: 예상이나 추측 또는 목표 따위에 꼭 들어맞음.
- ⑤ ㉤: 쳐들어 높임.



[28~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센서란 인간이 감각 기관으로 감지하기 어려운 외부 자극이나 위험을 감지하여 특정 신호로 바꾸어 주는 장치이다. 이러한 센서들 가운데 생체 물질을 이용하는 센서를 바이오센서라고 한다.

바이오센서는 검지(檢知)* 대상의 물리적·화학적 변화를 전기 신호로 변환하여 대상의 유무를 검출하는 장치로, 바이오 수용체와 변환기가 핵심적인 구성 요소이다. 바이오 수용체에는 효소나 동물 세포 등과 같은 생체 물질들을 사용하여 만든 기능성 막이 있다. 이 기능성 막은 특정 물질을 선택적으로 식별하거나 감지하는 데 활용된다. 바이오 수용체에서 특정 물질을 검지하면 변환기는 검지된 물질의 양이나 농도를 전기나 열, 빛과 같은 측정 가능한 신호로 변환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신호가 전기적 신호로 전환·증폭되어 데이터로 처리되면 검지하고자 하는 대상의 유무나 그 양을 판별할 수 있다.

바이오센서는 바이오 수용체에 어떤 생체 물질을 쓰느냐에 따라 효소 센서, 미생물 센서, 면역 센서 등으로 나뉜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효소 센서는 생체 촉매인 효소를 특정 물질과 반응시키고, 이때 생성되거나 소비된 전극 활성 물질량을 기기로 측정하여 효소 반응에 관여하는 각종 물질의 농도를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 효소는 특정 물질에만 반응하는 기질 특이성이 있어 온전한 조건에서 복잡한 생체 반응을 효율성 있게 진척시키지만, 가격이 비싸고 용액 상태로는 불안정하며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재사용할 수 있도록 효소를 가두어 사용할 수 있는 막에 효소를 고정하는 기술이 개발됨으로써 해결되었다.

미생물은 많은 효소를 가지고 있어 효소의 생산원으로 이용되는데, 미생물에서 효소를 분리해 내면 효소가 불안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효소 대신 미생물을 살아 있는 상태로 이용하는 ㉡미생물 센서가 고안되었다. 미생물 센서는 미생물을 효소와 같은 방식으로 고정화하여 사용하며, 미생물의 호흡 활성 물질을 지표로 하는 호흡 측정형 센서와 미생물이 대사하는 전극 활성 물질을 지표로 하는 전극 측정형 센서로 나눌 수 있다. 미생물 센서는 효소 센서에 비해 가격이 싼 편이며 장기간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여 발효 공업의 공정이나 환경 등의 계측에 적당하여 공업 공정의 계측에 이용되고 있으며, 수질, 토양이나 하수 내 유독성 오염 물질을 측정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사용된다. 다만 미생물 세포에는 각종 효소가 들어 있기 때문에 미생물 센서는 측정 대상이 아닌 물질에도 반응할 수 있어 측정 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면역 센서는 척추동물의 체내에서 생산된 항체가 항원을 식별하며 결합 반응을 보이는 항원·항체 반응을 활용하여 항체 또는 항원을 측정한다. 면역 센서는 항체(또는 항원)가 고정되어 있는 막이나 전극 표면에서 항원-항체 복합체를 형성할 때의 물리

적·화학적 변화를 전기 신호 변화로 검출한다. 전극을 이용한 면역 센서는 항원 또는 항체 고정화 막과 전극으로 구성되며, 항체 고정화 막은 양전하를 띠는데 음전하를 띠고 있는 단백질 등의 물질이 막 표면에 결합하면 막의 양전하가 감소하게 되어 막전위가 변화하고 이를 전극으로 측정하는 원리로 이루어진다. 면역 센서는 혈액 등의 체액에 존재하는 단백질·항원·호르몬·의약품 등의 측정에 이용되고 있다.

화학 물질의 측정은 의료·생산 공정·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진다.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이 섞여 있는 시료에서 특정 화학 물질을 선택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각종 장치, 복잡한 조작, 긴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생명체에 존재하는 생체 물질들을 이용한 바이오센서를 사용하면 이러한 측정을 간단하고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어 다양한 바이오센서가 실용화되었으며,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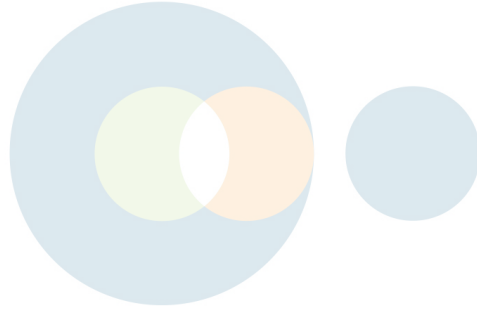
*검지: 검사하여 알아냄.

28

8048-0268

읽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바이오센서는 외부 자극이나 위험을 감지하는 데 유용한 장치이다.
- ② 바이오센서는 특정 물질을 감지한 결과를 전기적 신호로 전환한다.
- ③ 기존 효소 센서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효소를 고정하는 기술이 고안되었다.
- ④ 미생물에서 분리된 효소를 안정시키기 위해 효소를 용액 상태로 만들어 준다.
- ⑤ 면역 센서는 항원과 항체가 결합할 때의 전하량의 차이를 측정하는 바이오센서이다.





29

8048-0269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 비해 ㉡은 안정된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있으며, 가격이 저렴하다.
- ② ㉠은 효소 반응을, ㉢은 항원-항체 반응을 이용하여 특정 물질을 검출할 수 있다.
- ③ ㉠과 달리 ㉢은 생체 물질의 호흡 활성에 대한 반응을 전기 신호로 변화시킨다.
- ④ ㉠과 ㉢은 현재 상용화되어 공업 공정이나 의학 분야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 ⑤ ㉠~㉣은 모두 생체 물질을 막에 고정하는 기술을 활용하는 측정 방식을 사용한다.

30

8048-027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BOD*는 국제적인 수질 오염 지표로서 일본 공업 규격으로 BOD 측정법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조작성 복잡하고 측정 시간도 5일이나 필요하다. 그런데 폐수 처리 시설에 자주 사용되는 효모균인 트리코스포론 브라시카에를 다공성*인 아세틸셀룰로스 막 위에 흡착, 고정화한 후 산소 전극에 부착한 BOD 센서를 활용하면 쉽게 측정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 BOD 센서를 폐수에 넣으면 극소 전류값이 얻어지는데, 이 값은 폐수의 BOD값에 비례한다.

*BOD(Biochemical Oxygen Demand):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다공성(多孔性): 물질의 내부나 표면에 작은 구멍이 많이 있는 성질.

- ① 미생물인 효모균을 활용했으므로 BOD 센서는 미생물 센서에 해당하겠군.
- ② BOD 센서를 활용하면 BOD 측정법보다 간단하고 신속하게 결과를 얻을 수 있겠군.
- ③ 아세틸셀룰로스 막은 수질 오염 정도를 감지하는 생체 물질을 고정하기 위한 막으로 사용되고 있군.
- ④ BOD 측정법을 사용하는 대신 BOD 센서로 BOD를 측정해야 더 정확한 측정 결과를 얻을 수 있겠군.
- ⑤ BOD 센서를 폐수에 넣었을 때 얻어지는 극소 전류값은 효모균이 대사하는 전극 활성 물질을 지표로 얻어 낸 결과이겠군.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속 빈 떡갈나무에는 벌레들이 산다
 그 속에 벗은 몸을 숨기고 깃들인다
 속 빈 떡갈나무에는 버섯과 이끼들이 산다
 그 속에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운다
 속 빈 떡갈나무에는 딱따구리들이 산다
 그 속에 부리를 갈고 곤충을 쪼아 먹는다
 속 빈 떡갈나무에는 박쥐들이 산다
 그 속에 거꾸로 매달려 잠을 잔다
 속 빈 떡갈나무에는 올빼미들이 산다
 그 속에 등지를 틀고 새끼를 깐다
 속 빈 떡갈나무에는 오소리과 여우가 산다
 그 속에 굴을 파고 집을 짓는다

속 빈 떡갈나무 한 그루의
 속 빈 밥을 먹고
 속 빈 노래를 듣고
 속 빈 집에 들어 사는 모두 때문에
 속 빈 채 큰 바람에도 떡 버티고
 속 빈 채 큰 가뭄에도 썩 견디고
 조금 처진 가지로 큰 눈들도 싹 털어 내며
 한세월 잘 씹어 내는
 세상 모든 어미들 속

- 정끝별, 「속 좋은 떡갈나무」

(나) 고향이 고향인 줄도 모르면서
 긴 장대 휘둘러 까치밥 따는
 서울 조카아이들이여
 그 까치밥 따지 말라
 남도의 빈 겨울 하늘만 남으면
 우리 마음 얼마나 허전할까
 살아온 이 세상 어느 물굽이
 소용돌이치고 휩쓸려 배 주릴 때도
 공중을 오가는 날짐승에게 길을 내어 주는
 그것은 따뜻한 등불이었으니
 철없는 조카아이들이여
 그 까치밥 따지 말라
 사랑방 말쿠지에 짚신 몇 죽 걸어 놓고
 할아버지는 무덤 속을 걸어가시지 않았느냐
 그 짚신 더러는 외로운 길손의 길보시가 되고
 한밤중 동네 개 경경 짖어 그 짚신 짙어지고
 아버지는 다시 새벽 두만강 국경을 넘기도 하였느니라

[A]

[B]



아이들아, 수많은 기다림의 세월
 그러니 서러워하지도 말아라
 눈 속에 익은 까치밥 몇 개가
 겨울 하늘에 떠서
 아직도 너희들이 가야 할 머나먼 길
 이렇게 등 따습게 비취 주고 있지 않으나.

[C]
 - 송수권, 「까치밥」

31 8048-027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설의적 표현으로, (나)는 역설적 표현으로 대상의 특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② (가)는 어둠과 밝음을 대조하여, (나)는 높음과 낮음을 대조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가)는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나)는 부정어를 반복하여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화자의 체험을 직접 제시하면서 교훈을 이끌어 내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음성 상징어를 다양하게 사용하여 시적 배경에 생동감을 주고 있다.

32 8048-0272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이 작품에서 ‘속 빈 떡갈나무’는 썩어 그 속이 비워짐으로써 생명체를 먹고 품어 기르는 풍성한 생명의 근원으로 그려져 있다는 점에서, 이 나무는 대지 모신(大地母神)의 형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모든 생명체는 이 대지 모신의 터전에 깃들여 생태적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공동체를 형성한다. 또한 이 대지 모신은 다양한 생명체가 세대를 이어 삶을 이어 나가는 유기적 순환의 원리를 상징하기도 한다. 즉 생명이 생겨나 먹고 성장하며 죽어서는 다른 생명의 삶의 토대가 되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생성-성장-사멸’이 하나의 원을 이루며 연속되는 순환의 원리를 의미한다.

- ① 썩음과 빔의 상태로 다른 생명체들의 삶을 품고 있는 ‘어미’는 대지 모신의 형상으로 볼 수 있다.
- ② 생명체가 연속적으로 삶을 이어 나가는 원리를 썩음과 먹음의 연결, 쪼아 먹음과 새끼를 감의 연결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 ③ 생명체들의 꽃을 피움, 쪼아 먹음 등은 생성과 성장에, 몸을 숨김, 등지를 뚫 등은 성장과 사멸에 대응하여 유기적 순환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 ④ 떡갈나무의 ‘빈 속’은 ‘등지’, ‘굴’, ‘집’을 품고 있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큰 바람’, ‘큰 가뭄’, ‘큰 눈’으로부터 생명체들을 보호하는 터전임을 알 수 있다.
- ⑤ ‘속 빈 떡갈나무’에 깃들인 ‘벌레’, ‘버섯과 이끼’, ‘딱따구리’, ‘오소리와 여우’ 등의 다양한 생명체는 대지 모신의 풍성한 생명력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33 8048-0273
 의미 구조를 고려할 때, (나)의 [A]~[C]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의 ‘까치밥’은 ‘등불’로 변형된 후 [B]에서는 ‘짚신’으로 그 이미지가 대체되고 있다.
- ② [A]의 소용돌이치는 ‘물굽이’는 [C]의 ‘겨울 하늘’과 그 함축적 의미가 유사한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③ [A]의 허전함의 정서는 [B]의 외로움, [C]의 서러움을 거치면서 충만함으로 승화되고 있다.
- ④ [A]~[C]의 시상 전개를 통해 이전 세대의 삶의 지혜를 ‘조카 아이들’에게 전하는 세대 간의 소통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A]의 ‘날짐승’, [B]의 ‘할아버지’, ‘길손’, ‘아버지’, [C]의 ‘너희들’은 모두 ‘길’의 의미에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그랬다. 나는 누군가가 간섭해 주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나와 같은 4학년짜리여도 좋고 상급생이라도 상관없는 일이었다. 그랬다면 나는 말해 주고 싶었던 것이다. ㉠ 난 말이다, 너희들과는 마지막이야. 왜냐구? 난 도회지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됐단 말이야…….

그리고 또,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었을까? 어쩌면 끝내 그런 말마저 꺼내지 못했는지도 모를 일이긴 하다. 도시로 전학을 간다는 일이, 그래서 이 학교와 아이들과 낯익은 세계로부터 갑자기 떨어져 나간다는 일이 나로서는 어차피 이해할 수도, 감당하기도 어려운 경이었으므로.

얌전히 발뒤축을 쳐들고 나는 걷기 시작했다. 될 수 있는 대로 천천히 걸었지만 복도는 금세 끝나 버렸다. 아쉽다기보다 좀 싱거운 기분이 들었다. 밖에는 햇빛이 화사했다. 아이들 멧이 운동장에서 신나게 뛰놀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들 쪽으로 다가가지 않았다. 한눈도 팔지 않고 곧장 교문을 나섰다.

다음 날로 우리 가족은 마을을 떠났다. 세간살이들과 함께 짐차 위에 실린 나는 기분이 썩 좋았다. 아버지는 그래도 지난 수 삼 년간 마을의 이장직을 맡아 왔었다. 어머니는 또 누구보다 많은 일가붙이들을 이 마을에 두고 있는 처지였다. 그런데도 정작 동구 밖에 나와 손을 흔들어 주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래서 어머니는 광목 치맛자락의 한 귀로 몰래 눈물을 짖어 내곤 했다. 내 옆자리, 세간살이 틈새에 조그맣게 웅크리고 앉아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것처럼 왜소하게 느껴질 수가 없었다. 내가 드러내 놓고 기분을 낼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어머니의 그러한 태도 때문이었다.

물론 조금은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다. 나는 안다. 어느 날 밤 갑자기 일단의 사내들이 우리 집에 들이닥쳤던 것을. 그들을 안내해 온 사람은 놀랍게도 낯익은 순경이었다. 아버지와는 교분이 잦은, 면 소재지의 지서에 근무하는 순경이었다. 그런데 그가 뜻밖에도 낯설고, 난폭하고, 살기등등한 일단의 사내들을 몰고 왔던 것이다. 그들이 아버지를 얼마나 거칠게 다루었던지 지금 생각해도 마음이 아프다. 밤중에 집 안을 발각 뒤집어 놓은 다음 그들은 빈손으로 돌아갔다. 끝내 삼촌을 찾아내지 못했던 것이다. 어머니는 분명히 그날 밤의 일을 생각하고 눈물을 짖어 내는 것이리라.

아버지는 비교적 덤덤한 태도였다. 마을 어른들과 하직 인사를 나눌 때도 아버지는 평소의 그 유순한 웃음을 잃지 않고 있었다. 마을의 사랑방에서 아버지가 웃으실 때면 담 밖을 지나가던 사람조차도 그 웃음의 주인이 누군가를 단박에 알아맞힐 수 있던, 그렇듯 소탈한 웃음이었다.

(중략)

아버지는 물 대신 나에게 돈을 주셨다. 그것은 단풍잎처럼 작

고 빨간 1원짜리 종이돈이었다. 나는 곧장 한길가로 뛰어나갔다. 딸딸이 위에다 어항보다 큰 유리 항아리를 올려놓은 물장수가 거기 있었다. 항아리 속엔 온갖 과일 조각들이 얼음덩어리와 함께 채워져 있었다.

나는 꼭 쥐고 있던 돈을 한 잔의 물과 맞바꾸었다. 유리컵 속에 든 물은 짙은 오렌지빛이었다. 손바닥에 닿는 냉기가 갈증을 더 자극했다. 그러나 나는 마시지 않았다. 이 도시와 그 생활이 주는 어떤 경이와 흥분 때문에 실상은 목구멍보다도 가슴이 더 타고 있었다. 나는 유리컵을 조심스럽게 받쳐 든 채 천천히 돌아섰다. 그리고는 두어 걸음을 떼어 놓았다. 물론 나의 그 어리석은 짓은 용납되지 않았다. 나는 금세 제지를 받았던 것이다.

“이봐, 너 어디로 가져가는 거냐?”

나를 불러 세운 물장수가 그렇게 물었다. 나는 금방 얼굴을 붉혔다. 무언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러자 물장수가 다시 말했다. “잔은 두고 가야지. 너, 시골서 온 모양이로구나. 그렇지?”

나는 단숨에 잔을 비웠다. 숨이 찼다. 콧날이 쪼개지고 가슴이 팍 막혔다. 그러나 그 자리에 더 어정거리고 있을 수는 없었다. 내던지듯 잔을 돌려준 나는 숨을 헐떡거리면서 가족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왔다.

우리 세간살이들이 골목에 잔뜩 쌓여 있었다. 시골집 안방 윗목을 언제나 차지하고 있던 옛날식 옷장, 사랑채 시렁 위에 올려두던 낡은 고리짝, 나무로 만든 쌀뒤주와 조롱박, 크고 작은 질그릇 등, 판잣집들이 촘촘히 들어서 있는 그 골목길 위에 아무렇게나 부러 놓은 세간살이들은 왠지 이물스러운 느낌을 주었다. 그것들은 지금까지 흔히 보고 느껴 오던 바와는 사뭇 다른 모양이요, 빛깔이었다. 아마도 이웃인 듯한, 낯선 사람 멧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바쁜 일손을 거들고 있었다.

나는 판자벽을 기대고 웅크려 앉았다. 물맛이 어떠했는가를 생각해 보려 했지만 도무지 기억에 남아 있지 않았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어지러웠다. 속이 메스껍기도 했다. 눈앞의 사물들이 자꾸만 이물스레 출렁거렸다. ㉡ 이사를 왔다. 하고 나는 막연한 기분으로 중얼댔다. 그래, 도시로 이사를 왔다. 아주 맥 풀린 하품을 토해 내며 새삼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촘촘히 들어앉은 판잣집들, 깡통 조각과 루핑이 덮인 나지막한 지붕들, 이마를 비비대며 길 쪽으로 늘어서 있는 추녀들, 좁고 어둡고 질척한 그 많은 골목들, 타고 남은 코크스 덩어리와 검은 탄가루가 낭자하게 흩어져 있는 길바닥들, 온갖 말씨와 형형색색의 입성을 어지러이 드러내고 있는 주민들, 얼굴도 손도 발도 죄다 까맣게 탄 아이들…… 나는 자꾸만 어지럼증을 땀고, 급기야는 속엿것을 울컥 토해 놓고 말았다. 딱 한 잔 분량의, 오렌지빛 토사물이었다.

세간살이들을 대충 들여놓은 다음에 우리 가족은 이른 저녁을 먹었다. 아니 그것은 때늦은 점심이기도 했다. 어쨌거나 우리 가

[A]



족이 도시에서 가진 첫 식사였다.

밥은 오렌지 물을 들이기라도 한 것처럼 노란 빛깔이었다. 물이 나쁜 탓일 거라고 아버지가 말했다. 공동 펌프장에서 길어 온 그 물은 역할 정도로 악취가 심했다.

“시궁창 바다에다가 한 자 깊이도 안 되게 박아 놓은 펌프물이니 오죽할까요…….”

어머니는 아예 손갈을 잡을 생각조차 없는 듯 조그만 목소리로 중얼대기만 했다.

“내다 버린 구식물을 다시 퍼마시는 거나 다름없지 뭐예요.”

하지만 나는 심한 허기에 시달리고 있던 판이었다. 게다가 어쨌든 귀한 이밥이었다. 식구들 중에서 제일 먼저 한술을 떠 넣었다. 그러고는 생전 처음 입에 넣어 보는 음식처럼 조심스레 씹었다. 쇠내 같은, 아니 쇠의 녹 냄새 같은 게 혀끝에서 달착지근하게 느껴졌다. 다시 한 손갈을 퍼 넣었다. 그러자 저 오렌지빛의 물을 마시고 냇을 때처럼 속이 다시 출렁거리기 시작했다.

이래저래 피곤한 하루였다. 남뭇불을 켤 것도 없이 우리 가족은 일찌감치 자리를 펴고 누웠다. 조그만 방 하나가 우리 가족이 차지한 공간의 전부였다. 바닥도 벽도 천장도 죄다 판자쪽으로 둘러친, 그것은 방이라기보다 흡사 커다란 나무꺾꽂 같은 느낌을 주었다. 그나마 세간살이들이 차지하고 남은 공간에 도무지 네 식구가 발을 뺨고 누울 재간이 없었다. 나는 결국 윗목에 놓인 장롱 위에다 따로 요태기를 깔고 이 층 잠을 자기로 했다.

피곤한 탓이라, 다들 금세 곯아떨어졌다. 그러나 나는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허공에 떠 있는 것같이 잠자리가 도무지 불안할뿐더러 속도 계속 편칠 못했다. 게다가 판자벽 하나를 사이에 둔 이웃 방에서부터 밤늦도록 낮선 사람들의 목소리가 건너왔다. 나는 자꾸만 몸을 뒤채었고, 그럴 때마다 낯은 장롱이 삐걱거렸다. 그러다 어느 순간엔가 깜박 무겁고 아득한 잠의 벼랑 밑으로 굴러떨어졌는데 기이하게도 그 짧은 순간에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하고 웃음을 지었다. ㉠우린 어쩌면 장난감 도시로 잘못 이사를 온 건지도 몰라…….

- 이동하, 「장난감 도시」

34

8048-0274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도시로 이사 온 첫날 ‘나’는 쉽사리 잠을 이루지 못했다.
- ② ‘나’의 가족은 도시의 빈민들이 사는 곳으로 이사를 왔다.
- ③ ‘나’의 가족은 삼촌과 관련된 일이 있을 후 고향을 떠나왔다.
- ④ 물장수는 ‘나’의 행동에서 ‘나’가 시골에서 왔음을 알아챘다.
- ⑤ 아버지와 어머니는 고향 사람들의 환송에 서운한 마음을 달랬다.

35

8048-0275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이 작품은 시골 출신의 어리거나 젊은 주인공이 도시에 와서 도시적 삶을 경험하게 되는 과정을 그린 소설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도시는 금전 경제의 지배, 온갖 부류의 다른 성분을 가진 사람들의 군집, 비좁은 주거 공간, 불결한 생활 환경, 가난과 폭력 등이 존재하는 세계이다. 주인공은 낮익은 시골의 세계에서 분리되어 이와는 대조적인 도시와의 만남을 통해, 낯선 도시적 삶을 고통스럽게 경험하고 배우면서 점차 그곳에 적응해 간다.

- ① ‘나’에게 ‘도회지 학교’로의 전학은 도시적 삶의 경험과 배움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어.
- ② ‘나’가 ‘돈’을 ‘한 잔의 물’과 맞바꾼 것은 금전 경제가 지배하는 도시와 만나는 낯선 경험이었음을 알 수 있어.
- ③ ‘나’는 ‘온갖 말씨와形形色색의 입성’을 드러내는 ‘주민들’을 보면서 그러한 낯선 존재들에 적응해 나가야 한다는 다짐을 하고 있어.
- ④ ‘공동 펌프장’의 물로 지은 밥을 먹고 속이 출렁거린 것은 도시의 불결한 환경에 노출된 ‘나’의 도시 경험과 그에 대한 반응으로 볼 수 있어.
- ⑤ ‘나무꺾꽂 같은 느낌’을 주는 ‘조그만 방’은 도시의 비좁은 주거 공간에 대한 ‘나’의 낯선 느낌을 보여 주고 있어.



36

8048-0276

〈보기〉를 바탕으로 [A]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 작품은 소년인 ‘나’를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 서술은 성인이 된 시점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A]에는 이러한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 ① ‘그날 밤의 일’을 소년인 ‘나’의 시각에서 서술함으로써 당대의 시대 현실을 소년이 경험한 차원의 것으로 한정시키고 있다.
- ② ‘낮익은 순경’이 몰고 온 ‘낮설고, 난폭하고, 살기등등한 일단의 사내들’은 소년이었던 ‘나’가 받은 강한 인상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 ③ ‘그들이 아버지를 얼마나 거칠게 다루었던지 지금 생각해도 마음이 아프다.’는 성인이 된 시점에서 ‘나’가 하는 생각을 담 아낸 것이다.
- ④ ‘어머니는 분명히 그날 밤의 일을 생각하고 눈물을 찍어 내는 것이리라.’에서는 성인이 된 시점의 ‘나’가 자신의 기억을 불 신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 ⑤ ‘조금은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다.’에서 ‘조금은’은 고향을 떠나올 당시의 시점에서 ‘나’가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37

8048-0277

윗글에서 ㉠~㉣과 같은 ‘나’의 독백적 진술을 통해 드러내려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도시에 대한 ‘나’의 심리가 변해 가는 추이를 보여 준다.
- ② ‘나’가 도시에 오게 된 이유를 탐색하는 과정을 보여 준다.
- ③ ‘나’가 고향에 있는 친구들을 그리워하게 된 계기를 보여 준다.
- ④ ‘나’가 고향과 도시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갈등해 온 양상을 보여 준다.
- ⑤ 도시에 대한 ‘나’의 이해가 가족들의 그것과 달라지는 과정을 보여 준다.

[38~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비금주수(飛禽走獸)*는 여섯 가축이 되었거늘

달 아래 고기 낚고 구름 속에 밭을 갈아

먹고 못 남아도 그칠 때는 없노라

무진(無盡)한 강산과 허다(許多)한 경작하지 않고 놀리는 땅은

자손에게 물려주거니와 명월청풍(明月淸風)은

나눠 주기 어려우니 재주 있든 없든

부모 뜻에 따라 효도하는 아들 하나 태백(太白), 연명(淵明)

의 증서로 / 길이 물려주리라 나의 이 말이

우환(迂闊)한* 듯하지만 자손 위한 계책은

이것뿐인가 여기노라

또 어리석은 이 몸은

인자(仁者)도 아니요 지자(智者)도 아니로되

산수(山水)에 벽(癖)이 생겨 늙을수록 더하니

저 귀(貴)한 삼공(三公)과 이 강산을 바꿀쏘나

어리석고 미친 이 말에 웃기도 하겠지만

아무리 웃어도 나는 좋게 여기노라

하물며 명시(明時)에 버려진 몸이 할 일이 아주 없어

세간(世間) 명리(名利)란 뜬구름 본 듯하고

아무런 욕심 없이 물외심(物外心)만 품고서

이내 생애(生涯)를 산수 간(山水間)에 부쳐 두고

길고 긴 춘일(春日)에 낚시대 비껴 쥐고

갈건(葛巾) 포의(布衣)로 조대(釣臺)에 건너오니

산우(山雨)는 잠깐 개고 태양이 쬐는데

맑은 바람 더디 오니 경면(鏡面)이 더욱 밝다

㉠ 검은 돌이 다 보이니 고기 수를 알리도라

고기도 낮이 익어 놀랄 줄 모르니

차마 어찌 낚겠는가

낚시 놓고 배회(徘徊)하며

물결을 굽어보니 운영천광(雲影天光)*은

어리어 잠겼는데 어약우연(魚躍于淵)*을

구름 위에서 보는구나 문득 놀라 괴이하여

아래를 두루 굽어 살피고 위를 우러러보니 상하천(上下天)이

완연(宛然)하다 / 한 줄기 동풍(東風)에 어찌하여 어적(漁笛)이

높이 불어오는가 강천(江天)이 적적한데

반갑게도 들리는구나 임풍(臨風) 의장(倚杖)*하여

좌우(左右)로 돌아보니 대중(臺中) 청경(淸景)이

아마도 깨끗하구나

물도 하늘 같고 하늘도 물 같으니

벽수(碧水) 장천(長天)은 한 빛이 되었거든

[A] 물가에 백구(白鷗)는 오는 듯 가는 듯

그칠 줄을 모르네

- 박인로, 「노계가」



- *비금주수: 날짐승과 길짐승.
- *우활한: 사리에 어둡고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 *운영천광: 구름 그림자와 하늘 빛.
- *어약우연: 못 속에서 고기가 뛰어놀.
- *임풍 의장: 지팡이를 짚고 바람을 맞음.

(나) ㉠지당(池塘)에 활수(活水)* 드니 노는 고기 다 헬로다
 송음(松陰)에 청뢰(淸籟)* 나니 금슬(琴瑟)이 여기 있다
 앉아서 보고 듣거든 돌아갈 줄을 모르노라 <제2수>

┌ 솔 아래 길을 내고 못 위에 대를 싸니
 [B] 풍월(風月) 연하(煙霞)는 좌우(左右)로 오는고야
 └ 이 사이 한가히 앉아 늙는 줄을 모르리라 <제3수>

집 뒤에 자차리 뜯고 문 앞에 맑은 샘 길어
 기장밥 익게 짓고 산채羹(山菜羹) 무로 삶아
 조석(朝夕)에 풍미(風味)가 족(足)함도 내 분인가 하노라
 <제5수>

도원(桃源)이 있다 하여도 예 듣고 못 봤더니
 홍하(紅霞)* 만동(滿洞)하니 이 진짓 거기로다
 이 몸이 또 어떠하뇨 무릉인(武陵人)인가 하노라 <제14수>
 - 김득연, 「산중잡곡」

- *활수: 흐르는 물.
- *청뢰: 맑은 바람 소리.
- *홍하: 해 주위에 보이는 붉은 노을.

38

8048-0278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조선 시대 강호 시가에서의 자연은 17세기에 들어서면서 성리학적 도(道)를 탐구하고 심신을 수양하는 이념적 성격이 약화되고, 현실 생활의 터전이자 그 아름다움을 즐기는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강화된다. 그래서 17세기 강호 시가에는 구체적 생활의 모습이 잘 드러나며, 자연을 즐기는 흥취와 자신의 삶에 대한 자족감의 표출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 ① (가)의 ‘달 아래 고기 낚고 구름 속에 밭을 갈아’와 (나)의 ‘집 뒤에 자차리 뜯고 문 앞에 맑은 샘 길어’ 등에 화자의 생활 모습이 구체화되어 있다.
- ② (가)의 ‘인자도 아니요 지자도 아니로되’와 (나)의 ‘무릉인가 하노라’에는 성리학적 심신 수양에 대한 화자의 인식 전환이 나타나 있다.
- ③ (가)의 ‘아무리 웃어도 나는 좋게 여기노라’와 (나)의 ‘내 분인가 하노라’에는 화자 자신의 삶에 대한 자족감이 담겨 있다.
- ④ (가)의 ‘조대’와 (나)의 ‘대’는 화자가 현실 속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가)의 ‘임풍 의장하여 / 좌우로 돌아보니’와 (나)의 ‘앉아서 보고 듣거든’에서 자연의 흥취를 즐기는 화자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

39

8048-0279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하늘’, ‘물’, ‘물가’로 시선이 옮겨 가면서 화자의 갈등은 점차 깊어지고 있어.
- ② ‘벽수’와 ‘장천’은 화자 내면의 갈등을, ‘한 빛’은 그 갈등의 극복을 상징하는 것 같아.
- ③ ‘오는 듯 가는 듯 / 그칠 줄을 모르네’는 끊임없이 갈등에서 벗어나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 ④ ‘한 빛’과 ‘오는 듯 가는 듯’은 구분과 경계가 사라진 자연에 일체감을 느끼는 화자의 심적 상태와 관련이 있을 거야.
- ⑤ ‘물도 하늘 같고 하늘도 물 같으니’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화자는 ‘백구’로 상징되는 이념적 지향을 단념하고 있어.



40

8048-0280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풍월’, ‘연하’는 화자가 느끼는 한가함의 정서와 긴밀하게 조응하고 있다.
- ② ‘늙는 줄을 모르리라’는 자연에 동화된 화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③ 화자는 ‘술’과 ‘못’, ‘풍월’과 ‘연하’ 등의 자연에 통합된 이미지로 그려져 있다.
- ④ ‘길’과 ‘대’의 대비, ‘풍월’과 ‘연하’의 대비를 통해 ‘늙음’의 이미지가 긍정적인 것으로 전환되고 있다.
- ⑤ ‘이 사이’는 ‘술’과 ‘못’, ‘풍월’과 ‘연하’로 둘러싸인 조화로운 공간으로 그려져 있다.

41

8048-0281

㉠과 ㉡이 공통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물이 맑고 투명함.
- ② 물이 넓게 퍼지며 흘러감.
- ③ 물에서 노는 고기들이 많음.
- ④ 물의 깊이를 짐작할 수 없음.
- ⑤ 물보다 노는 고기에 더 주목함.

[42~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까치는 사치스러운 집을 짓고 잔치를 베푸는 데 몹시 분주하여 비둘기를 청하지 못한다. 평소 악행을 일삼는 비둘기는 이를 분하게 생각하여 까치집을 빼앗아 차지할 궁리를 하고 낙성연에 온다. 잔치를 훼방하는 비둘기를 까치가 꾸짖자 비둘기가 까치를 차서 죽게 만든다. 암까치가 고변하자 보라매(군수는 현장에 있던 새들을 취조하지만 모두 핑계를 대고 빠져나가므로 섬동지(蟾同知)를 불러들인다.

차시에 두민(頭民) 섬동지의 이름은 두꺼비요, 자는 불룩이라. 일찍 육도삼략과 손오병서에 능통하는지라. ㉠이전 쥐나라와 싸울 적에 다람쥐의 도원수 되어 쥐나라를 파(破)하니 다람쥐 그 공으로 노직동지(老職同知) 가자(加資)를 주시니, 그러므로 세상이 ‘섬동지’라 하니 동지의 의사가 창해(滄海) 같아 그 큰 일도 옮겨 하고 옳은 일도 그르게 하더니, 마침 비둘기 처의 동생이 심야에 찾아가 금백 주옥(金帛珠玉)과 채단을 많이 주며 이르되,

“동지님의 창해 같사온 도량으로 이 일을 주선하와 아무쪼록 희살(戲殺)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지 답 왈,

“돈 있으면 귀신도 부릴 수 있다.’ 하였으니 염려치 말라. 내 들으니 책방(冊房) 구진과 수청기생 앵무가 총애를 받는다 하니 금은보패를 드러 좌우에 청촉(請囑)한 후에 여차여차하자.”

하고, 약속을 정하고,

“각청(各廳) 두목과 제번 관속(官屬)에게 뇌물 쓰고 이리리 하면 아무도 없는 외로운 암까치 어찌할 수 없으리니 그런즉 희살이 되리라.”

비둘기 크게 기뻐하며 그 말같이 하니라. 섬동지 관령(官令)을 좇아 잡혀가니 나이 팔십이라. 숨이 차서 배때기를 불룩이며 눈을 껌벅거리고 입을 넘적이며 여짜오되,

“명정지하(明政之下)에 일호(一毫)나 기망(欺罔)하리이까*, 본대로 아뢰리이다.”

하되, 군수 보라매 크게 기뻐하며 가까이 앉히고 묻기를,

“너를 보니 나이 많고 점잖은 백성이라 추호(秋毫)도 숨기지 말고 이실직고(以實直告)하라.”

섬동지 일어 절하고 다시 여짜오되,

“이 늙은 것이 남의 지극히 원통한 일을 어찌 조금이나 기망하리이까? 저는 근본이 기어 다니는 짐승이오나 나이 많은 연고로 두민(頭民)이라 하와 까치 낙성연(落成宴)에 참여하여 보은 즉 삼천 우족(羽族)을 다 청하였으되 오직 비둘기를 청치 아니하였기로 괴이 여겼삼더니, 원근 까치와 비둘기가 싫어하는 뜻이 있삼던데 마침 비둘기 지나는 것을 까마귀가 청하여 말석에 참여하고 이르되, ‘오늘은 봉황 대군의 국기일(國忌日)*인데 풍악이 불가하다.’ 하온즉, 까치 취중에 화를 내어 비둘기를 꾸





짓어 왈, ‘남의 잔치에 왔으면 음식이나 주는 대로 먹고 갈 것 이어늘 청치 아니한 데 와서 묻지 아니하는 말을 하느다.’ 하 되, 모든 객이 그 말이 옳다 하거늘 비둘기 무료(無聊)하여* 왈, ‘저놈이 제 잔치에 왔다 하고 날더러 욕하는 것이 구태여 나에 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속담에 ‘팽두이숙(烹頭耳熟)이라’ 하였 으니 제객(諸客)인들 어찌 부끄럽지 아니하리오. 국기일에 풍 류 연락(風流宴樂)이 만일 알려지면 중죄를 당할 것이니 돌아 감이 옳다.’ 하온즉, 여무져서 빈틈없는 까치 기분을 이기지 못 하여 비둘기에 달려들어 걷어찰 적에 수만 장 높은 가지에 허 전하여 떨어져 죽으니 유아이사(由我而死)라 하고 비둘기가 정범(正犯)이 되었나이다.”

하되, 군수 그 말을 듣고 섬동지를 돌려보낸 후,
“이 일을 어찌할꼬?”

하니, 책방 구진이 뇌물을 받았는고로 이때에 아뢰되,

“나도 염탐하온즉 비둘기 애매할시 분명하더이다. 성정이 몹시 급한 까치 조금히 제결에 질려 죽고 못 깐 것을 애매한 비둘기 로 정범을 삼으니 어찌 원통하고 억울하지 아니하리오?”

말할 적에 앵무새 여짜오되,

“비둘기의 처가 소녀의 사촌이오니 복원(伏願) 사또님은 헤아 려 주시옵소서.”

하며 애걸하니, 군수 즉시 회살을 상부에 보고한 후 정범을 잡아 들여 국문하니 비둘기 울며 아뢰되,

“제가 근본 충효를 본받고자 하여 사서삼경과 외가서(外家書) 를 많이 보았으니 족히 육십사괘(六十四卦)를 짐작하오며 충 효를 본받고자 하옵더니, 금년 정월분에 종급새 딸밤 각시로 더불어 신수를 보온즉 ‘금년 수(數)가 불길하와 관재(官災) 구 설수(口舌數)가 있으니 연락(宴樂)하는 곳에는 가지 말라.’ 하 는 것을 정녕히 알지 못하옵기로 무심히 알았삽더니, 까치 낙 성연에 우연히 지나옵다가 ㉠이 지경을 당하오니 오는 수는 면(免)하기 어렵단 말이 옳사오며 일 전(前)에 어려운 줄을 알 지 못한단 말이 옳사외다. 저 암까치 사리도 알지 못하고 저를 모함하였사오니 제 사생(死生)은 명찰하신 사또 처분에 있사 오니 아뢰올 말씀 없나이다.”

하거늘, 군수 다 들은 후,

“감영(監營) 회신을 기다려 결처(決處)하리라.”

하고, 엄히 가두었더니, 일일은 회답이 왔거늘 형벌을 드디어 결 처하되 증인들은 방송하고* 정범은 엄형(嚴刑) 삼차에 방출하거 늘, 비둘기 크게 기뻐하여 춤추며 하는 말이,

“큰 죄를 면키 어렵단 말은 허언(虛言)이요, 돈이 있으면 귀신 도 부린다는 말이 옳도다.”

하며, 의기양양하며 돌아가는지라.

슬프고 애달도다. 이적에 암까치 주야로 대살(代殺)하기를* 바 라더니 회살됨을 보고 분함을 이기지 못하나 할 수 없어 지아비

시신을 붙들고 하늘을 우리러 슬피 통곡하더라.

- 작자 미상, 「까치전」

- * 회살되게: 장난을 하다가 잘못하여 죽게 한 것으로
- * 기망하리이까: 속이겠습니까.
- * 국기일: 임금이나 왕후의 제삿날.
- * 무료하여: 부끄럽고 열없어.
- * 방송하고: 죄인을 감옥에서 나가도록 풀어 주고.
- * 대살하기를: 살인자를 사형에 처하기를.

42

8048-0282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구진은 군수에게 섬동지의 말에 동조하는 의견을 말했다.
- ② 군수는 섬동지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리라는 기대를 가 졌다.
- ③ 섬동지는 구진과 앵무에 대한 군수의 총애를 이용하여 제책을 꾸몄다.
- ④ 감영에서 군수를 통해 내린 처분은 암까치의 기대와는 상반된 것이었다.
- ⑤ 비둘기 처의 동생은 비둘기에 대한 섬동지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애를 썼다.



43

8048-0283

〈보기〉를 참고하여 밑줄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우화(寓話)는 인격화한 동식물이나 기타 사물을 주인공으로 하여, 인간 사회의 세태 및 부조리를 풍자하려는 작가의 의도를 담고 있는 이야기이다. 이 작품은 우화의 형식을 빌려 지방 토호와 권력의 그늘에 있는 관속들이 결탁하여 재물을 탐하던 조선 후기의 사회상을 적나라하게 서술하고 있다. 또한 이 작품에는 의리(義理)와 도덕을 중시하는 이전의 윤리 의식이 무너지고 빈부 격차가 심화되었으며 경제적 부를 둘러싼 백성들 간의 다툼도 첨예해진 현실과 함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관리들마저도 올바른 방도를 찾지 못하여 무능하거나 재물에 의해 농락을 당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 ① 뇌물을 받고 진상을 은폐하는 섬동지, 구진은 토호와 관속의 결탁을 전형적으로 보여 준다.
- ② 까치의 죽음을 둘러싼 섬동지와 암까치의 대립은 빈부 격차가 심화된 현실을 보여 준다.
- ③ 뇌물을 받은 구진의 말을 믿으며 앵무의 청원을 받아들이는 보라매는 무능한 관리의 전형을 보여 준다.
- ④ ‘돈 있으면 귀신도 부릴 수 있다.’는 섬동지와 비둘기의 말은 이전의 윤리 의식이 무너진 사회상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 ⑤ ‘각청 두목과 제번 관속’에게 뇌물을 쓰라는 섬동지의 말은 관속들이 재물을 탐하는 현상이 널리 퍼져 있었음을 보여 준다.

44

8048-028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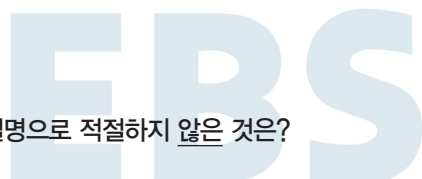
- ① 두꺼비가 ‘섬동지’로 불리게 된 연유가 나타나 있다.
- ② ‘창해 같아’는 ‘동지의 의사’를 반어적으로 비유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 ③ 두꺼비가 쥐나라와 싸웠던 시절에 대한 ‘세상’의 평가가 변화하는 과정이 나타나 있다.
- ④ 두꺼비가 ‘그런 일도 옳게 하고 옳은 일도 그르게 하더니’는 사건 전개 방향에 대한 암시로 볼 수 있다.
- ⑤ ‘그런 일도 옳게 하고 옳은 일도 그르게 하더니’에서 두꺼비에 대한 서술자의 부정적 태도를 엿볼 수 있다.

45

8048-0285

‘비둘기’의 말로 보아 ㉡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연이어 닥친 불행에 운명을 한탄할 수밖에 없다.
- ② 모함을 받고 있음에도 주변에 도와줄 이 하나 없다.
- ③ 뜻하지 않게 저지른 잘못에 너무 큰 벌을 받게 되었다.
- ④ 뜻밖의 불행을 만나 억울하게 책임을 뒤집어쓰게 되었다.
- ⑤ 충효를 본받아 살아온 삶이 순간의 실수로 헛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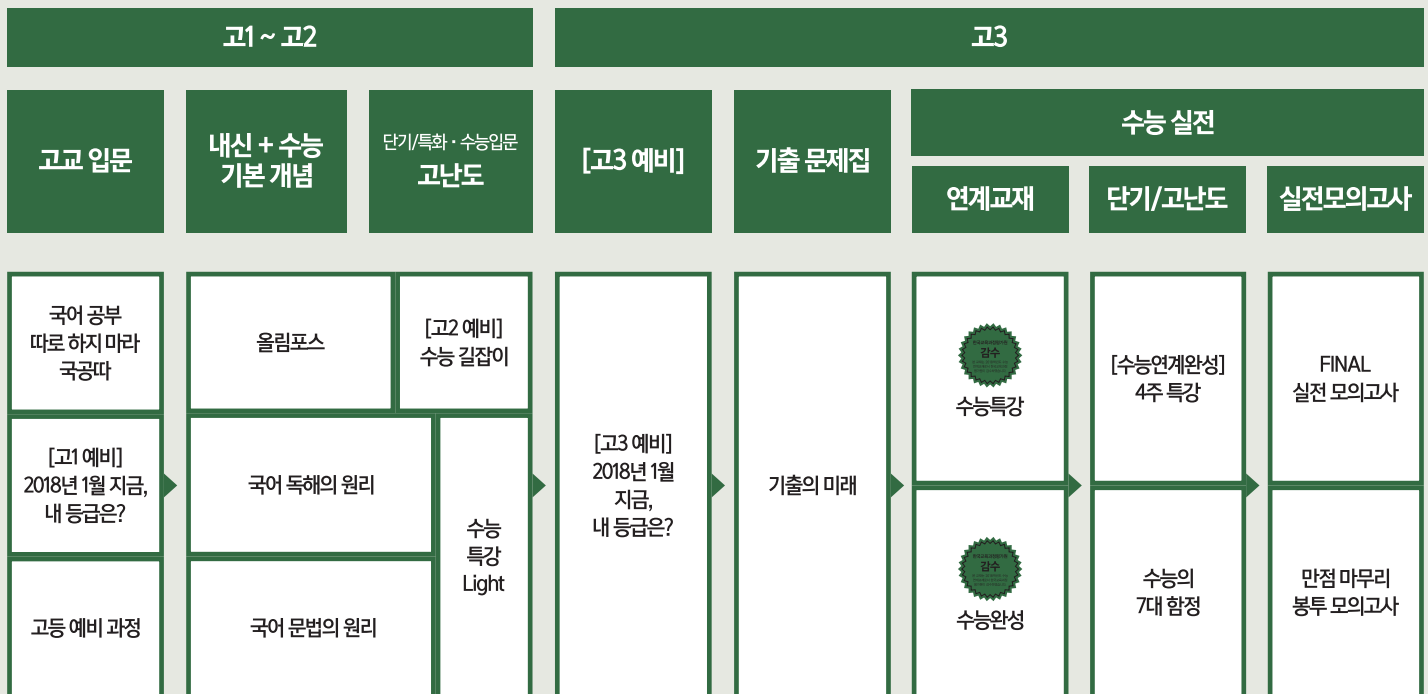


내신·수능 대비 추천 학습 로드맵 | 국어

고교 교재 선택,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EBS 과목별 고교 교재 시리즈로 선택만 하면 됩니다.

꼭 필요한 교재가 모두 준비된 EBS 고교 시리즈, 이제 학습 수준과 목표를 확인하고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수능의 7대 함정

자꾸 틀리고, 누구나 틀리고, 아쉽게 틀리는!
최고 오답률 문제, 함정 탈출 해법서